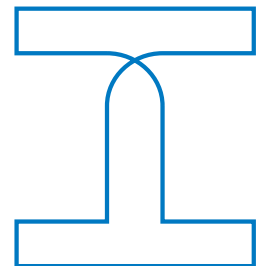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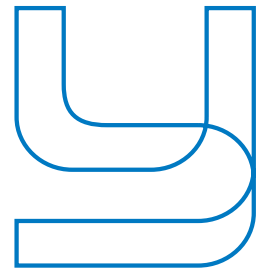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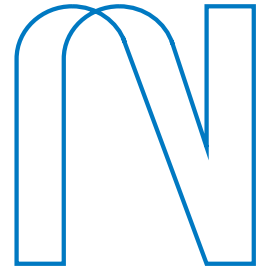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장근영

공동연구원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성은모(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진성희(인하대학교 · 교수)
최효선(서울대학교 · 교육연구소 박사)
김균희(인하대학교 · 연구원)
- ▶ 연구보조원 : 이재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발 간 사 ■ ■ ■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라 일컬음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려는 역량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미래사회에서 핵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의 역량과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삶에서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등 생활전반에 걸쳐 필요한 역량은 과연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라는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며,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내세워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등을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시대적 변화와 정부의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청소년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라는 정책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2014년부터 2017년도 까지 진행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CCS 2016’의 3차년도 연구과제로서 2014년~2015년 수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을 경험·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를 재검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교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을 IEA의 국제 청소년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CCS 2016)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국제수준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정책 및 제도적 부분을 점검하고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드림

국 문 초 록

21세기 이후의 세계를 특징지을 수 있는 단어는 불확실성이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지식과 정보는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인간이 처리해야 할 정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와는 차별화된 개인의 역량이 요구된다. 갈수록 유통기한이 짧아지는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핵심역량 증진에 관심을 갖고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그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1차년인 2014년도 과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청소년 역량지수개발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와 IEA의 ICCS (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 2016와 같이 국제수준에서 청소년의 역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정책연구의 3차년도 연구이자 2015년도 2차년도 연구의 후속연구이다. 올해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를 통해 측정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주적 역량의 국제비교를 위한 IEA 국제 청소년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CCS 2016)의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2016 청소년 역량지수의 실태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초·중·고등학생 10,319명 대학생 1,000명 등 총 11,319명이 참여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도구는 청소년 역량지수를 구성하는 5개 역량 역량군(생애학습역량 24문항, 생활관리역량 35문항, 진로개발역량 25문항, 대인관계역량 29문항, 사회참여역량 47문항)을 중심으로 16개의 하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160문항으로 단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단순화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기존 242문항에서 160문항으로 82문항을 축소하였고, 단축문항으로 측정된

자료의 신뢰성과 정규성이 재확인되어 타당함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2015년도 문항으로 측정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결과 값과 2016년도 단축문항으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를 측정한 결과 값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단축형 측정문항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둘째,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전체 평균은 2.92($SD=.31$)이며, 이를 4점 만점 기준으로 100%로 환산해 보면,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89($SD=.37$), 72.25%, 생활관리역량 평균은 3.08($SD=.38$), 77.00%,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2.92($SD=.40$), 73%, 대인관계역량 평균은 3.00($SD=.45$), 75.00%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평균은 2.70($SD=.35$), 67.50%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은 생활관리역량 지수가 가장 높고, 대인관계역량, 진로개발역량, 생애학습역량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를 청소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초기 청소년) 평균은 2.96($SD=.36$), 74%, 중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91($SD=.28$), 72.75% 고등(후기 청소년) 평균은 2.90($SD=.28$), 72.50%, 대학(후기 청소년) 평균은 2.88($SD=.24$), 72%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별로 청소년 역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청소년 역량은 청소년 시기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항상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를 청소년 시기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는 성별에 따라 초등(초기 청소년)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중등과 고등(중기 청소년)을 지나고 대학(후기 청소년)으로 갈수록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남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면서도 현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는 부산지역 청소년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대전, 인천, 그리고 울산이 2.95, 서울과 전남이 2.94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2.87, 세종, 경북과 경남이 2.86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준거타당도와 예측타당도를 살펴보면, 청소년 역량지수의 각 역량군에 따른 변인들은 해당 역량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분석에

있어 정적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통한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이 각 역량이 지향하는 개념적 특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역량군에 따른 수행변인과의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에 있어서도 정적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가 해당 변인들의 수행변인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가 높다는 것이 관련 역량에서 나타나는 행동지표의 양적 횟수가 높고 질적 수준도 높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 세계 25개국이 참여하는 2016년도 국제시민의식 및 시민성 비교연구(ICCS 2016) 본조사는 총 106개 중학교 2학년 학생 3,004명과 담당교사 1368명, 교장 106명을 대상으로 IEA의 조사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였으며 IEA 본부로 조사결과의 입력과 제출이 완료되어 2017년에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국내 청소년 역량정책과 OECD가입국 중심으로 해외 청소년역량 관련 정책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분석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FGI를 통해 새로운 청소년역량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청소년정책 실무자 대상 정책협의회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 및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법적 제도 개선방안, 청소년 역량 교육 프로그램 개발방향, 청소년 역량 전문가 전문성 강화 방향, 청소년 역량 시설 확충 및 예산 확보방안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강조하여 제안하였다.

핵심어: 청소년역량, ICCS 2016,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 본 연구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의거하여 시작되었음.
-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와 정책실행에 나서고 있음.
 - OECD는 DeCeCo 프로젝트(OECD, 2005)를 통해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미래교육의 목표로 제시, 뉴질랜드는 2007년부터 Shifting the Frame 정책으로 기존의 교과체계를 핵심역량중심으로 과감하게 통합·개편, 유럽연합(EU)은 2014년부터 Erasmus+ 사업으로 비형식 교육형태의 모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을 통합, 2020년까지 18조원의 예산을 투입예정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을 측정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청소년 역량 정책의 필요성과 시급성, 정책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14년 1차 연구에서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성인기)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행동특성으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에서 경험하고 충족시켜야 할 능력(지식, 기술, 태도)'라 정의하고 청소년 역량의 구성요인을 생애학습역량(사고력, 지적도구활용), 생활관리역량(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대인관계역량(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그리고 사회참여역량(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 5개의 역량군과 16개의 하위역량 지수체계를 제시하고 측정도구를 개발
 - 2015년 2차 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로 실태조사를 실시, 한국청소년들의 역량 현황을 사회인구학적으로 분석,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척도 축약을 위한 기초자료 구성
 - 3차 년도인 올해 연구에서는 축약한 청소년 역량척도의 측정결과와 실제 역량에 관련된 수행지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과 전년도에 발견된

한국청소년 역량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 또한 시민역량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ICCIS 2016)에 참여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실태 국제비교 자료를 축적하였음

2. 연구 목적

- 2차 연구과제에서 타당성이 확인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축약판을 사용, 청소년 역량 진단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한국청소년들의 역량 현황을 진단하고 역량 영역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을 제시
- IEA ICCS 2016 본조사를 통해 한국청소년들의 시민역량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자료를 수집
- 국내외 청소년역량정책 사례들을 역량영역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향후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의 기초자료 축적
-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내 조사와 국제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 청소년의 역량 수준 진단
 - 역량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향후 역량지표의 개발방향 설정
 -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판단할 근거자료 제시
 -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 대한 기초자료 축적

3. 연구내용

1) 2016년 청소년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본조사 실시 및 자료분석

- 1, 2차 년도 연구를 통해 제기된 주요 지적 중 하나는 측정문항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과 측정한 결과가 청소년의 실제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음

- 이에 따라 전년도에 개발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실제 조사현장에 적합한 규모로 축소,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답자들의 부담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측정문항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
- 축소한 문항의 통계적 신뢰성 검증과 전년도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
- 축소한 5대 역량영역별 실질적 수행지표들을 함께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본 척도에서 측정한 역량지표가 실질적인 수행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적 타당성 검증을 시도

2) 2016 국제비교를 위한 ‘청소년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조사연구’(IEA ICCS 2016)의 본조사 실시

- 국제교육성취도 평가협의회(IEA)에서 25개국 대상으로 실시하는 ICCS 2016 조사의 본조사를 실시
- ICCS 2016은 세계각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과 사회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비교·측정하여 각국의 시민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역량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온 사회시민역량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비교조사임
- 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 ICCS2016의 예비조사(Field Trial)를 먼저 시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본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절차 전체는 IEA의 조사진행규정을 따라 수행되었으며, 조사결과의 입력 역시 사전에 계획된 배분율과 합산규칙을 따라 수행되었음. 조사결과의 분석은 차년도에 IEA에서 각국의 결과를 종합하여 완성된 Data Set을 참가국들과 공유한 이후에 실시될 예정

3)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청소년 역량 정책의 방향 제시

- 국내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현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실시
 - 한국의 청소년역량에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일별하고, 이들 정책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소년역량의 5대 영역과 그 하위영역별로 분류, 분석 실시
 - 이를 통해 국내 청소년 역량 정책들이 특정한 영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청소년 역량 영역을 발굴,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검증
 - 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청소년 대상 FGI를 통해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청소년 역량 프로그램 혹은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
- 해외 주요국가의 청소년역량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와 시사점 도출
 - OECD 가입국들의 청소년 역량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조사결과, 역량영역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통합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이어서 특정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정책 사례들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정리
 - 국내 청소년 역량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고자료로 제공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 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청소년 역량정책 및 프로그램 제언, 법적·제도적 요구사항 등을 제시

3. 연구추진체계

- 본 연구는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기반으로 2013년도에 시행되었던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3)의 후속연구이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5개년 계획으로 구성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의 3차 년도 연구과제임
- 연도별 연구목적과 내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1단계 (2014년)	목적	· 청소년 역량 표준 설정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내용	· 국내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청소년 역량 개념화 및 지표체계 구축 · 청소년 역량지표 구성체계의 타당화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1차 프로토타입 개발 · IEA ICCS 2016 조사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조사, 통계분석



2단계 (2015~2016년)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용	·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 ·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ICCIS 2016 참여)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통합조사, ICCS 2016)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분석(PISA, PIAAC, ICCS)



3단계 (2017~2018년)	목적	· 청소년 역량지표 검증 및 국제수준 비교 분석 (ICCIS 2016)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효과성 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내용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역량지표의 타당성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심층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통계분석

-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과제이며,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 연구수행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국제 비교 연구를 총괄하며, 5개의 청소년 역량지수 중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도구 개발을 담당하고, 협동기관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이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함
 - ICCS 2016의 추진에 있어서 2009년도 ICCS 조사를 수행하였던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으로 참여, KEDI에서는 조사 진행을 위한 국제회의 참석과 자료 준비, 교사워크숍 등에 자문역할을 수행, 본원은 실제 조사 수행과 자료제출 절차를 수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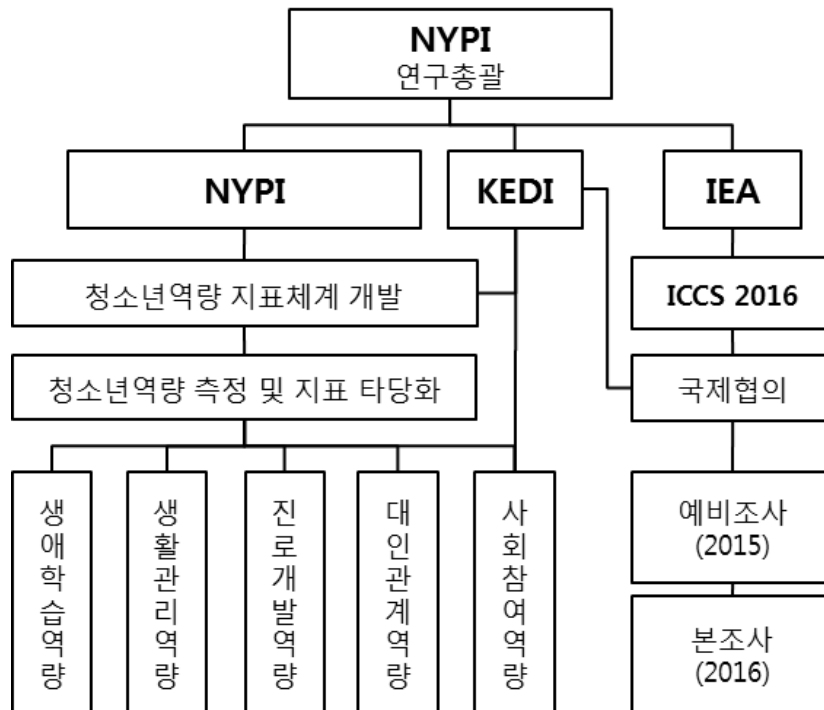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추진체계 개요

4. 조사 개요

○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 조사 대상: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대학교 재학생

- 대상 학생은 10,000명을 목표표본으로 설정한 뒤 2014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
- 중등학교수 기준: 총 369개 학교(초등학교 150개교, 중학교 117개교, 고등학교 102개교)
- 계열 기준(대학교): 8대 권역으로 분류, 대학유형별, 학년별, 계열별 비례배분 50개교 표집
- 학급수 기준(초/중/고등학교): 표본 선정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 조사 일정

- 사전조사: 2016년 4월 27일 (초등학생 79명, 중학생 78명, 고등학생 59명)
- 본조사: 2016년 4월 18일 ~7월 26일
- 자료처리 및 보고: 2016년 8월 2일~10월 14일
- 측정내용 영역 및 문항수: 총 234문항 (역량지수문항 164문항 + 수행변인 70문항)

○ ICCS 2016 본조사 실시

- 조사대상자

: IEA ICCS 사무국에서 한국의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전국 150개 표본학교
2학년 재학생(평균연령 13.5세) 약 4,500명

: 해당학교 및 해당학년 담당교사(담임 및 교과교사) 약 2500명

: 해당학교 책임자(교장 혹은 교감) 150명

- 총 조사기간: 2016년 6월 1일 ~ 8월 30일 (약 17주)

- 조사내용

: 학생검사지= 시민사회원칙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33문항(8개 Booklet으로
분산 측정)

: 학생조사지= 가정환경, 학교밖 활동참여, 학교내 활동참여, 학교내 생활현황, 권리와
책의의식, 기관과 사회에 대한 태도, 사회 및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 종교
현황 등 35문항

: 교사설문지= 지역사회환경, 교내환경, 학생활동참여현황, 시민교육현황, 학교규모 및
자원 현황 등 22 문항

: 학교담당자 설문지= 지역사회환경, 교내환경, 학생활동참여현황, 시민교육현황, 학교규
모 및 자원현황 등 21 문항

: 국가맥락조사지= 해당국가의 조사담당자(본과제 연구책임자)가 응답하는 한국의 시민
교육 현황에 대한 환경맥락 측정문항

- 조사결과

: 150개 목표표본 중 106개 중학교(학급)이 참여, 학생 2,998명, 교사 1,369명, 교장/교감
106명이 응답하여 70.6%의 응답을 달성

: 조사 결과는 IEA 고유양식으로 입력, IEA 데이터분석센터에 전송

5. 연구결과

1) 청소년 역량지표의 타당성 분석 결과

- 2014년도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청소년 역량지수 5개 역량군에 대해 234문항이 개발되어,
이에 대한 자료의 정규성과 측정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고, 2015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축약문항으로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검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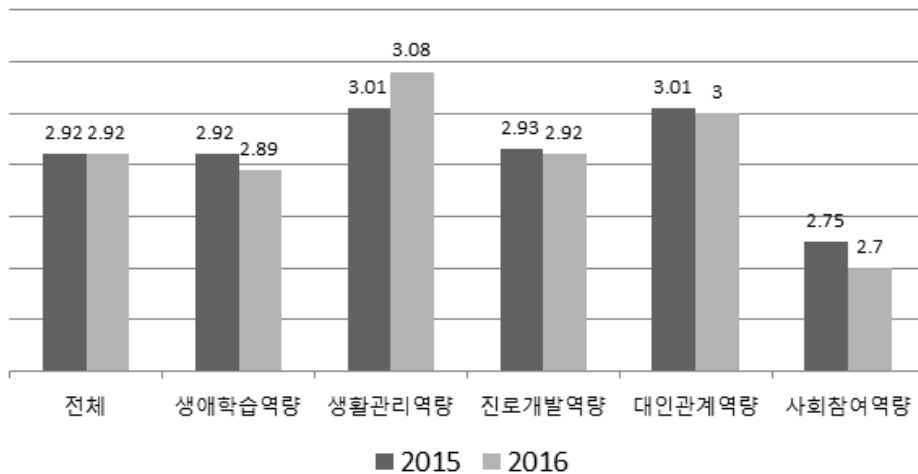
○ 청소년 역량지수 단축문항에 따른 문항들의 신뢰도와 구성체제의 적합도는 양호

- 청소년 역량의 5대 영역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의 측정결과에 따른 자료의 신뢰성과 자료의 정규성 확인
-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들의 구성체제에 대한 적합도 지수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한적으로 확인
- 청소년 역량지수의 전체문항과 단축문항은 모두 청소년역량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청소년 역량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청소년 역량의 불균형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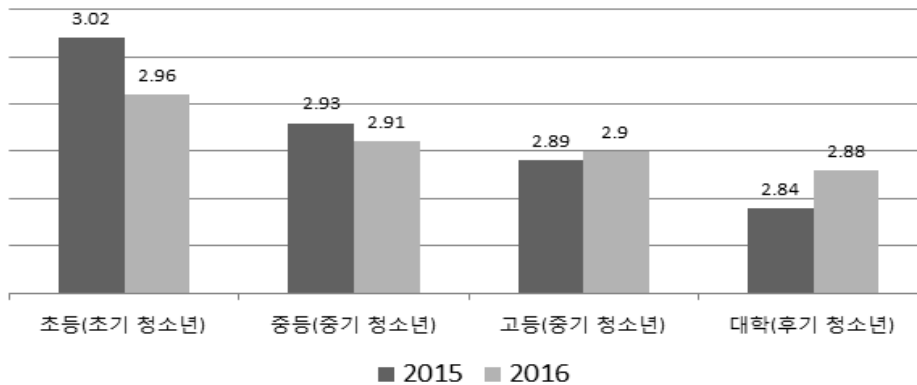
-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전체 평균은 2.92(SD=.31)로 2015년도 조사와 동일하였음
-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89(SD=.37), .72, 생활관리역량 평균은 3.08(SD=.38), .77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2.92(SD=.40), .73, 대인관계역량 평균은 3.00(SD=.45), .75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평균은 2.70(SD=.35), .67로 나타났음



- 이는 2015년 조사결과 대비 일부 변화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했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생활관리역량 지수가 가장 높고, 대인관계역량, 진로개발역량, 생애학습역량 순으로 높았으며 사회참여역량이 가장 뚜렷하게 낮았음

○ 발달단계에 따른 청소년 역량 저하 현상 재확인. 격차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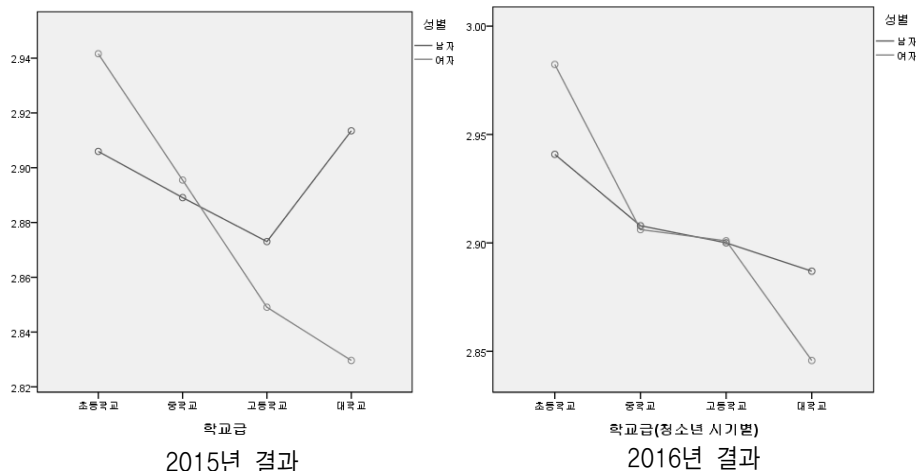
-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를 청소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초기 청소년) 평균은 2.96(SD=.36), 74%, 중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91(SD=.28), 72.75% 고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90(SD=.28), 72.50%, 대학(후기 청소년) 평균은 2.88(SD=.24), 72%로 나타났음



- 이는 초기 청소년들의 역량이 가장 높고 후기청소년의 역량이 가장 낮았던 2015년 결과와 유사한 패턴이었으나, 2016년 조사에서는 2015년 조사 대비 초기청소년들의 역량 지수가 낮아지면서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발달 시기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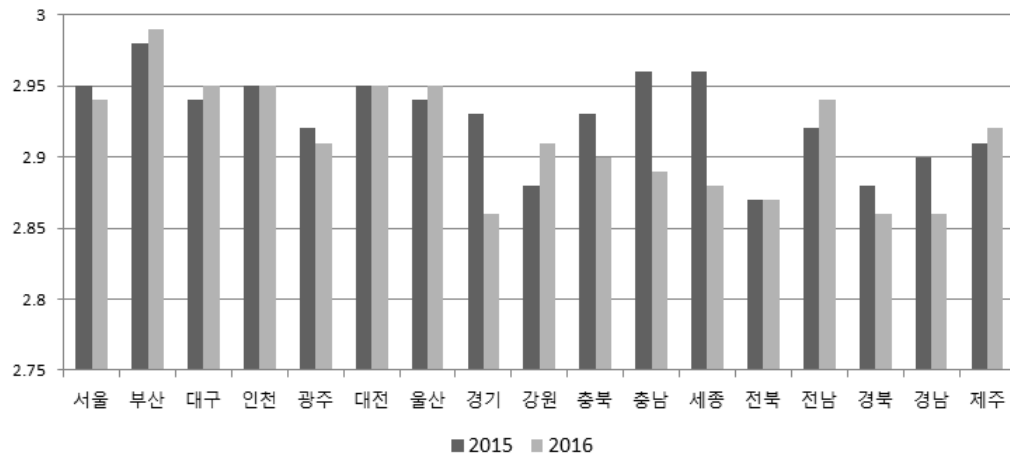
○ 발달단계에 따른 청소년 역량 저하 현상의 성차이 재확인

-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를 청소년 시기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여자청소년들이 초등(초기 청소년)에서는 남자 청소년보다 역량이 높았으나, 중등과 고등(중기 청소년)을 지나고 대학(후기 청소년)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됨
- 이러한 결과는 2015년에도 확인된 것으로 한국의 청소년 역량 관련 환경이 여자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추정됨.
- 차년도 연구에서는 이 현상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차이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

-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는 부산지역 청소년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대전, 인천, 그리고 울산이 2.95, 서울과 전남이 2.94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2.87, 세종, 경북과 경남이 2.86으로 낮았음
- 2015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전북, 제주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경기, 충남, 세종, 경남 지역은 전년대비 낮아지는 등 지역별 역량지수의 분포는 연속성이 낮아서 이의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준거타당도와 예측타당도는 의미 있었음

- 청소년 역량지수의 각 역량군에 따른 변인들은 해당 역량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분석에 있어 정적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통한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정적관계를 나타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 역량지표들이 각 역량이 지향하는 개념적 특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
- 각 역량군에 따른 수행변인과의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에 있어서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가 해당 변인들의 수행변인을 반영하고 있었음
-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가 높다는 것이 관련 역량에서 나타나는 행동지표의 양적 횟수가 높고 질적 수준도 높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

3) 청소년 역량지수의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

○ 생애학습역량

- 2015년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평균이 2.92($SD=.37$)이고 2016년 평균이 2.89(.37)로 나타나 효과크기 $d=.08$ 로써 차이가 없었으며 2016년도 측정결과의 신뢰도 역시 유의했음.
- 2016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결과, 발달 단계별 감소세는 확인되었지만 2015년에 비해 감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 청소년들의 수행행동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높은 청소년이 실제 학습을 수행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학업성취도 수준도 높았고,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결과가 다른 수행변인 즉, 학습시간의 양이나 학습효과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됨.

○ 생활관리역량

- 여학생이, 초등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대도시일수록 생활관리역량이 높았음.
-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중 정서조절이 가장 낮았으며. 특히 조절실패와 감정인식이 다른 역량에 비해 낮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역량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기 이후 청소년의 정서조절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필요성 시사
-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 지표점수와 실제 생활관리 행동, 생활통제 행동, 매체중독(스마트폰 중독), 체험활동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생활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생활관리 행동인 일주일 간 평균 아침식사 섭취 횟수와 운동(신체활동) 빈도가 높고, 수면시간이 충분했으며,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태도, 주변 사람이나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규범,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려는 인지된 생활통제 행동, 체험활동 참여 여부, 참여 종류, 참여 횟수가 높았으며 매체중독(스마트폰 중독)은 적었음
- 회귀분석 결과, 생활관리역량 지수를 통해 생활관리 및 생활통제 행동의 변량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됨.

○ 진로개발역량

- 구성된 문항체계의 적합도가 기존 문항보다 높았고, 진로개발역량과 관련 있는 수행변인들과의 관련성도 높게 나와 이에 대한 효과성이 체계적으로 검증되었음
-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은 청소년 성장시기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진로자기결정 능력이나 청소년 체험활동 등의 수행행동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정결과임이 확인되었음
- 청소년의 여가활용역량이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써 확인되었으며,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여가활용이 청소년 체험활동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음.
-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이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의 변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됨

○ 대인관계역량

- 구성체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계형성(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으로 구성된 단축형 대인관계역량의 구성체계와 측정문항이 적합함이 확인됨
- 대인관계역량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대인관계역량과 사회적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역량과 사회적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이 유의미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단축형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문항이 초기 청소년부터 후기 청소년까지의 대인관계역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음
-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역량이 높았음
- 청소년 시기별로는 대인관계역량이 차이가 다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예컨대, 관계형성 역량은 고등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리더십 역량에서는 대학생이 높았음. 이는 청소년 발달 단계별로 증진시켜야 할 대인관계역량이 다를 것임을 시사. 학교 현장이나 청소년관련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 실시할 때 청소년의 성별, 학업성취수준별, 청소년시기별로 집중 개발해야 할 역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 제시

- 대인관계역량은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자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주로 생활하는 학교 집단 내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과 친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집단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인 대인관계역량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

○ 사회참여역량

- 사회참여역량 수준은 대학교급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졌음
- 초·중등학교급에서는 학업성취도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역량 수준도 높았으나 대학교급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상쇄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동일하였다.
- 사회참여역량의 하위 구성 요인중, 개인시민성은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급까지 개인시민성 수준이 상승하였으나 대학교급에서 낮아졌음. 상승 및 하락의 정도는 2015년 본 조사 결과에 비하여 작았으나 발달단계에 따라 전체적으로 역U자형의 분포는 2015년과 동일했음.
- 학업성취도와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시민성도 높아지던 경향은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교급에서 사라졌음.
- 공동체시민성은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낮아졌으며 성별효과는 중등학교에서만 나타나 여학생이 중등학교급에서 남학생 보다 높은 공동체 시민성을 보여줌.
- 학업성취도와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체시민성이 높아졌으나 대학교급에서 그러한 경향성은 사라졌음. 이러한 인구특성학적 배경변인의 효과는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동일
- 세계시민성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중등학교급에서 여학생의 세계시민성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2015년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세계시민성도 높았으나 대학교급에서 상쇄되었음

4)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결과 논의

-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 수를 축소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측정문항을 개발하려는 연구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음
 - 생애학습역량은 37문항에서 24문항으로, 생활관리역량은 48문항에서 35문항으로, 진로개발역량은 41문항에서 25문항으로, 대인관계역량은 46문항에서 29문항으로, 사회참여역량은 63문항에서 47문항으로 축소되어 234문항에서 총 160문항으로 축소되어 수정·보완
 - 축소된 청소년 역량지수 문항을 통해 청소년 역량을 측정한 결과,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적합도가 1, 2차 년도에 개발된 문항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보다 더 정교화 되었음이 확인
 - 측정결과 또한 1-2차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인
 - 아울러 청소년 역량지수의 단축문항들은 해당 역량군의 관련 변인들과 유사한 측정결과가 나타났고, 해당 역량군을 대표하는 행동지표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예언 타당도를 확인
- 각종 청소년 역량지수의 개발과 활용에 관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면밀한 해석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 예컨대, DIF 분석과 같은 통계학적 분석방법에 더하여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통해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참여역량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측정도구의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함
-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15년도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여성 청소년의 역량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중·고등학교시기를 지나 대학생이 되면, 여자 청소년들의 역량이 현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됨
 - 이러한 현상이 개인적 특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역량개발에 장애요소들이 보다 더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여자 청소년 역량의 감소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인재가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감안할 때 여자 청소년에 대한 역량관리 및 개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조치가 요구됨

○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이 필요

- 2016년도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는 지역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됨. 2차년도 연구결과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부산지역 청소년이 역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 대전, 울산, 서울 등이 그 다음으로 높으며, 전북과 경북의 역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음
- 지역별 역량지수의 차이에 있어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다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부산지역 청소년이 수도권 중심의 대도시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부산지역 청소년의 역량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전북이나 경북의 경우도 2년 연속 낮은 역량지수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함

5)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분석 결과

○ 현행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 역량 개발을 반영하지 못함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정책목표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 핵심인재를 선정하고,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같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정책범주로 제시
-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정책 범주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 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다 세밀한 역량정책 범주를 정책범주로 제시할 필요

○ 분산된 정책이 아닌 집중화된 효율적 정책수행이 필요함

-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비슷한 정책들을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작게 진행하고 있음.
-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비슷한 작은 정책들을 한 부처에서 모아 규모를 크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매년 청소년 정책들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할 정책을 지정해서 청소년 정책수행의 파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5차 기본계획에서 생애학습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범주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 적응성들과 관련된 정책은 거의 없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생애학습역량 측정결과가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5차 기본계획에서 생활관리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생활관리역량의 하위범주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중에서 건강관리, 상황대처 관련 정책들은 시행하고 있으나 과제관리, 정서조절 관련 정책들은 없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가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과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함

○ 5차 기본계획에서 진로개발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진로개발역량의 하위범주인 진로설계, 여가활용 관련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었던 반면, 개척정신 관련 정책들은 없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가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역량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함

○ 5차 기본계획에서 대인관계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대인관계역량의 하위범주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견하기 어려웠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대인관계역량 측정결과는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하위 범주 중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역량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5차 기본계획에서 사회참여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사회참여역량의 하위범주인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며, 특히 개인시민성과 세계시민성에 비해 공동체시민성의 정책이 가장 적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참여역량 측정결과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역량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함

6) 청소년 역량관련 해외 정책현황 분석 결과

○ 영국의 청소년 역량정책 사례

- STEM교육 사례는 현대사회에서 융합창조능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분야인 지적도구활용 분야의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을 신장시키는 부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 ICT교육 사례는 현재 사회에서 ICT활용능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분야인 지적도구활용 분야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을 배양하는 부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 미국의 청소년 역량정책 사례

- 미국의 ASELA(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사례는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역량부분에 정책적 관심을 두지 않아왔던 한국적 현실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활관리역량의 하위분야인 정서조절 역량을 배양 정책에 시사점 제공

○ 뉴질랜드의 역량중심 교육정책 사례

- 뉴질랜드는 사고하기(thinking), 언어·상징·텍스트 사용하기(using language·symbols·texts), 자기 관리하기(managing self), 대인관계(relating to others), 참여와 공헌(participation and contributing)과 같은 여러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편
- 여기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과 같은 여러 하위범주의 청소년 역량발전에 정책적 시사점 제공

6. 정책제언

1)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분석 결과

- **현행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 역량 개발을 반영하지 못함**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정책목표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 핵심인재를 선정하고,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같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정책범주로 제시(관계부처합동, 2012)
 -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정책 범주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다 세밀한 역량정책 범주를 정책범주로 제시할 필요
- **분산된 정책이 아닌 집중화된 효율적 정책수행이 필요함**
 -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비슷한 정책들을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작게 진행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5a)
 -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비슷한 작은 정책들을 한 부처에서 모아 규모를 크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매년 청소년 정책들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할 정책을 지정해서 청소년 정책수행의 파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5차 기본계획에서 생애학습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범주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들과 관련된 정책은 거의 없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생애학습역량 측정결과가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5차 기본계획에서 생활관리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생활관리역량의 하위범주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중에서 건강관리, 상황대처 관련 정책들은 시행하고 있으나 과제관리, 정서조절 관련 정책들은 없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가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과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함

○ 5차 기본계획에서 진로개발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진로개발역량의 하위범주인 진로설계, 여가활용 관련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었던 반면, 개척정신 관련 정책들은 없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가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개척정신(차별화 태도, 도전정신) 역량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함

○ 5차 기본계획에서 대인관계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대인관계역량의 하위범주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견하기 어려웠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대인관계역량 측정결과는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하위 범주 중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역량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5차 기본계획에서 사회참여역량의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사회참여역량의 하위범주인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며, 특히 개인시민성과 세계시민성에 비해 공동체시민성의 정책이 가장 적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참여역량 측정결과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역량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함

7)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 제언

-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 사례 분석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청소년기관(시설, 단체 등)이나 학교에서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해 실시해야 되는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음

○ 융합창의역량 강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학교 STEAM교육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융합 창의역량관련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 관련 융합창의역량을 개발
2. 사업내용	○ 청소년 융합창의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청소년기관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학교 정보통신활용 교육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정보통신활용역량관련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 관련 정보통신활용능력을 개발
2. 사업내용	○ 청소년 정보통신활용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청소년기관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 정서조절 강화프로그램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학교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정서조절 범주의 역량을 배양
2. 사업내용	○ 학교내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학교내 구성원들에게 적용
3. 사업주체	○ 교육부, 교육청, 학교
4. 사업추진체계	○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관련 :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개척정신 범주의 역량을 강화
2. 사업내용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고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 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 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 리더십 강화 활동프로그램

리더십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 역량 중 리더십 범주의 역량을 강화
2. 사업내용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단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 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 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 부분의 관계형성 범주 중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
2. 사업내용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단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 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 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학교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중 관계형성 범주의 공감 및 배려 역량을 배양
2. 사업내용	○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학교내 구성원들에게 적용
3. 사업주체	○ 교육부, 교육청, 학교
4. 사업추진체계	○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관련 :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공감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학교 내에서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물질기부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중 공동체시민성 범주의 역량을 배양
2. 사업내용	○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적용
3. 사업주체	○ 교육부, 교육청, 학교
4. 사업추진체계	○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관련 :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민주시민역량조사(ICCS)와 청소년역량연구	6
3. 2016년 3차년도 연구 주요 내용	8
4. 연구 추진체계	12
II. 이론적 배경	15
1. 청소년의 역량 개념 및 구성체계	17
2. 2015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	19
3. 청소년 역량지수관련 청소년 발달적 특성변인에 대한 선행문헌분석	20
III. 연구방법	21
1.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개요	23
2.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28
3. ICCS 2016 본조사	51
IV. 조사 결과	59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단축 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61
2. 청소년 역량지수 단축문항 구성체계의 타당화 분석	68
3.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청소년발달시기 및 지역별 수준 분석 ..	88
4.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청소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95
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준거 및 예측타당도 분석	147

V.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현황	213
1.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215
2.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 정책사례	263
VI. 요약, 논의 및 정책제언	273
1. 연구요약	275
2. 정책적 제언	284
참고문헌	305
부 록	317
[부록 1] 2016 청소년 역량 관련 선행문헌 분석	319
[부록 2] 초·중·고등학생 모집단 분석 및 표본설계	343
[부록 3] 2016 대학생 모집단 분석에 따른 표본샘플	357
[부록 4]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초등학생용	360
[부록 5]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중고등학생용	378
[부록 6]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대학생용	396

표 목차

〈표 Ⅰ-1〉	ICCS에서 상정한 민주시민역량 결정요인과 요인별 조사 방법	11
〈표 Ⅰ-2〉	청소년대상 국제조사들과 ICCS의 특성비교	11
〈표 Ⅱ-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	17
〈표 Ⅱ-2〉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20
〈표 Ⅲ-1〉	청소년 역량관련 선행문헌분석 내용	26
〈표 Ⅲ-2〉	청소년 각계 전문가의 의견 및 자문 수렴 내용	27
〈표 Ⅲ-3〉	청소년 FGI 참가자의 기본적인 특성	27
〈표 Ⅲ-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모집단크기 및 표본집단 크기	29
〈표 Ⅲ-5〉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369개)	30
〈표 Ⅲ-6〉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31
〈표 Ⅲ-7〉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대학생 모집단크기 (시도별, 계열별)	32
〈표 Ⅲ-8〉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지역별 대학생 표본학교 수	33
〈표 Ⅲ-9〉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지역별 계열별 대학생 표본크기	34
〈표 Ⅲ-10〉	사전조사 응답자 수	35
〈표 Ⅲ-11〉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의 구성체계 및 내용	41
〈표 Ⅲ-12〉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절차 및 일정	44
〈표 Ⅲ-13〉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에서 표집된 표본샘플 기준 지역별 학생수	45
〈표 Ⅲ-14〉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사례 수(초·중·고등학생)	46
〈표 Ⅲ-15〉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사례수(대학생)	48
〈표 Ⅲ-16〉	ICCS 조사의 약력	52
〈표 Ⅲ-17〉	2016년 ICCS의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성	53

〈표 III-18〉	ICCS 2016 조사참여학교 현황 (괄호 안은 전체학교수)	54
〈표 III-19〉	ICCS 2016 조사 응답자 현황	54
〈표 III-20〉	ICCS 2016 학생용 인지능력 검사지의 구성 방식	55
〈표 IV-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62
〈표 IV-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63
〈표 IV-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65
〈표 IV-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67
〈표 IV-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68
〈표 IV-6〉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69
〈표 IV-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단축 문항 구성체계에 대한 측정모형 분석 ..	69
〈표 IV-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하위역량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측정모형 분석	71
〈표 IV-9〉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74
〈표 IV-10〉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세부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74
〈표 IV-1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75
〈표 IV-1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세부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76
〈표 IV-1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	76
〈표 IV-14〉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측정모형 분석 ..	78
〈표 IV-1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1)	82
〈표 IV-16〉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2)	82
〈표 IV-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	83
〈표 IV-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측정모형 분석 ..	85
〈표 IV-19〉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영역에 따른 청소년 시기별 분석 결과 ..	88
〈표 IV-20〉	2016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분석	91
〈표 IV-2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95

〈표 IV-22〉	청소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및 하위역량의 차이분석	97
〈표 IV-23〉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역량 차이분석	100
〈표 IV-24〉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차이분석	102
〈표 IV-25〉	청소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학습적응성 세부역량의 차이분석	105
〈표 IV-26〉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108
〈표 IV-27〉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차이분석 ..	109
〈표 IV-2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역량 차이분석	112
〈표 IV-2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 역량 차이분석	115
〈표 IV-30〉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역량 차이분석	117
〈표 IV-31〉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 역량 차이분석	120
〈표 IV-3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123
〈표 IV-33〉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분석 ..	126
〈표 IV-34〉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 차이분석	130
〈표 IV-35〉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역량 차이분석	133

〈표 IV-36〉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역량 차이분석	135
〈표 IV-3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136
〈표 IV-3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차이분석 ..	138
〈표 IV-3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역량 차이분석	140
〈표 IV-40〉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역량 차이분석	142
〈표 IV-41〉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 역량 차이분석	144
〈표 IV-4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 자기주도학습 및 문제해결능력 기술통계 분석 결과	148
〈표 IV-4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 자기주도학습 및 문제해결능력과 상관관계	148
〈표 IV-44〉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149
〈표 IV-4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150
〈표 IV-46〉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 학업성취수준, 학습시간 및 체험활동 기술통계 분석 결과	152
〈표 IV-4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 학업성취수준, 학습시간 및 체험활동과의 상관관계	153
〈표 IV-4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학업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	154
〈표 IV-49〉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	155
〈표 IV-50〉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	157

〈표 IV-5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주중 방과후 교과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	158
〈표 IV-5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 ...	159
〈표 IV-5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미치는 영향	161
〈표 IV-54〉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체험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	162
〈표 IV-55〉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생활관리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163
〈표 IV-56〉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생활관리의 상관관계	164
〈표 IV-5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아침식사 섭취에 미치는 영향	165
〈표 IV-5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일주일 평균 운동 빈도에 미치는 영향	167
〈표 IV-59〉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일주일 평균 수면 시간에 미치는 영향	168
〈표 IV-60〉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생활통제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170
〈표 IV-61〉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생활통제의 상관관계	171
〈표 IV-6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172
〈표 IV-63〉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	174
〈표 IV-64〉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인지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	175
〈표 IV-65〉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매체중독(스마트폰 중독)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177
〈표 IV-66〉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매체중독의 상관관계	178
〈표 IV-6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매체중독에 미치는 영향	179
〈표 IV-6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체험활동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181

〈표 IV-69〉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체험활동의 상관관계	182
〈표 IV-70〉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 ...	183
〈표 IV-71〉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 수에 미치는 영향	185
〈표 IV-7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체험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	186
〈표 IV-7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와 진로자기조절 및 진로결정능력 기술통계 분석 결과	187
〈표 IV-74〉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와 진로자기조절과의 상관관계	188
〈표 IV-7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진로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189
〈표 IV-76〉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와 체험활동 종류 및 빈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190
〈표 IV-7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와 진로활동 및 여가활동과의 상관관계	191
〈표 IV-7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진로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 ...	192
〈표 IV-79〉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미치는 영향	194
〈표 IV-80〉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진로활동 참여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	195
〈표 IV-8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여가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 ..	196
〈표 IV-8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여가활동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 ..	197
〈표 IV-83〉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와 사회적 관계 및 학교적응 기술통계 분석 결과	198
〈표 IV-8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와 사회적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199

〈표 IV-8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200
〈표 IV-86〉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201
〈표 IV-8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와 친한 친구수, 친구와의 놀이횟수,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교사, 주변 어른 유무의 기술통계분석결과 ..	202
〈표 IV-8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와 친한 친구수, 친구와의 놀이횟수,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교사, 주변 어른 유무와의 상관관계	203
〈표 IV-89〉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친한 친구(선후배) 수에 미치는 영향 ..	204
〈표 IV-90〉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친한 친구(선후배)와의 놀이 횟수에 미치는 영향	205
〈표 IV-9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유무에 미치는 영향	206
〈표 IV-9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유무에 미치는 영향	208
〈표 IV-93〉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고민상담 가능한 어른 유무에 미치는 영향	209
〈표 V-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5년 5대영역, 15대 중점과제별 세부과제수 및 사업수	216
〈표 V-2〉	생애학습역량 관련 정책들	223
〈표 V-3〉	생활관리역량 관련 정책들	227
〈표 V-4〉	진로개발역량 관련 정책들	242
〈표 V-5〉	대인관계역량 관련 정책들	250
〈표 V-6〉	사회참여역량 관련 정책들	258
〈표 V-7〉	뉴질랜드 핵심역량의 의미 및 기대되는 특징	269
〈표 VI-1〉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 ..	286
〈표 VI-2〉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289

〈표 VI-3〉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	291
〈표 VI-4〉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294
〈표 VI-5〉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296
〈표 VI-6〉	리더십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298
〈표 VI-7〉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300
〈표 VI-8〉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302
〈표 VI-9〉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304
〈부록표 1-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	321
〈부록표 1-2〉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324
〈부록표 1-3〉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 문항	327
〈부록표 1-4〉	문제해결능력 측정 문항	329
〈부록표 1-5〉	진로자기조절변인 문항 구성	334
〈부록표 1-6〉	진로결정 및 진로 명확성 문항 구성	335
〈부록표 1-7〉	진로관련 활동 여부 및 참여도	336
〈부록표 1-8〉	대인관계 역량 관련 변인과 문항구성	339
〈부록표 1-9〉	사회참여역량 관련 선행 연구 요약	340
〈부록표 2-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344
〈부록표 2-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344
〈부록표 2-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345
〈부록표 2-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345
〈부록표 2-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346
〈부록표 2-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346

〈부록표 2-7〉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347
〈부록표 2-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347
〈부록표 2-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349
〈부록표 2-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350
〈부록표 2-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350
〈부록표 2-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351
〈부록표 2-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351
〈부록표 3-1〉 대학의 시도별 계열별 학생수와 학교수	357
〈부록표 3-2〉 권역별 학생수, 학교수와 할당 표본학교수	358
〈부록표 3-3〉 권역별 계열별 할당된 표본학생수	359

그림 목차

【그림 Ⅰ-1】	협동연구수행체계 개요	13
【그림 Ⅲ-1】	2016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절차	24
【그림 Ⅲ-2】	ICCS 2016 본조사 절차	24
【그림 Ⅲ-3】	ICCS 2016 학교 조사담당교사(School Coordinator) 교육연수 개요	57
【그림 Ⅲ-4】	ICCS 2016 세부 시행 절차	58
【그림 Ⅳ-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단축문항에 따른 전체 구성체계의 적합도 지수	70
【그림 Ⅳ-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사고력 단축문항에 따른 전체 구성체계의 적합도 지수	72
【그림 Ⅳ-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지적도구활용능력 단축문항에 따른 전체 구성체계의 적합도 지수	72
【그림 Ⅳ-4】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학습적응성 단축문항에 따른 전체 구성체계의 적합도 지수	73
【그림 Ⅳ-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	77
【그림 Ⅳ-6】	진로설계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79
【그림 Ⅳ-7】	여가활용능력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80
【그림 Ⅳ-8】	개척정신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81
【그림 Ⅳ-9】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	84
【그림 Ⅳ-10】	관계형성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86
【그림 Ⅳ-11】	리더십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86
【그림 Ⅳ-12】	협동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87
【그림 Ⅳ-13】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영역별 결과	89
【그림 Ⅳ-14】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청소년 시기별 결과	89
【그림 Ⅳ-15】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청소년 시기별*성별 결과	90

【그림 IV-16】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결과: 전체 역량	91
【그림 IV-17】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결과: 생애학습역량	92
【그림 IV-18】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결과: 생활관리역량	93
【그림 IV-19】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결과: 진로개발역량	93
【그림 IV-20】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결과: 대인관계역량	94
【그림 IV-21】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결과: 사회참여역량	94
【그림 IV-2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평균 점수 비교	96
【그림 IV-23】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평균 점수 비교	108
【그림 IV-24】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평균 점수 비교	124
【그림 IV-2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평균 점수 비교	137
【그림 IV-26】 학교급 및 인구배경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역량	146
【그림 III-27】 학교급 및 인구배경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시민성	210
【그림 III-28】 학교급 및 인구배경학적 특성에 따른 공동체시민성	211
【그림 III-29】 학교급 및 인구배경학적 특성에 따른 세계시민성	212
【그림 VI-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5개년(2014-2018) 연구추진계획	285
【부록그림 1-1】 생활관리역량과 수행변인(생활통제, 생활관리 행동)의 관계	333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민주시민역량조사(ICCS)와
청소년역량연구
3. 2016년 3차년도 연구 주요 내용
4. 연구 추진체계

제 I 장
서론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이후의 세계를 특징지을 수 있는 단어는 불확실성이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갈수록 빨라진다. 그에 따라 기존의 기술과 정보는 급속하게 유효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그 자리를 채운다. 인간이 처리해야 할 정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DC (인터넷 데이터분석 센터)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만 1천6백10억 기가바이트의 디지털정보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 정보량은 지금까지 인류에 의해 씌여진 모든 책에 담긴 정보의 3백만 배이고, 책으로 만들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1인당 6톤씩의 책으로 배분될 분량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2005년에 인터넷에 저장된 정보량은 130엑사바이트(약 1천4백억 기가바이트)였는데, 2010년에는 그 9배인 1제타바이트, 즉 1조 기가바이트가 되었으며, 2011년에는 이 정보량이 전년도 거의 두 배인 1.8제타바이트(1조8천억 기가바이트)로 늘어났다. IDC에서는 이를 근거로 2015년에는 약 8조 기가바이트(7.9제타 바이트)의 정보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IDC, 2013). 기술과 정보량의 증가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진다. 최근 5년간 중국은 자국 화폐를 기축통화로 등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으며, 북아프리카의 튀립혁명 등 극단주의로 이어지며 중동의 내전을 심화시키고 그 여파가 유럽의 통합정책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제적인 위기와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원칙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민족주의와 근본주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고작 지난 10년간에 벌어진 변화라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마주하게 될 10년 혹은 20년 후의 세계는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 많은,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급격한 발전에 따른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와는 차별화된 개인의 역량이 요구된다. 갈수록 유통기한이 짧아지

1) 이 장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는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OECD, UNESCO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OECD의 DeCeCo 프로젝트(OECD, 2005)를 비롯하여 UNESCO는 2015년부터 Learning Matrix 프로젝트를 통하여 역량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의 틀을 역량중심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성은모 외, 2015).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습체제로 전환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활전반에 걸쳐 한 개인의 성공은 특정 교과목의 수행수준보다 훨씬 넓은 개념의 ‘역량(Competency)’에 의해 좌우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Rychen & Salganik, 2003a). 이 역량은 시대적 요구와 특정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각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역량을 도출하고 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요구와 우리나라 사회의 맥락적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의 역량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와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8~2010년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고(김기현 외, 2010),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3년부터 학생역량지수의 구성요인과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김창환 외, 2013), 교육부에서도 2013년부터 인성역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소년 역량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2008~2010년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 연구는 국가적 수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청소년 역량을 다루었고, 학생역량과 인성역량의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 및 제도개선이라는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것이다(성은모 외 2014; 성은모 외 2014; 성은모 외, 2015).

이처럼 미래의 개인과 사회를 위해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 역량이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보다 크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국내에서 청소년 역량지표 관련 연구가 전무했었던 것은 아니다. 국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 2007;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 김혜진, 2008; 이근호, 광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생역량지표 개발 연구를(김창환, 엄문영, 김기현,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이광현, 이상,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 관련 핵심역량 개발 연구를 수행해 왔다(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핵심역량의 하위 영역들을 도출해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역량연구는 대상과 내용 부분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대상으로 청소년 중에서도 학생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용에서도 직업기초능력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역량을 다루고 있지 못한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역량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에서 필요한 역량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국제 수준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역량 지표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시대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들은 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전 생애에 걸쳐 학교나 직업생활 뿐 아니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역량 연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형태, 장기적 과제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여러 영역에서 성장 및 발달 단계에 있어 이들의 역량 역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변화 및 발달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연속선상에 있는 다년간의 연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필요한 역량의 하위 영역들이 명확히 규명되었는지, 하위 영역에서 수정·보완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덧붙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핵심역량들이 국내의 특성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제 비교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민주시민역량조사(ICCIS)와 청소년역량연구

특히 한국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하다고 반복적으로 언급된 역량이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다. PISA 및 ICCS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지적인 능력은 매우 우수하지만 자기관리 능력과 함께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김기현 외, 2010). 그런데 미래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는 역량이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태도와 사고력, 시민사회의 기초상식에 관련된 ‘민주시민역량’이다. 갈수록 가속화되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국제화는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마주칠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존중으로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민주시민 역량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다문화사회로 이행했고, 시민사회의 전통이 오래된 유럽 각국에서도 최근들어 테러와의 전쟁이나 중동 이민자들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종교충돌과 문화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로 대표되는 새로운 극우 보수세력이 정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극우이념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영국 탈퇴는 이와 같은 흐름이 만들어낸 사건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21세기 들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시민사회의 합의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으며, 신세대에게 이전보다 더 민주시민역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97년부터 일부 OECD가입국의 주도로 시작된 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과 합의가 커지고 있다. ICCS는 참여국들의 미래세대에 대한 시민교육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로 이들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시급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국제비교조사이다. ICCS를 실시하는 IEA에서는 각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엄정한 국제비교 절차에 의해 실시하는 국제비교조사를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도 제2차 ICCS 조사에 참여한 바 있으며, 올해에 실시하는 제3차 조사에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ICCS 조사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중에서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주시민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검증된 조사의 기회로서, 본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향후 이 ICCS

조사의 도구와 절차를 전체 청소년역량 지표에도 반영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 역량 연구의 필요성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의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연속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5개년(2014-2017) 연구계획을 수립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라는 정책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1차년인 2014년도 과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성은모 외, 2014)’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와 IEA ICCS(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EA ICCS) 2016와 같이 국제수준에서 청소년의 역량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EA ICCS 2016’ 정책연구의 3차 년도 연구이자 2015년도 2차 년도 연구의 후속연구이다. 올해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를 통해 측정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민주적 역량의 국제비교를 위한 IEA ICCS 2016 본조사를 수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구촌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청소년 역량 측정 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방향과 프로그램평가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정책 및 제도적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2015년 조사결과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2016년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시급한 정책목표들을 제시하였다.

3. 2016년 3차년도 연구 주요 내용

본 연구는 5개년 계획의 3차년도에 해당하며 연도별 연구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단계 (2014년)	목적	· 청소년 역량 표준 설정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내용	· 국내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청소년 역량 개념화 및 지표체계 구축 · 청소년 역량지표 구성체계의 타당화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1차 프로토타입 개발 · IEA ICCS 2016 조사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조사, 통계분석
▼		
2단계 (2015~2016년)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용	·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 ·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분석(PISA, PIAAC, ICCS)
▼		
3단계 (2017~2018년)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수준 비교 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효과성 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내용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통계분석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검증과 분석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2015년에 실시한 청소년역량조사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제공했다. 전반적인 청소년의 역량이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높고,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맞춰 일부 문항을 삭제하고 간략화한) 초등학교용 측정도구의 차이 효과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일관적이었다. 더욱 특기할 것은 여자청소년들의 역량 감소가 더욱 급격했다는 점이다. 남자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여자청소년들보다 역량 지수측정치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여자 청소년 역량의 빠른 감소로 인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연령대에서 이 차이가 반전되며,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남자청소년들은 일부 역량이 고등학교 시기보다 높아지는데 반해서 여자청소년들은 계속 감소하여 남녀간의 역량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우선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이 실제로 연령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계열 효과를 고려하면 이와는 반대로 한국 청소년들의 역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2015년 현재 중학생인 청소년들이 초등학교이었던 시점에는 지금보다 역량이 더 낮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생들이 현재 중학생보다 역량지수가 낮은 것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한 것이 아니라 신세대 초등학생들이 구세대 초등학생보다 높은 역량을 개발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즉, 1회의 횡단조사만으로는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향후 수회의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본 결과가 연령증가에 따른 효과인지 아니면 조사시기에 따른 시계열 효과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조사 결과는 청소년역량 측정지표의 타당성을 재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표의 특정 항목이 연령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도 있으며, 초등학교 대상 측정지표의 보정이 편향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측정항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타당도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척도의 간략화 작업도 실시하였다. 역량을 지필검사로 측정하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지필검사로 측정가능한 역량과 다른 평가수단이 필요한 역량을 이론적으로 구분할 필요도 있다.

2)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조사연구(ICCS 2016)의 본조사 실시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국제교육성취도 평가협회(IEA)에서 주관하는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조사연구’(ICCS 2016)에 참여하여 한국청소년들의 시민역량수준을 측정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ICCS는 학업능력과 성취도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PISA, TIMMS, PIRLS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수준에 대해서는 가장 오랫동안 충분히 개발된 측정 도구와 축적된 참여국 데이터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국제비교조사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화·계층갈등·사회적 신뢰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세대의 시민의식함양은 매우 시의성 높은 교육정책 목표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의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9년 조사부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념구성 및 조사문항 선정에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이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조사결과의 분석과 공개작업을 진행했다. 2016년 3차 조사에는 아시아에서는 홍콩, 대만과 함께 참여하였다. 2016년 조사결과가 부분적으로 발표되는 2017년에는 2009년 조사결과와의 시계열적 비교 및 청소년들의 민주시민교육정책의 성과를 다층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2009년 ICCS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의 인지적 영역 즉,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추론 및 판단능력 영역에서는 핀란드와 스웨덴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에 대한 신뢰, 정치적 참여의 경험, 성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시민행동을 할 의사 등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들은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장근영, 박수역, 2011; ACER, 2010a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발달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1차 년도인 2015년부터 본원 연구진이 한국 조사 진행담당자(National Research Coordination)로 ICCS 2016 조사위원회에 참여, IEA ICCS 2016의 조사문항 개발에 참여하며 조사문항을 제안하였다. 2차 년도에는 IEA에서 확정한 조사문항을 한국 상황에 맞추면서 2009년도 문항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번역하고 IEA에서 선정한 학교 표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Field Trial)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표본선정 및 분권(booklet)으로 나뉘어 있는 조사문항의 실시 절차 등을 숙지하고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방안을 준비하여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IEA 본부에서 확정한 표본 학교 15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진행은 해당학교의 담당교사가 실시해야 하는 절차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의 협조공문을 통해 해당학교의 조사참여를 요청하고 이에 응한 학교의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권역별 ICCS 2016 조사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학교는 총 106개 중학교였으며, 해당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생 3,004명(학교당 1개 학급 표집)과 2학년 담당 교사 1368명 및 교장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 -1 ICCS에서 상정한 민주시민역량 결정요인과 요인별 조사 방법

환경의 수준	선행요소단계	과정단계	결과단계
국가 및 지역사회 공동체	NCS 및 기타조사: 국가별 민주화 역사, 교육과정의 구조 등	NCS 및 기타조사: 실제 교육내용 정치적 발전수준	학생검사 및 학생설문: 검사결과점수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
학교 및 교실환경	교장설문 및 교사설문: 학교의 특성, 학교에서 보유한 자원	교장 및 교사설문: 커리큘럼, 교내정책 및 실행현황	
학생 개인	학생설문: 성별, 연령	학생설문: 인지적 학습활동, 참여 실천 학습활동	
학생들의 가정환경	학생설문: 부모 SES, 인종/문화적 배경, 언어, 출생국 등	학생설문: 가족내 의사소통 또래집단 활동 등	

*출처: Schulz, Fraillon, Losito, Agrusti (2015).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2016: Assessment Framework Draft (p.38)

표 I -2 청소년대상 국제조사들과 ICCS의 특성비교

	PISA	TIMSS	PIRLS	ICCS
명칭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2011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주관기관	OECD	IEA	IEA	IEA
조사대상	중등2학년	초4, 중2학년	초등4학년	중등2학년
주요 조사내용	언어 · 수학 · 과학 성취도, 문제 해결능력, 학업 태도 (흥미/관심/자신감) 및 가정, 학교 배경요인	학생들의 수학 · 과학과목 학업성취도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학생들의 읽기, 문해력, ICT 정보이해력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학생들의 민주시민 교육성취도, 시민의식, 신뢰 · 참여수준, 공동체의식 및 가정, 학교, 사회적 배경요인
참여국	31개국	42개국	35개국	38개국
조사주기	3년	4년	5년	5년

*출처: 장근영, 성은모 외 (2015)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총괄보고서 (p.20)

단, 올해 실시한 ICCS 2016 국제비교조사 결과는 IEA에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변수를 조정하는 등의 데이터 클리닝과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인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1차 예비분석결과는 2017년 하반기 혹은 2018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ICCS 2016 본조사 결과의 분석은 2017년 연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3)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전략 제시

아동·청소년의 역량 함양에 관련된 정책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분석은 크게 두 경로로 실시하였다. 하나는 한국의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청소년역량에 관련된 정책들을 역량영역별로 분류하여 현재 한국의 청소년역량 정책들이 역량별로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정책이 과도하게 집중된 역량영역과 상대적으로 결핍된 역량 영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다른 하나는 국제비교로서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정책 중에서 해당 역량영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정책들을 선정하여 이 정책의 내용과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역량개발 정책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기존의 학업중심의 교육정책에서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역량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결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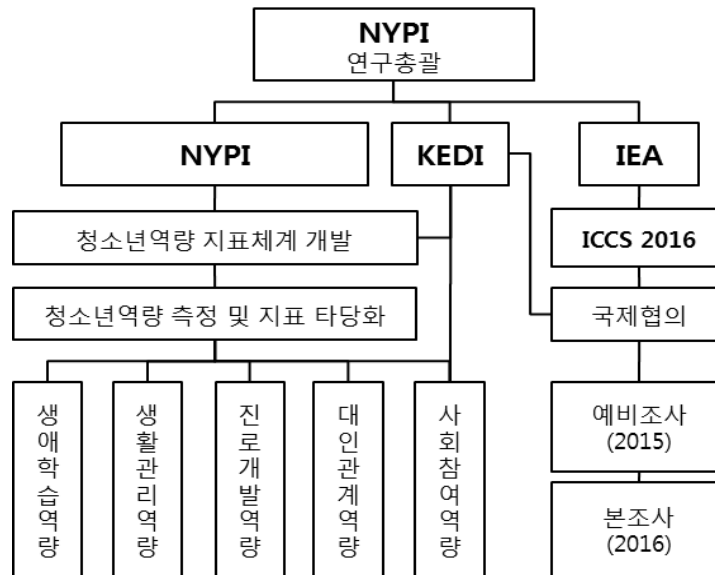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국제비교조사 결과 및 국내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국 청소년역량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역량영역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4.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과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협동연구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ICCS 조사의 책임수행기관이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민주시민 사회역량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하여온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협동연구로 진행하고

있다. 협동연구로 진행되는 연구의 특성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국제 비교 연구의 총괄을 담당한다. 연구수행에 있어 청소년 역량지수 5가지 역량군(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성은모 외, 2013)에 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관련 측정도구 개발을 담당하고, ICCS에서 측정하는 민주시민 역량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참여역량 부분을 한국교육개발원이 담당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진이 함께 ICCS 2016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ICCS를 진행하는 국제교육성취도 평가협의회(IEA)와의 제 협력을 통하여 ICCS 2016 국제비교조사 결과의 분석과 청소년역량지표개발 연구결과와의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I -1】 협동연구수행체계 개요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역량 개념 및 구성체계
2. 2015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
3. 청소년 역량지수관련 청소년 발달적
특성변인에 대한 선행문헌분석

제 II 장 이론적 배경²⁾

1. 청소년의 역량 개념 및 구성체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청소년 역량지수를 개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의 초안은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성은모 외 2013)’에서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의 1차 년도에 기본개념을 제시하고 2차 년도의 통합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확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의 5 영역으로 나뉜다. (표 II-1).

표 II-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수학 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	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정서조절	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2) 이 장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성희 교수(인하대학교),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음.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직업탐색
		직로준비
		진업가치관
	여가활용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경험)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대인관계역량	협동	추진력
		집단촉진
		팔로워십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갈등문제 해결
		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공동체 시민성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 개방성
	세계 시민성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 의식
		국제관계 이해

※ 출처: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198-199 재인용)

2. 2015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

본 연구의 2차 년도인 2015년 연구에서는 1차 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수준에서 전국 규모 청소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청소년 역량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2015년 연구에서 표본은 초·중·고등학생 9,500여명 대학생 1,000여명 이었으며,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는 청소년역량지수의 5대 역량 역량군(생애학습 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중심으로 16개의 하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2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15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결과(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2.92점으로, 이를 100% 기준으로 본다면 약 73% 수준이었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 평균이 각각 3.01점(75%)으로 높았고, 진로개발역량은 2.93점(73.25%),생애학습역량이 2.92점(73%)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은 2.75점(68.75%)으로 가장 낮았다. 즉,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참여 역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청소년 역량지수가 3.02점(7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2.93점(73%), 고등학생 2.89점(72%)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2.84점(71%)으로 가장 낮았다. 즉, 역량수준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해서 초등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고, 대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발달의 역전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역량이 높았지만, 중학교 시기에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고등학교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오히려 남자 청소년보다 더 낮아졌다. 더욱 특이한 것은 여자 청소년들은 대학교 시기에도 역량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시기에 남자 청소년은 역량이 증가하여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역량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다.

표 II-2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시기별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전체	2.92	2.92	3.01	2.93	3.01	2.75
초등(초기 청소년)	3.02	2.99	3.17	3.01	3.06	2.86
중등(중기 청소년)	2.93	2.91	3.04	2.93	3.02	2.77
고등(중기 청소년)	2.89	2.87	2.97	2.90	2.97	2.72
대학(후기 청소년)	2.84	2.91	2.84	2.83	2.96	2.66

3. 청소년 역량지수관련 청소년 발달적 특성변인에 대한 선행문헌분석

청소년 역량지수 관련 청소년 발달적 특성변인에 대한 선행문헌을 분석한 결과, 생애학습역량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주요 변인으로 탐색되었고, 생활관리역량은 계획 행동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한 생활 통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 생활 통제 의지, 그리고 실제 생활관리 행동 지표인 식사, 운동, 수면관리와 매체중독관리가 주요 변인으로 탐색되었다. 진로개발역량은 진로자기조절, 진로결정, 진로명확성, 진로활동경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인관계역량은 사회적 관계망과 학교생활적응이 주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사회참여역량은 참여의식, 준법의식, 내적 정치효능감 등이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

제 III 장

연구방법

1.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개요
2.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3. ICCS 2016 본조사

제 III 장 연구방법³⁾

1.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개요

1)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진행 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CCS 2016’의 5개년(2014~2018)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3차년도 연구에 해당한다. 2014년 1차년도와 2015년도 2차년도 연구과제의 후속연구과제로서 1, 2차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재검증, 측정문항의 단순화, 측정문항 결과에 대한 준거 및 예언타당도 검증, 그리고 ICCS 2016 본 조사를 국내·외적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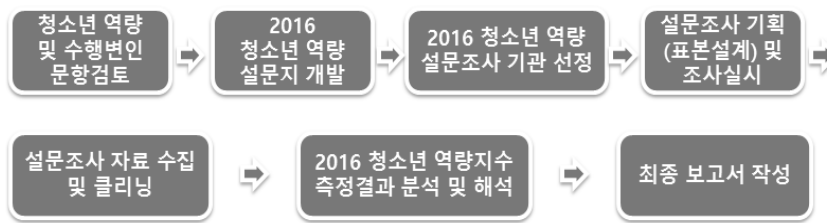
국내 조사인 ‘청소년역량지수 측정조사’는 전년도에 개발한 문항과 결과를 기초로 최종문항을 산출하여 조사지를 제작하였으며, 조사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통합조사 사업’을 통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표본학교를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와 입력결과에 대한 검증과 클리닝 작업은 연구진이 직접 수행하였다.

ICCS 2016 본조사는 IEA의 조사 규정을 엄정하게 준수하여 실시하였다. IEA에서 선정한 조사대상 학교(대체표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조사 진행은 해당학교의 담당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했다. 이를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서울·경기·강원, 호남·충청, 영남·부산 지역의 3개 권역별로 조사대상학교의 조사담당 교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절차를 숙지시켰다. 또한 조사지 번역의 동등성 검증을 위해서 조사문항 번역내용·조사문항의 배치·최종 조사지 편집내용에 대한 IEA 본부의 검증과 최종 승인절차를 거쳤다. 조사결과 중 주관식 응답의 채점과 코딩은 IEA에서 제시한 매뉴얼을 따랐으며, 이를 수행하는 채점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실시하였다. 조사지 인쇄와 배포, 결과 수집과 자료입력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ICCS 2016 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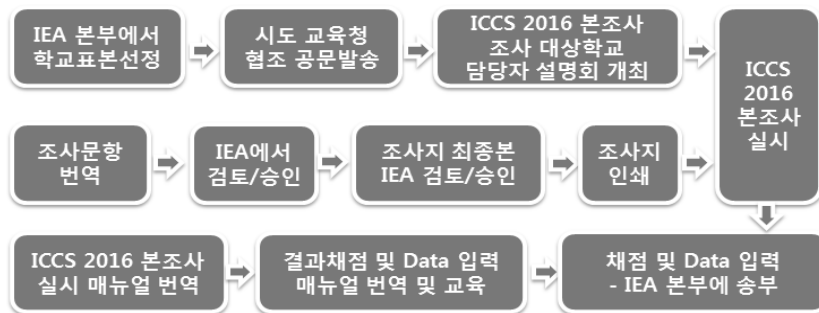
3) 이 장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성은모 부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결과는 IEA 본부에 전달되었으며, 2017년에 IEA 측에서 국가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예비 분석과 분석용 데이터 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결과의 본격적인 분석은 2017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조사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와 국제조사인 ‘ICCS 2016 본조사’의 진행 절차는 [그림 III-1]과 [그림 III-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III-1】 2016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절차



【그림 III-2】 ICCS 2016 본조사 절차

2) 청소년 역량 및 관련 수행변인에 대한 선행문헌분석

청소년 역량지수와 관련 수행변인에 대한 선행문헌분석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 리뷰(systematic review)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문헌을 다시 한 번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청소년 역량의 정의를 개념화하였고,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내용 타당도 및 설문조사를 위한 내용 수정의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와 측정문항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다 명확한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특징을 확인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수집된 조사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셋째, 청소년 역량 수준에 대한 선행문헌을 분석하였다. 이는 본 조사가 실시되는 2015년도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일반적으로 다루어졌던 청소년 즉,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역량수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아울러 후기 청소년 즉,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역량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연구 분석이 이루어졌다.

넷째,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선행문헌을 분석하였다. 정책 문헌분석은 특히 국내외 자료를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실시하였기에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국내자료는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자료(관계부처합동, 2012)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의 일환으로 각 중앙부처에서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201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자료(여성가족부, 2015a) 및 여러 관련 정부 자료들을 주된 분석대상 자료로 삼아 국내 정책현황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시에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들 중 청소년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부분에 맞춰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배치하여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분석결과에서 나온 정책적 시사점은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적 제언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외국문헌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정책 선진국인 뉴질랜드, 호주,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등의 청소년정책관련 정부 인터넷 사이트, 청소년정책관련 국내외 연구보고서와 국내외 연구논문 자료들을 주된 분석대상 자료로 삼아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나라들이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청소년 역량정책의 범주를 객관적으로 한정짓기가 불가능에 가깝고, 대부분 나라들에서 수행하는 역량관련 정책들이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세부역량에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정책들보다는 일부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띠고 있는 정책들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역량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임의로 나열해서 전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방법보다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세부역량 증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사례들만을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이 분석결과에서 나온 정책적 시사점 역시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적 제언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국제비교를 위한 ICCS 2016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는

국제비교조사의 의의와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에 대한 조사절차와 국제비교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ICCS 2016의 소개, 조사목적, 조사내용 및 영역 자료 및 조사절차 매뉴얼과 연구의 Framework에 대한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조사절차 매뉴얼은 학교별 담당 교사 및 조사 진행 담당자들 교육에도 필요하였기 때문에 전문 번역가에게 의뢰하여 전문을 번역하였다.

표 III-1 청소년 역량관련 선행문헌분석 내용

분석내용
1. 청소년 역량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문헌
2.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와 측정문항의 특징에 대한 분석
3. 청소년 역량 수준에 대한 선행문헌: 초중고대학생의 역량 수준에 대한 국내외 문헌 분석
4. 청소년 역량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선행문헌: 기존 청소년 역량 및 청소년 활동 정책 분석
5. 청소년 역량지수 국제비교를 위한 ICCS 2016의 개요

3) 청소년역량 개발 정책을 위한 FGI 와 정책실무협의

청소년 각계 전문가 의견 및 자문 수렴은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과 본 연구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과 자문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시행한 양적 설문조사 분석결과,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및 특성 분석결과,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 사례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구진에서 만든 정책적 제언(안)에 대해 10월말에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은 연구진에서 만든 정책적 제언(안)을 수정하는 데 반영하였다.

연구진에서 양적 설문조사 분석결과,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및 특성 분석결과,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 사례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만든 정책적 제언(안)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10월말에 1차, 2차에 걸쳐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다. 1차에서는 청소년역량관련 정책기획 및 실행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정책전문가 분을 모시고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고, 2차에서는 역시 주된 청소년 역량관련 기관인 교육부의 정책전문가인 공무원 분을 모시고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2차에 걸친 정책실무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최종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반영하였다.

표 III-2 청소년 각계 전문가의 의견 및 자문 수렴 내용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와 측정방향에 대한 타당도 검증	○ 청소년 학계 전문가 : 3인 ○ 청소년 현장 전문가 : 4인 ○ 청소년 정책분야 공무원: 2인
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를 통해 도출된 객관적 자료의 분석 방안	
3. 청소년 역량지수 체계 및 특정문항의 청소년 교육 현장 적용 방안	
4.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 기반으로 청소년 역량을 보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활용 방안	
5. 청소년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 학교, 청소년단체, 시설 기관 등의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현황 평가 - 청소년 역량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이유	○ 고등학생 4명, 중학생 6명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 역량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에 반영하고자 8월말에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FGI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FGI는, 참여청소년들에게 청소년역량 영역들을 설명한 후에 (1) 현재 정부에서 학교, 청소년시설·단체, 지역사회기관 등에서 앞의 표에서와 같은 청소년 역량들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2) 앞의 표에서 제시한 청소년 역량들 중에서 향후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이유 등을 주제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 결과는 정책적 제언에 부분적으로 활용되었다.

표 III-3 청소년 FGI 참가자의 기본적인 특성

연번	이름	성별	교급	학년
1	류○○	남	고등학교	3
2	이○○	남	고등학교	2
3	황○○	남	고등학교	2
4	김○○	여	고등학교	2
5	고○○	남	중학교	3
6	유○○	여	중학교	1
7	김△△	남	중학교	1
8	김□□	여	중학교	2
9	배○○	여	중학교	1
10	정○○	여	중학교	2

2.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1) 연구대상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첫째, 2015년도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정교화를 위한 핵심문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가 지향하고 있는 결과변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2016 청소년 역량지수 5개 영역(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과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각 역량별 수행변인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6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2016 아동·청소년 통합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초·중·고등학생 9,000명, 대학생 1,000명 이상의 표본수를 확보함으로써 통계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선정은 2016년 4월 기준 우리나라 17개 시·도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표본샘플 추출방식에 의거하여 초·중·고등학생은 9,045명이었으며, 대학생은 1,000명이 추출되어 총 10,045명 이상이 본 연구조사에 참여하게 될 표본샘플로 추출되었다.

(1) 초·중·고등학생 표본설계⁴⁾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에 참여를 위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모집단 수는 4,683,052명이다.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1,333,402명(28.5%), 중학교 1,573,960명(33.6%), 고등학교 1,775,690명(37.9%)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변형비례배분으로 추출한 전체 표본크기는 9,045명이었으며, 초등학생 3,000명(33.2%), 중학생 3,042명(33.6%), 고등학교: 3,003명(33.2%)으로 <표 III-4>와 같이 결정되었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4) 초·중·고등학생 표본설계관련 내용은 2016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였음.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0\%$ P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초·중·고등학생 표본집단의 크기를 추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지역, 학교급, 그리고 학년별로 학교 수와 학생 수의 분포 및 추출방법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III-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모집단크기 및 표본집단 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표본집단크기 (변형비례배분)	
초등학교		4	415,395	1,333,402 (28.5%)		3,000 (33.2%)	
		5	449,931				
		6	468,076				
중학교		1	459,536	1,573,960 (33.6%)		3,042 (33.6%)	
		2	522,813				
		3	591,611				
고등학교	일반고	1	409,946	1,257,955 (26.9%)	1,775,690 (37.9%)	1,860 (20.6%)	3,003 (33.2%)
		2	416,588				
		3	431,421				
	자율고	1	46,937	139,604 (3.0%)		465 (5.1%)	
		2	46,001				
		3	46,666				
	특성화고	1	115,483	349,109 (7.5%)		546 (6.0%)	
		2	115,439				
		3	118,187				
	특수 목적고	1	10,121	29,022 (0.6%)		132 (1.5%)	
		2	9,915				
		3	8,986				
합계				4,683,052 (100.0%)		9,045 (100.0%)	

* 출처: 이 표는 2016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 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해 모집단의 목표표본 표집설계에 따라 16개 시·도 표본학급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150개 학교, 중학교 117개 학교, 고등학교 102개 학교 등 총 369개 학교가 표집 할당되었으며, 지역별로는 <표 III-5>에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목표표본 표집에 따른 학교할당은 층화집락추출법(지역*교급*학교유형)을 적용하였다. 각 층화기준 광역 내 교급별 학급당 평균학생 수를 기준으로 적정 추출학교 수를 결정하였고, 규모기준 정렬 학교리스트에서 학교 계통 추출하였으며, 고교의 경우 학교유형구분(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을 추가 고려하였다. 학급선정에 있어서는 표본 선정 학교에서 1개 학년 1개 학급 추출하며, 학급은 해당 학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III-5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369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4(8)	21(7)	6(2)	3(1)	6(2)	6(2)
경기	39(13)	30(10)	12(4)	3(1)	3(1)	
인천	9(3)	6(2)	3(1)			
강원	6(2)	3(1)	3(1)	3(1)	3(1)	
충북	6(2)	3(1)	3(1)			
충남	6(2)	6(2)	3(1)			
대전	6(2)	3(1)	3(1)			
경북	6(2)	6(2)	3(1)	3(1)	6(2)	
경남	9(3)	9(3)	3(1)			
부산	9(3)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전북	6(2)	6(2)	3(1)	3(1)	3(1)	
전남	6(2)	3(1)	3(1)			
광주	6(2)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50(50)	117(39)	60(20)	15(5)	21(7)	6(2)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69(123)개

* 출처: 이 표는 2016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다음으로 학교급별 표집학생의 표본수를 초등학생은 3,000명, 중학생은 3,042명, 고등학생은 3,003명(일반고 1,860명, 자율고 465명, 특성화고 546명, 특수목적고 132명) 등 총 9,045명이 표집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표 III-6>에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표 III-6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80	546	186	93	156	132
경기	780	780	372	93	78	
인천	180	156	93			
강원	120	78	93	93	78	
충북	120	78	93			
충남	120	156	93			
대전	120	78	93			
경북	120	156	93	93	156	
경남	180	234	93			
부산	180	156	93			
대구	120	156	93			
울산	60	78	93	93	78	
전북	120	156	93			
전남	120	78	93			
광주	120	78	93			
제주	60	78	93			
합계	3,000	3,042	1,860	465	546	132

* 총계: 9,045명

* 출처: 이 표는 2016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으며,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하였음.

(2) 대학생 표본설계⁵⁾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위한 대학생의 모집단은 2016년 1학기에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집단 크기는 2,894,450명이었다. 4년제 대학생이 2,173,939명(201개 대학)이고 전문대 대학생이 720,466명(138개 대학)이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286,389명, 사회계열 781,557명, 교육계열 134,176명, 공학계열 799,581명, 자연계열 310,917명, 의학계열 240,698명, 그리고 예체능 계열 341,087명이었다. 지역별 대학생 모집단 크기에 대한 내용은 <표 III-7>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표본설계 내용은 [부록 2]에 제시되었다.

표 III-7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대학생 모집단크기(시도별, 계열별)

시도	재적학생수								학제별 학생수		학제별학교수	
	전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4년제 대학	전문 대학	4년제 대학	전문 대학
서울	567,207	89,956	166,653	21,738	144,199	62,924	17,258	64,479	507,708	59,499	39	9
부산	265,792	29,041	75,264	9,541	80,286	25,507	17,691	28,462	210,445	55,347	13	9
대구	126,257	9,250	28,970	6,367	37,115	15,165	15,911	13,479	68,789	57,468	4	7
인천	71,500	4,619	17,473	4,573	29,913	6,805	1,911	6,206	47,679	23,821	4	3
광주	116,106	11,006	27,663	8,301	28,978	12,954	15,647	11,557	88,861	27,245	11	6
대전	150,477	15,122	39,031	5,913	43,300	18,103	15,140	13,868	120,355	30,122	11	4
울산	35,423	2,443	6,804	389	14,477	3,912	4,108	3,290	23,852	11,571	2	2
세종	24,902	2,098	7,462	294	6,444	1,543	139	6,922	19,707	5,195	1	1
경기	471,130	38,643	126,605	16,620	140,169	40,129	26,987	81,977	250,195	220,935	29	31
강원	135,726	10,617	39,468	6,562	30,396	19,848	17,644	11,191	110,785	24,941	9	9
충북	133,173	9,649	35,702	10,351	34,702	15,779	12,883	14,107	107,629	25,544	11	5
충남	209,487	21,012	60,200	9,225	52,480	20,023	16,987	29,560	182,784	26,703	15	6
전북	129,924	10,545	30,570	8,162	31,185	16,578	16,419	16,465	103,636	26,288	11	9
전남	81,302	4,097	19,220	4,900	21,679	7,308	16,655	7,443	51,836	29,466	10	9
경북	218,978	16,899	60,579	10,972	58,455	23,178	27,064	21,831	171,371	47,607	18	16
경남	126,509	8,435	30,435	8,303	41,496	16,189	14,644	7,007	90,384	36,125	11	10
제주	30,512	2,957	9,458	1,965	4,307	4,972	3,610	3,243	17,923	12,589	2	2
합계	2,894,405	286,389	781,557	134,176	799,581	310,917	240,698	341,087	2,173,939	720,466	201	138

* 출처: 이 표는 2016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5) 대학생 표본설계관련 내용은 2016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였음.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위한 대학생 표본크기는 17개 시도별 대학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대학 유형별(4년제 대학, 전문대학), 학년별(1·4학년), 계열별(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특성을 고려하여 하여 단순비례배분방식으로 1,000명을 목표표본으로 표집되었다⁶⁾. 그 결과, 4년제 대학 34개 학교, 전문대학 16개 학교 등 총 50개 학교가 할당 되었으며, 50개 표본학교의 배분은 8개 권역별로 1개교를 우선 할당한 후에 표본 대학교 수를 기준으로 비례 배분한 후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비례배분법으로 할당을 계산하며 그 결과는 다음 <표 III-8>에 제시되었다.

표 III-8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지역별 대학생 표본학교 수

권역	학생수			학교수		할당표본학교		
	4년제 대학	전문 대학	합계	4년제 대학	전문 대학	4년제 대학	전문 대학	합계
서울	507,708	59,499	567,207	39	9	7	2	9
경인	297,874	244,756	542,630	33	34	5	4	9
충청	430,475	87,564	518,039	38	16	6	2	8
전라	244,333	82,999	327,332	32	24	4	2	6
경북	240,160	105,075	345,235	22	23	4	2	6
경남	324,681	103,043	427,724	26	21	5	2	7
강원	110,785	24,941	135,726	9	9	2	1	3
제주	17,923	12,589	30,512	2	2	1	1	2
합계	2,173,939	720,466	2,894,405	201	138	34	16	50

* 출처: 이 표는 2016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음.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위한 대학생의 표본학교 수는 50개교를 기준으로 1,000명 목표표본을 추출한다고 할 경우, 학교별 20명(계열별 2~4명)을 조사하여야 한다. <표 III-9>에 주어진 권역별 할당표본학교수를 학생수(=학교수*20명)로 계산한 후에 권역별로 계열별로 조사해야할 표본학생수를 비례배분한 결과, 인문계열 98명, 사회계열 270명, 교육계열 48명, 공학계열 271명, 자연계열 111명, 의학계열 87명, 예체능계열 115명 등 총 1,000명이 표집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표 III-9>에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6) 대학생 집단을 병행비례배분 방식으로 표집 할 경우, 표본샘플 수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다른 비용 부담이 상당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권역과 학교유형, 계열을 중심으로 단순비례배분하여 1,000명을 표집목표로 정하여 표집 하였다.

표 III-9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지역별 계열별 대학생 표본크기

권역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합계
서울	29	53	7	46	20	5	20	180
경인	14	48	7	56	16	10	29	180
충청	15	44	8	42	17	14	20	160
전라	9	28	8	30	14	18	13	120
경북	9	31	6	33	13	15	13	120
경남	13	37	6	45	15	12	12	140
강원	5	17	3	13	9	8	5	60
제주	4	12	3	6	7	5	3	40
합계	98	270	48	271	111	87	115	1,000

2) 연구도구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는 2015년 2차 년도에 활용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장근영 외, 2015)를 활용하였다. 이때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보다 정교화하여 핵심측정문항을 우선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 역량지수 영역별 측정된 결과 값이 각 영역별 역량이 지향하는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영역별 결과변인으로써 수행변인 문항을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정교화, 수행변인 선정, 사전조사를 통한 측정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정교화를 위하여 2015년도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결과 최종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문항의 정교화를 위한 준거기준으로 ①문항별 왜도, 첨도 및 응답 분포 확인, ②문항 전체-문항 간 상관관계 검토, ③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 ④문항별 신뢰도 및 제거시 신뢰도 확인, ⑤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⑥측정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응답자의 수준에 맞는 용어로 수정 및 보완, ⑦사전조사를 통한 신뢰도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수행변인을 선정하였다. 이는 측정된 청소년 역량지수 결과 값이 청소년의 어떠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청소년 역량지수 영역별 주제에 따른 선행문헌분석을 통해 각 역량이 지향하는 수행변인으로써 주요특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결과 값을 측정하여 청소년 역량지수가 수행변인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사전조사는 정교화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수행변인 측정문항 등의 신뢰도와 조사표 초안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과 내용 이해도 등을 최종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6년 4월 27일 실시되었다. 사전조사는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4~6학년 79명, 중학생 1~3학년 78명, 고등학교 1~2학년 59명, 대학생 56명 등 총 272명(남학생 139명, 여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해당 설문내용의 이해도에 있어서 용어의 어려움, 문장 구조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현직 교사 3명과 4학년 초등학교 6명을 대상으로 설문문항에 대한 자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사전조사 응답자의 수를 제시하면 <표 III-10>와 같다.

표 III-10 사전조사 응답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합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28	24	27	28	24	26	30	29	—	56	272
남	15	12	15	13	11	12	16	18	—	27	139
여	13	12	12	15	13	14	14	11	—	29	133

이와 같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 및 수행변인 측정문항 개발 결과,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설문문항의 구성체계는 생애학습역량 24문항, 생활관리역량 35문항, 진로개발역량 25문항, 대인관계역량 33문항, 사회참여역량 47문항 등과 같이 5개의 역량군을 중심으로 164문항이 구성되었다. 또한 각 역량별 수행변인으로 생애학습역량 관련 18문항, 생활관리역량 18문항, 진로개발역량 16문항, 대인관계역량 13문항 등 총 70문항이 추가적으로 구성되었고, 청소년의 배경변인 19문항이 포함되어 총 24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보다 자세한 설문문항의 구성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애학습역량지수 및 수행변인 측정도구

생애학습역량은 사고력 6문항(비판적 사고력 3문항, 감성적 사고력 3문항), 지적도구활용 12문항(언어능력, 3문항, 수학능력 3문항, 과학능력 3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 3문항), 학습적응성 6문항(변화수용력 2문항, 지적호기심 2문항, 학습주도성 3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정교화에 있어서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왜도 $-0.897 \sim 0.122 (< 2 \text{ 이하})$ 와 첨도 $-0.929 \sim 0.607 (< 7 \text{ 이하})$ 로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인을 측정하는 하위문항은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없으면 이질적인 문항으로 제거되어야 하고 높은 상관관계일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항 전체-문항 간 상관관계 검토와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 상관관계가 .3이하의 문항이나 .7이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은 우선적으로 제거해야할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문항별 신뢰도 및 제거시 신뢰도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7이하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단 이때,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위문항의 구조에 있어 2문항 또는 3문항 이상을 유지하면서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본 조사 이후 최종적으로 문항을 정교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생애학습역량지수 37문항 중 최종적으로 13문항이 제거되었으며, 최종 측정문항은 24문항으로 도출되었다.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0.871$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한편,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 결과값을 설명하기 위한 수행변인으로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 8문항, 문제해결능력 6문항, 학습시간 4문항, 청소년 체험활동 8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성은모와 최효선 (2016)이 개발한 측정도구 중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8문항을 활용하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문항은 전략적 학습기술 2문항(예, 나는 그날 배운 내용은 반드시 그날 복습한다), 탐구적 학습전략 2문항(예, 나는 공부를 하면서도 다음으로 진행해야할 단계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학습몰입 2문항 (예, 나는 공부나 어떤일을 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한다), 학습에 대한 신념 및 가치 2문항(예, 나는 성적을 위해 공부하기보다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즐겁다)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0.881$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문제해결능력은 이석재와 동료들(2003)이 개발한 측정도구 중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6문항을 활용하였다. 문제해결능력 문항은 문제확인 및 원인분석 2문항(예, 나는 어떤 문제를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는다), 해결안 탐색 및 계획 2문항(예,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를 살펴본다), 실행 및 성찰 2문항(예, 나는

결과가 어떠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로 해본다)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870$ 으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학습시간은 학습자의 실제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시간에 대한 양적 변인으로써 정규교육과정 학습시간 외에 방과 후 이루어지는 교과학습활동과 교과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취미 및 특기를 배우는 학습활동 시간으로 구분지어 주중과 주말에 이루어지는 평균학습시간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체험활동은 건강증진활동(비만 및 질병관리 활동, 스포츠 활동, 게임·스마트폰·흡연·자살·스트레스 등 예방 및 치료활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활동 등), 과학정보활동(로봇, 우주, 해양, 생물, 화학, 물리,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활동 등), 교류활동(국제교류, 남북청소년 교류, 국내 지역 간 교류 활동 등), 모험탐사활동(야영, 생태탐사, 산악, 래프팅 및 스카이스쿠버, 국토순례 등), 문화예술활동(연극, 영화, 전통문화, 음악,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람, 다양한 축제참여 등), 자원봉사활동(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도움활동, 재능나눔활동, 환경보호 및 캠페인 활동 등), 진로활동(진로직업탐색, 진로적성검사, 직업체험 활동 등), 참여활동(학생회, 동아리,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인권개선 활동 등)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 영역으로는 청소년 체험활동의 여부, 1년 간 참여활동 횟수, 그리고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 등 양적인 수행결과의 정도와 질적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생활관리역량지수 및 수행변인 측정도구

생활관리역량은 건강관리 8문항(위생관리 3문항, 신체관리 2문항,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문항), 과제 관리 6문항(목표 및 계획 수립 3문항, 수행 및 평가 3문항), 상황대처 12문항(중독인식 3문항, 중독행동 3문항, 폭력행동 3문항, 폭력회피 3문항), 정서 조절 9문항(분노행동 2문항, 감정절제 2문항, 조절실패 2문항, 감정인식 3문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정교화에 있어서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왜도 $-.552 \sim .787 (<2$ 이하)와 첨도 $-1.013 \sim 1.880 (<7$ 이하)로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인을 측정하는 하위문항은 상호간에 상관계수가 없으면 이질적인 문항으로 제거되어야 하고 높은 상관계수일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항 전체-문항 간 상관계수 검토와 문항 간 상관계수 분석에 있어 상관계수가 .3이하의 문항이나 .7이상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문항은 우선적으로 제거해야할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문항별 신뢰도 및 제거시 신뢰도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7이하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단 이때,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위문항의 구조에 있어 2문항 또는 3문항 이상을 유지하면서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본 조사 이후 최종적으로 문항을 정교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생애학습역량지수 48문항 중 최종적으로 13문항이 제거되었으며, 최종 측정문항은 35문항으로 도출되었다.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748$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한편,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 결과값을 설명하기 위한 수행변인으로 식사, 운동 및 수면시간 관리 3문항, 생활통제 12문항, 매체중독 3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식사, 운동 및 수면시간 관리는 학생이 실제 자신의 아침식사, 운동, 수면시간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양적 변인으로써 실제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얼마나 하였는지,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30분 이상 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동안 잠을 자는지를 묻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활통제는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 3문항(예, 나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활통제에 대한 주관적 규범 3문항(예, 내 주변 사람들은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지된 행동 통제 3문항(예, 나는 나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생활통제의지 3문항(예, 나는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실천할 것이다)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974$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매체중독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휴대전화 사용 중독에 대해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휴대전화(스마트폰)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951$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3) 진로개발역량지수 및 수행변인 측정도구

진로개발역량은 진로설계 9문항(자기탐색 2문항, 직업탐색 3문항, 직업가치관 2문항, 진로준비 2문항), 여가활용 11문항(여가태도 3문항, 여가유능감 3문항, 여가만족 2문항, 여가몰입 2문항, 여가경험 1문항), 개척정신 5문항(차별화태도 2문항, 도전정신 2문항) 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정교화에 있어서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왜도 $-.923 \sim .387$ (<2 이하)와 첨도 $-.884 \sim .675$ (<7 이하)로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인을 측정하는 하위문항은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없으면 이질적인 문항으로 제거되어야 하고 높은 상관관계일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항 전체-문항 간 상관관계 검토와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 상관관계가 .3이하의 문항이나 .7이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은 우선적으로 제거해야할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문항별 신뢰도 및 제거시 신뢰도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7이하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단 이때,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위문항의 구조에 있어 2문항 또는 3문항 이상을 유지하면서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본 조사 이후 최종적으로 문항을 정교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진로개발역량지수 41문항 중 최종적으로 16문항이 제거되었으며, 최종 측정문항은 25문항으로 도출되었다.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891$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한편,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 결과값을 설명하기 위한 수행변인으로는 진로자기조절 5문항, 진로결정 3문항, 진로활동경험 5문항, 진로정확성 1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자기조절능력은 계획 및 점점 2문항(예,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생각하여 계획한다), 진로몰입의지 3문항(예, 나는 학교에서의 공부와 여러 활동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지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한 활동은 꾸준히 실천한다)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914$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진로결정능력은 진로미결정수준 3문항(예, 나는 지금까지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고민해 보지 않았다)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879$ 으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그리고 진로관련 활동 경험 여부와 총 참여 횟수를 묻는 5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 체험 교육, 직업 관련 견학,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의 여부와 지난 1년간 참여 총 횟수를 적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명확성 1문항을 추가하였다. 진로명확성은 청소년들이 장래에 하고 싶은 직업(전공)이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4) 대인관계역량지수 및 수행변인 측정도구

대인관계역량은 관계형성 12문항(자기개방성 3문항, 친화성 3문항, 의사소통 3문항, 공감 및 배려 3문항), 리더십 9문항(의사결정 3문항, 집단활동 관리 3문항, 추진력 3문항), 협동 8문항(집단추진 3문항, 팔로워십 2문항, 갈등문제해결 3문항)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정교화를 위하여 2016년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자료를 토대로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왜도 $-.76 \sim -.06 (< 2 \text{ 이하})$ 와 첨도 $-.74 \sim .40 (< 7 \text{ 이하})$ 로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인을 측정하는 하위문항은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없으면 이질적인 문항으로 제거되어야 하고 높은 상관관계일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묻는 문항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항 전체-문항 간 상관관계 검토와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 상관관계가 .3이하의 문항이나 .7이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은 우선적으로 제거해야할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문항별 신뢰도 및 문항 제거시 신뢰도를 확인한 후에 문항 제거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문항을 제거하였다. 단 이때,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위문항의 구조에 있어 2문항 또는 3문항 이상을 유지하면서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본 조사 이후 최종적으로 문항을 정교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생애학습역량지수 46문항 중 최종적으로 17문항이 제거되었으며, 최종 측정문항은 29문항으로 도출되었다.

최종 측정된 문항을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973$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한편, 대인관계역량 측정 결과값을 설명하기 위한 수행변인으로는 사회적 관계망 4문항(4문항을 부모, 또래, 교사에 대해 각각 측정), 학교생활 적응 4문항(학교공부 2문항, 학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은 부모, 친구, 교사에 대해 각각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는 ()와 자주 놀러가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많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946$ 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학교생활적응은 학교공부(학업유능감) 2문항(예: 나는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다),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 2문항(예: 나는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867$ 으로 나타나 보편적 문항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이와 함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양적 변인으로써 친한 친구의 수, 친한 친구와의 놀이 횟수,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및 교사, 주변 어른의 수를 측정하였다.

(5) 사회참여역량지수 및 수행변인 측정도구)

사회참여역량은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 등으로 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인 시민성(14문항)은 권리·책임의식(4문항), 민주적 절차 및 의식(2문항), 정치적 관심(3문항),

7)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연구과제 보고서 김태준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I: IEA ICCS 2016-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정치적 자아효능감(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공동체 시민성(20문항)은 투표참여(2문항), 시민활동의 중요성(4문항), 저항의식(5문항), 신뢰(4문항), 교실개방성(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계시민성(13문항)은 성 인지(2문항), 이민자에 대한 태도(3문항), 국가 및 역사의식(4문항), 국제관계 관심(2문항), 글로벌 의사소통(2문항) 등으로 총 47문항이 구성되었다.

(6) 설문응답자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수행변인 측정도구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변인은 성별, 생년(연령), 가족구성, 부모님(보호자)의 사회적지지, 학업성취도 수준, 경제적 수준, 부모님(보호자) 학력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청소년 행복감 4문항을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결과로써 구성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와 청소년 행복감과의 관계분석을 위해 4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최종 24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의 구성체계 및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III-11>과 같으며, 각 세부 설문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3]에 제시되었다.

표 III-11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의 구성체계 및 내용

역량군	하위역량 및 수행변인	세부역량 및 수행변인	문항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3
		감성적 사고력	3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3
		수학능력	3
		과학능력	3
		정보통신활용능력	3
생애학습역량	학습적응성	변화수용력	2
		지적호기심	2
		학습주도성	2
	수행변인	자기주도학습	8
		문제해결	6
		학습시간	4
		청소년 체험활동	8
	총계		50

역량군	하위역량 및 수행변인	세부역량 및 수행변인	문항수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위생관리	3
		신체관리	2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3
		수행 및 평가	3
	상황대처	중독인식	3
		중독행동	3
		폭력행동	3
		폭력회피	3
	정서조절	분노행동	2
		감정절제	2
		조절실패	2
		감정인식	3
	수행변인	식사, 운동 및 수면시간	3
		생활통제	9
		매체중독	3
	총계		50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2
		직업탐색	2
		진로준비	2
		직업가치관	3
진로개발역량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3
		도전정신	3
	여가활용	여가태도	3
		여가유능감	3
		여가만족	2
		여가몰입	2
	수행변인	진로자기조절	6
		진로결정	3
		진로활동경험	5
		진로정확성	1
		(경험)	1
	총계		41

역량군	하위역량 및 수행변인	세부역량 및 수행변인	문항수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3
		친화성	3
		의사소통	3
		공감 및 배려	3
	리더십	의사결정	3
		집단활동관리	3
		추진력	3
	협동	집단촉진	3
		팔로워십	2
		갈등문제 해결	3
	수행변인	사회적관계망	4
		학교적응(또래, 교사, 학교생활)	4
		친구와 주변어른들	5
총계			42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 · 책임의식	4
		민주적 절차 및 의식	2
		정치관심	3
		정치적 자아효능감	5
사회참여역량	공동체 시민성	투표참여	2
		시민활동의 중요성	4
		저항 의식	5
		신뢰	4
		교실개방성	5
	세계 시민성	성 인지	2
		이민자에 대한 태도	3
		국가 및 역사의식	4
		국제관계 관심	2
		글로벌 의사소통	2
총계			47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문항			7
청소년 행복감			4
전체 문항수			241

3) 조사일정

2016년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조사는 2016년 4월~7월까지 전문 설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사전조사와 본조사가 진행되었다.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설문 조사지를 바탕으로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달간 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절차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III-12>에 제시되었다.

표 III-12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절차 및 일정

단 계		내 용	기 간
조사기획	표본설계	- 교육부 모집단 자료를 제공받은 후 표본설계 실시 - 표본추출 리스트를 연구원에 제출	4월 ~ 5월
	설문 확정	- 조사표 초안 검토 - 사전조사 실시 - 자문진과 연구진 검토를 거쳐 확정	4월 18일 ~ 5월 9일
실사	조사원모집 /교육	- 수도권 조사원 및 지방 실사 조사원 모집 6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원 집체 교육 실시	집체교육 5월 11~16일
	조사도구 준비	- 설문지 제작 - 조사원지침서/조사안내자료/공문 - 응답자 답례품 준비 등	5월 11일 ~ 5월 16일
	현장 실사	- 학교방문조사 실시 - 특이사항 있을 시 즉각 보고 - 연구진의 현장 모니터링 실시	5월 16일 ~ 7월 26일
자료처리/ 보고	에디팅	조사완료 설문지 에디팅	8월
	코딩	연구원의 지침에 따른 코딩	8월
	편집	- 전용 편집 프로그램에 설문지 입력 - 연구원의 자료입력 검증 실시	8월자료입력 검증 (2일~5일)
	데이터 클리닝	연구원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클리닝 실시	8월
	가중치 작업	가중치 산출	8월 25일 ~ 8월 31일
	기초테이블	기초테이블 산출 및 차이검증 실시	9월 1일 ~ 9월 23일
	결과 보고	- 실사 완료 후 중간보고 실시 - 최종 데이터 제출 후 최종 보고 실시	9월 26일 ~ 10월 14일

4) 자료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표집된 표본샘플을 기반으로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역량지수를 측정 조사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 클리닝을 실시하였다. 조사표와 데이터를 대조하여 입력상의 오류, 과도하게 무응답이 많은 경우, 동일한 번호로 대부분 문항에 응답한 데이터를 검증하였다. 1차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 오류사항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을 거쳤다. 그 결과, 초등학교 4, 5, 6학년 3,627명, 중학생 1, 2, 3학년 3,406명, 고등학교 1, 2, 3학년 3,286명 등 총 10,319명의 샘플이 표집 되었으며, 지역별 자세한 표집 현황은 <표 III-13>에 제시되었다.

표 III-13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조사에서 표집된 표본샘플 기준 지역별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96	490	183	84	189	185
경기	1056	972	382	93	84	
인천	186	185	148			
강원	143	123	114	92	77	
충북	153	80	128			
충남	143	192	94			
대전	131	91	97			
경북	139	171	85	100	151	
경남	219	260	85			
부산	211	154	97			
대구	156	157	109			
울산	73	80	94			
전북	146	191	111	121	82	
전남	153	84	85			
광주	153	83	110			
제주	69	93	106			
합계	3,627	3,406	2,028	490	583	185

본 연구조사 결과 수집된 초·중·고등학생 샘플 10,319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 남학생이 5,007명(48.5%), 여학생이 5,312명(51.5%)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3,627명(35.1%), 중학생 3,406명(33.0%), 그리고 고등학생 3,286명(31.8%)이었으며, 보다 자세한 현황은 <III-14>에 제시하였다.

표 III-14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사례 수(초·중·고등학생)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319	100.0
성별	남자	5,007	48.5
	여자	5,312	51.5
학교급	초등학교	3,627	35.1
	중학교	3,406	33.0
	고등학교	3,286	31.8
지역	서울	1472	14.3
	경기	2578	25.0
	인천	582	5.6
	강원	380	3.7
	충북	417	4.0
	충남	450	4.4
	대전	437	4.2
	경북	447	4.3
	경남	590	5.7
	부산	497	4.8
	대구	515	5.0
	울산	316	3.1
	전북	508	4.9
	전남	434	4.2
	광주	373	3.6
	제주	323	3.1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319	100.0
학업성취수준	60점 이하	2,116	20.5
	61~65점	666	6.5
	66~70점	754	7.3
	71~75점	752	7.3
	76~80점	1,030	10.0
	81~85점	1,114	10.8
	86~90점	1,338	13.0
	91~95점	1,425	13.8
	96~100점	1,124	10.9
부모의 학력	부모 대졸이상	3,622	35.1
	한분만 대졸이상	1,830	17.7
	부모 고졸이하	2,013	19.5
	기타	2,854	27.7
가족구성 (새아버지, 새어머니 포함)	양 부모 가정	9,149	88.7
	한 부모 가정	717	6.9
	조손 가정	146	1.4
	기타	307	3.0
경제적 수준	① 매우 못 산다	186	1.8
	②	485	4.7
	③	1,193	11.6
	④ 보통 수준	4,250	41.2
	⑤	2,705	26.2
	⑥	1,092	10.6
	⑦ 매우 잘 산다	408	4.0

한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조사 결과에 따른 대학생 샘플은 1,000명이었다. 이들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 클리닝을 실시한 결과, 결측치나 불성실한 응답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원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 남학생은 528명(59.9%), 여학생이 472명(40.1%)이었고, 1학년 349명(32.9%), 2학년 332명(31.8%), 3학년 184명(19.8%), 그리고 4학년 135명(15.4%)이었으며, 보다 자세한 표본의 특성은 <표 III-15>에 제시되었다.

표 III-15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사례수(대학생)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자	528	59.9
	여자	472	40.1
연령	20세 이하	323	30.1
	21세	208	19.8
	22세	119	11.2
	23세	93	9.8
	24세	109	11.6
	25세	77	8.6
	26세 이상	71	8.8
학교지역	서울	180	19.6
	경기	140	14.6
	인천	40	4.1
	강원	60	4.7
	충남	80	9.7
	대전	80	8.2
	경북	80	8.0
	부산	100	10.7
	대구	40	3.9
	울산	40	4.0
	전북	58	6.1
	전남	42	3.5
	광주	20	1.8
	제주	40	1.1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학교유형	전문대학(2년제)	242	19.7
	대학교(3년제)	78	5.2
	대학교(4년제)	680	75.1
학년	1학년	349	32.9
	2학년	332	31.8
	3학년	184	19.8
	4학년	135	15.4
계열	인문계열	98	9.8
	사회계열	270	27.7
	교육계열	48	4.8
	공학계열	271	28.4
	자연계열	111	11.1
	의학계열	87	7.1
	예체능계열	115	11.1
성적	4.0점 이상	114	11.4
	3.5~4.0 미만	347	34.7
	3.0~3.5 미만	391	39.1
	3.0점 이하	85	8.5
	모름/무응답	63	6.3
부모의 학력	부모 모두 대졸이상	359	36.8
	한 분만 대졸이상	239	23.6
	부모 모두 고졸이하	347	34.0
	기타	55	5.7
가족구성 (새아버지, 새어머니 포함)	양부모가정	930	93.5
	한부모가정	53	5.0
	조손가정	2	.1
	기타	15	1.5
경제적 수준	① 매우 못산다	24	2.4
	②	80	8.0
	③	133	13.3
	④ 보통수준	451	45.1
	⑤	232	23.2
	⑥	66	6.6
	⑦ 매우 잘산다	14	1.4

5) 자료분석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의 목적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의 효율성을 위한 문항의 축소와 측정된 청소년 역량지수 결과가 다른 측정도구 결과와 유사한지 그리고 청소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결과의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축소에 따른 측정결과 자료에 대한 양호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자료의 정규성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정규성은 왜도(skewness)는 절대값 2이하, 첨도(kurtosis) 절대값 7이하일 경우 정규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Curran, etal, 1996). 또한 신뢰도 계수는 .70이상(Brace, Kemp, Snelgar, 2013)을 권장하고 있다.

둘째, 단축문항으로 구성된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역량지수 단축 측정문항에 의한 구성체계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청소년 역량의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 구조의 측정모형을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comparative fit index, >.90), NFI(normed fit index, >.90), IFI(incremental fit index, >.90),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김동일, 2010; 성은모, 진성희, 김균희, 2016; Sung, & Mayer, 2012).

셋째,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라 청소년 역량지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은 성별, 학교급(초등: 초기 청소년, 중등: 중기 청소년, 고등: 중기청소년, 대학: 후기청소년)⁸⁾, 학업성취도수준, 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그리고 사후검증이 실시되었다.

넷째, 청소년 역량지수와 해당 역량군을 대표하는 유사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역량지수를 대표하는 변인과 청소년 역량, 하위역량, 그리고 세부역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 분석과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지수와 해당 역량군을 대표할 있는 수행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

8)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역량 특성은 청소년 시기별 역량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초기 청소년 시기는 초등학생에 해당되며, 중기 청소년 시기는 중고등학생, 후기 청소년 시기(청년기)는 대학생 시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 별 역량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학교급에 따른 역량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 이를 위해 각 청소년 역량, 하위역량과 세부역량 각각이 수행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3. ICCS 2016 본조사

1) ICCS 2016 소개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 비교조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 2009)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에서 조직한 청소년대상 국제 비교조사 중의 하나이다. 이 조사의 목적은 2010년대에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조사의 역사는 1971년에 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교육 연구 프로젝트 (Torney, Oppenheim, & Farnen, 1975; Amadeo, Torney-Purta, Lehmann, Husfeldt, & Nikolova, 2002에서 재인용)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첫 번째 연구에서는 9개국의 3개 연령그룹 청소년들 3만 여명을 대상으로 시민의식과 시민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 선행 연구를 기초로 1999년에 시민교육연구(CivEd)라는 명칭으로 첫 번째 국제조사를 실시했다. 부분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캐나다와 네덜란드, 이스라엘을 포함해 총 31개국이 이 조사에 참여했다. 이때부터 조사대상 연령은 다른 국제교육평가 조사 연령인 만 14세(13.5세)와 동일하게 조정되었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에 대한 조사 역시 함께 실시되었다. 2009년에는 조사의 명칭이 현재와 같은 ICCS로 변경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총 38개 국가와 도시가 참여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ICCS 2016은 제 3회 조사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총 28개국이 예비조사(Field Trial)에 참여했으며 남반구 국가에서는 2015년에, 한국을 포함한 북반구 국가들은 올해에 본조사(Main Survey)를 실시하였다.

올해 실시한 ICCS 2016 조사는 2009년 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새로 추가된 영역과 2009년 결과를 바탕으로 삭제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조사문항을 2009년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구성함으로써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ICCS 2016은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에 관련된 7년간(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변화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시민의식 및 시민성 교육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측면을 조사한다. ICCS 조사의 도구는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검사와 설문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민 지식, 태도, 참여 실태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비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ICCS 2009 조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측면을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 항목이 개발되었다. 향후 실시될 ICCS 조사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취해서 조사 도구에 이전의 조사 도구와 새롭게 개발된 조사 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또는 정의적·행동적 측면의 추가적인 부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표 III-16 ICCS 조사의 약력

수행연도	명칭	참가국	조사대상
1971	9개국 시민교육 비교연구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미국, 스웨덴,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핀란드 (9개국)	학생
1999	CivED (Civic Education Study)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슬로브 공화국, 에스토니아,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호주, 홍콩, 28개국 ⁹⁾	학생(8학년), 교사, 학교장
2009	ICCS 2009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2009)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파라과이, 폴란드, 핀란드, 과테말라,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대만,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뉴질랜드 38개국	학생(8학년), 교사, 학교장
2016	ICCS 2016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2016)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아르헨티나,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페루, 대만, 대한민국, 홍콩 28개국 예정	학생(8학년), 교사, 학교장

* 출처: IEA Cived <http://www.iea.nl/cived.html>, IEA ICCS 2016 <http://iccs.iea.nl/>

9)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일부조사에만 참가, 이스라엘은 데이터 일부만 제출하여 분석에서 제외

표 III-17 2016년 ICCS의 민주시민역량 개념구성

2016	차원		내용영역1	내용영역2	내용영역3	내용영역4
			시민사회의 구조	시민사회의 원칙들	시민 참여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인지 차원	지식	시민들 정부기관 시민기관	평등 자유 공동체의식 법질서	의사결정 영향력 행사 공동체 참여	시민의 자아상 시민 유대감
		추론과 분석				
	정의/ 행동 차원	태도	정부기관 및 체계에 대한 태도	민주시민사회의 원리에 대한 태도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공동체와 개인들에 대한 태도 등
		행동 의도	정치적 주제에 대한 항의와 표현을 위한 시민참여 의도 성인으로서의 미래 시민참여 의도 학생으로서 학교에 대한 시민참여 의도 등			

2) 조사대상

ICCS 2009와 마찬가지로 ICCS 2016 조사 역시 해당국가의 정규교육을 받는 13.5세 학생들을 조사대상 모집단으로 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8학년의 평균 연령이 만 13.5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8학년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본추출을 위하여 2015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 명단과 학생수 자료를 IEA 본부에 보냈고, IEA의 통계처리 본부에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2차 대체표본과 3차 대체표본을 포함한 150학교의 표집 계획을 제공했다. 본 연구진은 이렇게 제공받은 표본 학교들을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조사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1차 표집학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학교의 2차 혹은 3차 대체 학교를 섭외하였으며, 3차 대체 학교까지 응하지 않는 경우는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교장(혹은 교감) 1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조사 대상 학년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년 초부터 해당 학교에 재직한 교사 전원, 그리고 IEA에서 제공한 표본추출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작위로 선정된 1개 학급 학생 전원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표본학교들의 참여를 요청한 결과,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학교는 총 106개 중학교였으며, 해당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생 2,998명(학교당 1개 학급 표집)과 2학년 담당 교사 1369명 및 교장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I-18 ICCS 2016 조사참여학교 현황 (괄호 안은 전체학교수)

구분	중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서울	17 (384)	0 (2)	11 (273)	6 (109)
경기	28 (619)	0 (0)	24 (532)	4 (87)
인천	2 (134)	0 (0)	1 (123)	1 (11)
강원	2 (162)	0 (0)	2 (147)	0 (15)
충북	5 (128)	0 (2)	4 (107)	1 (19)
충남	3 (186)	0 (1)	3 (141)	0 (44)
대전	4 (88)	0 (0)	4 (72)	0 (16)
경북	7 (271)	0 (0)	5 (198)	2 (73)
경남	11 (265)	0 (1)	8 (188)	3 (76)
부산	6 (172)	0 (0)	5 (135)	1 (37)
대구	6 (125)	0 (1)	5 (90)	1 (34)
울산	0 (63)	0 (0)	0 (59)	0 (4)
전북	4 (209)	0 (0)	3 (160)	1 (49)
전남	6 (250)	0 (0)	6 (215)	0 (35)
광주	4 (90)	0 (1)	3 (64)	1 (25)
제주	1 (45)	0 (1)	1 (38)	0 (6)
합계	106 (3,209)	0 (9)	85 (2,560)	21 (640)

표 III-19 ICCS 2016 조사 응답자 현황

구분	학생			교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서울	442	213	229	225	78	147
경기	839	437	402	368	116	252
인천	60	31	29	26	11	15
강원	57	28	29	25	8	17
충북	139	72	67	51	17	34
충남	93	49	44	36	10	26
대전	122	45	77	56	11	45
경북	199	130	69	96	33	63
경남	329	162	167	140	52	88
부산	155	97	58	64	19	45
대구	145	93	52	81	17	64
울산	—	—	—	—	—	—
전북	126	63	63	58	19	39
전남	166	95	71	67	15	52
광주	104	77	27	58	25	33
제주	28	28	—	17	6	11
합계	3004	1620	1384	1368	437	931

2) 측정도구

ICCS 2016은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1) 학생용 검사지

- 학생용 인지능력 검사지: 인지능력 검사지는 학생의 시민지식과 분석 및 추리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지는 능력검사로써 정답과 채점기준이 있는 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검사는 학생들이 45분이라는 제한시간 내에 응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검사지의 전체 문항 수는 88문항이지만 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문항 수는 33문항이다. 문항들은 각각 11개 씩 8개의 하위유목(cluster)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하위유목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실제 학생용 소검사지(test booklet)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총 8유형의 학생용 검사지가 만들어지며, 조사대상 학급마다 IEA에서 제공한 조사지 배포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8유형의 검사지 중 하나가 해당학생에게 배분된다. 학생용 인지능력 검사지의 구성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이렇게 전체 문항을 8개의 소검사지로 나누어 측정함으로써 개별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응답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다양한 인지능력을 포괄할 수 있고, 응답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응답을 참조하기 어렵도록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단, 이렇게 서로 다른 조사지에 응답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서 인지능력 검사지의 배부와 취합은 모두 사전에 계획된 대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 분석 역시 IEA 본부에서 종합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표 III-20 ICCS 2016 학생용 인지능력 검사지의 구성 방식

검사지 번호 Test Booklet	공통사항	1영역	2영역	3영역	비고
1	주의사항 및 연습문제	Cluster 1	Cluster 2	Cluster 4	각 Cluster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
2		Cluster 2	Cluster 3	Cluster 5	
3		Cluster 3	Cluster 4	Cluster 6	
4		Cluster 4	Cluster 5	Cluster 7	
5		Cluster 5	Cluster 6	Cluster 8	
6		Cluster 6	Cluster 7	Cluster 1	
7		Cluster 7	Cluster 8	Cluster 2	
8		Cluster 8	Cluster 1	Cluster 3	

- 학생용 설문지: 이 조사지는 학생의 배경 요인 및 학생의 인식을 측정하는 3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능력검사가 아닌 설문조사지에 해당하며 정답이 없고 특정한 사안에 대한 개별 학생의 의견이나 현황을 묻는 설문조사지이다. 학생들은 1교시에 인지능력 검사에 응한 뒤에 2교시에는 학생용 설문지에 응답한다.
- 아시아지역 모듈조사 학생용 설문지: 설문조사 방식의 8개 문항(하위항목 59개)으로 구성되어, 아시아 국가에서만 시행되는 설문지이다.

(2) 교사용 설문지

- 교사용 설문지는 조사대상 학년에서 정규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중에서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지로, 교사의 배경 요인 및 해당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의 맥락에 관한 요인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묻는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학교용 설문지

- 학교용 설문지는 학교의 특성과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참여와 관련된 학교의 환경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 학교의 학교장(혹은 교감)에게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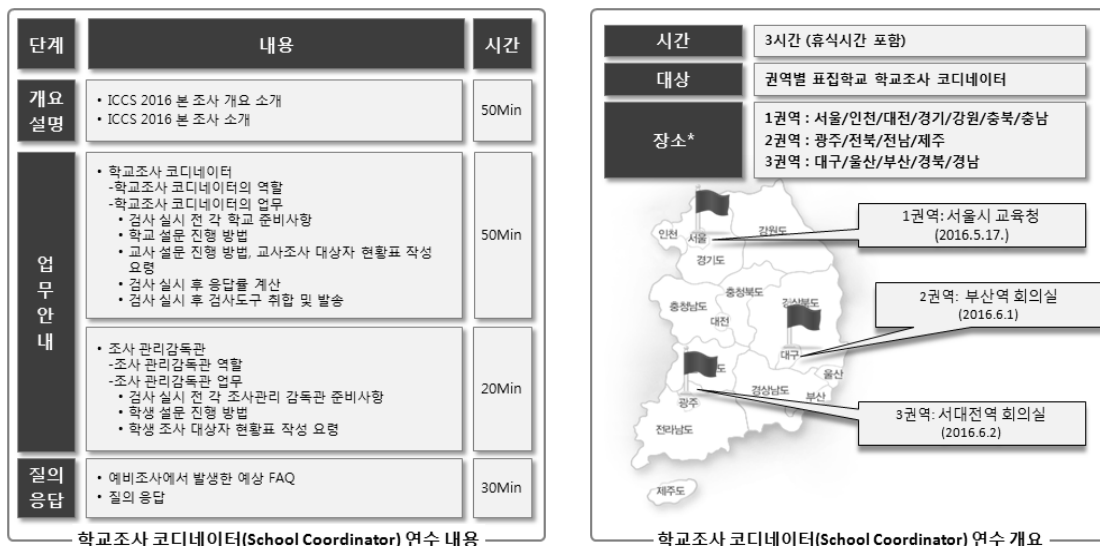
(4) 국가맥락조사

- 이 조사는 국가별 연구책임자(National Research Coordinator)가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해당 국가의 교육시스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최근 동향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맥락조사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기존에 발간되어 있는 국가와 교육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보완하여 학생용, 학교용, 교사용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에 관련된 국가 맥락을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3) 조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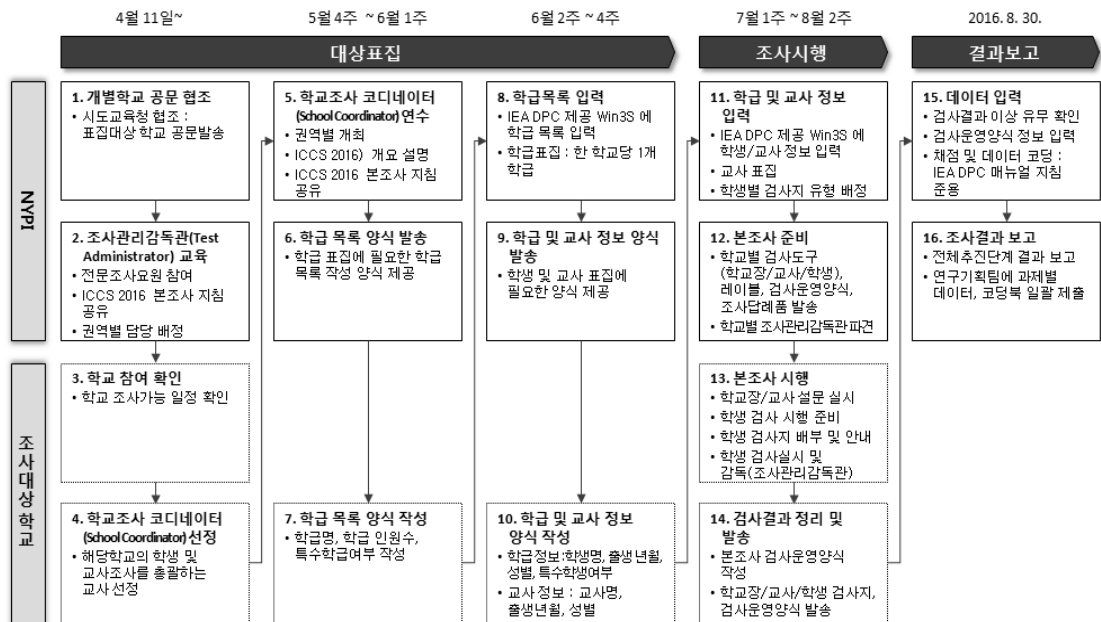
ICCS 2016 본조사 절차는 조사실시 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위탁 회사)과 조사에 참여하는 학교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조사실시기관은 조사지 준비, 조사대상학교 섭외, 학교별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리감독관(Test Administrator) 교육, 학교조사 코디네이터(School Coordinator) 교육 연수, 학교정보 입력 및 학생별 조사지 배부계획 출력, 조사지 발송 및 회수, 조사 결과 채점 및 입력, 최종 데이터를 IEA에 제출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학교조사 코디네이터 교육연수는 3개 권역별로 2016년 5월 17일과 6월 1일, 2일 3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교육연수의 내용은 아래 그림에 요약했다.



【그림 III-3】 ICCS 2016 학교 조사담당교사(School Coordinator) 교육연수 개요

조사대상 학교는 2학년 담당 교사 중에서 학교조사 코디네이터(School Coordinator)를 임명하고 학교조사 코디네이터는 자기 학교의 2학년 학급 전체의 정보(학급별 학생이름, 출생년월, 담임교사명, 성별 등)를 입력하여 제출하며, 전달받은 조사지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이 기재된 조사지를 조사담당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림 III-4】 ICCS 2016 세부 시행 절차

전체 절차는 위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ICCS 2016 본조사는 2016년 4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18주간 진행되었다.

제 IV 장

조사 결과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단축 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2. 청소년 역량지수 단축문항 구성체계의
타당화 분석
3.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청소년발달시기 및 지역별 수준 분석
4.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청소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준거 및
예측타당도 분석

제 IV 장 조사 결과¹⁰⁾

이 연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3차년도 연구과제로서 1, 2차 년도에 개발된 측정도구의 단순화에 따른 문항의 신뢰도와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문항 분석과 정규성 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보다 신뢰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영역을 대표하는 기존 측정도구와의 관련성에 대한 준거타당도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해당 역량지수들이 실제적인 청소년들의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단축 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단축 문항 분석은 평균, 표준편차, 문항-전체간 상관관계, 그리고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았으며, 정규성 분석은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세 하위역량을 측정하는 단축 문항은 사고력 6문항, 지적도구활용 능력 12문항, 학습적응성 6문항 등 총 24문항에 대하여 자료 분석과 정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10) 이 장의 집필에 있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은 최효선 박사(서울대학교),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은 진성희 교수(인하대학교),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은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은 김태준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집필하였음.

표 IV-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계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1_01	3.03	.561	-.266	1.220	.620**	.868
		문1_02	3.01	.590	-.262	.770	.576**	
		문1_03	3.07	.620	-.268	.402	.590**	
	감성적 사고력	문1_04	2.74	.817	-.167	-.520	.337**	
		문1_05	3.25	.641	-.463	.125	.451**	
		문1_06	2.84	.718	-.268	-.066	.262**	
전체			2.99	.66	-.28	0.32	-	
지적도구 활용능력	언어능력	문2_01	2.80	.684	-.145	-.136	.571**	.865
		문2_02	2.88	.692	-.199	-.120	.590**	
		문2_03	2.68	.922	-.156	-.838	.435**	
	수학능력	문2_04	2.83	.814	-.347	-.342	.519**	
		문2_05	2.85	.739	-.263	-.182	.579**	
		문2_06	2.59	.967	-.114	-.954	.466**	
	과학능력	문2_07	2.55	.871	.051	-.703	.545**	
		문2_08	2.47	.816	.065	-.508	.592**	
		문2_09	2.68	.912	-.183	-.779	.512**	
	정보통신 활용능력	문2_10	3.14	.767	-.698	.256	.517**	
		문2_11	2.91	.867	-.434	-.501	.431**	
		문2_12	3.03	.915	-.715	-.278	.300**	
전체			2.78	.83	-.26	-0.42	-	
학습 적응성	변화 수용력	문3_01	2.94	.618	-.280	.503	.587**	.865
		문3_02	2.49	.760	.123	-.352	.384**	
	지적 호기심	문3_03	3.24	.679	-.573	.158	.567**	
		문3_04	3.18	.657	-.424	.178	.537**	
	학습 주도성	문3_05	2.66	.778	.010	-.493	.603**	
		문3_06	2.92	.750	-.397	-.033	.610**	
전체			2.91	.71	-.26	-0.01	-	

*,p<0.05, **,p<0.01

<표 IV-1>에 의하면, 사고력 평균은 2.99(SD=.66)이고, 문항-전체간 상관관계 $r=.262 \sim .62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에 따른 왜도(절대값 2 이하) 값은 $-.463 \sim .167$ 범위에 있고, 첨도(절대값 7이하) 값은 $-.520 \sim 1.220$ 에 있어 정규성이 확인 되었고, 신뢰도 계수 $\alpha=.868$ 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 평균은 2.78(SD=.83)이고, 문항-전체간 상관관계 $r=.300 \sim .59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에 따른 왜도(절대값 2 이하) 값은 $-.715 \sim .065$ 범위에 있고, 첨도(절대값 7이하) 값은 $-.954 \sim .256$ 에 있어 정규성이 확인 되었고, 신뢰도계수 $\alpha=.8665$ 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 평균은 2.91(SD=.71)이고, 문항-전체간 상관관계 $r=.384 \sim .61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성에 따른 왜도(절대값 2 이하) 값은 $-.573 \sim .123$ 범위에 있고, 첨도(절대값 7이하) 값은 $-.493 \sim .503$ 에 있어 정규성이 확인 되었고, 신뢰도계수 $\alpha=.865$ 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는 예비조사를 거쳐 건강관리 8문항(위생관리 3문항, 신체관리 2문항,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 3문항)과 과제관리 6문항(목표 및 계획수립 3문항, 수행 및 평가 3문항), 상황대처 12문항(중독인식 3문항, 중독행동 3문항, 폭력행동 3문항, 폭력회피 3문항), 정서조절 9문항(분노행동 2문항, 감정절제 2문항, 조절실패 2문항, 감정인식 3문항)으로 단축화하여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수집된 자료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뢰도 계수는 다음의 <표 IV-2>와 같다.

표 IV-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하위역량	세부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건강관리	위생관리	문_01	3.22	.697	-.568	.049	.786
		문_02	3.53	.612	-1.114	1.114	
		문_03	3.27	.669	-.514	-.144	
	신체관리	문_04	3.00	.807	-.369	-.562	
		문_05	2.79	.939	-.175	-.982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문_06	3.22	.678	-.565	.267	
		문_07	3.29	.640	-.522	.202	
		문_08	3.23	.693	-.746	.781	
전체			3.19	0.46	0.02	-0.23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문_01	3.03	.680	-.428	.377	.892
		문_02	3.01	.707	-.387	.075	
		문_03	3.07	.653	-.460	.687	
	수행 및 평가	문_04	2.93	.710	-.349	.075	
		문_05	2.94	.719	-.372	.073	
		문_06	2.94	.720	-.391	.101	
전체			2.99	0.56	-0.27	0.78	

하위역량	세부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상황대처	중독인식	문_01	2.89	1.014	-.270	-1.236	.886
		문_02	2.78	1.019	-.090	-1.302	
		문_03	2.83	1.008	-.146	-1.286	
	중독행동	문_04	2.98	.962	-.394	-1.047	
		문_05	2.90	.996	-.278	-1.191	
		문_06	3.33	.835	-1.024	.146	
	폭력행동	문_07	3.51	.661	-1.185	.895	
		문_08	3.51	.708	-1.315	1.070	
		문_09	3.33	.812	-1.016	.248	
	폭력회피	문_10	3.29	.745	-.766	-.042	
		문_11	3.19	.851	-.737	-.346	
		문_12	3.29	.824	-.903	-.027	
전체			3.15	0.58	-0.28	-0.43	
정서조절	분노행동	문_01	2.88	.891	-.212	-.941	.718
		문_02	3.33	.773	-.951	.287	
	감정절제	문_03	3.20	.837	-.780	-.159	
		문_04	2.82	.938	-.267	-.905	
	조절실패	문_05	2.73	.950	-.109	-1.006	
		문_06	2.68	.948	-.082	-.968	
	감정인식	문_07	2.79	.871	-.497	-.330	
		문_08	3.01	.826	-.810	.418	
		문_09	2.92	.832	-.672	.125	
전체			2.93	0.49	0.13	-0.12	

각 문항별 응답 분포의 왜도는 -1.315~.20으로, 첨도는 -1.302~1.114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정규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신뢰도 계수(Cronbach α) 역시 .718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하고자 하는 역량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생활관리역량의 평균은 3.08(SD=.38), 왜도는 .12, 첨도는 .51,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891로 나타나 생활관리역량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적절한 검사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세 하위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정규성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모든 문항에 대한 왜도의 절대값은 2이하이고, 첨도는 절대값 7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문항의 상관계 계수 절대값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의 효과 크기가 있으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개발역량지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지수는 .920으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문항임을 확인하였다.

표 IV-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진로설계	자기탐색	문8.(1)	3.13	.660	-.457	.462	.549**	.915
		문8.(2)	3.13	.704	-.526	.231	.517**	
	직업탐색	문8.(3)	2.76	.854	-.111	-.745	.515**	
		문8.(4)	3.12	.742	-.559	.064	.559**	
	직업 가치관	문8.(5)	2.78	.810	-.193	-.505	.527**	
		문8.(6)	3.38	.665	-.871	.718	.449**	
	진로준비	문8.(7)	3.27	.694	-.754	.623	.479**	
		문8.(8)	3.00	.806	-.383	-.521	.520**	
		문8.(9)	2.90	.715	-.234	-.189	.479**	
소계			3.05	.492	-.143	.321	-	
여가활용	여가태도	문11.(1)	3.24	.625	-.504	.682	.571**	.914
		문11.(2)	3.41	.584	-.581	.458	.525**	
		문11.(3)	3.27	.682	-.650	.299	.514**	
	여가 유능감	문11.(4)	2.54	.837	.142	-.613	.523**	
		문11.(5)	2.74	.880	-.161	-.751	.527**	
		문11.(6)	2.64	.809	-.084	-.504	.480**	
	여가만족	문11.(7)	3.19	.705	-.620	.333	.582**	
		문11.(8)	3.08	.733	-.482	-.023	.639**	
	여가몰입	문11.(9)	3.03	.730	-.406	-.083	.619**	
		문11.(10)	3.29	.681	-.750	.608	.572**	
소계			3.05	.503	-.183	.449	-	
개척정신	차별화 태도	문13(1)	2.65	.770	.038	-.488	.507**	.916
		문13(2)	2.71	.741	-.037	-.393	.498**	
		문13(3)	2.57	.755	.081	-.386	.291**	
	도전정신	문13(4)	2.89	.776	-.253	-.425	.544**	
		문13(5)	2.70	.802	-.098	-.506	.417**	
		문13(6)	2.44	.857	.161	-.607	.202**	
소계			2.66	.510	.176	.526	-	

*.p<0.05, **.p<0.01

하위역량별로 살펴보면, 진로설계 역량지수 측정문항 9개의 기초통계 분석을 한 결과, 진로설계 전체 문항 평균은 3.05(SD=.492)이고 평균의 범위는 2.76(SD=.854)~3.38(SD=.6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계수의 범위는 $r=.449\sim.559$ 로써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915$ 로 나타났다. 정규성 분석 결과, 왜도는 $-.871\sim-.111$ 이고, 첨도는 $-.745\sim.718$ 로 나타났다.

여가활용능력 역량지수 측정문항 10개의 기초통계 분석을 한 결과, 여가활용 전체 문항 평균은 3.05(SD=.503)이고, 평균의 범위는 2.54(SD=.837)~3.41(SD=.5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계수의 범위는 $r=.480\sim.639$ 로써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914$ 로 나타났다. 정규성 분석 결과, 왜도는 $-.750\sim.142$ 이고, 첨도는 $-.613\sim.682$ 로 나타났다.

개척정신 역량지수 측정문항 6개의 기초통계 분석을 한 결과, 개척정신 전체 문항 평균은 2.66(SD=.510)이고, 평균의 범위는 2.44(SD=.857)~2.89(SD=.776)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계수의 범위는 $r=.202\sim.544$ 로써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alpha=.916$ 으로 나타났다. 정규성 분석 결과, 왜도는 $-.253\sim.161$ 이고, 첨도는 $-.607\sim-.386$ 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은 총 29문항으로, 관계형성 12문항(자기개방성 3문항, 친화성 3문항, 의사소통 3문항, 공감 및 배려 3문항), 리더십 9문항(의사결정 3문항, 집단활동관리 3문항, 추진력 3문항), 협동 8문항(집단축진 3문항, 팔로워십 2문항, 갈등문제해결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4>에서는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에 대한 분석과 정규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측정문항의 양호도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평균은 3.08(SD=.48), 2.87(SD=.53), 3.02(SD=.51)로 나타났다. 관계형성 문항의 평균의 범위는 2.90(SD=.85)~3.19(SD=.64), 리더십 문항의 평균의 범위는 2.64(SD=.81)~3.06(SD=.63), 협동 문항의 평균의 범위는 2.91(SD=.69)~3.23(SD=.60)으로 극단점이 없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 분석 및 정규성 분석 결과

역량	하위역량	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간 상관관계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문14_1	3.15	0.77	-0.78	0.51	.591	.881
		문14_2	2.90	0.85	-0.43	-0.42	.535	
		문14_3	3.11	0.75	-0.63	0.22	.591	
	친화성	문14_4	2.91	0.80	-0.32	-0.43	.562	
		문14_5	3.00	0.77	-0.50	0.00	.613	
		문14_6	3.09	0.75	-0.57	0.07	.601	
	의사소통	문14_7	3.14	0.68	-0.53	0.46	.584	
		문14_8	3.17	0.66	-0.56	0.69	.608	
		문14_9	3.03	0.70	-0.40	0.14	.622	
	공감 및 배려	문14_10	3.19	0.64	-0.47	0.56	.589	
문14_11		3.12	0.66	-0.42	0.36	.553		
문14_12		3.18	0.61	-0.42	0.79	.519		
전체		3.08	0.48	-0.15	0.70			
리더십	의사결정	문15_1	2.93	0.65	-0.40	0.63	.671	.908
		문15_2	2.99	0.65	-0.41	0.67	.676	
		문15_3	3.06	0.63	-0.48	1.07	.657	
	집단활동 관리	문15_4	2.64	0.81	0.03	-0.57	.684	
		문15_5	2.84	0.71	-0.36	0.14	.710	
		문15_6	2.77	0.77	-0.20	-0.34	.746	
	추진력	문15_7	2.86	0.70	-0.32	0.11	.737	
		문15_8	2.80	0.75	-0.22	-0.25	.626	
		문15_9	2.97	0.67	-0.44	0.56	.683	
	전체		2.87	0.53	-0.16	0.80		
협동	집단촉진	문16_1	2.93	0.70	-0.37	0.17	.678	.898
		문16_2	2.95	0.68	-0.38	0.34	.696	
		문16_3	2.91	0.69	-0.33	0.15	.704	
	팔로워십	문16_4	3.23	0.60	-0.38	0.63	.619	
		문16_5	3.14	0.67	-0.48	0.39	.688	
	갈등문제 해결	문16_6	3.02	0.66	-0.42	0.59	.728	
		문16_7	2.95	0.71	-0.38	0.10	.646	
		문16_8	3.05	0.66	-0.48	0.73	.693	
	전체		3.02	0.51	-0.25	1.01		

*p<.05, **p<.01

관계형성의 문항-전체 상관관계 계수는 $r=.519\sim.622$ 였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 $\alpha=.881$ 로써 높은 수준으로 관계형성 측정문항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리더십과 협동의 문항-전체 상관관계 계수는 각각 $r=.626\sim.746$, $r=.619\sim.728$ 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 $\alpha=.908$, $\alpha=.898$ 로써 각각의 전체 신뢰도 계수도 높은 수준으로 리더십과 협동 문항이 적절하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의 왜도 및 첨도값을 확인한 결과, 왜도가 절대값 2, 첨도가 절대값 7을 초과하는 문항이 없어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요약컨대,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에 대한 분석과 정규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자료가 극단치 없이 적절히 분포되어 있으며, 신뢰도가 높고,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즉, 2016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자료가 양호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2. 청소년 역량지수 단축문항 구성체계의 타당화 분석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단축문항 구성체계의 타당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단축 문항 구성체계의 구인타당도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3개의 역량과 9개의 하위역량에 대해 전체적인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단축문항 구성체계의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단축 문항에 따른 역량간 상관관계와 하위역량간 상관관계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각 <표 IV-5>와 <표 IV-6>에 제시하였다.

표 IV-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역량	1	2	3
1. 사고력			
2. 지적도구활용능력	.524**		
3. 학습적응성	.536**	.584**	

*, $p<0.05$, **, $p<0.01$

<표 IV-5>에 의하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를 구성하는 역량간 상관관계수 $r=.524\sim.58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하위역량	1	2	3	4	5	6	7	8	9
1. 비판적 사고력	1								
2. 감성적 사고력	.290**	1							
3. 언어능력	.527**	.278**	1						
4. 수학능력	.421**	.163**	.409**	1					
5. 과학능력	.384**	.167**	.376**	.544**	1				
6. 정보통신활용능력	.356**	.186**	.356**	.287**	.242**	1			
7. 변화수용력	.348**	.268**	.332**	.268**	.276**	.273**	1		
8. 지적호기심	.391**	.265**	.410**	.336**	.344**	.251**	.364**	1	
9. 학습주도성	.469**	.239**	.444**	.360**	.369**	.261**	.365**	.429**	1

*.p<0.05, **.p<0.01

<표 IV-6>에 의하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간 상관계수 $r = -.163 \sim .544$,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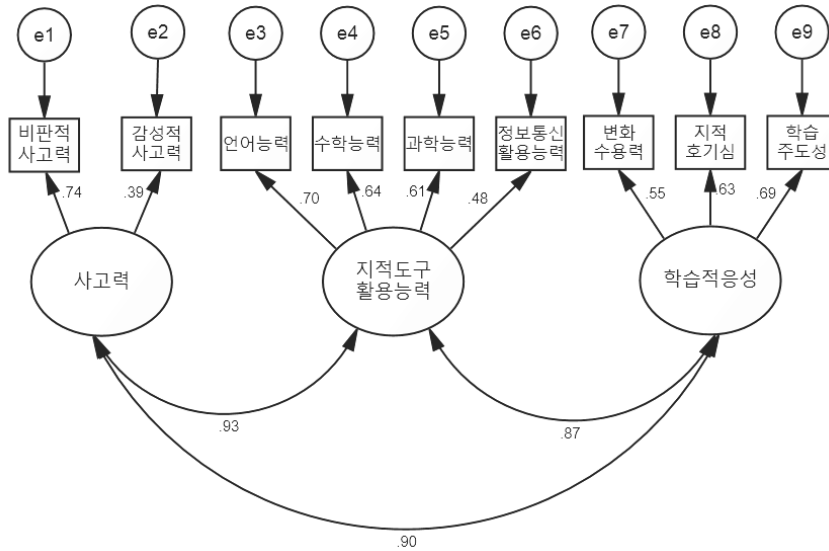
다음으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단축 문항 구성체계의 구인타당도를 재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단축 문항 구성체계에 대한 측정모형 분석

역량	하위역량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1.000	.739**
	감성적 사고력	.533	.392**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1.000	.704**
	수학능력	1.071	.641**
	과학능력	1.133	.612**
	정보통신활용능력	.764	.475**
학습적응성	변화수용력	1.000	.547**
	지적호기심	1.197	.632**
	학습주도성	1.531	.686**

*.p<0.05, **.p<0.01

<표 IV-7>에 의하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단축 문항 구성체계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392~.73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단축 문항 구성체계에 따른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결과는 【그림 IV- 1】 과 같다.



$$\chi^2(df)=1524.093(24), p<.05, CFI=0.942, NFI=0.941, IFI=0.942, RMSEA=0.074$$

【그림 IV-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단축문항에 따른 전체 구성체계의 적합도 지수

【그림 IV-1】에 의하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전체 구성체계 측정모형에 대한 $\chi^2(df)=1524.093(24)$ 이고,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측정모형에 있어 χ^2 값은 표집 사례수에 민감하여 해당 자료가 모형을 잘 설명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배병렬, 2005; 성은모, 진성희, 김혜경, 2015; Hu & Bentler, 1998). 따라서 다양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검토하여 측정모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김동일 외, 2010; Chemers, Hu, & Garcia, 2001). CFI(comparative fit index, $>.90$), NFI(normed fit index, $>.90$), IFI(incremental fit index, $>.90$),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0$) 등의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CFI=0.942($>.90$), NFI=0.941($>.90$), IFI=0.942($>.90$), RMSEA=0.074($<.10$ 이하)로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하위역량 구성체제 단축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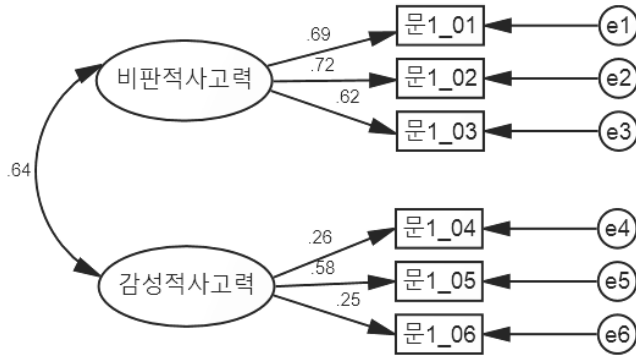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구성체제의 단축 측정문항에 따른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 분석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하위역량 구성체제 측정문항의 측정모형 분석

역량	하위역량	번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1_01	1.000	.690
		문1_02	1.091	.716
		문1_03	1.001	.625
	감성적 사고력	문1_04	1.000	.256
		문1_05	1.788	.582
		문1_06	.872	.254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문2_01	1.000	.676
		문2_02	1.087	.727
		문2_03	.852	.427
	수학능력	문2_04	1.000	.819
		문2_05	.595	.538
		문2_06	1.087	.751
	과학능력	문2_07	1.000	.768
		문2_08	.992	.813
		문2_09	1.068	.783
	정보통신활용능력	문2_10	1.000	.640
		문2_11	1.214	.687
		문2_12	.941	.504
학습 적응성	변화 수용력	문3_01	1.000	.638
		문3_02	.704	.366
	지적 호기심	문3_03	1.000	.663
		문3_04	.910	.624
	학습 주도성	문3_05	1.000	.717
		문3_06	.946	.704

【그림 IV-2】에 의하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하위역량 사고력 단축 문항 구성체제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254~.71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도구활용능력의 표준화 계수는 .427~.81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학습 적응성의 표준화 계수는 .366~.71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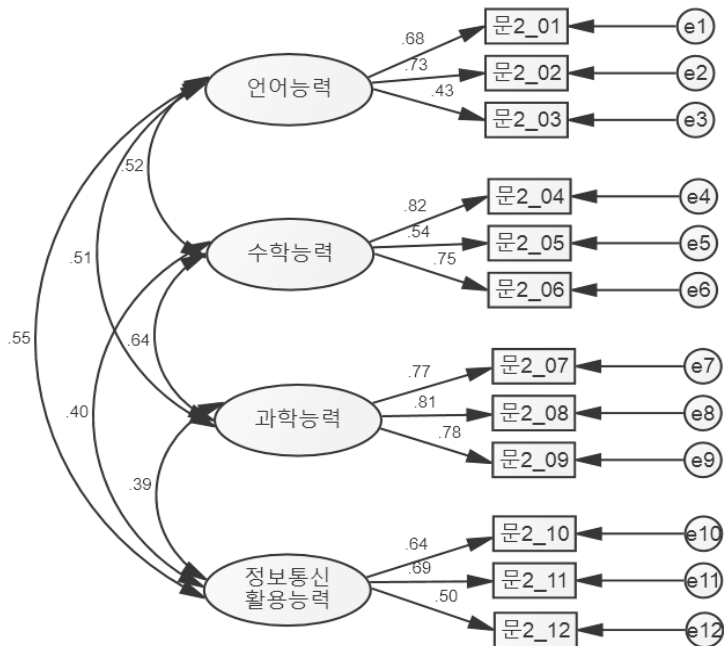
이에 따른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i^2(df)=286.276(24)$, $p<.05$, CFI=0.968, NFI=0.967, IFI=0.968, RMSEA=0.055

【그림 IV-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사고력 단축문항에 따른 전체 구성체계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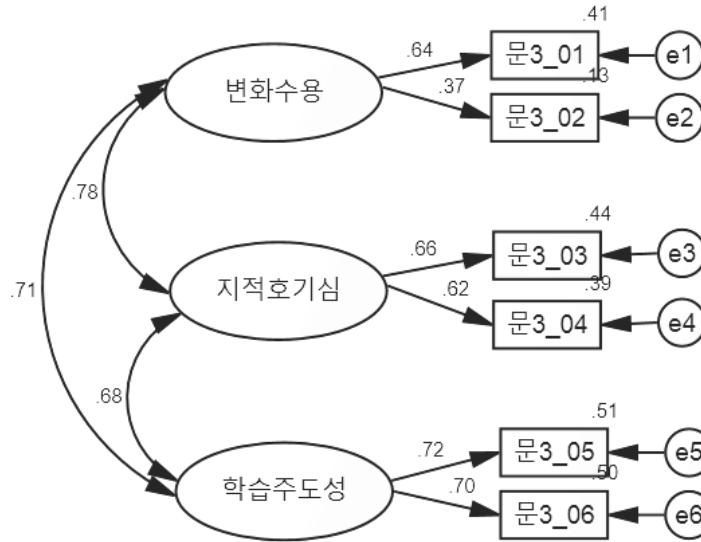
【그림 IV-2】에 의하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사고력 측정모형의 $\chi^2(df)=286.276(24)$ 이고,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CFI=0.968(>.90), NFI=0.967(>.90), IFI=0.968(>.90), RMSEA=0.055(<.10 이하)로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df)=4633.295(48)$, $p<.05$, CFI=0.892, NFI=0.891, IFI=0.892, RMSEA=0.092

【그림 IV-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지적도구활용능력 단축문항에 따른 전체 구성체계의 적합도 지수

【그림 IV-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지적도구활용능력 측정모형의 $\chi^2(df)=4633.295(48)$ 이고,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CFI=0.892(>.90), NFI=0.891(>.90), IFI=0.892(>.90), RMSEA=0.092(<.10 이하)로 해당 지수들이 기준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전체 구성체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지적도구활용능력 단축문항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hi^2(df)=175.675(24)$, $p<.05$, CFI=0.985, NFI=0.985, IFI=0.985, RMSEA=0.050

【그림 IV-4】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학습적응성 단축문항에 따른 전체 구성체계의 적합도 지수

【그림 IV-4】에 의하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학습 적응성 측정모형의 $\chi^2(df)=175.675(24)$ 이고,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CFI=0.958(>.90), NFI=0.985(>.90), IFI=0.985(>.90), RMSEA=0.050(<.10 이하)로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을 위해 2014년도 1차 개발한 문항과 2015년도 2차년도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문항을 축소한 단축문항들의 구성체계가 보다 정교화 되었고, 단축문항들의 구성체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곧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보다 쉽고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단계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발되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단축문항 구성체계의 타당화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의 구성체계가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생활관리역량 내의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IV-9>와 <표 IV-10>에 해당한다.

표 IV-9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역량	1	2	3	4
1. 건강관리	1			
2. 과제관리	.516**	1		
3. 상황대처	.286**	.158**	1	
4. 정서조절	.290**	.236**	.470**	1

*, $p<0.05$, **, $p<0.01$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각 상관계수는 .158~.516 범위 내에 있으며, 모두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

표 IV-10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세부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하위역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위생관리	1												
2. 신체관리	.371**	1											
3.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463**	.427**	1										
4. 목표 및 계획 수립	.370**	.327**	.463**	1									
5. 수행 및 평가	.344**	.346**	.419**	.750**	1								
6. 중독인식	.141**	.180**	.161**	.074**	.097**	1							
7. 중독행동	.185**	.174**	.189**	.102**	.105**	.740***	1						
8. 폭력행동	.210**	.020*	.204**	.142**	.105**	.365**	.409**	1					
9. 폭력회피	.229**	.175**	.237**	.171**	.158**	.352**	.410**	.564**	1				
10. 분노행동	.184**	.094**	.199**	.142**	.129**	.340**	.356**	.478**	.380**	1			
11. 감정절제	.176**	.149**	.198**	.151**	.145**	.325**	.375**	.393**	.416**	.651**	1		
12. 조절실패	.134**	.177**	.168**	.111**	.122**	.316**	.345**	.296**	.351**	.518**	.659**	1	
13. 감정인식	.135**	.022**	.141**	.174**	.137**	-.094**	-.048**	.021*	-.007	-.041**	-.070**	-.186**	1

*, $p<0.05$, **, $p<0.01$

아울러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세부역량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각 상관계수는 $-.186 \sim .659$ 범위 내에 있으며, 대부분이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 그러나 감정인식의 경우 중독인식, 중독행동,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단축문항 구성체계의 타당화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3개의 하위역량에 대한 전체적인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이후 각 역량과 하위역량을 구성하는 측정문항에 대한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상관계수 $r = -.431 \sim .565$,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역량	1	2	3
1. 진로설계			
2. 여가활용	.565**		
3. 개척정신	.431**	.440**	

*, $p < 0.05$, **, $p < 0.0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세분역량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상관계수 $r = -.250 \sim .751$,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세부역량간 상관관계 분석

하위역량	자기 탐색	직업 탐색	진로 준비	직업 가치관	여가 태도	여가 유능감	여가 만족	여가 몰입	차별화 태도	도전 정신
자기탐색	1									
직업탐색	.505**	1								
진로준비	.520**	.577**	1							
직업가치관	.548**	.581**	.569**	1						
여가태도	.399**	.345**	.393**	.407**	1					
여가유능감	.348**	.323**	.317**	.346**	.353**	1				
여가만족	.402**	.368**	.382**	.410**	.599**	.487**	1			
여가몰입	.376**	.362**	.393**	.397**	.577**	.469**	.751**	1		
차별화태도	.328**	.329**	.302**	.338**	.281**	.337**	.313**	.333**	1	
도전정신	.272**	.272**	.254**	.305**	.250**	.319**	.285**	.280**	.468**	1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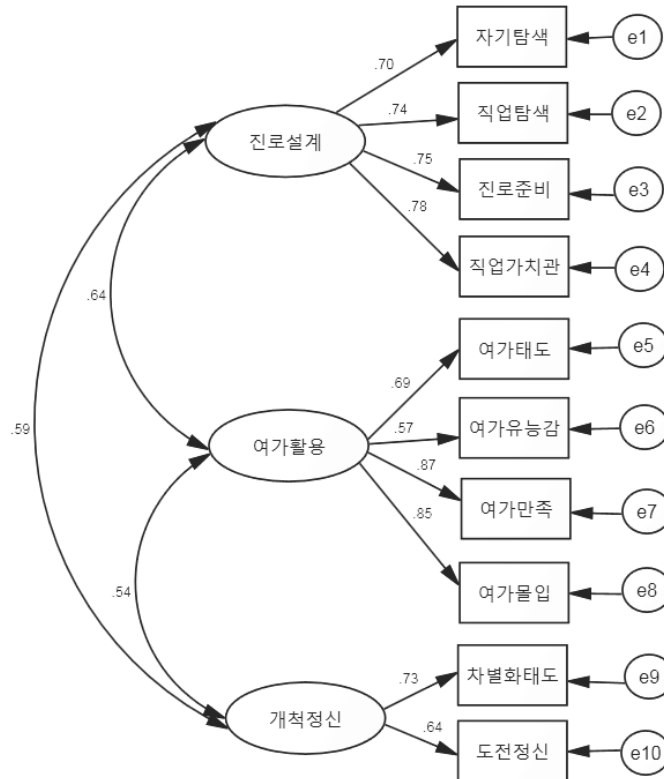
다음으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를 재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 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

역량	하위역량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진로설계	자기탐색	1.000	.704**
	직업탐색	1.250	.743**
	직업가치관	1.079	.745**
	진로준비	1.046	.776**
여가활용	여가태도	1.000	.689**
	여가유능감	1.080	.567**
	여가만족	1.514	.870**
	여가몰입	1.439	.850**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1.000	.735**
	도전정신	.905	.638**

*,p<0.05, **,p<0.01

<표 IV-13>에 의하면,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표준화 계수는 .567~.870 범위에 해당되며,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결과는 【그림 IV- 5】 과 같다.



$\chi^2(df)=1119.117(32)$, $p<.05$, CFI=0.976, NFI=0.975, IFI=0.976, RMSEA=0.055

【그림 IV-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그림 IV-5】에 의하면,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전체 구인에 대한 $\chi^2(df)=1119.117(32)$ 이고,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하지만 χ^2 값은 표집 사례수에 민감하여 사례수가 많아지면 실제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측정모형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다른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김동일 외. 2010; Chemers, Hu, & Garcia, 2001). 따라서 CFI(comparative fit index, $>.90$), NFI(normed fit index, $>.90$), IFI(incremental fit index, $>.90$),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0$) 등의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CFI=0.976(>.90), NFI=0.975(>.90), IFI=0.9766(>.90), RMSEA=0.055(<.10 이하)로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인 즉,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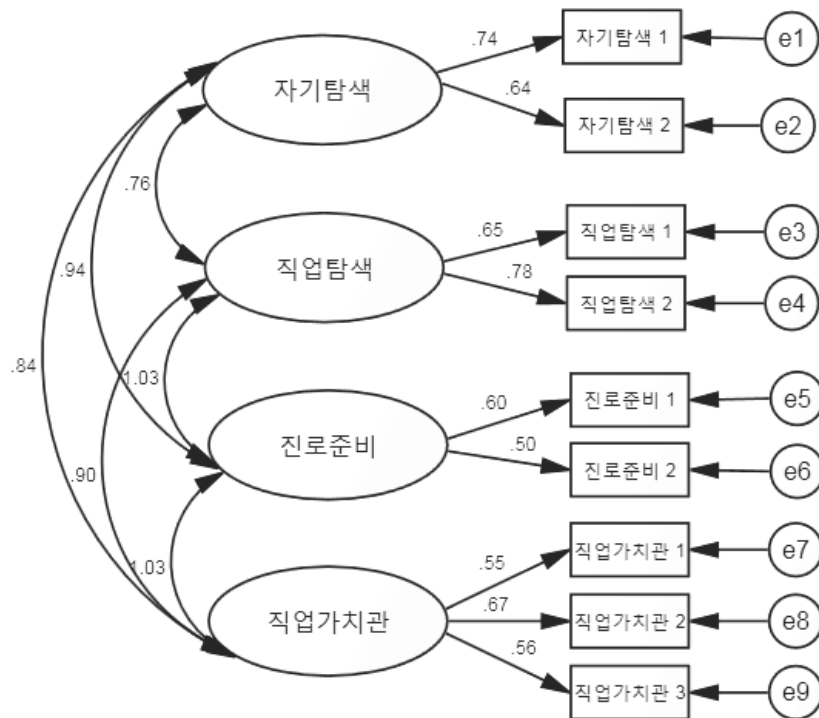
(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를 구성하는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를 재확인하기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의 측정모형 분석 결과는 <표 IV-14>과 같다.

표 IV-14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측정모형 분석

역량	하위역량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진로설계	자기탐색	문8 (1)	1.000	.744**
		문8 (2)	.921	.642**
	직업탐색	문8 (3)	1.000	.654**
		문8 (4)	1.038	.782**
	진로준비	문8 (5)	1.000	.601**
		문8 (6)	0.689	.505**
	직업 가치관	문8 (7)	1.000	.547**
		문8 (8)	1.431	.673**
		문8 (9)	1.058	.561**
여가활용	여가태도	문11 (1)	1.000	.796**
		문11 (2)	.952	.810**
		문11 (3)	.988	.720**
	여가유능감	문11 (4)	1.000	.706**
		문11 (5)	1.160	.779**
		문11 (6)	1.035	.756**
	여가만족	문11 (7)	1.000	.759**
		문11 (8)	1.113	.812**
	여가몰입	문11 (9)	1.000	.787**
		문11 (10)	.887	.748**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문13 (1)	1.000	.754**
		문13 (2)	.978	.766**
		문13 (3)	.536	.412**
개척정신	도전정신	문13 (4)	1.000	.694**
		문13 (5)	1.029	.690**
		문13 (6)	.625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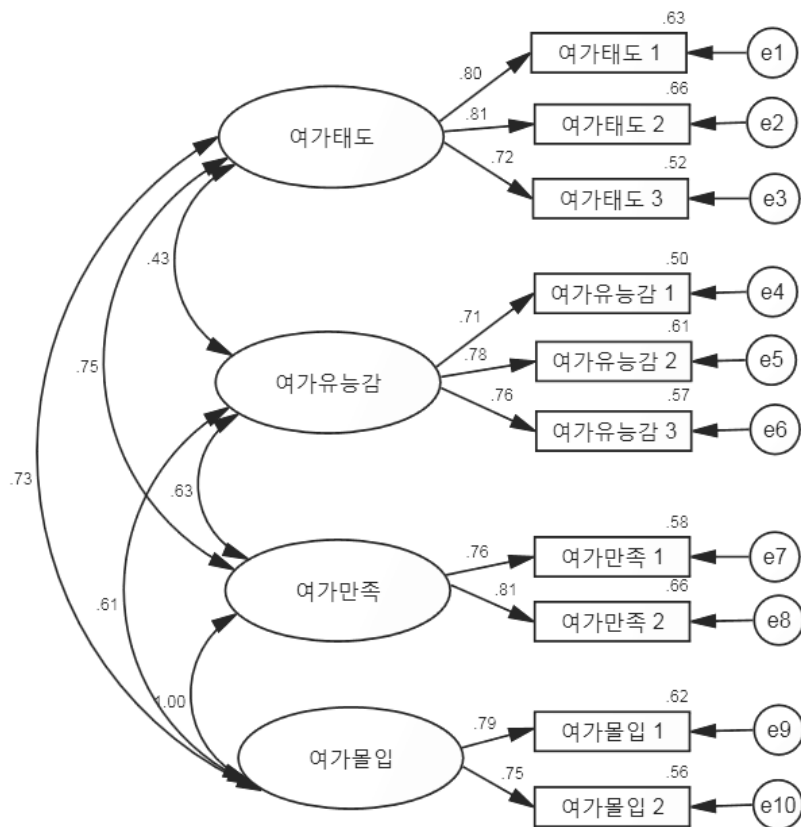
<표 IV-14>에 의하면 진로설계의 표준화 계수는 .505~.782, 여가활용능력의 표준화 계수는 .706~.812, 개척정신의 표준화 계수는 .412~.766 범위에 있으며, $p<.05$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중 진로설계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IFI, RMSEA 값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IV- 6】 과 같다. 적합도 지수인 $\chi^2(df)=1920.557(21)$ 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다른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CFI=0.937, NFI=0.936, IFI=0.937, RMSEA=0.089로 나타나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설계역량을 구성하는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함을 의미한다.



$\chi^2(df) = 1920.557(21)$, $p < .05$, CFI=0.937, NFI=0.936, IFI=0.937, RMSEA=0.089

【그림 IV-6】 진로설계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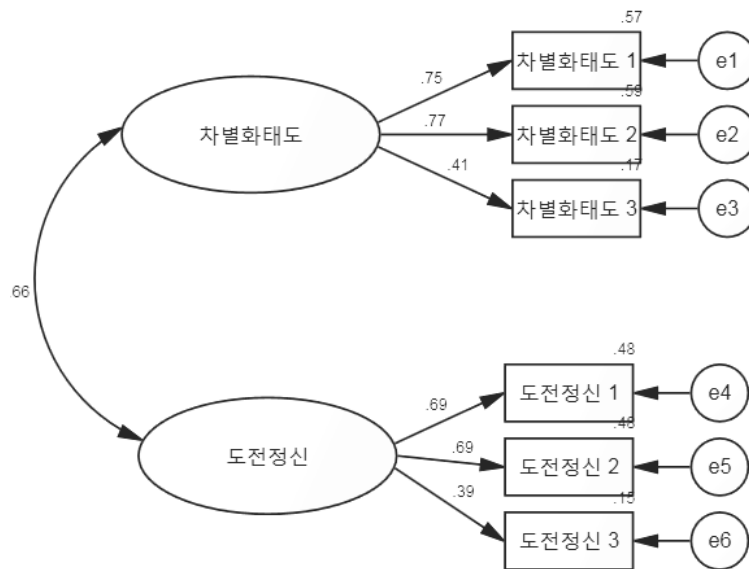
다음으로 여가활용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IFI, RMSEA 값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IV-7】과 같다. 적합도 지수인 $\chi^2(df)=1216.104(29)$ 로써,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다른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CFI=0.977, NFI=0.977, IFI=0.977, RMSEA=0.060으로 나타나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용역량을 구성하는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함을 의미한다.



$\chi^2(df) = 1216.104(29)$, $p < .05$, CFI=0.977, NFI=0.977, IFI=0.977, RMSEA=0.060

【그림 IV-7】 여가활용능력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중 개척정신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χ^2 , CFI, NFI, IFI, RMSEA 값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IV- 8】 과 같다. 적합도 지수인 $\chi^2(df)=1052.458(8)$ 로써,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해당 측정모형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다른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CFI=0.925, NFI=0.925, IFI=0.925, RMSEA=0.107로 나타나 해당 지수들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척정신역량을 구성하는 차별화태도, 도전정식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함을 의미한다.



$\chi^2(df) = 1052.458(8)$, $p < .05$, CFI=0.925, NFI=0.925, IFI=0.925, RMSEA=0.107

【그림 IV-8】 개척정신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단축문항 구성체계의 타당화

2016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문항은 2014년 1차 개발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문항에 비해 17문항이 축소되어 측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성체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즉,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등으로 구성된 관계형성 역량,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등으로 구성된 리더십 역량,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등으로 구성된 협동역량에 대한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전체적인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표 IV-15>에서는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즉,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56\sim.787$, $p<.001$).

표 IV-1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1)

역량	1	2	3
1. 관계형성	1		
2. 리더십	.656**	1	
3. 협동	.685**	.769**	1

* $p<.05$, ** $p<.01$

한편, <표 IV-16>에서는 관계형성(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을 구성하는 역량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역량 간에는 협동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13\sim.739$, $p<.001$).

표 IV-16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간 상관관계 분석(2)

하위역량	1	2	3	4	5	6	7	8	9	10
1. 자기개방성	1									
2. 친화성	.492**	1								
3. 의사소통	.457**	.592**	1							
4. 공감 및 배려	.391**	.462**	.648**	1						
5. 의사결정	.346**	.462**	.568**	.530**	1					
6. 집단활동관리	.359**	.515**	.515**	.429**	.641**	1				
7. 추진력	.347**	.502**	.540**	.494**	.659**	.739**	1			
8. 집단촉진	.373**	.523**	.565**	.518**	.614**	.623**	.657**	1		
9. 팔로워십	.313**	.416**	.516**	.510**	.546**	.513**	.558**	.608**	1	
10. 갈등문제해결	.413**	.490**	.573**	.516**	.600**	.591**	.629**	.681**	.631**	1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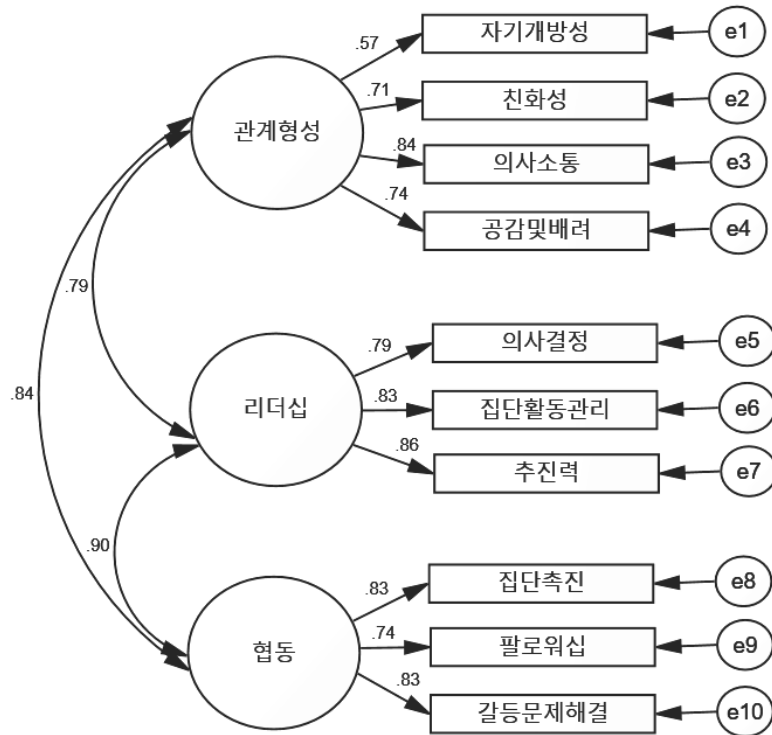
<표 IV-17>에서는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모형의 구인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최대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표준화 계수는 .57~.86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IV-1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모형 분석

역량	하위역량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1.00	0.57**
	친화성	1.19	0.71**
	의사소통	1.20	0.84**
	공감 및 배려	1.01	0.74**
리더십	의사결정	1.00	0.79**
	집단활동관리	1.26	0.83**
	추진력	1.17	0.86**
협동	집단촉진	1.00	0.83**
	팔로워십	0.86	0.74**
	갈등문제해결	0.96	0.83**

** $p<.01$

한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χ^2 , CFI, NFI, IFI, RMSEA 값을 살펴보았는데, χ^2 는 1814.453, CFI는 0.973, NFI는 0.972, IFI는 0.973, RMSEA는 0.070으로 나타났다(【그림 IV-9】 참고). χ^2 값이 1814.453으로 기각되었으나, χ^2 값은 표본수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배병렬, 2005; 성은모, 김균희, 2013).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FI(>.90), NFI(.90), IFI(>.90), RMSEA(<.10)값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4년 1차 개발된 청소년대인관계역량 문항을 단축 측정한 2016년 청소년대인관계역량지수의 구인타당도가 매우 적합한 것이 확인되었다.



$\chi^2(df)=1814.453(32)$, $p<.001$, CFI=0.973, NFI=0.972, IFI=0.973, RMSEA=0.070

【그림 IV-9】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의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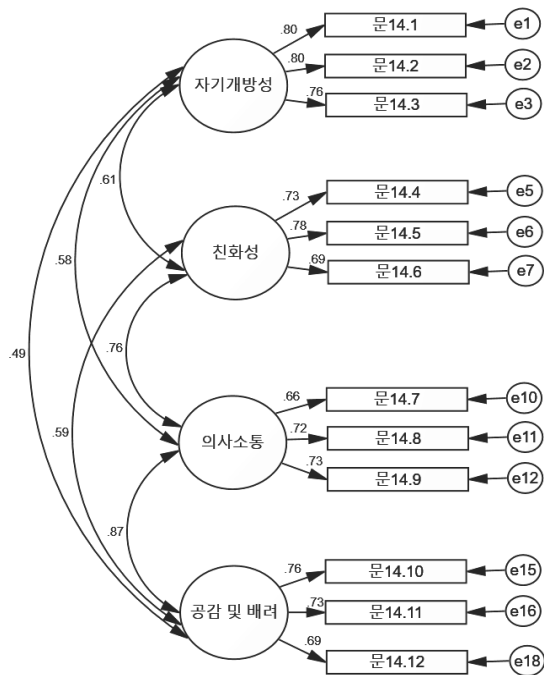
<표 IV-18>에서는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모형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역량에 대해 각각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계형성의 표준화계수는 .66~.80, 리더십의 표준화계수는 .69~.85, 협동의 표준화계수는 .74~.86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IV-1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구성체계 측정문항의 측정모형 분석

역량	하위역량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문14_1	1.00	0.80	**
		문14_2	1.10	0.80	**
		문14_3	0.93	0.76	**
	친화성	문14_4	1.00	0.73	**
		문14_5	1.03	0.78	**
		문14_6	0.89	0.69	**
	의사소통	문14_7	1.00	0.66	**
		문14_8	1.06	0.72	**
		문14_9	1.14	0.73	**
	공감 및 배려	문14_10	1.00	0.76	**
		문14_11	0.99	0.73	**
		문14_12	0.87	0.69	**
리더십	의사결정	문15_1	1.00	0.78	**
		문15_2	1.05	0.82	**
		문15_3	0.96	0.77	**
	집단활동관리	문15_4	1.00	0.78	**
		문15_5	0.86	0.76	**
		문15_6	1.04	0.85	**
	추진력	문15_7	1.00	0.81	**
		문15_8	0.91	0.69	**
		문15_9	0.88	0.74	**
협동	집단촉진	문16_1	1.00	0.77	**
		문16_2	1.00	0.80	**
		문16_3	1.04	0.81	**
	팔로워십	문16_4	1.00	0.76	**
		문16_5	1.26	0.86	**
	갈등문제해결	문16_6	1.00	0.80	**
		문16_7	1.00	0.74	**
		문16_8	0.98	0.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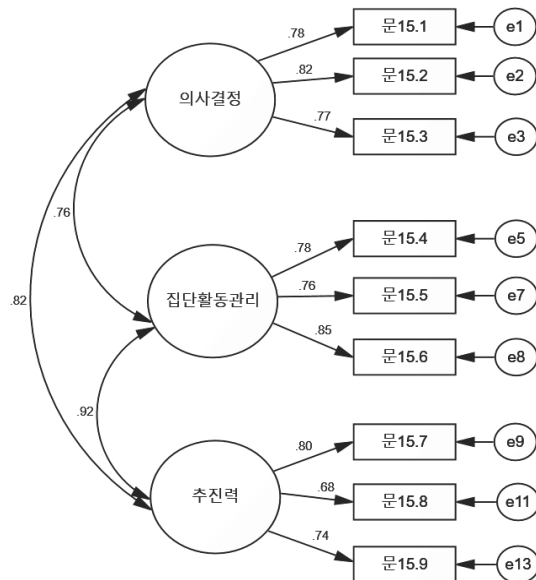
*p<.05, **p<.01

한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χ^2 , CFI, NFI, IFI, RMSEA 값을 확인하였으며, 그 값은 【그림 IV-10】 , 【그림 IV-11】 , 【그림 IV-12】 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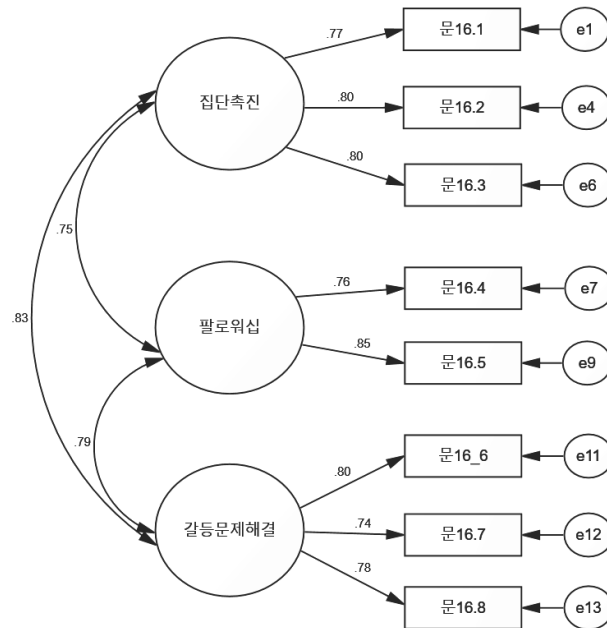
$\chi^2(df) = 1413.080(48)$, $p < .001$, CFI=0.975, NFI=0.974, IFI=0.975, RMSEA=0.050

【그림 IV-10】 관계형성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chi^2(df) = 960.826(24)$, $p < .001$, CFI=0.983, NFI=0.982, IFI=0.983, RMSEA=0.059

【그림 IV-11】 리더십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chi^2(df) = 425.368(17), p < .001, CFI = 0.991, NFI = 0.991, IFI = 0.991, RMSEA = 0.046$$

【그림 IV-12】 협동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

관계형성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413.080$, CFI=0.975, NFI=0.974, IFI=0.975, RMSEA=0.050로(【그림 IV-10】 참고), 리더십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960.826$, CFI=0.983, NFI=0.982, IFI=0.983, RMSEA=0.059로, 협동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425.368$, CFI=0.991, NFI=0.991, IFI=0.991, RMSEA=0.046로 나타났다.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측정모형의 χ^2 이 기각되었으나, CFI, NFI, IFI, RMSEA 등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볼 때, CFI(>.90), NFI(.90), IFI(>.90), RMSEA(<.10)값이 적합도 기준을 충족했다. 이는 관계형성(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집단추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의 구성요인과 이를 측정하는 문항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컨대,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차년도에 개발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을 기초로 단축형 청소년대인관계역량지수를 개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축형 청소년대인관계역량지수를 구성하는 요인과 이를 측정하는 문항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측정문항 46문항에 비해 17문항 축소하여 개발된 단축형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척도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3.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청소년발달시기 및 지역별 수준 분석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장시기에 따라 수준의 변화와 지역별 역량 수준에 대한 실태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성장시기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비교추이는 학교급에 따라 초등(초기 청소년), 중등(중기 청소년), 고등(중기 청소년), 대학(후기 청소년) 등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지역별은 우리나라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대상으로 그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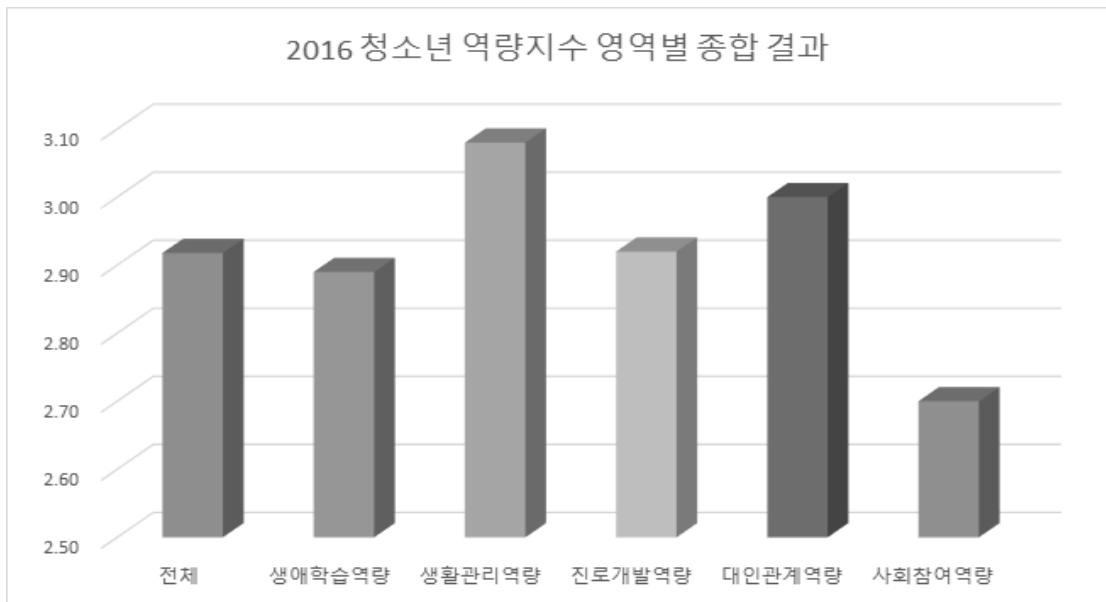
1)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영역에 따른 청소년 시기별 분석 결과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결과를 영역에 따라 청소년 시기별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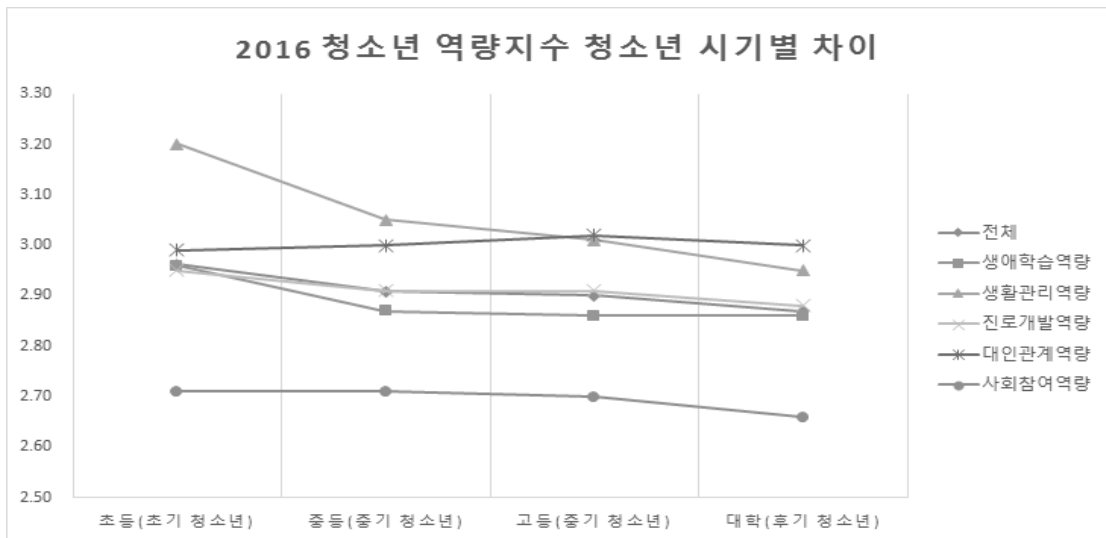
표 IV-19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영역에 따른 청소년 시기별 분석 결과

청소년 시기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2.92	0.31	2.89	0.37	3.08	0.38	2.92	0.40	3.00	0.45	2.70	0.35
초등(초기 청소년)	2.96	0.36	2.96	0.41	3.20	0.39	2.95	0.44	2.99	0.52	2.71	0.41
중등(중기 청소년)	2.91	0.30	2.87	0.35	3.05	0.36	2.91	0.40	3.00	0.45	2.71	0.33
고등(중기 청소년)	2.90	0.28	2.86	0.33	3.01	0.35	2.91	0.38	3.02	0.40	2.70	0.30
대학(후기 청소년)	2.88	0.24	2.86	0.32	2.95	0.31	2.88	0.35	3.00	0.36	2.66	0.28

<표 IV-19>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전체 평균은 2.92(SD=.31)이며, 이를 4점 만점 기준으로 100%로 환산해 보면,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89(SD=.37), 72.25%, 생활관리역량 평균은 3.08(SD=.38), 77.00%,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2.92(SD=.40), 73%, 대인관계역량 평균은 3.00(SD=.45), 75.00%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평균은 2.70(SD=.35), 67.50%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은 생활관리역량 지수가 가장 높고, 대인관계역량, 진로개발역량, 생애학습역량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영역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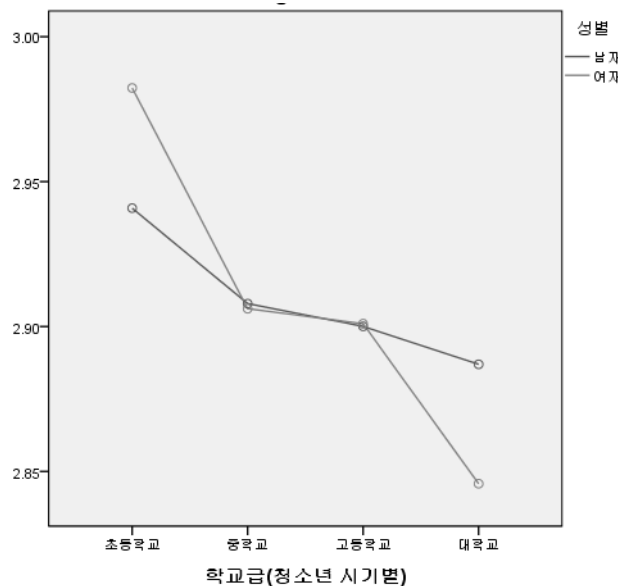
【그림 IV-14】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청소년 시기별 결과

이를 청소년 시기별로 청소년 역량지수 수준을 살펴보면, 초등(초기 청소년) 평균은 2.94(SD=.36), 74%, 중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91(SD=.28), 72.75% 고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90(SD=.28), 72.50%, 대학(후기 청소년) 평균은 2.88(SD=.24), 72%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차이에 대해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시기별 청소년 역량지수 $F=38.307$, $p=.00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 $F=.000$, $p=.984$,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따른 성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F=6.077$, $p=.00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는 없고 청소년 시기별 성장하면서 역량의 점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지만, 그 차이가 성별에 의해서 차이가 더 현격하게 벌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시기별 차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시기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시기별 청소년 역량지수 $F=38.307$, $p=.00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지수 $F=.000$, $p=.984$,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따른 성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F=6.077$, $p=.00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그림 IV-15】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는 청소년 시기별 성장하면서 역량의 점수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고, 그 차이가 성별에 의해서 차이가 더 현격하게 벌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성별에 따라 초등(초기 청소년)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지만, 중고등학교는 비슷하게 감소하다가, 대학(후기 청소년)으로 갈수록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남자 청소년보다 현격하게 더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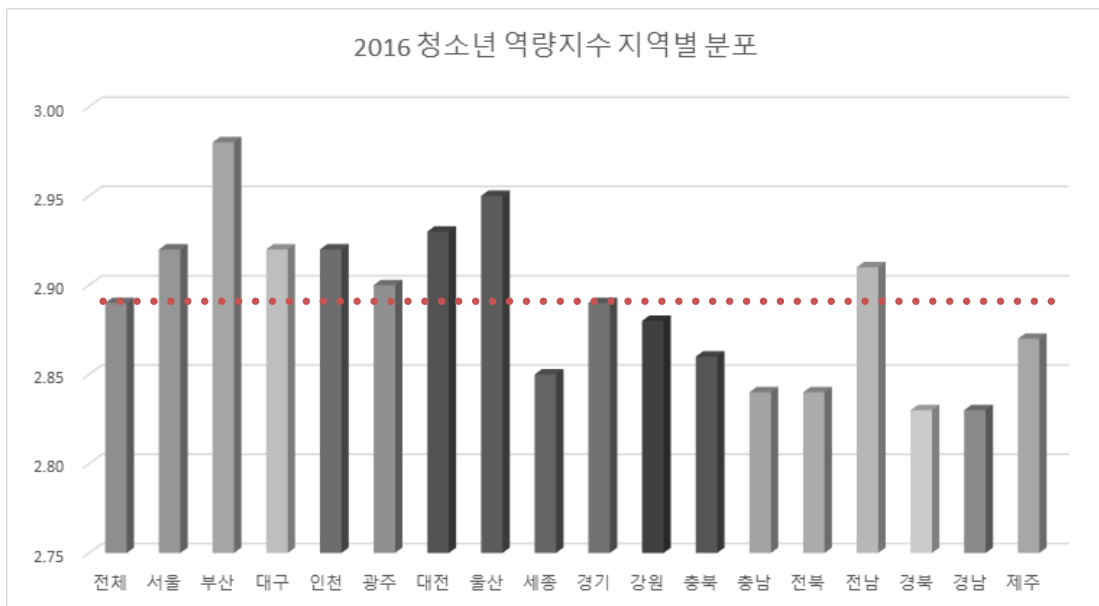
【그림 IV-15】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청소년 시기별*성별 결과

2) 2016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와 지역별 분석

2016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에 따른 결과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제시하면, <표 IV-20>와 같으며, 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결과를 도식화하여 【그림 IV-16】 ~ 【그림 IV-21】에 제시하였다.

표 IV-20 2016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역별 분석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92	2.94	2.99	2.95	2.95	2.91	2.95	2.95	2.86	2.91	2.90	2.89	2.88	2.87	2.94	2.86	2.86	2.92
생애학습	2.89	2.92	2.98	2.92	2.92	2.90	2.93	2.95	2.85	2.89	2.88	2.86	2.84	2.84	2.91	2.83	2.83	2.87
생활관리	3.08	3.09	3.16	3.18	3.11	3.05	3.06	3.09	2.85	3.07	3.04	3.05	3.04	3.02	3.10	3.04	3.04	3.06
진로개발	2.92	2.95	2.97	2.93	2.95	2.93	2.97	2.99	2.91	2.91	2.89	2.89	2.88	2.86	2.93	2.85	2.84	2.92
대인관계	3.00	3.04	3.11	3.04	3.07	2.98	3.05	3.04	2.97	2.98	2.98	2.96	2.96	2.94	3.03	2.94	2.92	3.00
사회참여	2.70	2.71	2.73	2.69	2.72	2.70	2.73	2.70	2.70	2.71	2.70	2.69	2.67	2.68	2.73	2.66	2.67	2.76



【그림 IV-16】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결과: 전체 역량

<표 IV-20>과 【그림 IV-16】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는 부산지역 청소년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대전, 인천, 그리고 울산이 2.95, 서울과 전남이 2.94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2.87, 세종, 경북과 경남이 2.86으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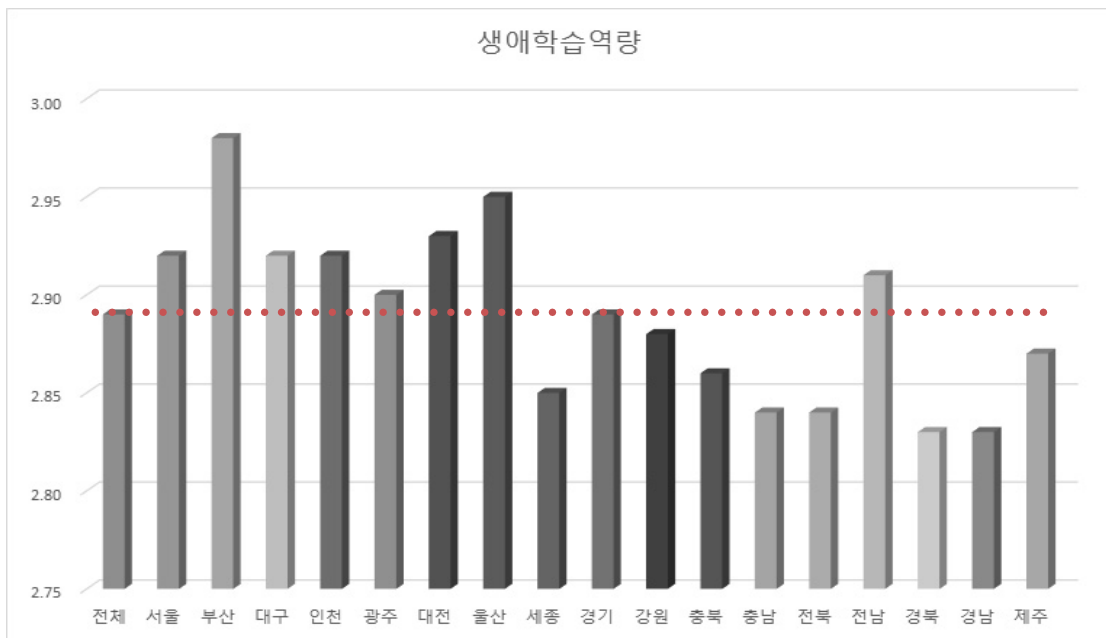
생애학습역량은 부산지역 청소년이 2.98로 가장 높고, 울산 2.94, 대전 2.93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남과 전북이 2.84, 경북과 경남이 2.83으로 낮게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은 대구지역 청소년이 3.18로 가장 높고, 부산 3.16, 인천 3.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3.02, 세종이 2.85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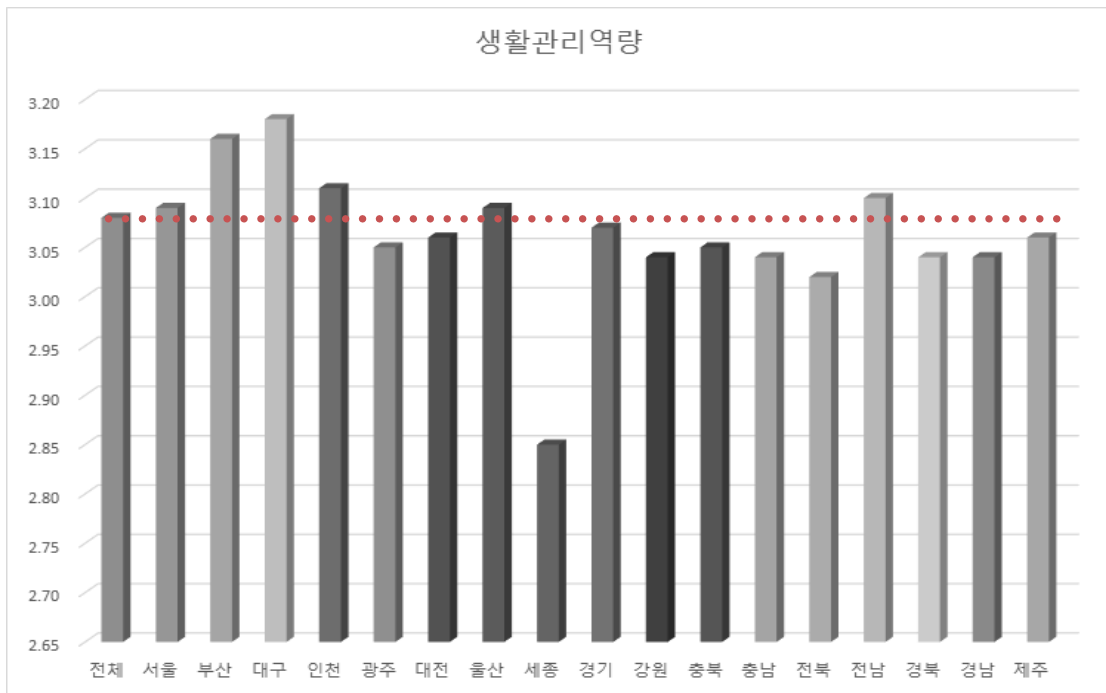
진로개발역량은 울산지역 청소년이 2.99로 가장 높고, 부산과 대전이 2.9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2.86, 경북 2.85, 그리고 경남이 2.84로 낮게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은 부산지역 청소년이 3.11로 가장 높고, 인천 3.07, 대전이 3.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과 경북이 2.94, 경남이 2.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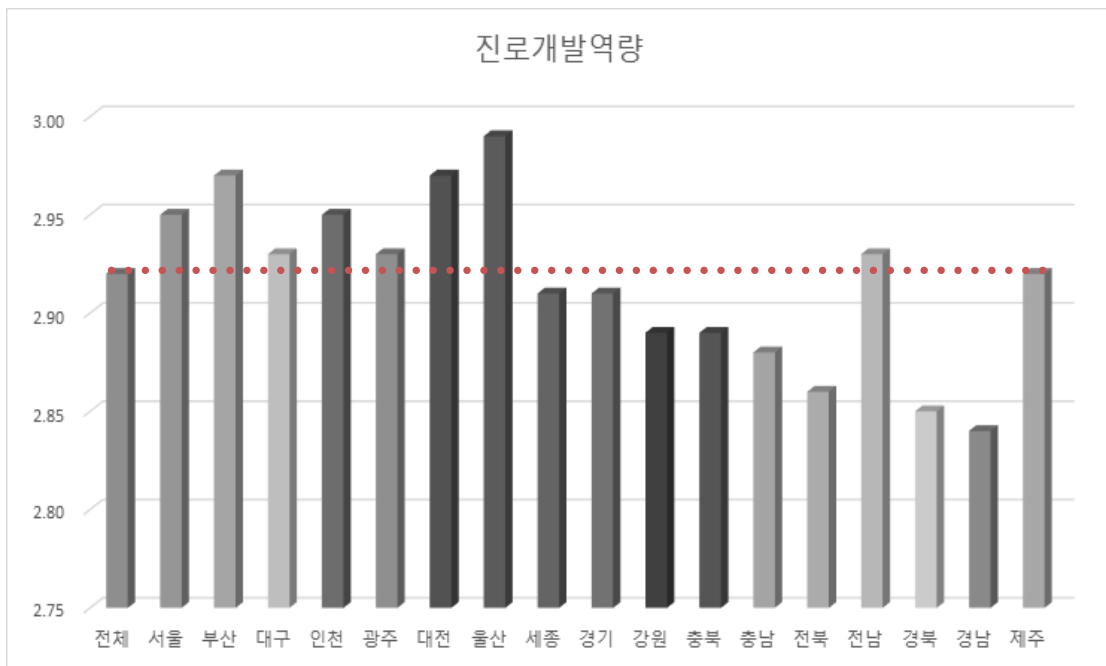
사회참여역량은 부산, 대전, 그리고 전남이 2.73으로 가장 높고, 인천 3.07, 충남과 경남이 2.67, 그리고 경북이 2.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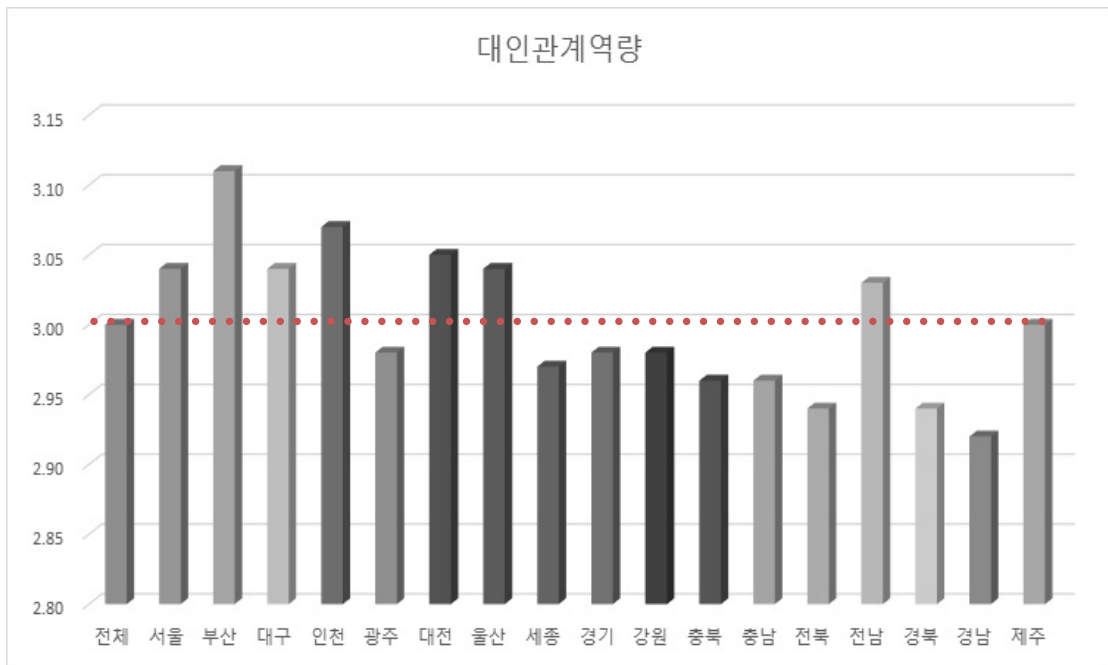
【그림 IV-17】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결과: 생애학습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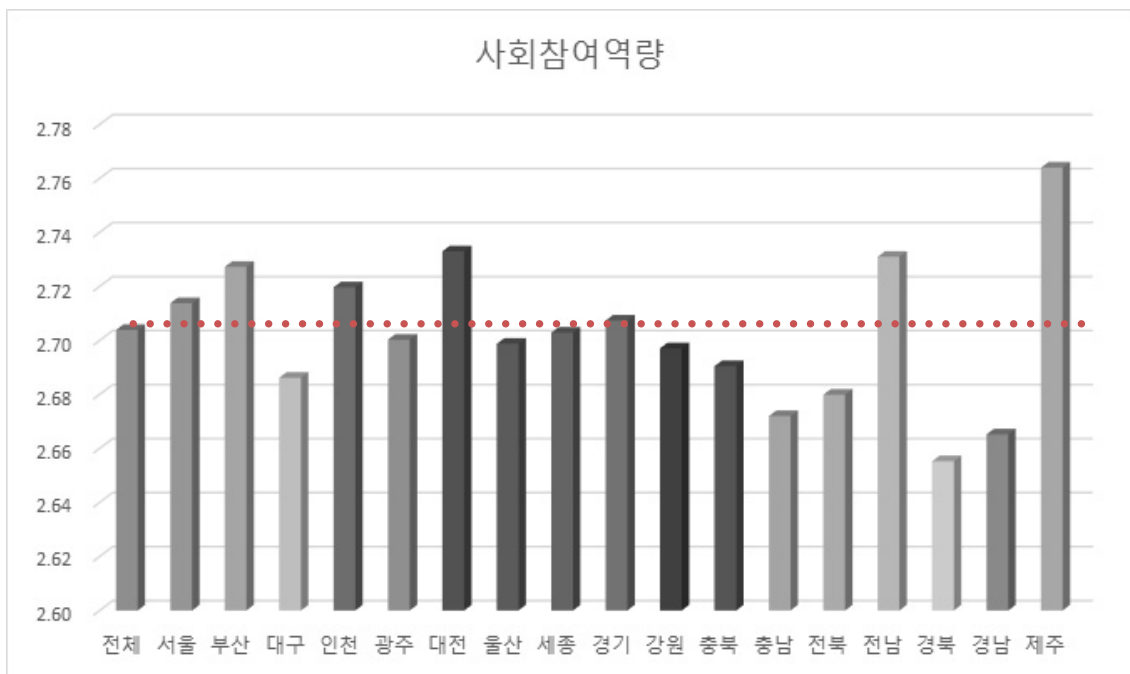
【그림 IV-18】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결과: 생활관리역량



【그림 IV-19】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결과: 진로개발역량



【그림 IV-20】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결과: 대인관계역량



【그림 IV-21】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결과: 사회참여역량

4.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청소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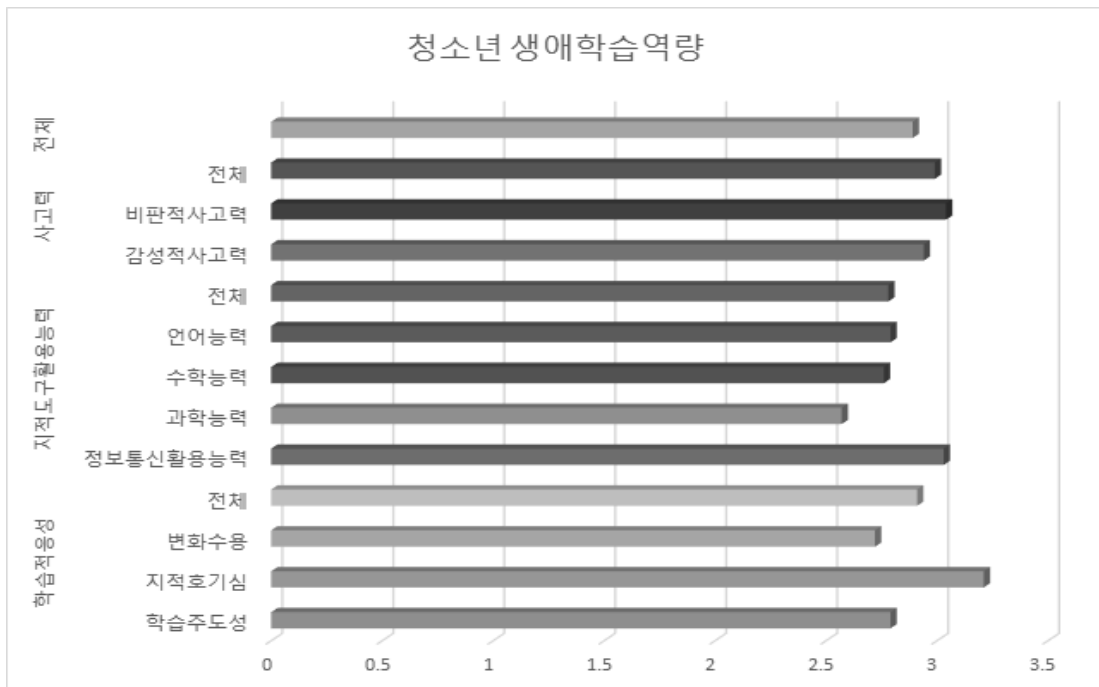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라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은 성별, 학교급(청소년 시기별), 학업성취도 수준, 그리고 거주지역별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인 사고력, 지적도구 활용능력, 학습적응성과 각 세부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를 <표 IV-21>와 [그림 IV-22]에 제시하였다.

표 IV-2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M	SD
생애학습역량	전체		2.89	0.37
	사고력	비판적사고력	3.04	0.47
		감성적사고력	2.94	0.47
		전체	2.99	0.38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2.79	0.58
		수학능력	2.76	0.68
		과학능력	2.57	0.75
		정보통신활용능력	3.03	0.65
		전체	2.78	0.48
	학습적응성	변화수용	2.72	0.54
		지적호기심	3.21	0.56
		학습주도성	2.79	0.66
		전체	2.91	0.45



【그림 IV-2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평균 점수 비교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평균은 2.89($SD=.37$)로 나타났다. 사고력 평균은 2.99($SD=.38$)로 나타났다으며, 세부역량인 비판적사고력은 3.04($SD=.47$), 감성적사고력은 2.94($SD=.47$)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 평균은 2.78($SD=.48$)로 나타났으며, 세부역량인 언어능력은 2.79($SD=.58$), 수학능력은 2.76($SD=.68$), 과학능력은 2.57($SD=.75$), 정보통신활용능력은 3.03($SD=.65$)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에 대한 평균은 2.91($SD=.45$)로 나타났으며, 세부역량인 변화수용은 2.72($SD=.48$), 지적호기심은 3.21($SD=.56$), 학습주도성은 2.79($SD=.66$)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서 하위역량은 사고력이 가장 높았으며, 학습적응성과 지적도구활용능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역량의 세부역량 항목 중에서는 학습적응성의 지적호기심, 사고력의 비판적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이 다른 역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도구활용능력의 과학능력과 학습적응성의 변화수용이 다른 역량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과 F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청소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생애학습역량 및 하위역량의 차이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전체, 하위역량, 그리고 각 세부역량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IV-22>에 제시되었다.

표 IV-22 청소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및 하위역량의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생애학습역량		역량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319	2.89	0.37	2.99	0.38	2.78	0.48	2.91	0.45
성별	남	5,535	2.91	0.39	2.98	0.41	2.81	0.50	2.93	0.47
	여	5,784	2.88	0.35	3.00	0.35	2.76	0.47	2.88	0.44
	F값	-	3.62**		-3.90**		5.23**		6.50**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2.96	0.41	3.03	0.42	2.87	0.50	2.98	0.50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2.87	0.35	2.97	0.37	2.76	0.48	2.88	0.44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2.86	0.33	2.99	0.34	2.74	0.46	2.85	0.43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86	0.32	2.94	0.37	2.72	0.44	2.91	0.40
	F값	-	60.24**		23.72**		60.68**		52.61**	
			a>b=c=d		a>c=b>d		a>b=c=d		a>d>b=c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3.06	0.37	3.08	0.39	3.03	0.46	3.05	0.47
	중(b)	4,972	2.90	0.34	2.99	0.37	2.80	0.44	2.90	0.43
	하(c)	3,621	2.77	0.35	2.92	0.37	2.58	0.46	2.80	0.44
	F값	-	506.78**		140.78**		764.69**		235.83**	
			a>b>c		a>b>c		a>b>c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2.92	0.37	3.01	0.39	2.83	0.50	2.93	0.45
	부산(b)	597	2.98	0.38	3.06	0.38	2.87	0.49	3.00	0.48
	대구(c)	555	2.92	0.34	3.02	0.37	2.83	0.45	2.92	0.42
	인천(d)	622	2.92	0.35	3.03	0.35	2.79	0.48	2.93	0.45
	광주(e)	393	2.90	0.37	3.00	0.36	2.78	0.47	2.92	0.46
	대전(f)	517	2.93	0.38	3.03	0.38	2.83	0.48	2.93	0.48
	울산(g)	356	2.95	0.37	3.04	0.37	2.84	0.48	2.99	0.46
	경기(h)	2,718	2.89	0.37	2.98	0.39	2.79	0.49	2.90	0.46
	강원(i)	440	2.88	0.38	2.99	0.38	2.74	0.52	2.90	0.46
	충북(j)	417	2.86	0.38	2.97	0.39	2.74	0.49	2.88	0.47
	충남(k)	504	2.84	0.35	2.97	0.35	2.70	0.47	2.85	0.43
	세종(l)	26	2.85	0.32	2.92	0.34	2.72	0.46	2.92	0.39
	전북(m)	566	2.84	0.34	2.94	0.35	2.73	0.45	2.86	0.43
	전남(n)	476	2.91	0.36	3.02	0.37	2.80	0.47	2.92	0.44
	경북(o)	527	2.83	0.35	2.92	0.37	2.74	0.48	2.84	0.43
	경남(p)	590	2.83	0.35	2.92	0.38	2.72	0.45	2.85	0.45
	제주(q)	363	2.87	0.34	2.99	0.37	2.72	0.46	2.90	0.40
	F값	-	7.771**		6.399**		6.211**		5.367**	
			b,g,f,c,a,d,n >e,h,i,q,j,l,m,k,o,p		b,g,f,n,c,a,e >h,j,k,m,p,o,l		b,g,c,f,a>l,q,p,k		b,g,a>o,p,k	

*.p<0.05, **.p<0.0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자 청소년은 2.91(SD=.37), 여자 청소년은 2.88(SD=.35)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t=3.61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은 남자 청소년이 2.98(SD=.41), 여자 청소년이 3.00(SD=.35), 지적도구활용능력이 남자 청소년은 2.81(SD=.50) 여자 청소년은 2.76(SD=.47), 학습적응성은 남자 청소년이 2.93(SD=.47), 여자 청소년은 2.88(SD=.44)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이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에 있어 모두 높았으며, 그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청소년 시기별 차이를 학교급 구분(초등: 초기 청소년, 중등: 중기 청소년, 고등: 후기 청소년, 대학: 후기 청소년)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평균에 있어 초등학생은 2.96(SD=.41), 중학생은 2.87(SD=.35), 고등학생은 2.86(SD=.33), 대학생은 2.86(SD=.32)이었으며, $F=60.23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이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의 경우, 초등학생이 3.03(SD=.42), 중학생이 2.97(SD=.37), 고등학생이 2.99(SD=.34), 대학생이 2.94(SD=.37)이었으며, $F=23.72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동일하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대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은 초등학생이 2.87(SD=.50), 중학생이 2.76(SD=.48), 고등학생이 2.74(SD=.46), 대학생이 2.72(SD=.44)이었으며, $F=60.68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은 초등학생이 2.97(SD=.50), 중학생이 2.88(SD=.44), 고등학생이 2.85(SD=.43), 대학생이 2.91(SD=.40)이었으며, $F=52.60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학생이 높았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업성취수준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에 있어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 청소년의 평균은 3.06(SD=.37)으로 나타났으며, 중 수준 청소년은 2.90(SD=.34), 하 수준 청소년은 2.77(SD=.35)이었으며, $F=506.7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의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이 하 수준의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과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의 세부항목 모두,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이 가장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이 하 수준의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은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은 3.08(SD=.39), 중 수준은 2.99(SD=.37), 하 수준은 2.92(SD=.37)이었으며, $F=140.7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은 상 수준의 청소년이 3.03(SD=.46), 중 수준의 청소년은 2.80(SD=.44), 하 수준의 청소년은 2.58(SD=.46)으로 나타났으며 $F=764.6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은 상 수준의 청소년이 3.05(SD=.47), 중 수준의 청소년은 2.90(SD=.43), 하 수준의 청소년은 2.80(SD=.44)으로 나타났으며, $F=235.8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은 부산 2.98(SD=.38), 울산 2.95(SD=.37), 대전 2.93(SD=.38) 순으로 높았으며, 경남이 2.83(SD=.35)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F=7.77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부산, 울산, 대전, 대구, 서양, 인천, 전남지역이 광주, 경기, 제주, 충북, 세종, 전북, 충남, 경남지역보다 생애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은 부산이 3.06(SD=.38)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2.92(SD=.4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F=6.39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부산, 울산, 대전, 대구, 전남, 서울, 광주 지역이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세종, 경북, 경남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경우, 부산이 2.87(SD=.49)로 가장 높고, 충남이 2.70(SD=.4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F=6.21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부산, 울산, 서울, 대구, 대전지역이 세종, 경남, 제주, 충남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은 부산이 3.00(SD=.48)으로 가장 높고, 경북이 2.84(SD=.4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F=5.36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부산, 울산, 서울 지역이 충남, 경남, 경북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차이를 종합해 보면, 생애학습역량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이, 중·후기 청소년에 비해 초기 청소년이,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생애학습역량별 차이를 보면, 사고력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중·후기 청소년보다 초기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적도구활용능력과 학습적응성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이, 중·후기 청소년보다 초기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하위역량에서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의 학생이 중·하 수준의 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지역별 차이는 부산, 울산, 서울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생애학습역량 사고력의 세부역량 차이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역량의 각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비판적사고력과 감성적사고력의 분석결과는 <표 IV-23>과 같다.

표 IV-23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사고력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M	(SD)	M	(SD)
전체		11,319	3.04	0.47	2.94	0.47
성별	남	5,535	3.04	0.49	2.91	0.50
	여	5,784	3.03	0.45	2.98	0.44
	t값		1.77		-8.04**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3.06	0.50	3.00	0.50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3.00	0.48	2.93	0.45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3.04	0.44	2.94	0.45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3.05	0.44	2.84	0.47
	F값		10.82** a=c=d>b		33.09** a>b=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3.19	0.48	2.98	0.50
	중(b)	4,972	3.04	0.45	2.93	0.47
	하(c)	3,621	2.91	0.46	2.94	0.46
	F값		292.99** a>b>c		7.41**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3.08	0.48	2.93	0.49
	부산(b)	597	3.13	0.48	2.99	0.47
	대구(c)	555	3.10	0.45	2.93	0.45
	인천(d)	622	3.06	0.44	2.99	0.46
	광주(e)	393	3.04	0.42	2.97	0.48
	대전(f)	517	3.10	0.48	2.97	0.47
	울산(g)	356	3.08	0.43	2.99	0.50
	경기(h)	2,718	3.01	0.48	2.94	0.48
	강원(i)	440	3.03	0.47	2.96	0.49
	충북(j)	417	3.00	0.51	2.95	0.47
	충남(k)	504	2.98	0.46	2.95	0.45
	세종(l)	26	3.03	0.46	2.81	0.51
	전북(m)	566	2.97	0.46	2.92	0.43
	전남(n)	476	3.07	0.45	2.96	0.48
	경북(o)	527	2.99	0.46	2.85	0.45
	경남(p)	590	2.93	0.46	2.91	0.46
	제주(q)	363	3.02	0.43	2.96	0.46
	F값		8.354** b,a,c,f>o,k,h,m,p		2.944** b>o d>o e>o f>o g>o k>o n>o	

*, $p<0.05$, **, $p<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판적사고력은 남자 청소년이 3.04(SD=.47), 여자 청소년이 3.04(SD=.45)로 남자 청소년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적사고력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2.91(SD=.50), 여자 청소년이 2.98(SD=.44)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t=-8.0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판적사고력은 초등학생이 3.06(SD=.50), 중학생은 3.00(SD=.48), 고등학생은 3.04(SD=.44), 대학생은 3.05(SD=.44)로 나타났으며, $F=10.82$,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이 동일하며, 중학생의 비판적사고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성적사고력은 초등학생이 3.00(SD=.50), 중학생이 2.93(SD=.45), 고등학생은 2.94(SD=.45), 대학생은 2.84(SD=.47)으로 나타났으며, $F=33.09$,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동일하며, 대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 수준의 청소년은 3.19(SD=.84), 중 수준의 청소년은 3.04(SD=.45), 하 수준의 청소년은 2.91(SD=.46)으로 나타났으며, $F=292.99$,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 청소년이 가장 높고, 하 수준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성적사고력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2.98(SD=.50), 중 수준 2.93(SD=.47), 하 수준 2.94(SD=.46)으로 나타났으며, $F=7.41$,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상 수준의 청소년의 감성적 사고력이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과 하 수준의 청소년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판적사고력은 부산 3.13(SD=.48), 대구 3.10(SD=.45), 대전 3.1(SD=.48) 순으로 높았으며, 경남이 2.93(SD=.4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F=8.35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부산, 서울, 대구, 대전 지역이 경북, 충남, 경기, 전북, 경남 지역 보다 비판적사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적사고력은 부산이 2.99(SD=.47)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81(SD=.5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F=2.94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부산, 인천, 대전, 대전, 울산, 충남, 전남 지역은 각각 경북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사고력의 세부항목인 비판적사고력과 감성적사고력의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 보면, 비판적사고력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고,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비판적사고력 역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서울,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성적사고력의 경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이,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차이도 다른 세부역량과 마찬가지로 부산, 인천, 울산 등의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청소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생애학습역량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세부역량 차이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세부역량인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을 살펴보면 <표 IV-24>과 같다.

표 IV-24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지적도구활용능력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319	2.79	0.58	2.76	0.68	2.57	0.75	3.03	0.65
성별	남	5,535	2.73	0.59	2.83	0.68	2.71	0.74	2.98	0.67
	여	5,784	2.85	0.55	2.69	0.66	2.44	0.73	3.07	0.63
	F값		-11.50**		11.10**		19.53**		-8.00**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2.88	0.60	2.97	0.65	2.79	0.70	2.85	0.74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2.72	0.56	2.72	0.67	2.50	0.73	3.09	0.61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2.76	0.55	2.61	0.66	2.43	0.77	3.14	0.56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74	0.54	2.62	0.66	2.48	0.75	3.04	0.54
	F값		52.15 ** a)c>b		195.91 ** a)b>d=c		160.28 ** a)b=d>c		140.21 ** c)b>d>a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3.00	0.59	3.14	0.60	2.91	0.71	3.09	0.69
	중(b)	4,972	2.81	0.55	2.78	0.62	2.57	0.72	3.05	0.64
	하(c)	3,621	2.61	0.55	2.45	0.65	2.31	0.72	2.95	0.63
	F값		365.95** a)b>c		938.24** a)b>c		527.97** a)b>c		36.01**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2.81	0.59	2.81	0.69	2.62	0.77	3.06	0.65
	부산(b)	597	2.89	0.57	2.81	0.67	2.68	0.75	3.10	0.63
	대구(c)	555	2.82	0.58	2.81	0.65	2.62	0.72	3.09	0.62
	인천(d)	622	2.77	0.58	2.76	0.68	2.50	0.78	3.13	0.62
	광주(e)	393	2.84	0.55	2.75	0.64	2.59	0.72	2.94	0.66
	대전(f)	517	2.84	0.55	2.75	0.68	2.62	0.77	3.10	0.63
	울산(g)	356	2.82	0.56	2.78	0.70	2.67	0.75	3.08	0.62
	경기(h)	2,718	2.79	0.58	2.78	0.68	2.58	0.74	3.00	0.67
	강원(i)	440	2.76	0.60	2.72	0.69	2.52	0.76	2.95	0.67
	충북(j)	417	2.82	0.58	2.67	0.71	2.50	0.75	2.99	0.66
	충남(k)	504	2.69	0.54	2.69	0.65	2.48	0.74	2.96	0.64
	세종(l)	26	2.67	0.51	2.56	0.69	2.47	0.79	3.17	0.52
	전북(m)	566	2.74	0.57	2.66	0.67	2.57	0.74	2.97	0.62
	전남(n)	476	2.84	0.55	2.76	0.64	2.57	0.76	3.04	0.64
	경북(o)	527	2.71	0.61	2.73	0.67	2.55	0.73	2.97	0.67
	경남(p)	590	2.67	0.54	2.73	0.66	2.49	0.68	2.97	0.67
	제주(q)	363	2.80	0.57	2.67	0.67	2.32	0.72	3.07	0.63
	F값		5.697** b,a,c,e,f>p,k		3.643** b,a,c>l		6.117** a,b>q,n,k		5.177** l,d,f,b,c,g>h,i,o,p, m,k,j,e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언어능력은 남자 청소년이 2.73(SD=.59), 여자 청소년이 2.85(SD=.55)로 여자 청소년이 높았으며, $t=-11.5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능력은 남자 청소년이 2.83(SD=.68), 여자 청소년이 2.69(SD=.66)으로 남자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t=11.1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능력은 남자 청소년이 2.71(SD=.74), 여자 청소년이 2.44(SD=.73)으로 남자 청소년이 높았고, $t=19.5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은 남자 청소년이 2.98(SD=.67), 여자 청소년이 3.07(SD=.63)으로 여자 청소년이 높았으며, $t=-8.0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학능력과 과학능력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고 언어능력과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여자 청소년이 더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언어능력은 초등학생이 2.88(SD=.60), 중학생이 2.72(SD=.56), 고등학생이 2.76(SD=.55), 대학생이 2.74(SD=.54)로 나타났으며, $F=52.15$,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능력은 초등학생 2.97(SD=.65), 중학생 2.72(SD=.67), 고등학생 2.61(SD=.66), 대학생 2.62(SD=.66)으로 나타났으며, $F=195.91$,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능력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생이 높았으며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능력은 초등학생이 2.79(SD=.70), 중학생 5.50(SD=.73), 고등학생 2.43(SD=.77), 대학생 2.48(SD=.75)로 나타났으며, $F=160.28$,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대학생이 동일하며,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초등학생이 2.85(SD=.74), 중학생이 3.09(SD=.61), 고등학생이 3.14(SD=.56), 대학생이 3.04(SD=.54)로 나타났으며, $F=140.21$,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세부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초기청소년)이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에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통신활용능력은 고등학생이 높고 초등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언어능력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3.00(SD=.59), 중 수준의 청소년은 2.81(SD=.55), 하 수준의 청소년은 2.61(SD=.55)으로 나타났으며, $F=365.95$,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능력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3.14(SD=.60), 중 수준 2.78(SD=.62), 하 수준 2.45(SD=.65)으로 나타났으며, $F=938.2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능력은 상 수준의 청소년은 2.91(SD=.71), 중 수준의 청소년은

2.57(SD=.72), 하 수준의 청소년은 23.1(SD=.72)였으며, $F=527.97,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상 수준의 청소년은 3.09(SD=.69), 중 수준의 청소년은 3.05(SD=.64), 하 수준의 청소년은 2.95(SD=.63)였으며, $F=36.01,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모두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 청소년이 가장 높고, 중 수준이 중간이며, 하 수준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언어능력은 부산지역이 2.89(SD=.57), 광주 2.84(SD=.55), 대전 2.84(SD=.55) 순으로 높았으며, 경남이 2.67(SD=.54)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F=5.69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부산, 서울, 대구, 광주, 대전지역이 충남과 경남 지역보다 언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능력은 서울이 2.81(SD=.69)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2.56(SD=.6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F=3.64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결과, 부산, 서울, 대구 지역이 세종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학능력의 경우 부산이 2.68(SD=.75)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2.32(SD=.7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F=6.11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결과, 서울, 부산 지역이 제주, 전남, 충남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세종이 3.17(SD=.52)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2.94(SD=.6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F=5.17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결과, 세종,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지역이 경기, 강원, 경북, 전북, 충남, 충북, 광주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세부역량인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의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 보면, 언어능력은 여자 청소년,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학능력과 과학능력은 남자 청소년, 초기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통신기기의 활용 시기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의 지역별 차이도 다른 하위역량과 마찬가지로 부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소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생애학습역량 학습적응성의 세부역량 차이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학습적응성의 세부역량인 변화수용,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에 있어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25>와 같다.

표 IV-25 청소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학습적응성 세부역량의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학습적응성					
			변화수용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M	(SD)	M	(SD)	M	(SD)
전체		11,319	2.72	0.54	3.21	0.56	2.79	0.66
성별	남	5,535	2.75	0.56	3.21	0.57	2.84	0.67
	여	5,784	2.68	0.52	3.21	0.55	2.75	0.65
	t값		7.29**		-0.23		7.59**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2.74	0.58	3.35	0.58	2.85	0.74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2.71	0.53	3.18	0.55	2.73	0.65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2.67	0.52	3.13	0.54	2.76	0.61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79	0.51	3.06	0.50	2.88	0.53
	F값		17.62** d>a=b>c		126.77** a>b>c>d		25.87** d=a>b=c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2.79	0.57	3.38	0.56	2.98	0.69
	중(b)	4,972	2.71	0.54	3.20	0.54	2.80	0.64
	하(c)	3,621	2.67	0.52	3.10	0.56	2.64	0.64
	F값		43.63** a>b>c		196.07** a>b>c		200.70**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2.74	0.57	3.23	0.56	2.82	0.66
	부산(b)	597	2.82	0.54	3.27	0.57	2.90	0.68
	대구(c)	555	2.71	0.52	3.23	0.55	2.83	0.62
	인천(d)	622	2.73	0.54	3.23	0.56	2.82	0.66
	광주(e)	393	2.72	0.54	3.24	0.56	2.78	0.67
	대전(f)	517	2.75	0.56	3.24	0.55	2.78	0.69
	울산(g)	356	2.79	0.55	3.27	0.55	2.91	0.65
	경기(h)	2,718	2.71	0.56	3.20	0.57	2.78	0.67
	강원(i)	440	2.73	0.51	3.16	0.57	2.81	0.66
	충북(j)	417	2.67	0.53	3.19	0.58	2.77	0.69
	충남(k)	504	2.67	0.52	3.18	0.54	2.70	0.68
	세종(l)	26	2.71	0.47	3.17	0.49	2.87	0.63
	전북(m)	566	2.65	0.51	3.17	0.55	2.76	0.66
	전남(n)	476	2.77	0.54	3.21	0.53	2.79	0.65
	경북(o)	527	2.67	0.52	3.11	0.55	2.73	0.64
	경남(p)	590	2.64	0.53	3.21	0.58	2.69	0.65
	제주(q)	363	2.69	0.50	3.19	0.55	2.81	0.58
	F값		4.535** b,g,n>m,p		2.637** b,g,e,f>o		4.220** g,b,l>k,p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변화수용은 남자 청소년은 2.72(SD=.54), 여자 청소년은 2.68(SD=.52)로 나타났으며, $t=7.29$,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호기심에 있어 남녀 차이는 남성은 3.21(SD=.57), 여성 3.21(SD=.55)로 나타났으며, $t=-.23$,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주도성은 남성이 2.84(SD=.67), 여성은 2.75(SD=.65)로 나타났으며, $t=7.59$,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습적응성 세부역량의 성별 차이는 변화수용과 학습주도성에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변화수용은 초등학생은 2.74(SD=.58), 중학생은 2.71(SD=.58), 고등학생은 2.67(SD=.52), 대학생은 2.79(SD=.51)로 나타났으며, $F=17.62$,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변화수용에 있어 대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호기심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은 3.35(SD=.58), 중학생은 3.18(SD=.55), 고등학생은 3.13(SD=.54), 대학생은 3.06(SD=.50)으로 나타났으며, $F=126.77$,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주도성의 경우, 초등학생은 2.85(SD=.74), 중학생은 2.73(SD=.65), 고등학생은 2.76(SD=.61), 대학생은 2.88(SD=.53)으로 나타났으며, $F=25.8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동일하며 중학생과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변화수용은 상 수준의 청소년 2.79(SD=.57), 중 수준의 청소년 2.71(SD=.54), 하 수준의 청소년은 2.67(SD=.52)이었으며, $F=43.6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호기심은 상 수준의 청소년 3.38(SD=.56), 중 수준의 청소년 3.20(SD=.54), 하 수준의 청소년은 3.10(SD=.56)이었으며, $F=196.0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주도성은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은 2.98(SD=.69), 중수준의 청소년은 2.80(SD=.64), 하 수준의 청소년은 2.64(SD=.64)이었으며, $F=200.7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학업성취도 상 수준의 청소년이 중 수준의 청소년보다, 중 수준의 청소년이 하 수준의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변화수용은 부산이 2.82(SD=.54), 울산 2.79(SD=.55), 전남 2.77(SD=.54) 순으로 높았으며, 경남이 2.64(SD=.5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F=4.53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부산, 울산, 전남지역이 전북과 경남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호기심은 부산지역이 3.27(SD=.5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11(SD=.5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F=2.63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결과, 부산, 울산 광주 지역이 경북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주도성은 울산지역이 2.91($SD=.65$)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2.69($SD=.6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F=4.22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분석결과, 울산, 부산, 세종 지역이 충남, 경남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학습적응성의 세부역량인 변화수용,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에 있어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 보면, 변화수용 역량은 남자 청소년, 후기 청소년(초등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호기심 역량은 초기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학습주도성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후기청소년(대학생)과 초기청소년(초등학생)이 중기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습적응성 세부역량들의 지역별 차이도 다른 생애학습역량과 마찬가지로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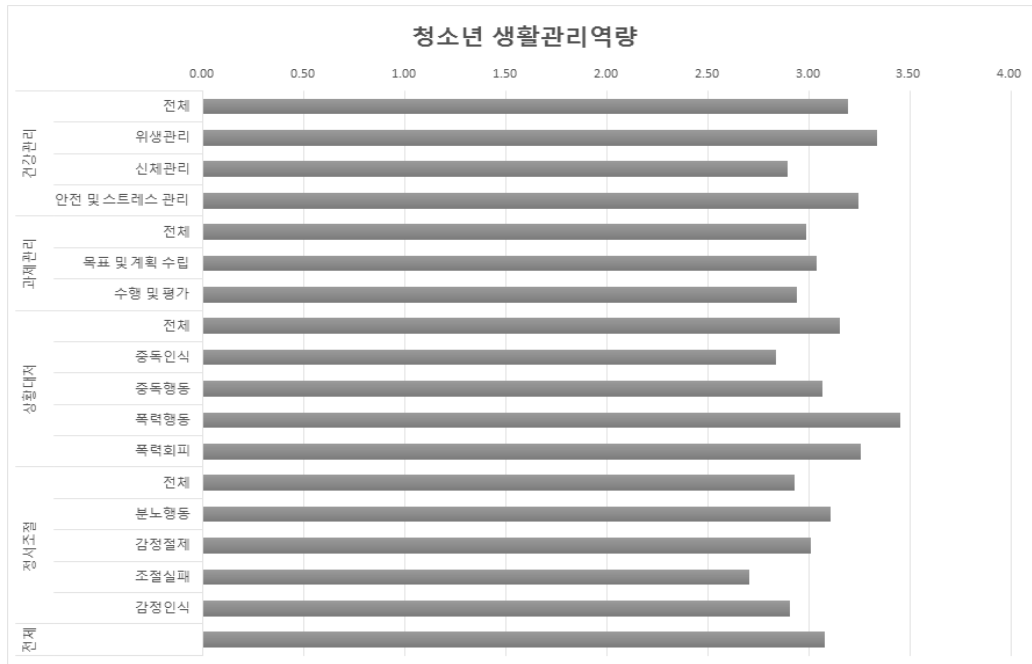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과 각 세부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 결과를 <표 IV-26>과 [그림 IV-23]에 제시하였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전체 평균은 2.49($SD=.46$)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평균은 3.19($SD=.46$)로 나타났으며 건강관리의 하위역량인 위생관리는 3.34($SD=.51$), 신체관리는 2.90($SD=.78$),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는 3.25($SD=.53$)로 나타났다. 과제관리 평균은 2.99($SD=.56$), 세부역량인 목표 및 계획 수립은 3.04($SD=.58$), 수행 및 평가는 2.94($SD=.62$)로 나타났다. 상황대처 평균은 3.15($SD=.58$), 상황대처의 세부역량인 중독인식은 2.84($SD=.89$), 중독행동은 3.07($SD=.80$), 폭력행동은 3.45($SD=.62$), 폭력회피는 3.26($SD=.67$)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평균은 2.93($SD=.49$)로 나타났으며, 정서조절의 하위역량인 분노행동은 평균 3.11($SD=.74$), 감정절제는 3.01($SD=.76$), 조절실패는 2.70($SD=.86$), 감정인식은 2.91($SD=.73$)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에서 건강관리, 상황대처, 과제관리, 정서조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역량 항목 중에서는 상황대처의 세부역량인 폭력행동과 폭력회피, 건강관리의 하위역량인 위생관리와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정서조절의 세부역량인 분노행동이 다른 역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조절의 세부역량인 조절실패와 감정인식, 상황대처의 세부역량인 중독인식, 건강관리의 세부역량인 신체관리가 다른 역량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6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M	SD
생활관리역량	전체		3.08	0.38
	건강관리	위생관리	3.34	0.51
		신체관리	2.90	0.78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25	0.53
		전체	3.19	0.46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3.04	0.58
		수행 및 평가	2.94	0.62
		전체	2.99	0.56
	상황대처	중독인식	2.84	0.89
		중독행동	3.07	0.80
		폭력행동	3.45	0.62
		폭력회피	3.26	0.67
		전체	3.15	0.58
	정서조절	분노행동	3.11	0.74
		감정절제	3.01	0.76
		조절실패	2.70	0.86
		감정인식	2.91	0.73
		전체	2.93	0.49



【그림 IV-23】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평균 점수 비교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생활관리역량과 각 하위역량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전체와 각 세부역량 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IV-27>와 같다.

표 IV-27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생활관리역량		역량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319	3.08	0.38	3.19	0.46	2.99	0.56	3.15	0.58	2.93	0.49
성별	남	5,535	3.06	0.38	3.22	0.47	2.97	0.58	3.10	0.60	2.92	0.48
	여	5,784	3.09	0.37	3.17	0.44	3.00	0.54	3.20	0.57	2.94	0.49
	t값		-4.640**		6.491**		-2.92**		-9.63**		-1.74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3.20	0.39	3.32	0.47	2.99	0.64	3.36	0.57	3.01	0.50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3.05	0.36	3.17	0.45	2.97	0.56	3.11	0.57	2.90	0.48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3.01	0.35	3.10	0.44	2.99	0.51	3.05	0.55	2.88	0.48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95	0.31	3.09	0.43	3.01	0.43	2.87	0.55	2.88	0.44
	F값		223.144**		159.130**		1.528		296.388**		56.235**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3.22	0.39	3.33	0.46	3.15	0.59	3.31	0.59	3.05	0.51
	중(b)	4,972	3.07	0.36	3.18	0.45	2.99	0.54	3.13	0.58	2.93	0.47
	하(c)	3,621	2.99	0.35	3.11	0.45	2.87	0.55	3.08	0.57	2.84	0.46
	F값		317.028**		185.808**		188.916**		140.657**		149.694**	
17개 시도	서울(a)	1,652	3.09	0.37	3.20	0.47	3.04	0.56	3.14	0.57	2.94	0.48
	부산(b)	597	3.16	0.38	3.29	0.46	3.08	0.56	3.23	0.60	3.02	0.51
	대구(c)	555	3.18	0.36	3.25	0.45	3.04	0.52	3.31	0.54	3.04	0.49
	인천(d)	622	3.11	0.37	3.21	0.44	3.06	0.54	3.17	0.56	2.96	0.49
	광주(e)	393	3.05	0.37	3.18	0.46	2.97	0.54	3.11	0.58	2.92	0.47
	대전(f)	517	3.06	0.38	3.21	0.43	3.02	0.57	3.09	0.62	2.91	0.48
	울산(g)	356	3.09	0.38	3.24	0.46	3.04	0.57	3.12	0.58	2.97	0.49
	경기(h)	2,718	2.85	0.27	3.19	0.42	2.87	0.55	2.69	0.55	2.75	0.40
	강원(i)	440	3.07	0.39	3.19	0.47	2.96	0.60	3.17	0.60	2.91	0.49
	충북(j)	417	3.04	0.38	3.20	0.46	2.95	0.54	3.09	0.62	2.89	0.47
	충남(k)	504	3.05	0.37	3.15	0.47	2.93	0.57	3.14	0.54	2.91	0.48
	세종(l)	26	3.04	0.37	3.15	0.44	2.92	0.57	3.13	0.55	2.89	0.47
	전북(m)	566	3.02	0.38	3.14	0.46	2.95	0.54	3.09	0.61	2.87	0.48
	전남(n)	476	3.10	0.36	3.21	0.45	2.99	0.55	3.19	0.58	2.95	0.49
	경북(o)	527	3.04	0.36	3.16	0.43	2.94	0.52	3.12	0.55	2.90	0.48
	경남(p)	590	3.04	0.37	3.17	0.44	2.89	0.54	3.12	0.57	2.89	0.49
	제주(q)	363	3.06	0.35	3.12	0.44	3.04	0.53	3.14	0.57	2.90	0.45
	F값		8.162**		4.271**		6.209**		5.982**		5.147**	
			c)b>a,d,e,f,g,h,i,j,k,l,n,o,p,q>m		b)a,c,d,e,f,g,h,i,j,k,l,n,o,p>m,q		b)a,c,d,e,f,g,h,i,j,k,m,n,o,q>h,p		c)a,b,d,e,f,g,h,i,j,k,m,n,o,p,q>l		c)a,b,d,e,f,g,h,i,j,k,m,n,o,p,q>l	

*, $p<0.05$, **, $p<0.01$

개인특성 변인 중 성별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차이는 여성은 3.09(SD=.37), 남성은 3.06(SD=.38)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차이는 $t=4.640$,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는 남성이 3.22(SD=.47), 여성이 3.17(SD=.44)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차이는 $t=6.491$,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관리 이외의 과제관리와 상황대처 하위역량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과제관리는 여성이 3.00(SD=.54) 남성은 2.97(SD=.58), 상황대처는 여성이 3.20(SD=.57), 남성은 3.10(SD=.60)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조절에서는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 시기별 차이를 학교급 구분(초등, 중등, 고등, 대학)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관리역량에 있어 초등학생의 평균은 3.20(SD=.39)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3.05(SD=.36), 고등학생은 3.01(SD=.35), 대학생은 2.95(SD=.31)이다. 학교급별 생활관리역량의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F=223.144$,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생활관리역량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의 경우, 초등학생이 3.32(SD=.47), 중학생이 3.17(SD=.45), 고등학생이 3.10(SD=.44), 대학생이 3.09(SD=.43)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차이는 $F=159.130$,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관리는 초등학생이 2.99(SD=.64), 중학생이 2.97(SD=.56), 고등학생이 2.99(SD=.51), 대학생이 3.01(SD=.43)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대처는 초등학생이 3.36(SD=.57), 중학생이 3.11(SD=.57), 고등학생이 3.05(SD=.55), 대학생이 2.87(SD=.55)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296.388$,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조절은 초등학생이 3.01(SD=.50), 중학생이 2.90(SD=.48), 고등학생이 2.88(SD=.48), 대학생이 2.88(SD=.44)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56.235$,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업성취수준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활관리역량에 있어 학업성취도가 높은(상) 청소년의 평균은 3.22(SD=.39)로 나타났으며, 중 수준 청소년은 3.07(SD=.36), 하 수준 청소년은 2.99(SD=.35)이다. 학교급별 생활관리역량의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F=317.028$,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에 의하면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의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 수준의 청소년, 하 수준의 청소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의 세부항목

모두,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의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이 가장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이 하 수준의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는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은 3.33(SD=.46), 중 수준은 3.18(SD=.45), 하 수준은 3.11(SD=.45)이며 각 집단 차이는 $F=185.808$,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관리는 상 수준의 청소년이 3.15(SD=.59), 중 수준의 청소년은 2.99(SD=.54), 하 수준의 청소년은 2.87(SD=.55)로 나타났으며 $F=188.916$,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대처는 상 수준의 청소년이 3.31(SD=.59), 중 수준의 청소년은 3.13(SD=.58), 하 수준의 청소년은 3.08(SD=.57)로 나타났으며 $F=140.657$,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은 상 수준의 청소년이 3.05(SD=.51), 중 수준의 청소년은 2.93(SD=.47), 하 수준의 청소년은 2.84(SD=.46)로 나타났으며 $F=149.694$,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은 대구지역이 3.18(SD=.36), 부산 3.16(SD=.38) 순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지역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F검증과 사후분석 결과 $F=8.162$,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구가 부산, 서울, 전북 지역 보다 생활관리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는 부산이 3.29(SD=.46)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제주 지역이 각각 3.14(SD=.46)과 3.12(SD=.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건강관리는 $F=4.271$,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과제관리의 경우, 부산이 3.08(SD=.56)로 가장 높고, 경기 2.87(SD=.55)과 경남 2.89(SD=.54)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F=6.209$,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황대처는 대구 지역이 3.31(SD=.54)로 가장 높고, 충북이 3.09(SD=.62), 전북이 3.09(SD=.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상황대처는 $F=5.982$,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정서조절은 대구 지역이 3.04(SD=.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 지역이 2.87(SD=.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F=5.147$,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차이를 종합해 보면, 생활관리역량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이, 중·후기 청소년에 비해 초기 청소년이,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별 차이를 보면, 건강관리는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중·후기 청소년보다 초기 청소년이 높게 나타났으며, 과제관리와 상황대처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이, 중·후기 청소년보다 초기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하위역량에서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의 학생이 중·하 수준의 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지역별 차이는 부산, 대구 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각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건강관리의 분석결과는 <표 IV-28>과 같다.

표 IV-2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건강관리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건강관리					
			위생관리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M	(SD)	M	(SD)	M	(SD)
전체		11,319	3.34	0.51	2.90	0.78	3.25	0.53
성별	남	5,535	3.30	0.53	3.07	0.74	3.25	0.55
	여	5,784	3.38	0.49	2.73	0.78	3.24	0.51
	t값		-8.256**		23.466**		.537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3.39	0.53	3.14	0.72	3.37	0.53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3.32	0.50	2.87	0.76	3.23	0.52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3.32	0.50	2.69	0.79	3.17	0.52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3.26	0.49	2.80	0.74	3.13	0.49
	F값		23.673**		219.535**		111.452**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3.44	0.52	3.07	0.76	3.40	0.52
	중(b)	4,972	3.33	0.50	2.87	0.77	3.24	0.52
	하(c)	3,621	3.27	0.51	2.81	0.78	3.15	0.53
	F값		81.803**		93.115**		173.232**	
			a)b>c		a)b>c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3.34	0.53	2.88	0.79	3.27	0.54
	부산(b)	597	3.41	0.51	3.04	0.79	3.33	0.53
	대구(c)	555	3.41	0.49	2.96	0.75	3.29	0.52
	인천(d)	622	3.35	0.49	2.88	0.80	3.29	0.52
	광주(e)	393	3.28	0.50	2.90	0.78	3.26	0.52
	대전(f)	517	3.37	0.49	2.88	0.78	3.26	0.51
	울산(g)	356	3.40	0.50	2.96	0.78	3.26	0.51
	경기(h)	2,718	3.35	0.48	2.94	0.90	3.21	0.50
	강원(i)	440	3.33	0.52	2.93	0.78	3.24	0.55
	충북(j)	417	3.36	0.51	2.92	0.76	3.21	0.51
	충남(k)	504	3.33	0.53	2.80	0.79	3.21	0.56
	세종(l)	26	3.31	0.48	2.86	0.73	3.18	0.52
	전북(m)	566	3.28	0.52	2.86	0.75	3.18	0.53
	전남(n)	476	3.35	0.51	2.91	0.74	3.28	0.52
	경북(o)	527	3.33	0.48	2.85	0.76	3.19	0.51
	경남(p)	590	3.32	0.51	2.86	0.77	3.23	0.50
	제주(q)	363	3.30	0.52	2.71	0.77	3.23	0.51
	F값		2.899**		4.112**		3.538**	
			b,c>e,h,m		b>a,c,d,e,i,k,m,o,p>q		a,b>d,h,i,j>k,m	

*, $p<0.05$, **, $p<0.01$

건강관리의 세부역량을 개인특성변인인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취도 수준별,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생관리는 남성이 3.30(SD=.53), 여성이 3.38(SD=.49)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t=-8.256$,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관리의 경우 남성이 3.07(SD=.74), 여성이 2.73(SD=.78)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t=23.466$,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의 경우 남성이 3.25(SD=.55), 여성이 3.24(SD=.51)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교급별 건강관리 세부역량 차이의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위생관리는 초등학생이 3.39(SD=.53),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3.32(SD=.50), 대학생은 3.26(SD=.49)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차이는 $F=23.673$,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동일하며, 대학생의 위생관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관리는 초등학생이 3.14(SD=.72), 중학생이 2.87(SD=.76), 고등학생은 2.69(SD=.79), 대학생은 2.80(SD=.74)로 나타났다. 신체관리의 학교급별 차이는 $F=219.535$,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높았다.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는 초등학생이 3.37(SD=.53), 중학생이 3.23(SD=.52), 고등학생은 3.17(SD=.52), 대학생은 3.13(SD=.49)로 나타났다.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의 학교급별 차이는 $F=111.452$,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높았다.

학업성취도 수준별 위생관리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상 수준의 청소년은 3.44(SD=.52), 중 수준의 청소년은 3.33(SD=.50), 하 수준의 청소년은 3.27(SD=.51)로 나타났으며, $F=81.803$,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 청소년이 가장 높고, 하 수준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관리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3.07(SD=.76), 중 수준 2.87(SD=.77), 하 수준 2.81(SD=.78)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별 차이는 $F=93.115$,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수준의 청소년의 신체관리 역량이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 하 수준의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3.40(SD=.52), 중 수준 3.24(SD=.52), 하 수준 3.15(SD=.53)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별 차이는 $F=173.232$,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수준의 청소년의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역량이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 하 수준의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생관리는 부산지역이 3.41(SD=.51), 대구 3.41(SD=.49), 울산 3.40(SD=.50) 순으로 높았으며, 광주가 3.28(SD=.50), 전북이 3.28(SD=.5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F검증과 사후분석 결과 $F=2.899,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부산과 대구가 광주, 경기, 전북 지역 보다 위생관리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관리는 부산이 3.04(SD=.79)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2.71(SD=.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체관리는 $F=4.112,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는 부산이 3.33(SD=.53)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3.18(SD=.52), 전북이 3.18(SD=.5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체관리는 $F=3.538,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서울, 부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건강관리의 세부항목인 위생관리와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의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 보면, 위생관리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고, 초기 청소년이 중기나 후기 청소년 보다 높으며, 대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높았으며,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관리의 경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이,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차이도 다른 세부역량과 마찬가지로 부산 등의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고, 초기 청소년이 중기나 후기 청소년 보다 높았다. 또한,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높았으며,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과제관리의 세부역량인 목표 및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29>와 같다.

과제관리의 세부역량을 개인특성변인인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취도 수준별,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표 및 계획 수립은 남성이 3.01(SD=.61), 여성이 3.07(SD=.56)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t=4.914,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및 평가의 경우 남성이 2.93(SD=.63), 여성이 2.94(SD=.61)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2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과제관리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	
			M	(SD)	M	(SD)
전체		11,319	3.04	0.58	2.94	0.62
성별	남	5,535	3.01	0.61	2.93	0.63
	여	5,784	3.07	0.56	2.94	0.61
	t값		-4.914**		-.681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3.01	0.67	2.97	0.68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3.03	0.58	2.92	0.61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3.07	0.52	2.92	0.58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3.07	0.46	2.96	0.50
	F값		6.099** c>a=b		5.643** a>b=c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3.19	0.61	3.10	0.64
	중(b)	4,972	3.04	0.56	2.94	0.60
	하(c)	3,621	2.93	0.57	2.82	0.61
	F값		156.257** a>b>c		172.729**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3.10	0.58	2.97	0.62
	부산(b)	597	3.14	0.58	3.03	0.62
	대구(c)	555	3.09	0.55	2.99	0.57
	인천(d)	622	3.12	0.58	3.00	0.60
	광주(e)	393	3.03	0.55	2.92	0.60
	대전(f)	517	3.09	0.56	2.95	0.65
	울산(g)	356	3.09	0.59	2.99	0.63
	경기(h)	2,718	2.95	0.49	2.78	0.66
	강원(i)	440	3.00	0.62	2.93	0.65
	충북(j)	417	3.00	0.57	2.90	0.59
	충남(k)	504	2.96	0.57	2.90	0.64
	세종(l)	26	2.97	0.61	2.87	0.61
	전북(m)	566	2.99	0.56	2.91	0.60
	전남(n)	476	3.06	0.57	2.93	0.60
	경북(o)	527	2.99	0.55	2.89	0.57
	경남(p)	590	2.95	0.58	2.83	0.58
	제주(q)	363	3.10	0.55	2.98	0.60
	F값		7.210** a>h,j,k,m,o,p		4.311** a,b>h,k,o,p	

*, $p<0.05$, **, $p<0.01$

학교급별 건강관리 세부역량 차이의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목표 및 계획 수립은 초등학생이 3.01(SD=.67), 중학생은 3.03(SD=.58), 고등학생은 3.07(SD=.52), 대학생은 3.07(SD=.46)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차이는 $F=6.099$,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과 평가 역량에서는 초등학생이 2.97(SD=.68), 중학생이 2.92(SD=.61), 고등학생은 2.92(SD=.58), 대학생은 2.96(SD=.50)로 나타났다. 수행과 평가의 학교 급별 차이는 $F=5.643$,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수준별 목표 및 계획 수립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상 수준의 청소년은 3.19(SD=.61), 중 수준의 청소년은 3.04(SD=.56), 하 수준의 청소년은 2.93(SD=.57)로 나타났으며, $F=156.257$,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 청소년이 가장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 하 수준 청소년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행 및 평가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3.10(SD=.64), 중 수준 2.94(SD=.60), 하 수준 2.82(SD=.61)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별 차이는 $F=172.729$,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수준의 청소년의 수행 및 평가 역량이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 하 수준의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표 및 계획 수립은 부산 지역이 3.14(SD=.58), 인천 3.12(SD=.58), 서울 3.10(SD=.58)과 제주 3.10(SD=.55) 순으로 높았으며, 경기도가 2.95(SD=.49), 경남이 2.95(SD=.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F검증과 사후분석 결과 $F=7.210$,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서울 지역이 경기, 충북, 충남 등의 지역 보다 목표 및 계획 수립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및 평가는 부산이 3.03(SD=.62), 인천이 3.00(SD=.60)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78(SD=.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목표 및 수행 평가는 $F=4.311$,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서울과 부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과제관리의 세부항목인 목표 및 계획 수립, 수행 및 평가의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 보면, 목표 및 계획 수립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고,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목표 및 계획 수립에서도 높았으며,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행 및 평가의 경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이 중기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수행 및 평가 역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차이도 다른 세부역량과 마찬가지로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상황대처 역량의 각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IV-30>과 같다.

표 IV-30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상황대처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상황대처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319	2.84	0.89	3.07	0.80	3.45	0.62	3.26	0.67
성별	남	5,535	2.77	0.90	3.08	0.79	3.32	0.67	3.23	0.68
	여	5,784	2.89	0.88	3.06	0.80	3.58	0.54	3.28	0.67
	t값		-7.260**		.821		-22.545**		-4.311**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3.20	0.87	3.33	0.75	3.54	0.58	3.38	0.65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2.77	0.87	3.05	0.79	3.43	0.62	3.21	0.67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2.64	0.85	2.91	0.79	3.43	0.61	3.22	0.67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40	0.74	2.71	0.73	3.28	0.72	3.07	0.72
	F값		368.435**		260.868**		51.038**		78.771**	
			a>b>c>d		a>b>c>d		a>b>c>d		a>b=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3.06	0.90	3.27	0.79	3.56	0.59	3.36	0.66
	중(b)	4,972	2.80	0.89	3.03	0.79	3.44	0.62	3.24	0.67
	하(c)	3,621	2.73	0.87	2.98	0.79	3.38	0.62	3.21	0.67
	F값		116.891**		116.506**		62.395**		45.140**	
			a>b>c		a>b>c		a>b>c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2.80	0.89	3.05	0.80	3.47	0.61	3.24	0.67
	부산(b)	597	2.92	0.90	3.15	0.81	3.51	0.61	3.34	0.67
	대구(c)	555	3.01	0.90	3.29	0.74	3.55	0.56	3.39	0.58
	인천(d)	622	2.75	0.89	3.06	0.77	3.53	0.56	3.34	0.65
	광주(e)	393	2.82	0.91	3.05	0.80	3.39	0.62	3.19	0.67
	대전(f)	517	2.75	0.92	2.96	0.83	3.40	0.66	3.26	0.71
	울산(g)	356	2.80	0.91	3.07	0.81	3.42	0.62	3.19	0.70
	경기(h)	2,718	2.35	0.75	2.56	0.84	2.88	0.64	2.95	0.70
	강원(i)	440	2.87	0.90	3.10	0.80	3.43	0.64	3.28	0.68
	충북(j)	417	2.76	0.92	2.99	0.82	3.40	0.65	3.20	0.69
	충남(k)	504	2.81	0.89	3.02	0.76	3.51	0.56	3.24	0.65
	세종(l)	26	2.83	0.85	3.04	0.78	3.43	0.60	3.21	0.68
	전북(m)	566	2.82	0.88	2.99	0.81	3.40	0.66	3.16	0.71
	전남(n)	476	2.92	0.86	3.11	0.77	3.48	0.60	3.26	0.69
	경북(o)	527	2.78	0.87	3.04	0.74	3.43	0.62	3.24	0.66
	경남(p)	590	2.84	0.89	3.05	0.79	3.40	0.60	3.21	0.65
	제주(q)	363	2.81	0.90	3.00	0.82	3.51	0.57	3.25	0.63
	F값		3.798**		5.852**		5.250**		4.900**	
			c>a,d,f,i,j,m,o		b=c>a,d,e,f,g,h,i,j,k,l,m,n,p,q		a=b=c>e,f,g,h,i,j,l,m,p		b=c>a,e,h,i,k,m,o,p	

*, $p<0.05$, **, $p<0.01$

상황대처의 세부역량을 개인특성변인인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취도 수준별,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독인식은 남성이 2.77(SD=.90), 여성이 2.89(SD=.88)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t=-7.260$,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행동의 경우 남성이 3.08(SD=.79), 여성이 3.06(SD=.80)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폭력행동의 경우 남성이 3.32(SD=.67), 여성이 3.58(SD=.54)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으며, 이는 $t=-22.545$,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회피는 남성이 3.23(SD=.68), 여성이 3.28(SD=.67)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t=4.311$,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상황대처 세부역량 차이의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중독인식은 초등학생이 3.20(SD=.87), 중학생이 2.77(SD=.87), 고등학생은 2.64(SD=.85), 대학생은 2.40(SD=.74)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차이는 $F=368.435$,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중독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독행동은 초등학생이 3.33(SD=.75), 중학생이 3.05(SD=.79), 고등학생은 2.91(SD=.79), 대학생은 2.71(SD=.73)로 나타났다. 중독행동의 학교급별 차이는 $F=260.868$,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높았다. 폭력행동은 초등학생이 3.54(SD=.58), 중학생이 3.43(SD=.62), 고등학생은 3.43(SD=.61), 대학생은 3.28(SD=.72)로 나타났다. 폭력행동의 학교급별 차이는 $F=51.038$,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높았다. 폭력회피는 초등학생이 3.38(SD=.65), 중학생이 3.21(SD=.67), 고등학생은 3.22(SD=.67), 대학생은 3.07(SD=.72)로 나타났다. 폭력회피의 학교급별 차이는 $F=78.771$,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수준별 중독인식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상 수준의 청소년은 3.06(SD=.90), 중 수준의 청소년은 2.80(SD=.89), 하 수준의 청소년은 2.73(SD=.87)로 나타났으며, $F=116.891$,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 청소년이 가장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 하 수준 청소년 순으로 확인되었다. 중독행동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3.27(SD=.79), 중 수준 3.03(SD=.79), 하 수준 2.98(SD=.79)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별 차이는 $F=116.506$,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수준의 청소년의 중독행동 역량이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 하 수준의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행동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3.56(SD=.59), 중 수준 3.44(SD=.62), 하 수준 3.38(SD=.62)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별 차이는 $F=62.395$,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수준의 청소년의

폭력행동 역량이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 하 수준의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회피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3.36(SD=.66), 중 수준 3.24(SD=.67), 하 수준 3.21(SD=.67)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별 차이는 $F=45.140$,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수준의 청소년의 폭력회피 역량이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 하 수준의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독인식은 대구 지역이 3.01(SD=.90), 부산 2.92(SD=.90), 전남 2.92(SD=.86) 순으로 높았으며, 경기도가 2.35(SD=.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F검증과 사후분석 결과 $F=3.798$,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중독인식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행동은 대구 지역이 3.29(SD=.74), 부산이 3.15(SD=.8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56(SD=.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독행동은 $F=5.852$,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산과 대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력행동은 대구 지역이 3.55(SD=.56), 인천이 3.53(SD=.56), 부산이 3.51(SD=.61), 서울이 3.47(SD=.61)로 가장 높았고 경기 지역이 2.88(SD=.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폭력행동은 $F=5.250$,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력회피는 대구 지역이 3.39(SD=.58), 부산이 3.34(SD=.67), 인천이 3.34(SD=.65)로 가장 높았고 경기 지역이 2.95(SD=.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폭력회피는 $F=4.900$,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산, 대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상황대처의 세부항목인 중독인식, 중독행동, 폭력행동, 폭력회피의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 보면, 중독인식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고, 초기 청소년이 중기나 후기 청소년 보다 높으며, 대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높았으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독행동의 경우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이,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차이도 다른 세부역량과 마찬가지로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폭력행동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현저하게 높고, 초기 청소년이 중기나 후기 청소년 보다 높았다. 또한,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높았으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력회피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고, 초기 청소년이 중기나 후기 청소년 보다 높았다. 또한,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높았으며,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정서조절 역량의 각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IV-31>과 같다.

표 IV-31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정서조절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정서조절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감정인식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319	3.11	0.74	3.01	0.76	2.70	0.86	2.91	0.73
성별	남	5,535	3.06	0.74	3.03	0.77	2.78	0.84	2.85	0.78
	여	5,784	3.15	0.73	3.00	0.75	2.63	0.86	2.96	0.67
	t값		-7.100**		2.277**		9.769**		-7.905**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3.29	0.73	3.14	0.79	2.92	0.88	2.81	0.86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3.01	0.72	2.98	0.74	2.63	0.85	2.94	0.69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3.02	0.73	2.92	0.75	2.54	0.81	2.99	0.61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3.03	0.72	2.96	0.72	2.69	0.75	2.85	0.62
	F값		111.080**		51.933**		130.913**		41.304**	
			a>b=c=d		a>b>c		a>d>b>c		c>b>d>a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3.29	0.72	3.17	0.77	2.90	0.88	2.91	0.83
	중(b)	4,972	3.11	0.73	3.01	0.75	2.69	0.84	2.92	0.70
	하(c)	3,621	2.97	0.73	2.90	0.76	2.57	0.84	2.89	0.68
	F값		150.536**		101.251**		120.243**		1.180	
			a>b>c		a>b>c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3.12	0.71	3.03	0.75	2.72	0.85	2.91	0.73
	부산(b)	597	3.22	0.71	3.14	0.76	2.84	0.86	2.91	0.80
	대구(c)	555	3.21	0.72	3.15	0.69	2.84	0.84	2.98	0.71
	인천(d)	622	3.12	0.72	3.02	0.77	2.67	0.85	3.01	0.70
	광주(e)	393	3.10	0.71	2.94	0.77	2.66	0.86	2.96	0.67
	대전(f)	517	3.05	0.75	2.98	0.77	2.69	0.84	2.92	0.73
	울산(g)	356	3.19	0.73	3.08	0.74	2.75	0.86	2.90	0.77
	경기(h)	2,718	2.81	0.58	2.75	0.62	2.38	0.78	2.96	0.65
	강원(i)	440	3.10	0.75	3.01	0.79	2.70	0.87	2.86	0.76
	충북(j)	417	3.11	0.75	2.98	0.77	2.63	0.86	2.86	0.72
	충남(k)	504	3.04	0.77	2.98	0.75	2.62	0.85	2.97	0.70
	세종(l)	26	3.07	0.69	2.95	0.75	2.70	0.85	2.87	0.70
	전북(m)	566	3.07	0.78	2.92	0.78	2.68	0.85	2.82	0.68
	전남(n)	476	3.11	0.74	3.02	0.74	2.72	0.85	2.94	0.72
	경북(o)	527	3.02	0.76	2.98	0.75	2.71	0.82	2.90	0.68
	경남(p)	590	3.05	0.75	2.96	0.77	2.65	0.87	2.91	0.70
	제주(q)	363	3.11	0.71	2.98	0.74	2.60	0.82	2.92	0.70
	F값		3.569**		4.085**		3.196**		2.741**	
			b=c>f,h,j,k,m,o,p		b=c>e,f,h,k,m,o,p		b=c>d,h,i,j,,p,q		c=d>h=m	

*, $p<0.05$, **, $p<0.01$

정서조절의 세부역량을 개인특성변인인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취도 수준별,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노행동은 남성이 3.06(SD=.74), 여성이 3.15(SD=.73)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으며, 이는 $t=-7.100$,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절제의 경우 남성이 3.03(SD=.77), 여성이 3.00(SD=.75)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이는 $t=2.277$,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실패 역량의 경우 남성이 2.78(SD=.84), 여성이 2.63(SD=.86)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t=9.769$,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인식의 경우 남성이 2.85(SD=.78), 여성이 2.96(SD=.67)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t=-7.905$,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상황대처 세부역량 차이의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분노행동 역량은 초등학생이 3.29(SD=.73), 중학생이 3.01(SD=.72), 고등학생은 3.02(SD=.73), 대학생은 3.03(SD=.72)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차이는 $F=111.080$,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동일한 분노행동 역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절제는 초등학생이 3.14(SD=.79), 중학생이 2.98(SD=.74), 고등학생은 2.92(SD=.75), 대학생은 2.96(SD=.72)로 나타났다. 감정절제의 학교급별 차이는 $F=51.933$,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실패는 초등학생이 2.92(SD=.88), 중학생이 2.63(SD=.85), 고등학생은 2.54(SD=.81), 대학생은 2.69(SD=.75)로 나타났다. 조절실패의 학교급별 차이는 $F=130.913$,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높았다. 감정인식은 초등학생이 2.81(SD=.86), 중학생이 2.94(SD=.69), 고등학생은 2.99(SD=.61), 대학생은 2.85(SD=.62)로 나타났다. 감정인식의 학교급별 차이는 $F=41.304$,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 대학생, 초등학생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수준별 분노행동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상 수준의 청소년은 3.29(SD=.72), 중 수준의 청소년은 3.11(SD=.73), 하 수준의 청소년은 2.97(SD=.73)로 나타났으며, $F=150.536$,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 청소년이 가장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 하 수준 청소년 순으로 확인되었다. 감정절제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3.17(SD=.77), 중 수준 3.01(SD=.75), 하 수준 2.90(SD=.76)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별 차이는 $F=101.251$,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수준의 청소년의 감정절제 역량이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 하 수준의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조절실패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2.90(SD=.88)$, 중 수준 $2.69(SD=.84)$, 하 수준 $2.57(SD=.84)$ 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별 차이는 $F=120.243$,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수준의 청소년의 조절실패 역량이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 하 수준의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감정인식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2.91(SD=.83)$, 중 수준 $2.92(SD=.70)$, 하 수준 $2.89(SD=.68)$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노행동은 부산 지역이 $3.22(SD=.71)$, 대구가 $3.21(SD=.72)$, 울산 $3.19(SD=.73)$ 순으로 높았으며, 경기가 $2.81(SD=.58)$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F검증과 사후분석 결과 $F=3.569$,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부산과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중독인식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절제는 대구 지역이 $3.15(SD=.694)$, 부산이 $3.14(SD=.76)$ 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2.75(SD=.62)$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정절제 역량은 $F=4.085$,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산과 대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실패 역량은 부산 지역이 $2.84(SD=.86)$, 대구 지역이 $2.84(SD=.84)$ 로 가장 높았고, 경기 지역이 $2.38(SD=.78)$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정절제는 $F=3.196$,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산, 대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인식은 인천 지역이 $3.01(SD=.70)$ 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 지역이 $2.82(SD=.68)$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감정인식은 $F=2.741$,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구, 인천 지역이 경기나 전북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정서조절의 세부항목인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감정인식의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 보면, 분노행동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고, 초기 청소년이 중기나 후기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높았으며,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절제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고, 초기 청소년이,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차이도 다른 세부역량과 마찬가지로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절실패 역량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높고, 초기 청소년이 중기나 후기 청소년 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또한,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인식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높고,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높았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대구, 인천 등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인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각 세부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IV-32>와 [그림 IV-24]에 제시하였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전체 평균은 2.92(SD=.40)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 평균은 3.05(SD=.49)로 나타났으며 여가활용 평균은 3.05(SD=.50) 개척정신에 대한 평균은 2.66(SD=.51)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은 진로설계와 여가활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척정신이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다. 세부역량 항목 중에서는 여가활용 세부역량인 여가태도, 여가만족, 여가몰입과 진로설계의 세부역량이 자기탐색이 다른 역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활용의 여가유능감과 개척정신의 차별화태도와 도전정신이 다른 역량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M	SD
진로개발역량	전체		2.92	0.40
	진로설계	자기탐색	3.13	0.59
		직업탐색	2.94	0.69
		직업가치관	3.08	0.60
		진로준비	3.06	0.56
		전체	3.05	0.49
	여가활용	여가태도	3.31	0.54
		여가유능감	2.64	0.71
		여가만족	3.14	0.65
		여가몰입	3.16	0.63
		전체	3.05	0.50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2.64	0.58
		도전정신	2.68	0.61
		전체	2.66	0.51



【그림 IV-24】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평균 점수 비교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33>과 같다. 개인특성 변인 중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차이는 남성은 2.94($SD=.42$), 여성은 2.90($SD=.38$)로, 남자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차이는 $t=5.70$,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는 남성이 3.03($SD=.50$), 여성이 3.07($SD=.48$), 여가활용능력이 남성은 3.09($SD=.52$) 여성은 3.01($SD=.48$), 개척정신은 남성이 2.71($SD=.52$), 여성은 2.61($SD=.50$)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중 여가활용과 개척정신은 남자청소년이 높았으며 진로설계는 여자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학교급별(초등, 중등, 고등, 대학) 진로개발역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초등학생의 평균은 2.95($SD=.44$)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2.91($SD=.40$), 고등학생은 2.91($SD=.38$), 대학생은 2.88($SD=.35$)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F=10.22$,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이 중, 고,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의 경우, 초등학생이 $3.09(SD=.55)$, 중학생이 $3.01(SD=.49)$, 고등학생이 $3.06(SD=.45)$, 대학생이 $3.04(SD=.40)$ 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별 차이는 $F=14.8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능력은 초등학생이 $3.10(SD=.54)$, 중학생이 $3.03(SD=.49)$, 고등학생이 $3.03(SD=.47)$, 대학생이 $2.95(SD=.45)$ 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차이는 $F=27.6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척정신은 초등학생이 $2.65(SD=.51)$, 중학생이 $2.68(SD=.52)$, 고등학생이 $2.65(SD=.51)$, 대학생이 $2.65(SD=.49)$ 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F=3.11$,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학업성취수준별 진로개발역량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개발역량에 있어 학업성취도가 높은(상) 청소년의 평균은 $3.04(SD=.42)$ 로 나타났으며, 중 수준 청소년은 $2.91(SD=.38)$, 하 수준 청소년은 $2.85(SD=.39)$ 이다. 학교급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를 F검정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F=168.7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 중 수준, 하 수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의 세부항목 모두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의 청소년이 가장 높고, 중 수준의 청소년이 하 수준의 청소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는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인 청소년은 $3.20(SD=.50)$, 중수준은 $3.05(SD=.47)$, 하수준은 $2.95(SD=.48)$ 이며 각 집단 차이는 $F=200.0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능력은 상 수준의 청소년이 $3.17(SD=.51)$, 중 수준의 청소년은 $3.02(SD=.48)$, 하 수준의 청소년은 $2.99(SD=.49)$ 로 나타났으며 $F=110.2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척정신은 상 수준의 청소년이 $2.74(SD=.53)$, 중 수준의 청소년은 $2.65(SD=.49)$, 하 수준의 청소년은 $2.62(SD=.50)$ 로 나타났으며 $F=49.9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진로개발역량		하위 역량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319	2.92	0.40	3.05	0.49	3.05	0.50	2.66	0.51
성별	남	5,535	2.94	.421	3.03	.505	3.09	.522	2.71	.520
	여	5,784	2.90	.388	3.07	.479	3.01	.480	2.61	.496
	t값		5.70**		-4.68**		8.49**		9.77**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2.95	.440	3.09	.547	3.10	.543	2.65	.506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2.91	.403	3.01	.491	3.03	.496	2.68	.516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2.91	.379	3.06	.451	3.03	.470	2.65	.514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88	.353	3.04	.402	2.95	.453	2.65	.485
	F값		10.22**		14.87**		27.63**		3.11*	
			a>b=c=d		a, c > b		a>b=c>d		b>c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3.04	.420	3.2	.505	3.17	.517	2.74	.534
	중(b)	4972	2.91	.387	3.05	.474	3.02	.486	2.65	.495
	하(c)	3621	2.85	.399	2.95	.482	2.99	.499	2.62	.503
	F값		168.77**		200.09**		110.28**		49.95**	
			a>b>c		a>b>c		a>b>c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2.95	.415	3.09	.501	3.06	.519	2.71	.522
	부산(b)	597	2.97	.391	3.13	.479	3.11	.505	2.67	.496
	대구(c)	555	2.93	.388	3.11	.480	3.06	.489	2.63	.477
	인천(d)	622	2.95	.418	3.11	.483	3.07	.533	2.68	.524
	광주(e)	393	2.93	.390	3.05	.477	3.05	.478	2.68	.489
	대전(f)	517	2.97	.379	3.10	.474	3.09	.486	2.70	.496
	울산(g)	356	2.99	.397	3.08	.500	3.13	.444	2.75	.509
	세종(h)	26	2.91	.391	3.05	.389	3.03	.460	2.65	.630
	경기(i)	2718	2.91	.412	3.03	.510	3.06	.515	2.66	.516
	강원(j)	440	2.89	.430	3.02	.493	3.01	.521	2.65	.549
	충북(k)	417	2.89	.427	3.04	.501	3.03	.498	2.62	.525
	충남(l)	504	2.88	.386	2.98	.491	2.99	.473	2.66	.473
	전북(m)	566	2.86	.380	3.00	.444	2.97	.471	2.62	.493
	전남(n)	476	2.93	.398	3.08	.470	3.03	.480	2.69	.486
	경북(o)	527	2.85	.392	3.00	.468	2.97	.494	2.57	.515
	경남(p)	590	2.84	.403	2.96	.499	2.98	.515	2.58	.496
	제주(q)	363	2.92	.376	3.09	.467	3.05	.456	2.62	.496
	F값		6.444**		6.605**		4.467**		4.554**	
			a,b,g>l,m,o,p c,i>o,p d,f>m,o,p		a,b,c,d> i,l,m,o,p f>l,m,o,p g>p, b>j		a,b,f,g,i>m,o,p a>n,b>l,g>j,l		a>m,n,o,p g>k,m,o,p d,i>o f>o,p	

*.p<0.05, **.p<0.01

지역별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울산지역이 2.99(SD=.39), 부산 2.97(SD=.39), 대전 2.97(SD=.38) 순으로 높았으며, 경남이 2.84(SD=.4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F검증과 사후분석 결과 $F=6.44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서울, 부산, 울산이 충남, 전북, 경북, 경남지역보다 진로개발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는 부산이 3.13(SD=.47)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2.96(SD=.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로설계는 $F=6.60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 능력의 경우, 울산이 3.13(SD=.44)로 가장 높고, 전북이 2.97(SD=.4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차이는 $F=4.46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후 분석 결과,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지역이 전북, 경북, 경남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척정신 서울이 2.71(SD=.52)로 가장 높고, 경북이 2.57(SD=.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척정신은 $F=4.55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서울과 울산이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를 종합해 보면, 진로개발역량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이, 중·후기 청소년에 비해 초기 청소년이,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별 차이를 보면, 진로설계는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초등과 고등 청소년이 중등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활용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청소년이, 중·후기 청소년보다 초기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척정신은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등 청소년이 고등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든 하위역량에서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의 학생이 중·하 수준의 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지역별 차이는 울산, 부산, 대전, 서울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진로설계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역량의 각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4>와 같다. 청소년의 개인특성변인인 성별, 학교급, 학업성취도 수준, 지역에 따른 진로설계역량의 세부역량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탐색은 남성이 3.12(SD=.59), 여성이 3.14(SD=.57)로 여자 청소년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탐색의 경우 남성은 2.92(SD=.70), 여성은 2.96(SD=.68)로 나타났고 진로준비의 경우 남성이 3.04(SD=.61), 여성이 3.11(SD=.57)로 나타났으며 직업가치관의 경우 남성이 3.04(SD=.56), 여성이 3.08(SD=.54)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별 진로설계 세부역량 차이의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자기탐색은 초등학생이 3.19(SD=.63), 중학생은 3.10(SD=.59), 고등학생은 3.10(SD=.54), 대학생은 3.11(SD=.49)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차이는 $F=18.49$,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초기청소년이 중·후기 청소년보다 자기탐색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탐색능력은 초등학생이 3.00(SD=.75), 중학생이 2.87(SD=.68), 고등학생은 2.95(SD=.66), 대학생은 2.89(SD=.59)로 나타났다. 직업탐색의 학교급별 차이는 $F=22.62$,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준비는 초등학생이 3.04(SD=.67), 중학생은 3.06(SD=.58), 고등학생은 3.14(SD=.53), 대학생은 3.09(SD=.49)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 차이는 $F=16.79$,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가치관의 경우, 초등학생이 3.11(SD=.58), 중학생이 3.01(SD=.55), 고등학생은 3.05(SD=.53), 대학생은 3.08(SD=.48)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의 학교급별 차이는 $F=20.32$,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학생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 수준별 진로설계능력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상 수준의 청소년은 3.26(SD=.60), 중 수준의 청소년은 3.13(SD=.56), 하 수준의 청소년은 3.03(SD=.58)으로 나타났으며, $F=117.82$,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탐색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3.10(SD=.70), 중 수준 2.94(SD=.68), 하 수준 2.83(SD=.67)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취도별 차이는 $F=114.69$,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는 상 수준의 청소년은 3.19(SD=.62), 중 수준의 청소년은 3.08(SD=.58), 하 수준의 청소년은 3.00(SD=.58)으로 나타났으며, $F=72.59$,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3.22(SD=.55), 중 수준 3.06(SD=.53), 하 수준 2.93(SD=.55)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별 차이는 $F=217.95$,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의 네 개의 세부역량 모두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 청소년이 가장 높고, 하 수준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진로설계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역량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탐색은 부산지역이 3.22(SD=.58), 대구 3.21(SD=.54), 인천 3.21(SD=.58) 순으로 높았으며, 세종 3.04(SD=.46), 충남 3.05(SD=.57), 경북 3.05(SD=.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F검증과 사후분석 결과 $F=5.93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역이 경기, 충남, 경북, 경남지역보다 자기탐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탐색은 부산 3.04(SD=.68)와 대전 3.04(SD=.66)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2.83(SD=.7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탐색은 $F=4.325$,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서울, 부산, 인천, 대전이 충남과 전북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준비는 부산지역이 3.17(SD=.57)과 인천지역이 3.16(SD=.57) 높았으며, 경남 2.97(SD=.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F검증과 사후분석 결과 $F=6.45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서울과 부산지역이 경기, 충남, 전북, 경남지역보다 진로준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은 부산 3.12(SD=.52)와 대구 3.12(SD=.55)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2.96(SD=.57)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은 $F=3.77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이 경남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진로설계의 세부항목인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의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 보면, 자기탐색은 초등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보다 높고,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진로설계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탐색의 경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초기 청소년(초등학생)이,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차이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의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진로준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초등학생이, 그리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면 지역차이에 있어서도 다른 세부역량과 마찬가지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과 같은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경남지역의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4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진로설계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진로설계역량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319	3.13	.059	2.94	.069	3.08	.060	3.06	.056
성별	남	5,535	3.12	.594	2.92	.705	3.04	.618	3.04	.567
	여	5,784	3.14	.579	2.96	.683	3.11	.574	3.08	.546
	t값		-1.44		-3.49**		-6.42**		-3.90**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3.19	.633	3.00	.746	3.04	.675	3.11	.587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3.10	.596	2.87	.687	3.06	.589	3.01	.558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3.10	.541	2.95	.663	3.14	.535	3.05	.537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3.11	.499	2.89	.595	3.09	.492	3.08	.481
	F값		18.49** a>b=c=d		22.62** a>c> b a>d		16.79** a=b<c		20.32** a>c=d>b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3.26	.603	3.10	.707	3.19	.624	3.22	.552
	중(b)	4972	3.13	.566	2.94	.685	3.08	.582	3.06	.534
	하(c)	3621	3.03	.582	2.83	.677	3.00	.588	2.93	.559
	F값		117.82** a>b>c		114.69** a>b>c		72.59** a>b>c		217.95**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3.16	.595	2.97	.716	3.13	.600	3.09	.571
	부산(b)	597	3.22	.583	3.04	.685	3.17	.574	3.12	.527
	대구(c)	555	3.21	.548	2.95	.677	3.13	.583	3.12	.551
	인천(d)	622	3.21	.586	2.99	.699	3.16	.574	3.10	.556
	광주(e)	393	3.15	.567	2.92	.685	3.08	.560	3.04	.530
	대전(f)	517	3.13	.582	3.04	.660	3.14	.581	3.11	.536
	울산(g)	356	3.16	.583	2.98	.715	3.14	.561	3.07	.580
	세종(h)	26	3.04	.467	3.08	.611	3.02	.435	3.05	.522
	경기(i)	2718	3.10	.595	2.92	.706	3.04	.626	3.04	.572
	강원(j)	440	3.05	.635	2.92	.686	3.06	.564	3.05	.548
	충북(k)	417	3.15	.584	2.92	.734	3.04	.614	3.04	.570
	충남(l)	504	3.05	.575	2.83	.701	3.02	.592	3.02	.548
	전북(m)	566	3.08	.530	2.85	.625	3.01	.586	3.02	.523
	전남(n)	476	3.19	.541	2.97	.662	3.09	.583	3.07	.542
	경북(o)	527	3.05	.597	2.88	.639	3.03	.587	3.02	.521
	경남(p)	590	3.06	.606	2.86	.707	2.97	.605	2.96	.570
	제주(q)	363	3.13	.562	2.97	.679	3.13	.555	3.11	.535
	F값		5.936** a>j,l,o,p b,c,d>i,j,l,m,o,p		4.325** a,d>l,m d,f>i,l,m,o,p		6.458** a>i,l,m,p b>i,k,l,m,o,p c,f,g>p		3.771** a,b,c,d,f>p	

*, $p<0.05$, **, $p<0.01$

청소년들의 인구학적특성에 따른 여가활용능력의 세부역량인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5>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가태도는 남성이 3.28(SD=.55), 여성이 3.33(SD=.51)로 여자 청소년이 높았으며, $t=-4.2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유능감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2.76(SD=.71), 여자 청소년이 2.53(SD=.68)으로 남자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t=17.6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만족도 남자 청소년이 3.16(SD=.65), 여자 청소년이 3.11(SD=.64)로 남자청소년이 높았고, $t=4.2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몰입은 남자 청소년이 3.20(SD=.63), 여자 청소년이 3.13(SD=.62)으로 남자 청소년이 높았으며, $t=5.4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여가활용능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가태도는 초등학생이 3.32(SD=.58), 중학생이 3.31(SD=.52), 고등학생이 3.32(SD=.51), 대학생이 3.19(SD=.49)로 나타났다. 여가태도의 학교급별 차이는 $F=17.35$,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초기청소년과 중기청소년이 후기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유능감은 초등학생 2.72(SD=.73), 중학생 2.61(SD=.70), 고등학생 2.61(SD=.69), 대학생 2.62(SD=.67)로 나타났으며, $F=18.55$,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유능감은 초등학생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만족은 초등학생이 3.24(SD=.68), 중학생 3.13(SD=.64), 고등학생 3.09(SD=.61), 대학생 2.98(SD=.59)로 나타났다. 여가만족의 학교급별 차이는 $F=59.15$,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초기청소년이 가장 높고 중기청소년이 동일하며, 후기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몰입은 초등학생이 3.19(SD=.67), 중학생이 3.16(SD=.63), 고등학생이 3.17(SD=.59), 대학생이 3.03(SD=.56)으로 나타났고 $F=16.52$,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초기, 중기 청소년이 후기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 수준별 여가태도 차이를 F검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상 수준의 청소년은 3.41(SD=.53), 중 수준의 청소년은 3.30(SD=.53), 하 수준의 청소년은 3.25(SD=.54)으로 나타났으며, $F=73.38$,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 청소년이 가장 높고, 하 수준 청소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유능감의 경우 상 수준의 청소년은 2.76(SD=.76), 중 수준 2.62(SD=.69), 하 수준 2.59(SD=.68)로 나타났다. 여가만족은 상 수준의 청소년은 3.29(SD=.65), 중 수준의 청소년은 3.11(SD=.63), 하 수준

의 청소년은 3.07(SD=.64)였으며, $F=98.02$,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몰입은 상 수준의 청소년은 3.30(SD=.62), 중 수준의 청소년은 3.13(SD=.62), 하 수준의 청소년은 3.11(SD=.63)였으며, $F=80.96$,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유능감과 여가몰입은 학업성취도가 상 수준 청소년이 중, 하수준인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만족의 경우에는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가태도는 인천지역 3.37(SD=.56), 대전 3.37(SD=.51), 제주 3.36(SD=.49)가 높았으며, 강원 3.24(SD=.55), 전북 3.24(SD=.51), 경북 3.24(SD=.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에 대한 F검증과 사후분석 결과 $F=3.379$,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인천, 대전, 제주지역이 전북지역보다 여가태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유능감은 울산이 2.75(SD=.66)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2.55(SD=.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가유능감의 지역 차이는 $F=3.58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산, 울산지역이 경북과 경남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가만족의 경우 울산이 3.23(SD=.57)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3.06(SD=.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가만족의 지역 차이는 $F=2.804$,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산과 울산지역이 전북, 경북, 경남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몰입은 울산이 3.27(SD=.54)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3.08(SD=.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가몰입의 지역 차이는 $F=4.17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서울, 부산, 울산, 대전이 충남, 전북, 경북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여가활용능력의 세부역량인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의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 보면, 여가태도는 여자 청소년, 초기와 중기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초기 청소년이 후기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용능력의 지역별 차이도 다른 하위역량과 마찬가지로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IV-35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여가활용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여가활용역량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319	3.31	0.54	2.64	0.71	3.14	0.65	3.16	0.63
성별	남	5,535	3.28	.559	2.76	.716	3.16	0.65	3.20	0.63
	여	5,784	3.33	.519	2.53	.680	3.11	0.64	3.13	0.62
	t값		-4.29**		17.69**		4.28**		5.48**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3.32	.583	2.72	.733	3.24	0.68	3.19	0.67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3.31	.527	2.61	.700	3.13	0.64	3.16	0.63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3.32	.510	2.61	.691	3.09	0.61	3.17	0.59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3.19	.490	2.62	.671	2.98	0.59	3.03	0.56
	F값		17.35** a=b>c>d		18.55** a>b=c>d		59.15** a>b>c>d		16.52** a=b>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3.41	0.53	2.76	0.76	3.29	0.65	3.30	0.62
	중(b)	4972	3.30	0.53	2.62	0.69	3.11	0.63	3.13	0.62
	하(c)	3621	3.25	0.54	2.59	0.68	3.07	0.64	3.11	0.63
	F값		73.38** a>b>c		48.93** a>b>c		98.02** a>b>c		80.96**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3.31	0.55	2.67	0.74	3.14	0.66	3.19	0.65
	부산(b)	597	3.34	0.55	2.72	0.71	3.21	0.63	3.23	0.59
	대구(c)	555	3.31	0.51	2.68	0.69	3.15	0.64	3.18	0.60
	인천(d)	622	3.37	0.56	2.61	0.76	3.17	0.67	3.20	0.64
	광주(e)	393	3.30	0.53	2.65	0.67	3.16	0.62	3.17	0.60
	대전(f)	517	3.37	0.51	2.69	0.70	3.15	0.64	3.22	0.61
	울산(g)	356	3.35	0.49	2.75	0.66	3.23	0.57	3.27	0.54
	세종(h)	26	3.27	0.45	2.69	0.78	3.13	0.58	3.10	0.63
	경기(i)	2718	3.31	0.55	2.67	0.72	3.15	0.66	3.16	0.64
	강원(j)	440	3.24	0.55	2.62	0.73	3.10	0.66	3.14	0.63
	충북(k)	417	3.31	0.55	2.57	0.73	3.14	0.64	3.18	0.62
	충남(l)	504	3.28	0.50	2.60	0.67	3.08	0.61	3.07	0.62
	전북(m)	566	3.24	0.51	2.58	0.69	3.07	0.61	3.08	0.61
	전남(n)	476	3.30	0.52	2.63	0.67	3.12	0.62	3.15	0.61
	경북(o)	527	3.24	0.54	2.56	0.68	3.07	0.64	3.08	0.62
	경남(p)	590	3.27	0.58	2.55	0.68	3.06	0.67	3.09	0.68
	제주(q)	363	3.36	0.49	2.61	0.65	3.14	0.63	3.17	0.60
	F값		3.379** d,f>j,m,o q>m		3.588** b>o,p g>k,m,o,p i>p		2.804** b,g>m,o,p		4.177** a,b,g>l,m,o,p f>l,m,o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개척정신의 세부역량인 차별화태도와 도전정신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IV-36>과 같다. 성별에 따른 개척정신 차이를 살펴보면, 차별화태도는 남성 2.68(SD=.59), 여성은 2.61(SD=.57)로 나타났으며, 차별화태도의 성별 차이는 $t=6.10$,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전정신에 있어 남녀 차이는 남성은 2.74(SD=.61), 여성 2.62(SD=.60)로 나타났고 도전정신의 성별 차이는 $t=10.56$,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척정신의 세부역량의 남녀 차이는 차별화태도와 도전정신에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급에 따른 개척정신의 세부역량 차이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차별화태도는 초등학교생은 2.63(SD=.62), 중학생은 2.65(SD=.57), 고등학교생은 2.66(SD=.56), 대학생은 2.61(SD=.54)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F=2.28$,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정신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생은 2.68(SD=.58), 중학생은 2.71(SD=.61), 고등학교생은 2.64(SD=.63), 대학생은 2.68(SD=.56)로 나타났으며, $F=7.693$,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중학생이 고등학교생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취도 수준별 차별화태도 차이는 상 수준의 청소년은 2.75(SD=.62), 중 수준의 청소년은 2.63(SD=.57), 하 수준의 청소년은 2.59(SD=.56)로 나타났다. 도전정신은 상 수준의 청소년 2.74(SD=.63), 중 수준의 청소년 2.67(SD=.59), 하 수준의 청소년은 2.64(SD=.61)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개척정신의 세부항목인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 상 수준의 청소년이 중과 하수준의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척정신 세부역량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차별화태도는 서울지역 2.70(SD=.59), 울산 2.70(SD=.59)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지역이 2.60(SD=.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에 대한 F검증과 사후분석 결과 $F=2.973$,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대전, 울산지역이 경북과 경남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전정신은 울산지역이 2.79(SD=.61)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3.11(SD=.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전정신의 지역 차이는 $F=2.637$,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서울과 울산지역이 경북과 경남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개척정신의 세부항목인 차별화태도, 도전정신의 개인특성변인에 따른 차이를 종합해 보면, 차별화태도는 남자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전정신은 남자청소년과 중학생이 고등학교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척정신의 세부역량들의 지역별 차이도 다른 진로개발역량과 마찬가지로 부산, 울산 등 대도시 지역의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IV-36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척정신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M	(SD)	M	(SD)
전체		11,319	2.64	0.58	2.68	0.61
성별	남	5,535	2.68	0.59	2.74	0.61
	여	5,784	2.61	0.57	2.62	0.60
	t값		6.10**		10.56**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2.63	0.62	2.68	0.58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2.65	0.57	2.71	0.61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2.66	0.56	2.64	0.63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61	0.54	2.68	0.56
	F값		2.28		7.693** b>c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2.75	0.62	2.74	0.63
	중(b)	4972	2.63	0.57	2.67	0.59
	하(c)	3621	2.59	0.56	2.64	0.61
	F값		62.29** a>b>c		18.37**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2.70	0.59	2.72	0.62
	부산(b)	597	2.65	0.60	2.69	0.58
	대구(c)	555	2.62	0.56	2.64	0.58
	인천(d)	622	2.68	0.58	2.67	0.64
	광주(e)	393	2.68	0.58	2.68	0.58
	대전(f)	517	2.69	0.57	2.71	0.59
	울산(g)	356	2.70	0.59	2.79	0.61
	세종(h)	26	2.60	0.63	2.69	0.72
	경기(i)	2718	2.64	0.59	2.68	0.61
	강원(j)	440	2.63	0.61	2.66	0.65
	충북(k)	417	2.60	0.58	2.64	0.63
	충남(l)	504	2.64	0.55	2.68	0.58
	전북(m)	566	2.59	0.57	2.64	0.57
	전남(n)	476	2.68	0.57	2.69	0.59
	경북(o)	527	2.54	0.59	2.60	0.60
	경남(p)	590	2.55	0.58	2.61	0.61
	제주(q)	363	2.61	0.55	2.63	0.60
	F값		4.163** a>m,o,p d,f,g>o,p e,i,n>o		2.973** a>o,p g>c,k,m,o,p,q	

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결과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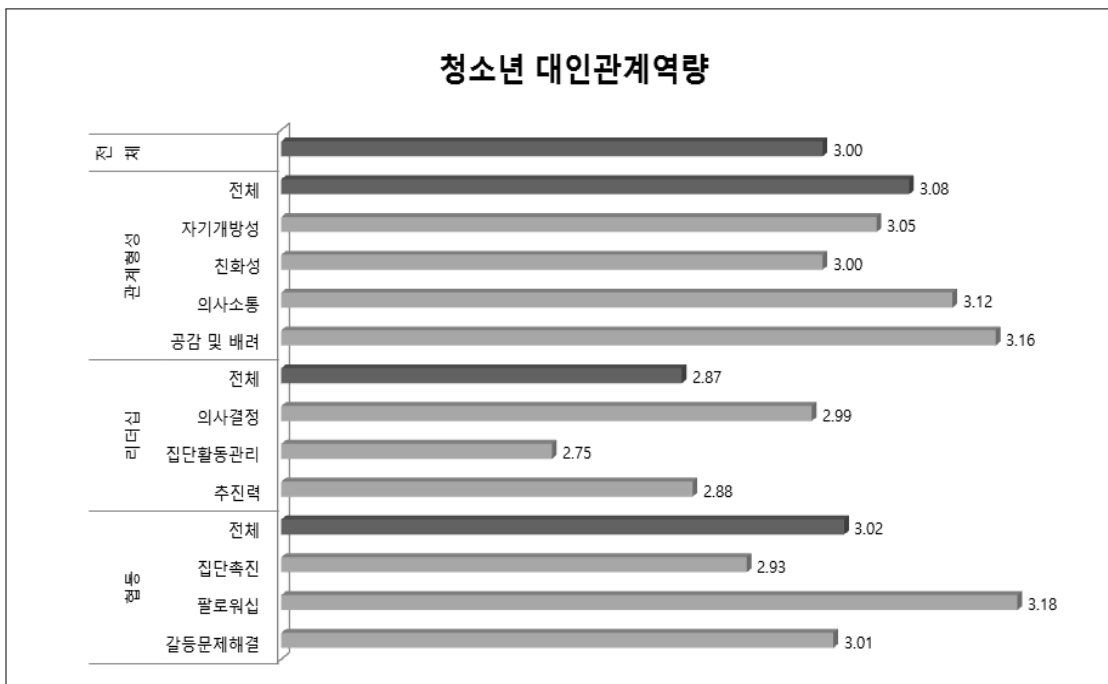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각 세부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IV-37>와 【그림 IV-25】에 제시하였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전체 평균은 3.00(SD=.45)로 나타났다. 관계형성 평균은 3.08(SD=.48)로 나타났으며 관계형성의 세부역량인 자기개방성은 3.05(SD=.68), 친화성은 3.00(SD=.64), 의사소통은 3.12(SD=.55), 공감 및 배려는 3.16(SD=.53)로 나타났다. 리더십은 2.87(SD=.53), 세부역량인 의사결정은 2.99(SD=.55), 집단활동관리는 2.75(SD=.66), 추진력은 2.88(SD=.59)로 나타났다. 협동 평균은 3.02(SD=.51), 협동의 세부역량인 집단촉진은 2.93(SD=.60), 팔로워십은 3.18(SD=.58), 갈등문제해결은 3.01(SD=.58)로 나타났다.

표 IV-3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역량군	하위역량	세부역량	M	SD
대인관계역량	전체		3.00	0.45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3.05	0.68
		친화성	3.00	0.64
		의사소통	3.12	0.55
		공감 및 배려	3.16	0.53
		전체	3.08	0.48
	리더십	의사결정	2.99	0.55
		집단활동관리	2.75	0.66
		추진력	2.88	0.59
		전체	2.87	0.53
	협동	집단촉진	2.93	0.60
		팔로워십	3.18	0.58
		갈등문제해결	3.01	0.58
		전체	3.02	0.51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중 관계형성 역량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협동, 리더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더십 평균은 3점 이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리더십 역량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관계형성의 세부역량 항목 중에서는 공감 및 배려 역량이 가장 높고, 친화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리더십의 세부역량 항목 중에서는 의사결정 역량이 다른 역량에 비해 높았으며, 집단활동관리 역량은 다른 역량에 비해 낮았다. 협동의 세부역량 항목 중에서는 팔로워십 역량이 가장 높았고, 집단촉진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25】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평균 점수 비교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차이를 자세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IV-38>에 제시하였다.

표 IV-38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대인관계 역량	역량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M	(SD)	M	(SD)	M	(SD)
전체		11,319	3.00 0.45	3.08	0.48	2.87	0.53	3.02	0.51
성별	남	5,535	2.97 0.47	3.03	0.49	2.86	0.56	2.99	0.54
	여	5,784	3.04 0.43	3.13	0.45	2.89	0.51	3.05	0.49
	t값		-7.942**	-11.140**		-3.007**		-6.355**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2.99 0.52	3.06	0.53	2.89	0.60	3.00	0.58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3.00 0.45	3.09	0.47	2.85	0.54	3.03	0.51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3.02 0.40	3.11	0.44	2.87	0.48	3.04	0.47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3.00 0.36	3.06	0.41	2.90	0.42	3.03	0.41
	F값		2.393	8.634** c > a, d		3.758* d > b		4.571** 1)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3.13 0.48	3.16	0.51	3.06	0.56	3.15	0.53
	중(b)	4,972	3.00 0.43	3.08	0.46	2.87	0.50	3.03	0.49
	하(c)	3,621	2.91 0.44	3.04	0.47	2.74	0.52	2.92	0.51
	F값		182.960** a > b > c	55.840** a > b > c		291.232** a > b > c		166.761** a > b > c	
17개 시도	서울(a)	1,652	3.04 0.46	3.10	0.48	2.93	0.54	3.06	0.51
	부산(b)	597	3.11 0.43	3.18	0.46	2.98	0.53	3.13	0.47
	대구(c)	555	3.04 0.42	3.14	0.45	2.90	0.49	3.04	0.49
	인천(d)	622	3.07 0.45	3.16	0.46	2.92	0.53	3.09	0.53
	광주(e)	393	2.98 0.46	3.06	0.49	2.85	0.53	2.99	0.53
	대전(f)	517	3.05 0.43	3.12	0.45	2.93	0.53	3.06	0.49
	울산(g)	356	3.04 0.44	3.12	0.46	2.92	0.53	3.06	0.50
	경기(h)	2,718	2.98 0.46	3.06	0.49	2.86	0.54	3.01	0.53
	강원(i)	440	2.98 0.45	3.06	0.47	2.85	0.56	2.99	0.52
	충북(j)	417	2.96 0.48	3.09	0.50	2.80	0.58	2.95	0.55
	충남(k)	504	2.96 0.43	3.02	0.45	2.84	0.52	3.00	0.49
	세종(l)	26	2.97 0.48	3.05	0.51	2.86	0.53	2.97	0.58
	전북(m)	566	2.94 0.42	3.03	0.44	2.80	0.51	2.96	0.49
	전남(n)	476	3.03 0.44	3.09	0.48	2.91	0.52	3.06	0.48
	경북(o)	527	2.94 0.46	3.03	0.48	2.80	0.53	2.95	0.52
	경남(p)	590	2.92 0.46	3.02	0.48	2.78	0.54	2.93	0.50
	제주(q)	363	3.00 0.41	3.08	0.46	2.86	0.48	3.02	0.46
	F값		7.916**1)	6.251**1)		7.180**1)		6.883**1)	

*.p<0.05, **.p<0.01

주1) 사후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 없음.

주2) 사후분석으로는 scheffe 검증을 실시함.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M=3.04, SD=.43$)이 남자 청소년($M=2.97, SD=.47$)에 비해 대인관계역량이 높게 나타났다($t=7.942, p<.01$). 대인관계의 하위역량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역량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우호적이고 개방적이라고 인식하며,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효율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하는 역량이 높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역량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시기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대인관계 하위역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학생($M=3.09, SD=.47$)이 초등학생($M=3.06, SD=.53$)과 대학생($M=3.06, SD=.41$)에 비해 관계형성 역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리더십 역량에 있어서는 대학생($M=2.90, SD=.42$)이 중학생($M=2.89, SD=.6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동역량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이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역량이 높다고 지각하는 반면, 자기가 속한 그룹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사결정하는 리더십 역량이 다소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대인관계역량과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역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대인관계역량 및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역량 및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역량 평균 점수는 다른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경남 지역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역량 평균점수 및 리더십, 협동 역량 평균점수는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계형성 역량에 있어서는 충남 지역 청소년들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컨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대인관계역량 및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대학생에 비해 관계형성 역량이 높은 반면, 리더십 역량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관계형성 하위역량(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9>와 같다.

표 IV-39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관계형성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관계형성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319	3.05	0.68	3.00	0.64	3.12	0.55	3.16	0.53
성별	남	5,535	2.98	0.69	2.98	0.64	3.06	0.57	3.10	0.55
	여	5,784	3.12	0.66	3.02	0.65	3.17	0.53	3.22	0.50
	t값		-10.719**		-2.766**		-9.898**		-12.618**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2.91	0.75	3.09	0.68	3.11	0.61	3.13	0.57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3.11	0.66	2.98	0.63	3.10	0.55	3.17	0.52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3.15	0.64	2.94	0.63	3.16	0.51	3.21	0.50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3.07	0.55	2.96	0.57	3.07	0.48	3.12	0.46
	F값		84.575** c>d)a, b>a		34.835** a>b, c, d		9.225** c>a, c, d		13.563** c>a, d, b>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3.05	0.72	3.14	0.66	3.23	0.57	3.25	0.55
	중(b)	4,972	3.04	0.68	2.99	0.63	3.11	0.53	3.16	0.51
	하(c)	3,621	3.08	0.66	2.92	0.63	3.04	0.55	3.12	0.53
	F값		2.596		89.792** a>b>c		89.792** a>b>c		89.792**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3.05	0.69	3.02	0.65	3.15	0.56	3.19	0.53
	부산(b)	597	3.15	0.65	3.14	0.63	3.21	0.53	3.24	0.50
	대구(c)	555	3.12	0.65	3.06	0.62	3.16	0.55	3.21	0.50
	인천(d)	622	3.16	0.65	3.03	0.65	3.22	0.52	3.25	0.52
	광주(e)	393	3.03	0.69	2.99	0.64	3.09	0.56	3.13	0.54
	대전(f)	517	3.10	0.66	3.04	0.60	3.16	0.54	3.20	0.51
	울산(g)	356	3.09	0.68	3.04	0.61	3.15	0.53	3.18	0.51
	경기(h)	2,718	3.01	0.70	3.00	0.65	3.10	0.57	3.15	0.55
	강원(i)	440	3.03	0.69	2.95	0.66	3.10	0.54	3.14	0.52
	충북(j)	417	3.08	0.71	2.97	0.67	3.12	0.58	3.18	0.55
	충남(k)	504	3.00	0.68	2.93	0.63	3.04	0.53	3.12	0.53
	세종(l)	26	3.18	0.69	2.97	0.66	2.97	0.54	3.06	0.42
	전북(m)	566	3.03	0.65	2.95	0.61	3.05	0.52	3.09	0.49
	전남(n)	476	3.10	0.67	2.99	0.68	3.11	0.53	3.17	0.50
	경북(o)	527	3.01	0.69	2.94	0.65	3.04	0.53	3.12	0.52
	경남(p)	590	3.04	0.67	2.94	0.65	3.04	0.57	3.09	0.53
	제주(q)	363	3.03	0.67	2.98	0.63	3.14	0.53	3.16	0.50
	F값		3.537**1)		3.900**1)		6.222**1)		4.794**1)	

*.p<0.05, **.p<0.01

주1) 사후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 없음.

주2) 사후분석으로는 scheffe 검증을 실시함.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이며, 상대방의 의견을 좀 더 주의깊게 듣고 대화하며,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 시기에 따른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개방성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이나 초등학생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의사소통 및 공감 및 배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 역량을 높게 지각했다. 한편, 고등학생은 대학생과 초등학생에 비해 공감 및 배려 역량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화성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할 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더 주의깊게 듣고 대화하며, 타인에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준다.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관계형성의 하위역량인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에 따른 관계형성의 하위역량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개방성에 있어서는 세종이 가장 높고, 충남이 가장 낮았으며, 친화성에 있어서는 부산이 가장 높고, 충남이 가장 낮았다. 한편 의사소통과 공감 및 배려에 있어서는 인천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컨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관계형성 하위역량인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기개방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역량이 높은 반면, 초등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친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리더십의 세부역량인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IV-40>과 같다.

표 IV-40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리더십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리더십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M	(SD)	M	(SD)	M	(SD)
전체		11,319	2.99	0.55	2.75	0.66	2.88	0.59
성별	남	5,535	2.96	0.59	2.74	0.67	2.88	0.61
	여	5,784	3.03	0.52	2.76	0.65	2.88	0.57
	t값		-6.495**		-1.877		.014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3.00	0.63	2.76	0.71	2.91	0.66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2.97	0.55	2.73	0.67	2.85	0.60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3.01	0.49	2.74	0.63	2.87	0.54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3.00	0.45	2.82	0.54	2.87	0.49
	F값		2.990*1)		4.654** d)a, b, c		6.828** a > b, c, 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2,663	3.15	0.58	2.97	0.69	3.07	0.60
	중(b)	4,972	3.00	0.53	2.75	0.64	2.87	0.56
	하(c)	3,621	2.88	0.54	2.60	0.64	2.75	0.59
	F값		200.693** a)b>c		244.590** a)b>c		244.590**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3.05	0.56	2.82	0.66	2.92	0.59
	부산(b)	597	3.11	0.53	2.85	0.66	3.00	0.59
	대구(c)	555	3.05	0.51	2.75	0.64	2.92	0.54
	인천(d)	622	3.05	0.55	2.80	0.67	2.91	0.58
	광주(e)	393	2.96	0.56	2.71	0.67	2.88	0.57
	대전(f)	517	3.04	0.55	2.82	0.64	2.93	0.58
	울산(g)	356	3.04	0.54	2.80	0.67	2.91	0.57
	경기(h)	2,718	2.97	0.56	2.74	0.66	2.86	0.61
	강원(i)	440	2.98	0.58	2.72	0.71	2.85	0.63
	충북(j)	417	2.94	0.59	2.65	0.72	2.83	0.64
	충남(k)	504	2.97	0.52	2.71	0.66	2.83	0.60
	세종(l)	26	3.00	0.38	2.77	0.71	2.81	0.64
	전북(m)	566	2.94	0.54	2.67	0.64	2.79	0.58
	전남(n)	476	3.02	0.54	2.79	0.63	2.93	0.56
	경북(o)	527	2.92	0.55	2.67	0.64	2.80	0.60
	경남(p)	590	2.89	0.58	2.65	0.65	2.80	0.59
	제주(q)	363	2.97	0.52	2.75	0.60	2.87	0.53
	F값		6.630**1)		5.657**1)		5.484**1)	

*,p<0.05, **,p<0.01

주1) 사후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 없음.

주2) 사후분석으로는 scheffe 검증을 실시함.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는 의사결정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집단활동관리, 추진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여자 청소년($M=3.03$ $SD=.52$)은 남자청소년($M=2.96$ $SD=.59$)에 비해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역량이 높다고 인식했다.

한편, 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의사결정 역량점수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사후분석결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활동관리에 있어서는 대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추진력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그룹활동을 할 때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량이 높다고 지각했고, 초등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 그룹활동을 할 때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실행하는 역량 높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리더십의 하위역량인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역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역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역에 따른 리더십의 하위역량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에 있어서는 부산이 가장 높고, 경남이 가장 낮았으며, 추진력에 있어서는 부산이 가장 높고, 전북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컨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리더십 하위역량인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대학생이 집단활동관리 역량이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초등학생은 추진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중, 협동의 세부역량인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을 살펴보면 <표 IV-41>과 같다.

표 IV-41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의 협동 역량 차이분석

구분		사례수	협동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M	(SD)	M	(SD)	M	(SD)
전체		11,319	2.93	0.6	3.18	0.58	3.01	0.58
성별	남	5,535	2.91	0.62	3.15	0.60	2.97	0.60
	여	5,784	2.95	0.57	3.22	0.55	3.04	0.56
	t값		-3.771**		-7.068**		-6.445**	
학교급	초등(초기 청소년)(a)	3,627	2.94	0.66	3.16	0.63	2.94	0.65
	중등(중기 청소년)(b)	3,406	2.94	0.59	3.18	0.57	3.03	0.57
	고등(중기 청소년)(c)	3,286	2.92	0.56	3.22	0.54	3.04	0.53
	대학(후기 청소년)(d)	1,000	2.92	0.51	3.16	0.52	3.05	0.48
	F값		1.264		7.975** c>a, d		21.729** a, b, c>d	
학업 성취도 수준	상(a)	3,621	2.82	0.60	3.07	0.57	2.91	0.58
	중(b)	4,972	2.94	0.57	3.19	0.56	3.02	0.56
	하(c)	2,663	3.07	0.62	3.34	0.58	3.11	0.61
	F값		143.305** a>b>c		167.287** a>b>c		91.045** a>b>c	
17개 시도	서울(a)	1,652	2.95	0.60	3.24	0.58	3.06	0.58
	부산(b)	597	3.07	0.56	3.27	0.53	3.11	0.54
	대구(c)	555	2.97	0.57	3.21	0.54	3.01	0.58
	인천(d)	622	2.99	0.61	3.27	0.59	3.07	0.59
	광주(e)	393	2.90	0.60	3.17	0.59	2.97	0.59
	대전(f)	517	2.96	0.56	3.23	0.57	3.04	0.56
	울산(g)	356	2.97	0.59	3.22	0.53	3.05	0.55
	경기(h)	2,718	2.93	0.61	3.16	0.59	2.99	0.60
	강원(i)	440	2.93	0.59	3.15	0.61	2.96	0.58
	충북(j)	417	2.85	0.65	3.13	0.61	2.94	0.63
	충남(k)	504	2.90	0.58	3.15	0.56	2.99	0.54
	세종(l)	26	2.90	0.65	3.04	0.55	2.99	0.70
	전북(m)	566	2.86	0.59	3.12	0.56	2.95	0.56
	전남(n)	476	2.95	0.58	3.22	0.54	3.06	0.54
	경북(o)	527	2.85	0.62	3.11	0.57	2.95	0.58
	경남(p)	590	2.82	0.58	3.09	0.59	2.92	0.57
	제주(q)	363	2.91	0.54	3.18	0.55	3.02	0.53
	F값		5.739**1)		5.826**1)		5.266**1)	

*,p<0.05, **,p<0.01

주1) 사후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 없음.

주2) 사후분석으로는 scheffe 검증을 실시함.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 의사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청소년 시기에 따른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등학생은 대학생, 초등학생에 비해 팔로워십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초등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갈등문제해결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집단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역량이 높다고 인식하며, 반면 초등학생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그룹활동을 할 때 집단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갈등발생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낮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업성취도에 따른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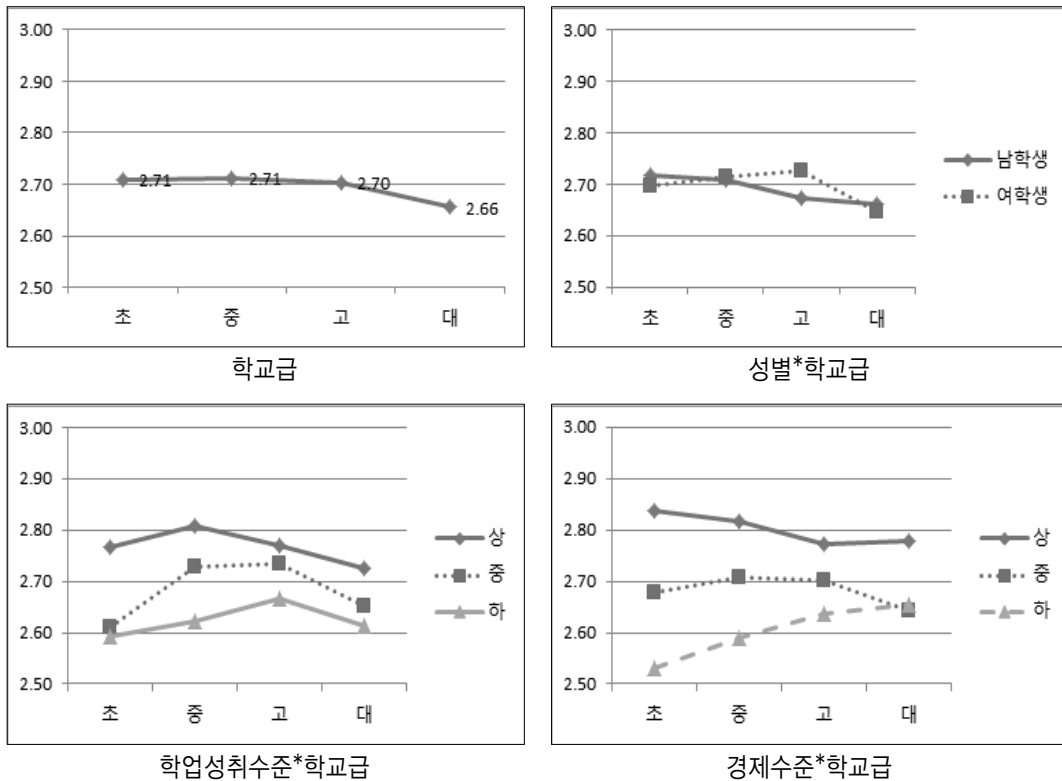
한편, 지역에 따른 협동의 하위역량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축진, 갈등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부산이 가장 높고, 경남이 가장 낮았다. 한편, 팔로워십에 있어서는 부산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컨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협동의 하위역량인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팔로워십 역량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한편, 초등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갈등문제해결 역량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 측정결과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¹¹⁾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 수준을 발달단계와 인구배경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및 세계시민성의 하위 구성 요인에 대하여 학교급과 성별, 학교급과 학업성취수준 및 학교급과 경제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전체 사회참여역량과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및 세계시민성의 학교급 및 인구배경학적 특성 변인에 따른 변화 추이를 그래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IV-26】 학교급 및 인구배경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역량

11) 본 장의 내용은 김태준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I: IEA ICCS 2016-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준거 및 예측타당도 분석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측정된 점수가 다른 측정 점수들과 유사하며, 실제 청소년들의 수행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점수인가라는 점이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청소년 역량군에 따라 관련 있는 대표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측정결과가 청소년들의 관련 수행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준거 및 예측타당도 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과 관련된 준거변인으로써 자기주도학습과 문제해결능력과의 관련성 및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예측변인으로써는 학업성취수준, 학습시간(교과 및 교과 외), 체험활동(여부, 참여, 전체 종류수, 참여 전체 횟수)과의 관련성 및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 자기주도학습 및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분석을 통한 준거 타당도 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자기주도학습 및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생애학습역량과 자기주도학습, 문제해결능력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IV-42>와 같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평균은 2.89(SD=.37)이고,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각각 2.66(SD=.53), 2.86(SD=.49)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인 사고력은 2.99(SD=.38)이고, 세부역량인 비판적 사고력은 3.04(SD=.47), 감성적사고력은 2.94(SD=.47)로 확인되었다. 지적도구활용능력은 2.99(SD=.38)이고, 세부역량인 언어능력은 2.79(SD=.58), 수학능력은 2.76(SD=.68), 과학능력은 2.57(SD=.68), 정보통신활용능력은 3.03(SD=.65)로 나타났다. 학습적응성은 2.91(SD=.45)이며, 세부역량인 변화수용은 2.72(SD=.54), 지적호기심은 3.21(SD=.56), 학습주도성은 2.79(SD=.66)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 중에서는 지적호기심이 3.21(SD=.58)로 가장 높았으며, 과학능력이 2.57(SD=.7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 자기주도학습 및 문제해결능력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생애학습역량			2.89	0.37
	사고력		2.99	0.38
		비판적사고력	3.04	0.47
		감성적사고력	2.94	0.47
	지적도구활용능력		2.79	0.48
		언어능력	2.79	0.58
		수학능력	2.76	0.68
		과학능력	2.57	0.75
		정보통신활용능력	3.03	0.65
	학습적응성		2.91	0.45
		변화수용	2.72	0.54
		지적호기심	3.21	0.56
		학습주도성	2.79	0.66
자기주도학습능력			2.66	0.53
문제해결능력			2.86	0.49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과의 상관관계는 <표 IV-43>에 제시하였다.

표 IV-4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 자기주도학습 및 문제해결능력과의 상관관계

구분			자기주도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생애학습역량			.682**	.709**
	사고력		.459**	.534**
		비판적사고력	.477**	.547**
		감성적사고력	.260**	.311**
	지적도구활용능력		.637**	.578**
		언어능력	.539**	.513**
		수학능력	.527**	.403**
		과학능력	.501**	.406**
		정보통신활용능력	.287**	.375**
	학습적응성		.595**	.660**
		변화수용	.372**	.439**
		지적호기심	.452**	.459**
		학습주도성	.535**	.607**

** : p<0.01, * : p<0.0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682$)를 보이고 있으며, 문제해결능력도 정적 상관관계($r=.70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역량인 사고력과 세부역량인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확인되며, 지적도구활용능력과 학습적응성의 경우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애학습역량과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각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는 <표 IV-44>로 제시하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회귀모형은 $F=9841.786$,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설명력은 46.5%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B=.984$, $\beta=.682$, $p<.01$)은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구분			R2(adj. R2) / F	B	β	t
생애학습역량			.465(.465) / 9841.786**	.984	.682	99.206**
	사고력		.485(.485) / 3549.749**	.103	.074	8.800**
	지적도구활용능력			.456	.415	47.555**
	학습적응성			.365	.313	35.510**
		비판적 사고력	.513(.513) / 1323.698**	.061	.054	6.283**
		감성적 사고력		.039	.035	4.905**
		언어능력		.186	.202	23.921**
		수학능력		.158	.202	24.260**
		과학능력		.112	.158	19.310**
		정보통신활용능력		-.005	-.006	-.835
		변화수용력		.063	.064	8.518**
		지적호기심		.097	.103	13.027**
		학습주도성		.172	.215	26.380**

** : $p<0.01$, * : $p<0.0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하위역량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3549.749$,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48.5%로 나타났다. 각 하위역량에서

사고력($B=.103, \beta=.074, p<.01$)은 자기주도학습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도구활용능력($B=.456, \beta=.415, p<.01$), 학습적응성($B=.365, \beta=.313, p<.01$)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에 대한 회귀모형은 $F=1323.398,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1.3%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각 하위역량에 따른 세부역량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판적사고력($B=.061, \beta=.054, p<.01$)과 감성적 사고력($B=.039, \beta=.035, p<.01$) 또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B=.186, \beta=.202, p<.01$)과 수학능력($B=.158, \beta=.202, p<.01$), 과학능력($B=.112, \beta=.158, p<.01$), 변화수용력($B=.063, \beta=.064, p<.01$)과 지적호기심($B=.097, \beta=.103, p<.01$), 학습주도성($B=.172, \beta=.215, p<.01$)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활용능력의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애학습역량과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각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는 <표 IV-45>으로 제시하였다.

표 IV-4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구분			R2(adj. R2) / F	B	β	t
생애학습역량			.502(.502) / 11409.717**	.938	.709	106.816**
	사고력		.514(.514) / 3983.783**	.236	.184	22.524**
	지적도구활용능력			.235	.233	27.458**
	학습적응성			.456	.426	49.684**
		비판적 사고력	.535(.534) / 1443.852**	.173	.168	20.017**
		감성적 사고력		.064	.063	9.050**
		언어능력		.097	.115	13.948**
		수학능력		.025	.034	4.231**
		과학능력		.041	.063	7.828**
		정보통신활용능력		.073	.098	13.678**
		변화수용력		.111	.124	16.803**
		지적호기심		.079	.091	11.868**
		학습주도성		.232	.317	39.743**

** : $p<0.01$, * : $p<0.05$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회귀모형은 $F=11409.717$,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설명력은 50.2%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B=.938$, $\beta=.709$, $p<.01$)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3983.78$,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51.4%로 확인되었다. 각 하위역량에서 사고력($B=.236$, $\beta=.184$, $p<.01$)과 지적도구활용능력($B=.235$, $\beta=.233$, $p<.01$), 학습적응성($B=.456$, $\beta=.426$, $p<.01$)은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의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1443.852$,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3.5%로 나타났다.

세부역량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판적사고력($B=.173$, $\beta=.168$, $p<.01$)과 감성적 사고력($B=.064$, $\beta=.063$,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B=.097$, $\beta=.115$, $p<.01$)과 수학능력($B=.025$, $\beta=.034$, $p<.01$), 과학능력($B=.041$, $\beta=.063$, $p<.01$) 그리고 정보통신활용능력($B=.073$, $\beta=.098$, $p<.01$)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수용력($B=.111$, $\beta=.124$, $p<.01$)과 지적호기심($B=.079$, $\beta=.091$, $p<.01$), 학습주도성($B=.232$, $\beta=.317$, $p<.01$)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과 하위능력, 세부능력 모두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 학업성취도, 학습시간 및 체험활동과의 관계분석을 통한 예측타당도 분석

청소년 생애학습역량과 학업성취도 학습시간, 체험활동 참여 여부,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 수, 체험활동 참여 전체 횟수의 기술통계분석결과는 <표 IV-46>과 같다.

표 IV-46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 학업성취수준, 학습시간 및 체험활동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평균(M)	표준편차(SD)
생애학습역량			11319	2.89	0.37
	사고력		11319	2.99	0.38
		비판적사고력	11319	3.04	0.47
	감성적사고력	11319	2.94	0.47	
	지적도구활용능력		11319	2.79	0.48
		언어능력	11319	2.79	0.58
		수학능력	11319	2.76	0.68
			과학능력	11319	2.57
정보통신활용능력			11319	3.03	0.65
학습적응성			11319	2.91	0.45
			변화수용	11319	2.72
지적호기심			11319	3.21	0.56
학습주도성			11319	2.79	0.66
학업성취수준			11256	1.91	0.74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			11319	2.43	2.10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시간		11319	3.22	2.48
	주중 방과후 교과외 학습시간		11319	1.65	1.73
체험활동 참여 여부			11319	0.94	0.24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			11319	4.03	2.11
체험활동 참여 전체 횟수			10597	41.71	81.4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 각 하위항목, 세부항목의 평균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학업성취수준의 평균은 1.91(SD=.74)로 나타났다.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은 2.43(SD=2.10)이었으며,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시간은 3.22(SD=2.48), 주중 방과후 교과외 학습시간은 1.65(SD=1.73)으로 확인되었다.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체험활동 참여 여부의 평균은 0.94(SD=.24), 참여 전체 종류수는 4.03(SD=2.11), 참여 전체 횟수는 41.71(SD=81.43)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 학업성취 수준,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 시간, 주중 방과후 교과외 학습 시간, 체험활동 참여 여부,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 체험활동 참여 전체 횟수의 상관관계는 <표 IV-47>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과 학업성취 수준($r=.287$),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r=.254$),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 시간($r=.221$), 주중 방과후 교과외 학습 시간($r=.156$), 체험활동 참여 여부($r=.115$),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r=.145$), 체험활동 참여 전체 횟수($r=.302$),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과 각 세부항목과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과 학업성취, 주중 학습시간 등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 $r=.027\sim.378$ 까지로 나타났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높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고,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 시간, 주중 방과후 교과외 학습 시간이 증가하며 체험활동 참여 여부,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 체험활동 참여 전체 횟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IV-47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 학업성취수준, 학습시간 및 체험활동과의 상관관계

구분	학업성취 수준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 시간	주중 방과후 교과외 학습 시간	체험활동 참여 여부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	체험활동 참여 전체 횟수
생애학습역량	.287**	.254**	.221**	.156**	.115**	.145**	.302**
사고력	.155**	.170**	.144**	.109**	.088**	.082**	.206**
비판적 사고력	.222**	.190**	.181**	.094**	.070**	.089**	.202**
감성적 사고력	.027**	.083**	.051**	.080**	.072**	.043**	.129**
지적도구활용능력	.346**	.273**	.261**	.135**	.113**	.145**	.305**
언어능력	.247**	.228**	.202**	.134**	.098**	.107**	.239**
수학능력	.378**	.203**	.214**	.072**	.061**	.135**	.200**
과학능력	.292**	.187**	.151**	.130**	.065**	.127**	.220**
정보통신활용능력	.078**	.183**	.199**	.057**	.110**	.044**	.233**
학습적응성	.199**	.184**	.138**	.144**	.086**	.128**	.236**
변화수용력	.086**	.119**	.084**	.101**	.029**	.081**	.136**
지적호기심	.181**	.136**	.102**	.105**	.109**	.116**	.224**
학습주도성	.185**	.166**	.129**	.124**	.060**	.098**	.184**

** : $p<0.01$, * : $p<0.0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학업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IV-48>과 같다.

표 IV-48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학업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

구분			R2(adj. R2) / F	B	β	t
생애학습역량			.082(.082) / 1008.555**	.254	.287	31.758**
	사고력		.121(.120) / 514.246**	-.075	-.038	-3.484**
	지적도구활용능력			.556	.361	31.526**
	학습적응성			.015	.009	.769
		비판적 사고력	.173(.172) / 260.707**	.077	.049	4.384**
		감성적 사고력		-.102	-.065	-7.000**
		언어능력		.138	.107	9.683**
		수학능력		.314	.287	26.374**
		과학능력		.102	.103	9.667**
		정보통신활용능력		-.081	-.071	-7.413**
		변화수용력		-.073	-.053	-5.392**
		지적호기심		.047	.035	3.441**
		학습주도성		.013	.012	1.082

** : $p<0.01$, * : $p<0.05$

청소년의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회귀모형은 $F=1008.555$,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8.2%로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B=.254$, $\beta=.287$, $p<.01$)은 학업성취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의 하위역량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이 학업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514.246$,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12.1%로 확인되었다. 각 하위역량에서 사고력($B=-.075$, $\beta=-.038$, $p<.01$)은 학업성취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도구활용능력($B=.556$, $\beta=.361$, $p<.01$)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이 학업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260.707$,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17.3%로 설명되어진다.

세부역량이 학업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판적사고력($B=.077$, $\beta=.049$, $p<.01$)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성적 사고력($B=-.102$, $\beta=-.065$, $p<.01$)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어능력($B=.138, \beta=.107, p<.01$)과 수학능력($B=.314, \beta=.287, p<.01$), 과학능력($B=.102, \beta=.103, p<.01$)은 긍정적 영향, 정보통신활용능력의 경우는 ($B=-.081, \beta=-.071, p<.01$)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화수용력($B=-.073, \beta=-.053, p<.01$)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적호기심($B=.047, \beta=.035, p<.01$)은 학업성취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능력, 세부능력 중 학업성취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량은 지적도구활용능력, 비판적 사고력,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지적호기심으로 파악되었으며, 사고력과 감성적 사고력과 정보통신활용능력, 변화수용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49>과 같다.

표 IV-49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

구분			R2(adj. R2) / F	B	β	t
생애학습역량			.065(.065) / 781.519**	.932	.254	27.956**
	사고력		.076(.076) / 311.135**	.099	.028	2.486*
	지적도구활용능력			.677	.243	20.733**
	학습적응성			.083	.028	2.360*
		비판적 사고력	.079(.078) / 108.052**	.087	.031	2.591**
		감성적 사고력		-.008	-.003	-.284
		언어능력		.271	.116	9.956**
		수학능력		.151	.076	6.628**
		과학능력		.107	.060	5.293**
		정보통신활용능력		.183	.088	8.785**
		변화수용력		.002	.001	.063
		지적호기심		-.011	-.005	-.422
		학습주도성		.062	.031	2.727**

** : $p<.01$, * : $p<.05$

청소년의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회귀모형은 $F=781.519,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로 설명되어지

며,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애학습역량($B=.932, \beta=.254,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이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311.135,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7.6%로 설명된다. 각 하위역량에서 사고력($B=.099, \beta=.028, p<.05$)와 지적도구활용능력($B=.677, \beta=.243, p<.01$), 학습적응성은 ($B=.083, \beta=.028, p<.05$)으로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이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108.052,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7.9%이다. 각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판적사고력($B=.087, \beta=.031,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B=.271, \beta=.116, p<.01$)과 수학능력($B=.151, \beta=.076, p<.01$), 과학능력($B=.107, \beta=.060, p<.01$), 정보통신활용능력($B=.183, \beta=.088, p<.01$), 학습주도성($B=.062, \beta=.031, p<.01$)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역량중 감성적사고력과 지적호기심은 부정적인 영향, 변화수용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능력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은 주중 방과후 교과 및 교과외 학습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며, 세부역량 중 비판적사고력과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주도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50>과 같다.

청소년의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회귀모형은 $F=579.812,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9%의 설명력을 가진다.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시간에 생애학습역량($B=1.234, \beta=.221,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이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278.369,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6.9%로 설명된다. 각 하위역량에서 지적도구활용능력($B=1.139, \beta=.268, p<.01$)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습적응성($B=-.131, \beta=-.029, p<.05$)은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50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

구분			R2(adj. R2) / F	B	β	t
생애학습역량			.049(.049) / 579.812**	1.234	.221	24.079**
	사고력		.069(.068) / 278.369**	.107	.020	1.749
	지적도구활용능력			1.139	.268	22.793**
	학습적응성			-.131	-.029	-2.452*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비판적 사고력	.077(.077) / 105.255**	.216	.050	4.203**
		감성적 사고력		-.107	-.025	-2.523*
		언어능력		.348	.097	8.371**
		수학능력		.387	.128	11.128**
		과학능력		.037	.013	1.192
		정보통신활용능력		.387	.123	12.190**
		변화수용력		-.091	-.024	-2.330*
		지적호기심		-.080	-.022	-2.027*
		학습주도성		.010	.003	.299

** : $p<0.01$, * : $p<0.05$

세부역량이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105.255$,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7%이다. 각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판적사고력($B=.216$, $\beta=.050$, $p<.01$)는 긍정적인 영향, 감성적 사고력($B=.107$, $\beta=-.025$, $p<.05$)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언어능력($B=.348$, $\beta=.097$, $p<.01$)과 수학능력($B=.387$, $\beta=.128$, $p<.01$), 정보통신활용능력($B=.387$, $\beta=.123$,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화수용력($B=-.091$, $\beta=-.024$, $p<.05$)과 지적호기심($B=-.080$, $\beta=-.022$, $p<.05$)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과 세부역량 중 주중 방과후 교과 학습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량은 지적도구활용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언어능력, 수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이며, 학습적응성과 감성적 사고력,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역량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주중 방과후 교과의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51>과 같다.

표 IV-51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주중 방과후 교과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

구분			R2(adj. R2) / F	B	β	t
생애학습역량			.024(.024) / 287.708**	.630	.156	16.814**
	사고력		.025(.025) / 97.242**	.092	.023	2.030*
	지적도구활용능력			.215	.070	5.822**
	학습적응성			.297	.091	7.495**
		비판적 사고력	.032(.031) / 41.188**	-.042	-.013	-1.092
		감성적 사고력		.091	.029	2.908**
		언어능력		.194	.075	6.327**
		수학능력		-.085	-.039	-3.301**
		과학능력		.177	.090	7.770**
		정보통신활용능력		-.021	-.009	-.914
		변화수용력		.095	.035	3.262**
		지적호기심		.058	.022	1.994*
		학습주도성		.114	.051	4.430**

** : $p < 0.01$, * : $p < 0.05$

청소년의 주중 방과후 교과외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회귀모형은 $F=287.708$,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4%로 설명된다. 주중 방과후 교과외 학습시간에 생애학습역량($B=.630$, $\beta=.156$, $p < .01$)은 긍정적인 영향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이 주중 방과후 교과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97.242$, $p < .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5%로 나타났다. 사고력($B=.092$, $\beta=.023$, $p < .05$), 지적도구활용능력($B=.215$, $\beta=.070$, $p < .01$), 학습적응성($B=.297$, $\beta=.091$, $p < .01$)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이 주중 방과후 교과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41.188$,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2%이다. 각 세부역량이 주중 방과후 교과외 학습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성적 사고력($B=.091$, $\beta=.029$, $p < .01$)과 언어능력($B=.194$, $\beta=.075$, $p < .01$), 과학능력($B=.177$, $\beta=.090$, $p < .01$), 변화수용력($B=.095$, $\beta=.035$, $p < .01$), 지적호기심($B=.058$, $\beta=.022$, $p < .05$), 학습주도성($B=.114$, $\beta=.051$, $p < .01$)은 주중방과후 교과외 학습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학능력($B=-.085$, $\beta=-.039$, $p < .01$)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인 사고력과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은 주중 방과후 교과외 학습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부역량 중 수학능력은 부정적 영향, 감성적 사고력, 언어능력, 과학능력,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8개 종류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을 '0=불참여'로 하고 하나 이상 참여한 청소년을 '1=참여'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52>에 의하면, 생애학습역량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chi^2=151.244$, $df=1$,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035로 약 3.5%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있어 생애학습역량은 $B=1.299$, $Wald=149.37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지수가 1점 높아질 때 청소년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3.66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52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

구분			Chi-square(df) / Nagelkerke R2	B	Wald	Exp(B)
생애학습역량			151.244(1)** / 0.035	1.299	149.376* *	3.664
	사고력		160.761(3)** / 0.037	.374	9.060**	1.453
	지적도구활용능력			.718	49.074**	2.050
	학습적응성			.176	2.551	1.192
		비판적 사고력	256.983(9)** / 0.059	-.095	.800	.910
		감성적 사고력		.347	14.920**	1.414
		언어능력		.326	13.878**	1.385
		수학능력		-.005	.005	.995
		과학능력		.095	2.123	1.100
		정보통신활용능력		.493	58.394**	1.637
		변화수용력		-.368	18.475**	.692
		지적호기심		.550	47.893**	1.734
		학습주도성		-.046	.403	.955

** : $p(0.01)$, * : $p(0.05)$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과 세부역량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chi^2=160.761$, $df=3$,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037로 약 3.7%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있어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 지적도구활용능력($B=.718$, $Wald=49.074$, $p<.01$)과 사고력($B=.374$, $Wald=9.060$, $p<.01$)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의 하위역량인 지적도구활용능력과 사고력이 1점 높아질 때 청소년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지적도구활용능력은 2.05배, 사고력은 1.45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chi^2=256.983$, $df=9$,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059로 약 5.9%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있어 세부역량은 감성적 사고력($B=.347$, $Wald=14.920$, $p<.01$), 언어능력($B=.326$, $Wald=13.878$, $p<.01$), 정보통신활용능력($B=.493$, $Wald=58.394$, $p<.01$), 변화수용력($B=-.368$, $Wald=18.475$, $p<.01$), 지적호기심($B=.550$, $Wald=47.893$, $p<.01$)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역량인 감성적 사고력, 언어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이 1점 높아지면, 감성적 사고력에서는 1.41배, 언어능력에서는 1.39배, 정보통신활용능력에서는 1.64배, 지적호기심에서는 1.73배 높아지고, 변화수용력에서는 .69배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53>과 같다.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회귀모형은 $F=1133.982$,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1%로 설명된다.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생애학습역량($B=1.737$, $\beta=.302$,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이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416.247$,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9.9%로 나타났다. 사고력($B=.221$, $\beta=.040$, $p<.01$), 지적도구활용능력($B=1.059$, $\beta=.242$, $p<.01$), 학습적응성($B=.344$, $\beta=.074$,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이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152.287$,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8%로 설명되어진다. 각 세부역량이 체험활동 참여 전

체 종류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성적 사고력($B=.134$, $\beta=.030$, $p<.01$)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능력($B=.323$, $\beta=.088$, $p<.01$), 수학능력($B=.097$, $\beta=.031$, $p<.01$), 과학능력($B=.262$, $\beta=.093$, $p<.01$), 정보통신활용능력($B=.446$, $\beta=.137$, $p<.01$), 지적호기심($B=.371$, $\beta=.099$, $p<.01$)도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53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R2(adj. R2) / F	B	β	t
생애학습역량			.091(.091) / 1133.982**	1.737	.302	33.675**
	사고력		.099(.099) / 416.247**	.221	.040	3.570**
	지적도구활용능력			1.059	.242	20.921**
	학습적응성			.344	.074	6.329**
		비판적 사고력	.108(.107) / 152.287**	.041	.009	.785
		감성적 사고력		.134	.030	3.130**
		언어능력		.323	.088	7.690**
		수학능력		.097	.031	2.762**
		과학능력		.262	.093	8.394**
		정보통신활용능력		.446	.137	13.884**
		변화수용력		-.071	-.018	-1.783
		지적호기심		.371	.099	9.248**
		학습주도성		.053	.017	1.515

** : $p<0.01$, * : $p<0.05$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이 체험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54>과 같다.

청소년의 체험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회귀모형은 $F=226.939$,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1%의 설명력을 갖는다. 체험

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생애학습역량($B=32.586$, $\beta=.145$,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능력, 학습적응성이 체험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86.634$,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능력($B=18.745$, $\beta=.110$, $p<.01$), 학습적응성($B=12.811$, $\beta=.071$,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이 체험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33.923$,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8%로 설명되어진다. 언어능력($B=5.012$, $\beta=.035$, $p<.01$)과 수학능력($B=6.014$, $\beta=.073$, $p<.01$), 과학능력($B=5.747$, $\beta=.053$, $p<.01$), 지적호기심($B=7.888$, $\beta=.054$, $p<.01$)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54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체험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R2(adj. R2) / F	B	β	t
생애학습역량			.021(.021) / 226.939**	32.586	.145	15.064**
	사고력		.024(.024) / 86.634**	-2.604	-.012	-1.003
	지적도구활용능력			18.745	.110	8.838**
	학습적응성			12.811	.071	5.625**
		비판적 사고력	.028(.027) / 33.923**	-1.312	-.007	-.600
		감성적 사고력		-.577	-.003	-.323
		언어능력		5.012	.035	2.868**
		수학능력		8.783	.073	6.014**
		과학능력		5.747	.053	4.422**
		정보통신활용능력		-2.351	-.019	-1.759
		변화수용력		2.989	.020	1.808
		지적호기심		7.888	.054	4.703**
		학습주도성		1.895	.015	1.291

** : $p<0.01$, * : $p<0.05$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준거 및 예측타당도 분석

(1)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생활관리 행동의 관계분석을 통한 예측 타당도 분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이 식사, 운동, 수면시간의 생활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IV-55>와 같다.

표 IV-55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생활관리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분	하위변인	세부항목	평균(M)	표준편차(SD)
생활관리역량	전체		3.08	0.38
	건강관리	위생관리	3.34	0.51
		신체관리	2.90	0.78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25	0.53
		전체	3.19	0.46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3.04	0.58
		수행 및 평가	2.94	0.62
		전체	2.99	0.56
	상황대처	중독인식	2.84	0.89
		중독행동	3.07	0.80
		폭력행동	3.45	0.62
		폭력회피	3.26	0.67
		전체	3.15	0.58
	정서조절	분노행동	3.11	0.74
		감정절제	3.01	0.76
		조절실패	2.70	0.86
		감정인식	2.91	0.73
		전체	2.93	0.49
생활관리 행동	생활관리	일주일 평균 아침식사 횟수(회)	4.96	2.59
		일주일 평균 운동(신체활동) 빈도(회)	2.98	2.32
		일주일 평균 수면시간(시간)	6.61	1.58

청소년의 일주일 평균 아침식사 횟수는 평균 4.96일($SD=2.59$), 일주일 평균 운동(신체활동) 빈도는 2.98회($SD=2.32$), 일주일 평균 수면시간은 6.61시간($SD=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일주일 평균 아침식사 횟수, 운동 빈도, 수면시간의 상관관계는 <표 IV-56>과 같다.

표 IV-56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생활관리의 상관관계

구분		일주일 평균 아침식사 횟수	일주일 평균 운동 빈도	일주일 평균 수면 시간
생활관리역량	생활관리역량	.186**	.235**	.193**
	건강관리	위생관리	.121**	.053**
		신체관리	.124**	.170**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158**	.136**
		전체	.171**	.153**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101**	-.032**
		수행 및 평가	.088**	0.001
		전체	.101**	-0.016
	상황대처	중독인식	.128**	.231**
		중독행동	.121**	.215**
		폭력행동	.086**	.088**
		폭력회피	.061**	.112**
		전체	.131**	.217**
	정서조절	분노행동	.117**	.130**
		감정절제	.102**	.112**
		조절실패	.101**	.155**
		감정인식	.026**	-.054**
		전체	.128**	.117**

*, $p<0.05$, **, $p<0.01$

생활관리역량과 일주일 평균 아침식사 섭취 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186$)를 보이고 있으며, 일주일 평균 운동 행동도 정적 상관관계($r=.23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주일 평균 수면시간 관리 행동 또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193$)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역량

인 건강관리와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에서 대부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084\sim.374$)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제관리와 일주일 평균 수면시간 관리 행동은 상관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다면, 생활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아침식사 섭취, 운동, 수면시간도 많아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이 일주일 평균 아침식사 횟수, 운동 빈도,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관리역량과 하위역량, 각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일주일 평균 아침식사 횟수, 운동빈도, 수면시간에 생활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는 <표 IV-57>로 제시하였다.

표 IV-5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아침식사 섭취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인		R2(adj. R2) / F	B	β	t
생활관리역량		.037(.037) / 431.982**	.766	.192	20.784**
	건강관리	.042(.041) / 122.940**	.443	.135	12.137**
	과제관리		.019	.007	.671
	상황대처		.183	.071	6.723**
	정서조절		.174	.056	5.282**
	위생관리	.048(.047) / 43.717**	.103	.035	3.186**
	신체관리		.101	.052	4.803**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258	.091	7.854**
	목표 및 계획 수립		.059	.023	1.586
	수행 및 평가		-.032	-.013	-.928
	중독인식		.115	.069	4.944**
	중독행동		.053	.028	1.953
	폭력행동		.045	.018	1.504
	폭력회피		-.112	-.050	-4.230**
	분노행동		.107	.053	4.064**
	감정절제		-.003	-.002	-.123
	조절실패		.056	.032	2.480*
	감정인식		.039	.019	1.978*

*, $p < 0.05$, **, $p < 0.01$

아침식사 섭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관리역량의 회귀모형은 $F=431.982$,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3.7%의 설명력을 지닌다. 생활관리역량($B=.766$, $\beta=.192$, $p<.000$)은 청소년의 아침식사 섭취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으로는 건강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이 아침식사 섭취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역량이 아침식사 섭취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B=.443$, $\beta=.135$, $p<.000$), 상황대처($B=.183$, $\beta=.071$, $p<.000$), 정서조절($B=.174$, $\beta=.056$, $p<.000$)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관리($B=.443$, $\beta=.135$, $p>.05$)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아침식사 섭취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43.717$,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7%이다. 각 세부역량이 아침식사 섭취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의 세부역량인 위생관리($B=.103$, $\beta=.035$, $p<.01$)와 신체관리($B=.101$, $\beta=.052$, $p<.000$),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B=.258$, $\beta=.091$, $p<.000$), 상황대처의 세부역량인 중독인식($B=.115$, $\beta=.069$, $p<.000$), 정서조절의 분노행동($B=.107$, $\beta=.053$, $p<.000$), 조절실패($B=.056$, $\beta=.032$, $p<.05$), 감정인식($B=.039$, $\beta=.019$,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황대처의 폭력회피($B=-.112$, $\beta=-.050$,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과 하위역량인 건강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역량이 아침식사 섭취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부역량 중 위생관리,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중독인식, 분노행동, 조절실패, 감정인식이 긍정적 영향을, 폭력회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이 일주일 간 평균 운동(신체활동) 빈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659.440$, $p<.000$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5.5%로 나타났다. 하위역량으로는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모두 일주일 간 평균 운동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477.150$, $p<.000$, 14.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역량이 일주일 간 평균 운동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B=2.067$, $\beta=.408$, $p<.000$)와 상황대처($B=.136$, $\beta=.034$, $p<.01$)는 운동 빈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과제관리($B=-.271$, $\beta=-.066$, $p<.000$)와 정서조절($B=-.166$, $\beta=-.035$, $p<.01$)은 평균 운동 빈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일주일 평균 운동 빈도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인		R2(adj. R2) / F	B	β	t
생활관리역량		.055(.055) / 659.440**	1.450	.235	25.680**
하위역량	건강관리	.144(.144) / 477.150**	2.067	.408	38.745**
	과제관리		-.271	-.066	-6.429**
	상황대처		.136	.034	3.419**
	정서조절		-.166	-.035	-3.429**
	위생관리	.309(.308) / 388.170**	-.269	-.059	-6.328**
	신체관리		1.672	.559	60.322**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020	-.005	-.473
	목표 및 계획 수립		-.168	-.042	-3.428**
	수행 및 평가		-.015	-.004	-.340
	중독인식		-.009	-.003	-.292
	중독행동		.220	.075	6.186**
	폭력행동		-.279	-.074	-7.096**
	폭력회피		.183	.053	5.233**
	분노행동		-.066	-.021	-1.899
	감정절제		-.026	-.008	-.701
	조절실패		.076	.028	2.587*
	감정인식		.040	.013	1.523

*, $p < 0.05$, **, $p < 0.01$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일주일간의 평균 운동 빈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388.170$,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0.8%이다. 각 세부역량이 평균 운동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체관리($B=1.672$, $\beta=.559$, $p<.000$), 중독행동($B=.220$, $\beta=.075$, $p<.000$), 폭력회피($B=.183$, $\beta=.053$, $p<.000$), 조절실패($B=.076$, $\beta=.028$,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관리의 위생관리($B=-.269$, $\beta=-.059$, $p<.000$)와 과제관리의 목표 및 계획 수립($B=-.168$, $\beta=-.042$, $p<.01$), 폭력행동

($B=-.279$, $\beta=-.074$,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와 상황대처는 일주일간 평균 운동 빈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과제관리와 정서조절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세부역량 중 신체관리, 중독행동, 폭력회피, 조절실패는 일주일간 평균 운동 빈도에 긍정적 영향을, 위생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폭력행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9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일주일 평균 수면 시간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인		R2(adj. R2) / F	B	β	t
생활관리역량		.037(.037) / 438.452**	.811	.193	20.939**
건강관리		.069(.069) / 210.411**	.572	.166	15.114**
과제관리			-.375	-.134	-12.560**
상황대처			.499	.185	17.682**
정서조절			.043	.013	1.255
	위생관리	.099(.098) / 95.268**	-.114	-.037	-3.468**
	신체관리		.269	.132	12.525**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51	.118	10.448**
	목표 및 계획 수립		-.348	-.129	-9.158**
	수행 및 평가		-.024	-.009	-.687
	중독인식		.223	.126	9.326**
	중독행동		.155	.078	5.594**
	폭력행동		-.043	-.017	-1.414
	폭력회피		.005	.002	.167
	분노행동		.113	.053	4.162**
	감정절제		-.109	-.052	-3.801**
	조절실패		.136	.074	5.945**
	감정인식		-.037	-.017	-1.824

*, $p<0.05$, **, $p<0.01$

일주일간 평균 수면 시간에 생활관리역량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F=438.452$, $p<.000$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3.7%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으로는 정서조절을 제외한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가 일주일간 평균 수면 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역량이 일주일간 평균 수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B=.572$, $\beta=.166$, $p<.000$)와 상황대처($B=.499$, $\beta=.185$, $p<.000$)에 긍정적 영향을, 과제관리($B=-.375$, $\beta=-.134$, $p<.000$)는 일주일간 평균 수면 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일주일간 평균 수면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95.268$,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8%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세부역량이 일주일간 평균 수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의 신체관리($B=.269$, $\beta=.132$, $p<.000$)와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B=.351$, $\beta=.118$, $p<.000$), 상황대처의 중독인식($B=.223$, $\beta=.126$, $p<.000$)과 중독행동($B=.155$, $\beta=.078$, $p<.000$), 정서조절의 분노행동($B=.113$, $\beta=.053$, $p<.000$)과 조절실패($B=.136$, $\beta=.074$,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관리의 위생관리($B=-.114$, $\beta=-.037$, $p<.01$), 과제관리의 목표 및 계획 수립($B=-.348$, $\beta=-.129$, $p<.000$), 정서조절의 감정절제($B=-.109$, $\beta=-.052$, $p<.000$)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과 하위역량인 건강관리와 상황대처는 일주일간 평균 수면 시간에 긍정적 영향을, 과제관리와 정서조절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역량 중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중독인식, 중독행동, 분노행동, 조절실패가 긍정적 영향을, 위생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감정절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생활통제의 관계분석을 통한 예측 타당도 분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이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인지된 생활통제 행동(Control)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60>과 같다.

표 IV-60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생활통제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분	하위변인	세부항목	평균(M)	표준편차(SD)
생활관리역량	전체		3.08	0.38
	건강관리	위생관리	3.34	0.51
		신체관리	2.90	0.78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25	0.53
		전체	3.19	0.46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3.04	0.58
		수행 및 평가	2.94	0.62
		전체	2.99	0.56
	상황대처	중독인식	2.84	0.89
		중독행동	3.07	0.80
		폭력행동	3.45	0.62
		폭력회피	3.26	0.67
		전체	3.15	0.58
	정서조절	분노행동	3.11	0.74
		감정절제	3.01	0.76
		조절실패	2.70	0.86
		감정인식	2.91	0.73
		전체	2.93	0.49
생활통제 행동	생활통제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	3.25	0.51
		주관적 규범	3.04	0.55
		인지된 생활통제 행동	3.02	0.58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는 평균 3.25(SD=.51), 주변에서의 생활통제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평균 3.04(SD=.55), 인지된 생활통제 행동은 평균 3.02(SD=.58)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활관리 역량지수와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의 상관관계는 <표 IV-61>과 같다.

구분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
생활관리역량	생활관리역량	.472**	.462**	.552**
	건강관리	위생관리	.472**	.526**
		신체관리	.381**	.358**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284**	.418**
		전체	.443**	.458**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561**	.576**
		수행 및 평가	.551**	.542**
		전체	.501**	.535**
	상황대처	중독인식	.180**	.243**
		중독행동	.076**	.171**
		폭력행동	.117**	.193**
		폭력회피	.208**	.150**
		전체	.195**	.250**
	정서조절	분노행동	.302**	.388**
		감정절제	.192**	.223**
		조절실패	.177**	.301**
		감정인식	.110**	.272**
		전체	.265**	.202**

*, $p < 0.05$, **, $p < 0.01$

생활관리역량과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472$)를 보이고 있으며, 주관적 규범도 정적 상관관계($r=.46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지된 행동통제 또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552$)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역량인 건강관리와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076\sim.576$)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생활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도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이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관리역량과 하위역량, 각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는 <표 IV-62>로 제시하였다.

표 IV-6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인		R2(adj. R2) / F	B	β	t
생활관리역량		.223(.223) / 3246.800**	.640	.472	56.981**
	건강관리	.379(.379) / 1725.734**	.244	.219	24.476**
	과제관리		.376	.416	47.766**
	상황대처		-.016	-.019	-2.183*
	정서조절		.157	.150	17.414**
	위생관리	.409(.409) / 602.956**	.101	.101	11.687**
	신체관리		.025	.038	4.479**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137	.143	15.578**
	목표 및 계획 수립		.239	.275	24.104**
	수행 및 평가		.124	.151	13.567**
	중독인식		-.025	-.043	-3.944**
	중독행동		.001	.001	.111
	폭력행동		.065	.079	8.220**
	폭력회피		.003	.004	.443
	분노행동		.036	.052	5.080**
	감정절제		.017	.026	2.343*
	조절실패		-.006	-.009	-.931
	감정인식		.111	.159	20.860**

*, $p < 0.05$, **, $p < 0.01$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관리역량의 회귀모형은 $F=3246.800$,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22.3%의 설명력을 지닌다. 생활관리역량($B=.640$, $\beta=.472$, $p<.000$)은 청소년의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든 하위역량이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회귀모형은 $F=1725.734$,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37.9%의 설명력을 지닌다. 즉, 상황대처를 제외한 건강관리, 과제관리, 정서조절이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대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역량

이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B=.244, \beta=.219, p<.000$)와 과제관리($B=.376, \beta=.416, p<.000$), 정서조절($B=.157, \beta=.150, p<.000$)이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상황대처($B=-.016, \beta=-.019, p<.05$)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602.956,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0.9%이다. 각 세부역량이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황대처의 중독인식($B=-.025, \beta=-.043,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건강관리의 위생관리($B=.101, \beta=.101, p<.000$), 신체관리($B=.025, \beta=.038, p<.000$),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B=.137, \beta=.143, p<.000$), 과제관리의 목표 및 계획 수립($B=.239, \beta=.275, p<.000$)과 수행 및 평가($B=.124, \beta=.151, p<.000$), 상황대처의 폭력행동($B=.065, \beta=.079, p<.000$), 정서조절의 분노행동($B=.036, \beta=.052, p<.000$), 감정절제($B=.017, \beta=.026, p<.05$), 감정인식($B=.111, \beta=.159, p<.000$)은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정서조절은 생활통제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상황대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 중 위생관리와 중독인식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관리의 모든 세부역량인 위생관리, 신체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와 과제관리의 모든 세부역량인 목표 및 계획 수립과 수행 및 평가, 그 이외의 폭력행동, 분노행동, 감정절제, 감정인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이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3068.004, p<.000$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21.3%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B=.680, \beta=.462, p<.000$)은 주관적 규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하위역량으로는 건강관리, 과제관리, 정서조절이 주관적 규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회귀모형은 $F=1568.824,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35.7%의 설명력을 지닌다. 즉, 하위역량으로는 상황대처를 제외한 건강관리, 과제관리, 정서조절이 주관적 규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역량이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B=.316, \beta=.262, p<.000$)와 과제관리($B=.372, \beta=.379, p<.000$), 정서조절($B=.101, \beta=.088, p<.000$)이 주관적 규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3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인		R2(adj. R2) / F	B	β	t
생활관리역량		.213(.213) / 3068.004**	.680	.462	55.390**
건강관리		.357(.357) / 1568.824**	.316	.262	28.710**
과제관리			.372	.379	42.749**
상황대처			.014	.015	1.691
정서조절			.101	.088	10.088**
	위생관리	.361(.360) / 491.183**	.059	.054	6.041**
	신체관리		.098	.137	15.396**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147	.141	14.770**
	목표 및 계획 수립		.176	.186	15.643**
	수행 및 평가		.191	.214	18.445**
	중독인식		.019	.031	2.690**
	중독행동		-.012	-.017	-1.473
	폭력행동		.004	.005	.461
	폭력회피		.015	.018	1.899
	분노행동		-.002	-.003	-.250
	감정절제		.026	.035	3.030**
	조절실패		.030	.046	4.435**
	감정인식		.053	.070	8.811**

*, $p < 0.05$, **, $p < 0.01$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491.183$,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6.0%이다. 각 세부역량이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의 모든 세부역량인 위생관리($B=.059$, $\beta=.054$, $p<.000$), 신체관리($B=.098$, $\beta=.137$, $p<.000$),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B=.147$, $\beta=.141$, $p<.000$), 과제관리의 모든 세부역량인 목표 및 계획 수립($B=.176$, $\beta=.186$, $p<.000$), 수행 및 평가($B=.191$, $\beta=.214$, $p<.000$), 상황대처의 중독인식($B=.019$, $\beta=.031$, $p<.000$), 정서조절의 감정절제($B=.026$, $\beta=.035$,

$p<.01$), 조절실패($B=.030$, $\beta=.046$, $p<.000$), 감정인식($B=.053$, $\beta=.070$,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과 하위역량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정서조절은 주관적 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부역량 중 건강관리와 과제관리의 모든 세부역량, 상황대처의 중독인식, 정서조절의 감정절제, 조절실패, 감정인식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V-64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인지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인		R2(adj. R2) / F	B	β	t
생활관리역량		.305(.305) / 4969.651**	.846	.552	70.496**
건강관리		.447(.446) / 2283.059**	.327	.260	30.745**
과제관리			.398	.389	47.345**
상황대처			.004	.004	.449
정서조절			.260	.219	27.038**
	위생관리	.462(.461) / 746.239**	.039	.035	4.231**
	신체관리		.119	.160	19.633**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135	.124	14.236**
	목표 및 계획 수립		.206	.209	19.240**
	수행 및 평가		.189	.203	19.125**
	중독인식		.016	.024	2.319*
	중독행동		.001	.002	.145
	폭력행동		-.050	-.054	-5.818**
	폭력회피		.046	.054	6.055**
	분노행동		-.010	-.013	-1.326
	감정절제		.089	.118	11.032**
	조절실패		.077	.115	11.949**
	감정인식		.115	.145	19.975**

*, $p<0.05$, **, $p<0.01$

인지된 행동통제에 생활관리역량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F=4696.651$, $p<.000$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30.5%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B=.846$, $\beta=.552$, $p<.000$)은 인지된 행동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하위역량으로는 건강관리, 과제관리, 정서조절이 인지된 행동통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회귀모형은 $F=22.83.059$,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44.6%의 설명력을 지닌다. 즉, 하위역량이 인지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하위역량으로는 상황대처를 제외한 건강관리, 과제관리, 정서조절이 인지된 행동통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관리($B=.327$, $\beta=.260$, $p<.000$)와 과제관리($B=.398$, $\beta=.389$, $p<.000$), 정서조절($B=.260$, $\beta=.219$, $p<.000$)이 인지된 행동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인지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746.239$,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6.1%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세부역량이 인지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의 세부역량인 위생관리($B=.039$, $\beta=.035$, $p<.000$), 신체관리($B=.119$, $\beta=.160$, $p<.000$),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B=.135$, $\beta=.124$, $p<.000$), 과제관리의 세부역량인 목표 및 계획 수립($B=.206$, $\beta=.209$, $p<.000$), 수행 및 평가($B=.189$, $\beta=.203$, $p<.000$), 상황대처의 중독인식($B=.016$, $\beta=.024$, $p<.05$), 폭력회피($B=.046$, $\beta=.054$, $p<.000$), 정서조절의 감정절제($B=.089$, $\beta=.118$, $p<.000$), 조절실패($B=.077$, $\beta=.115$, $p<.000$), 감정인식($B=.115$, $\beta=.145$,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폭력행동($B=-.050$, $\beta=-.054$, $p<.000$)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과 그 하위역량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정서조절은 인지된 행동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부역량 중 건강관리와 과제관리의 모든 세부역량, 그리고 중독인식, 폭력회피, 감정절제, 조절실패, 감정인식은 긍정적 영향을, 폭력행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매체중독(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분석을 통한 예측 타당도 분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이 매체중독(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65>와 같다.

표 IV-65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매체중독(스마트폰 중독)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분	하위변인	세부항목	평균(M)	표준편차(SD)
생활관리역량	전체		3.08	0.38
	건강관리	위생관리	3.34	0.51
		신체관리	2.90	0.78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25	0.53
		전체	3.19	0.46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3.04	0.58
		수행 및 평가	2.94	0.62
		전체	2.99	0.56
	상황대처	중독인식	2.84	0.89
		중독행동	3.07	0.80
		폭력행동	3.45	0.62
		폭력회피	3.26	0.67
		전체	3.15	0.58
	정서조절	분노행동	3.11	0.74
		감정절제	3.01	0.76
		조절실패	2.70	0.86
		감정인식	2.91	0.73
		전체	2.93	0.49
매체중독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1.91	0.79

스마트폰 중독은 평균 3.25(SD=.51)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매체중독의 상관관계는 <표 IV-66>과 같다.

표 IV-66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매체중독의 상관관계

구분			매체중독
생활관리역량	생활관리역량		-.439**
	건강관리	위생관리	-.153**
		신체관리	-.072**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163**
		전체	-.165**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074**
		수행 및 평가	-.051**
		전체	-.066**
	상황대처	중독인식	-.340**
		중독행동	-.401**
		폭력행동	-.351**
		폭력회피	-.343**
		전체	-.458**
	정서조절	분노행동	-.334**
		감정절제	-.333**
		조절실패	-.262**
		감정인식	-.132**
		전체	-.398**

*, $p<0.05$, **, $p<0.01$

생활관리역량과 매체중독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439$)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역량인 건강관리와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r=-.458\sim-.165$)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생활관리역량이 높을수록 매체중독은 낮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이 매체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관리역량과 하위역량, 각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매체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는 <표 IV-67>로 제시하였다.

표 IV-67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매체중독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인		R2(adj. R2) / F	B	β	t
생활관리역량		.193(.193) / 2704.299**	-.922	-.439	-52.003**
건강관리		.255(.255) / 968.756**	-.046	-.027	-2.714**
과제관리			.083	.059	6.207**
상황대처			-.469	-.347	-37.098**
정서조절			-.392	-.241	-25.583**
	위생관리	.266(.265) / 314.759**	-.033	-.021	-2.204*
	신체관리		.028	.027	2.864**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057	-.038	-3.738**
	목표 및 계획 수립		.019	.014	1.086
	수행 및 평가		.075	.059	4.713**
	중독인식		-.060	-.068	-5.548**
	중독행동		-.201	-.202	-16.097**
	폭력행동		-.114	-.089	-8.282**
	폭력회피		-.124	-.106	-10.174**
	분노행동		-.091	-.085	-7.455**
	감정절제		-.093	-.090	-7.250**
	조절실패		-.035	-.038	-3.422**
	감정인식		-.180	-.166	-19.580**

*, $p < 0.05$, **, $p < 0.01$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관리역량의 회귀모형은 $F=2704.299$,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19.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B=-.922$, $\beta=-.439$, $p<.000$)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든 하위역량이

스마트폰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회귀모형은 $F=968.756$,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2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역량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B=-.046$, $\beta=-.027$, $p<.01$)와 정서조절($B=-.392$, $\beta=-.241$, $p<.000$)이 스마트폰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과제관리($B=.083$, $\beta=.059$, $p<.000$)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314.759$,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6.5%이다. 각 세부역량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의 세부역량인 위생관리($B=-.033$, $\beta=-.021$, $p<.05$),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B=-.057$, $\beta=-.038$, $p<.000$), 상황대처의 세부역량인 중독인식($B=-.060$, $\beta=-.068$, $p<.000$), 중독행동($B=-.201$, $\beta=-.202$, $p<.000$), 폭력행동($B=-.114$, $\beta=-.089$, $p<.000$), 폭력 회피($B=-.124$, $\beta=-.106$, $p<.000$), 정서조절의 분노행동($B=-.091$, $\beta=-.085$, $p<.000$), 감정절제($B=-.093$, $\beta=-.090$, $p<.000$), 조절실패($B=-.035$, $\beta=-.038$, $p<.01$), 감정인식($B=-.180$, $\beta=-.166$,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관리($B=.028$, $\beta=.027$, $p<.01$), 과제관리의 수행 및 평가($B=.075$, $\beta=.059$, $p<.000$)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과 하위역량 중 건강관리와 정서조절은 스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과제관리는 정적 영향을, 세부역량 중 위생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상황대처와 정서조절의 모든 세부역량은 부적 영향을, 신체관리와 수행 및 평가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체험활동과의 관계분석을 통한 예측타당도 분석

청소년 생활관리역량과 체험활동 참여 여부,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 수, 체험활동 참여 전체 횟수의 기술통계분석결과는 <표 IV-68>과 같다.

표 IV-68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체험활동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분	하위변인	세부항목	사례수	평균(M)	표준편차(SD)
생활관리역량	전체		11319	3.08	0.38
	건강관리	위생관리	11319	3.34	0.51
		신체관리	11319	2.90	0.78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11319	3.25	0.53
		전체	11319	3.19	0.46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11319	3.04	0.58
		수행 및 평가	11319	2.94	0.62
		전체	11319	2.99	0.56
	상황대처	중독인식	11319	2.84	0.89
		중독행동	11319	3.07	0.80
		폭력행동	11319	3.45	0.62
		폭력회피	11319	3.26	0.67
		전체	11319	3.15	0.58
	정서조절	분노행동	11319	3.11	0.74
		감정절제	11319	3.01	0.76
		조절실패	11319	2.70	0.86
		감정인식	11319	2.91	0.73
		전체	11319	2.93	0.49
체험활동	체험활동 참여 여부		11319	0.94	0.24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		11319	4.03	2.11
	체험활동 참여 전체 횟수		10597	41.71	81.4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여부의 평균은 1.65(SD=.24), 참여 전체 종류수는 4.03(SD=2.11), 참여 전체 횟수는 41.71(SD=81.43)로 나타났다. 이와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상관은 <표 IV-69>와 같다.

표 IV-69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와 체험활동의 상관관계

구분			체험활동 참여 여부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	체험활동 참여 전체 횟수
생활관리역량	생활관리역량		.098**	.212**	.138**
	건강관리	위생관리	.070**	.150**	.085**
		신체관리	.023*	.159**	.160**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088**	.210**	.107**
		전체	.078**	.221**	.150**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 수립	.098**	.241**	.089**
		수행 및 평가	.073**	.206**	.085**
		전체	.091**	.238**	.093**
생활관리역량	상황대처	중독인식	0.015	.060**	.086**
		중독행동	.036**	.067**	.082**
		폭력행동	.086**	.092**	.045**
		폭력회피	.055**	.087**	.071**
		전체	.057**	.095**	.094**
	정서조절	분노행동	.053**	.080**	.069**
		감정절제	.037**	.059**	.060**
		조절실패	0.003	.039**	.078**
		감정인식	.070**	.103**	-0.008
		전체	.067**	.114**	.070**

*, $p < 0.05$, **, $p < 0.01$

상관분석 결과는 생활관리역량과 체험활동 참여 여부($r=.098$),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 수($r=.212$), 체험활동 참여 전체 횟수($r=.138$)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과 각 세부항목과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023\sim.241$)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정서조절의 세부역량 중 조절실패와 체험학습참여 여부, 감정인식과 체험학습참여 횟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이 체험활동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8개 종류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을 '0=불참여'로 하고 하나 이상 참여한 청소년을 '1=참여'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70>과 같다.

표 IV-70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인		Chi-square(df) / Nagelkerke R2	B	Wald	Exp(B)
생활관리역량		110.238(1)/ .026**	1.105	105.691	3.020**
건강관리		134.560(4)/ .031**	.279	7.796	1.321**
과제관리			.468	36.938	1.597**
상황대처			.183	5.853	1.201*
정서조절			.289	9.320	1.335**
	위생관리	235.217(13)/ .054**	.120	1.845	1.127
	신체관리		-.091	2.174	.913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23	12.754	1.381**
	목표 및 계획 수립		.440	17.772	1.553**
	수행 및 평가		-.007	.005	.993
	중독인식		-.137	3.920	.872*
	중독행동		.119	2.329	1.126
	폭력행동		.393	24.049	1.482**
	폭력회피		.025	.108	1.025
	분노행동		.134	3.111	1.143
	감정절제		.059	.534	1.061
	조절실패		-.187	7.363	.829**
	감정인식		.270	22.100	1.310**

*, $p<0.05$, **, $p<0.01$

<표 IV-70>에 의하면, 생활관리역량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chi^2=110.238$, $df=1$, $p<.0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026으로 약 2.6%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있어 생활관리역량은 $B=1.105$, $Wald=105.691$, $p<.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지수가 1 단위 높아질 때 청소년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2.6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관리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과 세부역량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chi^2=134.560$, $df=4$, $p<.0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031로 약 3.1%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있어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건강관리($B=.279$, $Wald=7.796$, $p<.01$)와 과제관리($B=.468$, $Wald=36.938$, $p<.000$), 상황대처($B=.183$, $Wald=5.853$, $p<.05$), 정서조절($B=.289$, $Wald=9.320$, $p<.01$) 모두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의 각 하위역량이 1 단위 높아질 때 청소년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건강관리의 경우 1.32배, 과제관리의 경우 1.60배, 상황대처는 1.20배, 정서조절은 1.34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활관리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청소년 체험활동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chi^2=235.217$, $df=13$, $p<.00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054로 약 5.4%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있어 세부역량은 건강관리의 세부역량인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B=.323$, $Wald=12.754$, $p<.000$), 과제관리의 세부역량인 목표 및 계획 수립($B=.440$, $Wald=17.772$, $p<.000$), 상황대처의 세부역량인 폭력행동($B=.393$, $Wald=24.049$, $p<.000$), 정서조절의 세부역량인 감정인식($B=.270$, $Wald=22.100$, $p<.000$)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독인식($B=-.137$, $Wald=3.920$, $p<.05$)과 조절실패($B=-.187$, $Wald=7.363$, $p<.000$)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관리역량의 세부역량이 각각 1 단위 높아지면,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에서는 1.38배, 목표 및 계획 수립에서는 1.55배, 폭력행동에서는 1.48배, 감정인식에서는 1.31배 높아지고, 중독인식에서는 .87배, 조절실패에서는 .83배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이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71>과 같다.

표 IV-71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 수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인		R ² (adj. R ²) / F	B	β	t
생활관리역량		.045 (.045) / 530.719**	1.190	.212	23.037**
건강관리		.072 (.071) / 218.439**	.558	.121	11.051**
과제관리			.621	.165	15.547**
상황대처			.072	.020	1.913
정서조절			.135	.031	2.947**
	위생관리	.080 (.079) / 75.526**	.029	.007	.654
	신체관리		.169	.062	5.806**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39	.085	7.453**
	목표 및 계획 수립		.513	.142	9.978**
	수행 및 평가		.092	.027	1.946
	중독인식		.028	.012	.862
	중독행동		.001	.001	.037
	폭력행동		.136	.040	3.294**
	폭력회피		.002	.001	.066
	분노행동		.096	.034	2.637**
	감정절제		-.063	-.023	-1.636
	조절실패		-.034	-.014	-1.103
	감정인식		.168	.058	6.101**

*.p<0.05, **.p<0.01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관리역량의 회귀모형은 $F=530.719$,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4.5%로 설명된다.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 수에 생활관리역량($B=1.190$, $\beta=.212$, $p<.000$)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이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218.439$,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약 7.1%로 나타났다. 건강관리($B=.558$, $\beta=.121$, $p<.000$), 과제관리($B=.621$, $\beta=.165$, $p<.000$), 정서조절($B=.135$, $\beta=.031$, $p<.01$)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황대처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세부역량이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75.526$,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7.9%로 설명되어진다. 각 세부역량이 체험활동 참여 전체 종류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체관리($B=.169$, $\beta=.062$, $p<.000$),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B=.339$, $\beta=.085$, $p<.000$), 목표

및 계획 수립($B=.513$, $\beta=.142$, $p<.000$), 폭력행동($B=.136$, $\beta=.040$, $p<.01$), 분노행동($B=.096$, $\beta=.034$, $p<.01$), 감정인식($B=.168$, $\beta=.058$, $p<.000$)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이 체험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72>와 같다.

표 IV-72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가 체험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인		R2(adj. R2) / F	B	β	t
생활관리역량		.019 (.019) / 206.140**	29.969	.138	14.358**
건강관리		.026 (.025) / 69.458**	22.143	.124	10.680**
과제관리			2.932	.020	1.787
상황대처			7.201	.051	4.609**
정서조절			.707	.004	.378
	위생관리	.033 (.032) / 27.660**	.704	.004	.386
	신체관리		13.052	.124	11.00**6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3.964	.026	2.132*
	목표 및 계획 수립		4.011	.028	1.915
	수행 및 평가		.114	.001	.059
	중독인식		2.875	.032	2.196*
	중독행동		1.369	.013	.903
	폭력행동		-.596	-.004	-.353
	폭력회피		1.436	.012	.960
	분노행동		3.350	.030	2.242*
	감정절제		-3.129	-.029	-1.989*
	조절실패		2.845	.030	2.254*
	감정인식		-1.290	-.011	-1.143

*, $\alpha/0.05$, **, $\alpha/0.01$

청소년의 체험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관리역량의 회귀모형은 $F=206.140$,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9%의 설명력을 갖는다. 체험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생활관리역량($B=29.969$, $\beta=.138$, $p<.000$)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이 체험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69.458$,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약 2.5%로 나타났다. 건강관리($B=22.143$, $\beta=.124$, $p<.000$)와 상황대처($B=7.201$, $\beta=.051$,

$p<.000$)가 체험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이 체험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27.660$, $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2%로 설명되어진다. 신체관리($B=13.052$, $\beta=.124$, $p<.000$),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B=3.964$, $\beta=.026$, $p<.05$), 중독인식($B=2.875$, $\beta=.032$, $p<.05$), 분노행동($B=3.350$, $\beta=.030$, $p<.05$), 조절실패($B=2.845$, $\beta=.030$, $p<.05$)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감정절제($B=-3.129$, $\beta=-.029$, $p<.05$)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준거 및 예측타당도 분석

(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와 진로자기조절 및 진로결정능력과의 관계분석을 통한 준거 타당도 분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이 진로자기조절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개발역량과 진로자기조절, 진로결정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IV-73>과 같다.

표 IV-7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와 진로자기조절 및 진로결정능력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M	SD
진로개발역량	전체		2.92	0.40
	진로설계	자기탐색	3.13	0.59
		직업탐색	2.94	0.69
		직업가치관	3.08	0.60
		진로준비	3.06	0.56
		전체	3.05	0.49
	여가활용	여가태도	3.31	0.54
		여가유능감	2.64	0.71
		여가만족	3.14	0.65
		여가몰입	3.16	0.63
		전체	3.05	0.50
진로개발역량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2.64	0.58
		도전정신	2.68	0.61
		전체	2.66	0.51
진로자기조절			2.76	0.6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평균은 2.92($SD=.40$), 진로자기조절은 2.76($SD=.61$)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와 진로자기조절과의 상관관계는 <표 IV-74>에 제시하였다. 진로개발역량과 진로자기조절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67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역량인 진로설계와 세부역량인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확인되며, 여가활용능력과 개척정신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체로 진로개발역량이 높을수록 진로자기조절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IV-74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와 진로자기조절과의 상관관계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진로자기조절
진로개발역량	전체		.672**
	진로설계	자기탐색	.519**
		직업탐색	.626**
		진로준비	.529**
		직업가치관	.675**
		전체	.730**
	여가활용	여가태도	.354**
		여가유능감	.399**
		여가만족	.423**
		여가몰입	.396**
		전체	.490**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375**
		도전정신	.334**
		전체	.413**

** : $p<0.01$, * : $p<0.0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이 진로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각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진로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는 <표 IV-75>로 제시하였다. 진로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개발역량의 회귀모형은 $F=9310.571$,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45.1%로 설명된다. 진로개발역량($B=1.006$, $\beta=.672$, $p<.01$)은 진로자기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하위역량이 진로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4598.776$,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4.9%로 나타났다. 각 하위역량에서 진로설계($B=.786$, $\beta=.639$, $p<.01$)은 진로자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용능력($B=.103$, $\beta=.085$, $p<.01$), 개척정신($B=.119$, $\beta=.100$, $p<.01$)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에 대한 회귀모형은 $F=1523.761$,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57.4%로 설명되어진다. 각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진로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탐색($B=.081$, $\beta=.079$, $p<.01$), 직업탐색($B=.235$, $\beta=.269$, $p<.01$), 진로준비($B=.057$, $\beta=.056$, $p<.01$), 직업가치관($B=.400$, $\beta=.368$, $p<.01$)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유능감($B=.073$, $\beta=.086$, $p<.01$), 여가만족($B=.070$, $\beta=.075$, $p<.01$)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여가태도($B=-.050$, $\beta=-.044$, $p<.01$)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가몰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별화정신($B=.059$, $\beta=.057$, $p<.01$)과 도전정신($B=.049$, $\beta=.049$, $p<.01$)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진로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R2(adj. R2) / F	B	β	t
진로개발역량			.451(.451) / 9310.571**	1.006	.672	96.491**
	진로설계		.549(.549) / 4598.776**	.786	.639	80.943**
	여가활용			.103	.085	10.723**
	개척정신			.119	.100	13.851**
		자기탐색	.574(.574) / 1523.761**	.081	.079	9.787**
		직업탐색		.235	.269	32.347**
		진로준비		.057	.056	6.708**
		직업가치관		.400	.368	42.835**
		여가태도		-.050	-.044	-5.422**
		여가유능감		.073	.086	11.536**
		여가만족		.070	.075	7.418**
		여가몰입		-.002	-.002	-.252
		차별화태도		.059	.057	7.753**
		도전정신		.049	.049	6.845**

** : $p<0.01$, * : $p<0.05$

(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와 진로관련 활동과의 관계분석을 통한 예측타당도 분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과 진로활동 참여여부,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 수, 진로활동 참여 전체 횟수, 여가활동 참여여부, 여가활동 횟수의 기술통계분석결과는 <표 IV-76>과 같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와 각 하위역량, 세부역량의 평균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진로활동 참여 여부의 평균은 1.00(SD=0.00)이었으며, 진로활동 참여 전체 횟수는 2.02(SD=1.52), 진로활동 참여 전체 횟수는 10.85(SD=7.90)로 확인되었다.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진로적성검사, 진로상담, 직업체험교육, 직업 관련 견학,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의 5가지 활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여가활동 참여 여부의 평균은 0.79(SD=.41), 여가활동 참여 전체 횟수는 3.25(SD=1.95)로 나타났다.

표 IV-76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와 체험활동 종류 및 빈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M	SD
진로개발역량	전체		2.92	0.40
	진로설계	자기탐색	3.13	0.59
		직업탐색	2.94	0.69
		직업가치관	3.08	0.60
		진로준비	3.06	0.56
		전체	3.05	0.49
진로개발역량	여가활용	여가태도	3.31	0.54
		여가유능감	2.64	0.71
		여가만족	3.14	0.65
		여가몰입	3.16	0.63
		전체	3.05	0.50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2.64	0.58
		도전정신	2.68	0.61
		전체	2.66	0.51
진로활동 참여 여부			.80	0.39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			2.02	1.52
진로활동 참여 전체 횟수			10.85	7.90
여가활동 참여 여부			.79	0.41
여가활동 참여 횟수			3.25	1.9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와 진로활동 참여 여부,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 진로활동 참여 전체 횟수, 여가활동 참여 여부, 여가활동 참여 횟수의 상관관계는 <표 IV-77>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는 진로개발역량과 진로활동 참여 여부($r=.161$),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r=.271$), 진로활동 참여 전체 횟수($r=.176$), 여가활동 참여 여부($r=.261$), 여가활동 참여 횟수($r=.106$)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인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과 각 세부항목과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개척정신과 진로활동 참여 전체 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과 진로활동 및 여가활동 간의 상관관계 계수 $r=.036\sim.325$ 까지로 나타났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이 높을수록 진로활동 참여 여부,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 진로활동 참여 전체 횟수, 여가활동 참여 여부, 여가활동 참여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IV-7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와 진로활동 및 여가활동과의 상관관계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진로활동 참여 여부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	진로활동 참여 전체 횟수	여가활동 참여 여부	여가활동 참여 횟수
진로개발역량	전체		.161**	.271**	.176**	.261**	.106**
	진로설계	자기탐색	.126**	.192**	.122**	.163**	.054**
		직업탐색	.166**	.252**	.117**	.144**	.046**
		진로준비	.159**	.238**	.121**	.131**	.016
		직업가치관	.134**	.212**	.152**	.155**	.047**
		전체	.179**	.273**	.155**	.182**	.051**
	여가활용	여가태도	.129**	.155**	.185**	.238**	.114**
		여가유능감	.056**	.165**	.177**	.204**	.116**
		여가만족	.111**	.162**	.169**	.337**	.159**
		여가몰입	.127**	.176**	.167**	.300**	.140**
		전체	.125**	.205**	.214**	.325**	.164**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106**	.186**	.115**	.111**	.041**
		도전정신	.046**	.123**	.001	.106**	.036**
		전체	.088**	.180**	.066	.127**	.045**

** : $p<0.01$, * : $p<0.0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이 청소년 진로활동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소년 진로활동 5개 종류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을 '0=불참여'로 하고 하나 이상 참여한 청소년을 '1=참여'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78>에 의하면, 진로개발역량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chi^2=299.821$, $df=1$,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041로 약 4.5%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진로활동 참여 여부에 있어 진로개발역량은 $B=1.399$, $Wald=3517.361$,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지수가 1점 높아질 때 청소년이 진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4.05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과 세부역량에 따른 청소년 진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chi^2=376.134$, $df=3$,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052로 약 5.2%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진로활동 참여 여부에 있어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진로설계능력($B=.814$, $Wald=178.655$, $p<.01$)과 여가활용($B=.183$, $Wald=9.566$, $p<.01$)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진로설계능력과 여가활용능력이 1점 높아질 때 청소년이 진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진로설계는 2.25배, 여가활용능력은 1.20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78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진로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Chi-square(df) / Nagelkerke R2	B	Wald	Exp(B)
진로개발역량			299.821(1)** / 0.041	1.399	3517.361**	4.051
	진로설계		376.134(3) / 0.052**	.814	178.655**	2.258
	여가활용			.183	9.566**	1.201
	개척정신			.035	.409	1.036
		자기탐색	480.907(10) / 0.066**	.071	1.756	1.073
		직업탐색		.341	53.541**	1.407
		진로준비		.278	26.547**	1.321
		직업가치관		.042	.489	1.043
		여가태도		.234	16.439**	1.264
		여가유능감		-.177	16.896**	.837
		여가만족		-.027	.192	.974
		여가몰입		.204	11.473**	1.226
		차별화태도		.257	25.440**	1.293
		도전정신		-.165	11.889**	.848

** : $p<0.01$, * : $p<0.05$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에 따른 청소년 진로활동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chi^2=480.907$, $df=10$,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066로 약 6.6%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진로활동 참여 여부에 있어 세부역량은 직업탐색력($B=.341$, $Wald=53.541$, $p<.01$), 진로준비($B=.278$, $Wald=26.547$, $p<.01$), 여가태도($B=.234$, $Wald=16.439$, $p<.01$), 여가유능감($B=-.177$, $Wald=16.896$, $p<.01$), 여가몰입($B=.204$, $Wald=11.473$, $p<.01$), 차별화태도($B=.257$, $Wald=25.440$, $p<.01$), 도전정신($B=-.165$, $Wald=11.889$, $p<.01$)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세부역량인 1점 높아지면 직업탐색에서는 1.40배, 진로준비에서는 1.32배, 여가태도에서는 1.2배, 여가몰입에서는 1.2배, 차별화태도에서는 1.2배 진로활동 참여여부가 높아지고 여가유능감과 도전정신에서는 0.8배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이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79>와 같다. 청소년의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개발역량의 회귀모형은 $F=897.471$,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3%로 설명된다.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진로개발역량($B=1.018$, $\beta=.271$,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이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334.655$,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8.1%로 나타났다. 진로설계($B=.664$, $\beta=.215$, $p<.01$), 여가활용($B=.169$, $\beta=.056$, $p<.01$), 개척정신($B=.188$, $\beta=.063$,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이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334.655$,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1%로 설명되어진다. 각 세부역량이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업탐색($B=.277$, $\beta=.126$, $p<.01$), 진로준비($B=.242$, $\beta=.095$, $p<.01$), 여가유능감($B=.088$, $\beta=.041$, $p<.01$), 여가몰입($B=.097$, $\beta=.040$, $p<.01$), 차별화태도($B=.214$, $\beta=.082$, $p<.01$)는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79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진로활동 참여 전체 종류수에 미치는 영향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R2(adj. R2) / F	B	β	t
진로개발역량			.073(.073) / 897.471**	1.018	.271	29.958**
	진로설계		.081(.081) / 334.655**	.664	.215	19.072**
	여가활용			.169	.056	4.922**
	개척정신			.188	.063	6.079**
		자기탐색	.089(.088) / 110.716**	.036	.014	1.196
		직업탐색		.277	.126	10.377**
		진로준비		.242	.095	7.767**
		직업가치관		.064	.023	1.865
		여가태도		.025	.009	.731
		여가유능감		.088	.041	3.784**
		여가만족		-.037	-.016	-1.065
		여가몰입		.097	.040	2.808**
		차별화태도		.214	.082	7.600**
		도전정신		-.016	-.006	-.620

** : $p < 0.01$, * : $p < 0.0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이 진로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80>과 같다. 청소년의 진로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개발역량의 회귀모형은 $F=28.144$,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1%의 설명력을 갖는다. 진로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진로개발역량($B=3.423$, $\beta=.176$,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이 진로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15.239$,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9%로 나타났다. 진로설계($B=.831$, $\beta=.050$, $p<.01$), 여가활용($B=3.389$, $\beta=.211$,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이 진로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5.884$,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3%로 설명되어진다. 여가태도($B=1.522$, $\beta=.100$, $p<.01$), 여가유능감($B=1.279$, $\beta=.113$, $p<.01$), 차별화태도($B=1.138$, $\beta=.087$, $p<.01$)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전정신($B=-1.187$, $\beta=-.145$, $p<.01$)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80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진로활동 참여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R2(adj. R2) / F	B	β	t
진로개발역량			.031(.030) / 28.144**	3.423	.176	5.305**
	진로설계		.049(.046) / 15.239**	.831	.050	1.191
	여가활용			3.389	.211	4.838**
	개척정신			-.823	-.056	-1.467
		자기탐색	.063(.052) / 5.884**	-.109	-.008	-.166
		직업탐색		.103	.008	.178
		진로준비		-.254	-.018	-.353
		직업가치관		.941	.064	1.306
		여가태도		1.522	.100	2.163*
		여가유능감		1.279	.113	2.752**
		여가만족		.188	.015	.259
		여가몰입		.390	.028	.509
		차별화태도		1.138	.087	2.071*
		도전정신		-1.887	-.145	-3.582**

** : $p<0.01$, * : $p<0.0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이 청소년 여가활동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을 '0=불참여'로 하고 참여한 청소년을 '1=참여'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81>에 의하면, 진로개발역량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chi^2=811.192$, $df=1$,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108로 약 10.8%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 여부에 있어 진로개발역량은 $B=1.333$, $Wald=3320.832$,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지수가 1점 높아질 때 청소년이 여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3.79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과 세부역량에 따른 청소년 여가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chi^2=1255.116$, $df=3$,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164로 약 16.4%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 여부에 있어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중 여가활용($B=1.818$, $Wald=711.107$, $p<0.01$)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여가활용능력이

1점 높아질 때 청소년이 여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6.160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에 따른 청소년 여가활동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chi^2=1417.997$ $df=10$,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184로 약 18.4%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여 여부에 있어 세부역량은 자기탐색($B=.145$, $Wald=6.886$, $p<.01$), 진로준비($B=-.171$, $Wald=8.957$, $p<.01$), 여가태도($B=.237$, $Wald=15.800$, $p<.01$), 여가유능감($B=.188$, $Wald=17.287$, $p<.01$), 여가만족($B=.913$, $Wald=224.721$, $p<.01$), 여가몰입($B=.393$, $Wald=42.338$, $p<.01$)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세부역량인 1점 높아지면 자기탐색에서는 1.15배, 여가태도에서는 1.26배, 여가유능감에서는 1.20배, 여가만족에서는 2.49배, 여가몰입에서는 1.48배 높아지고 진로준비에서는 0.84배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8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여가활동 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Chi-square(df) / Nagelkerke R ²	B	Wald	Exp(B)
진로개발역량			811.192(1)** / 0.108	1.333	3320.832**	3.792
	진로설계		1255.116(3) / 0.164**	.049	.598	1.050
	여가활용			1.818	711.107**	6.161
	개척정신			-.111	3.633	.895
		자기탐색	1417.997(10) / 0.184**	.145	6.886**	1.157
		직업탐색		.059	1.438	1.061
		진로준비		-.171	8.957**	.843
		직업가치관		.010	.027	1.010
		여가태도		.237	15.800**	1.267
		여가유능감		.188	17.287**	1.207
		여가만족		.913	224.721**	2.491
		여가몰입		.393	42.338**	1.481
		차별화태도		-.083	2.421	.920
		도전정신		-.011	.048	.989

** : $p<0.01$, * : $p<0.05$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이 여가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82>와 같다. 청소년의 여가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개발역량의 회귀모형은 $F=102.649$,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의 설명력을 갖는다. 여가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진로개발역량($B=.536$, $\beta=.106$,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이 여가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90.144$,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9%로 나타났다. 진로설계($B=-.205$, $\beta=-.051$, $p<.01$), 여가활용($B=.833$, $\beta=.199$, $p<.01$)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역량이 여가활동 전체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30.792$,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3%로 설명되어진다. 여가태도($B=.131$, $\beta=.034$, $p<.01$), 여가유능감($B=.176$, $\beta=.063$, $p<.01$), 여가만족($B=.357$, $\beta=.108$, $p<.01$), 여가몰입($B=.160$, $\beta=.047$, $p<.01$)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진로준비($B=-.232$, $\beta=-.070$, $p<.01$)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8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가 여가활동 참여 횟수에 미치는 영향

역량군	역량	하위역량	R2(adj. R2) / F	B	β	t
진로개발역량			.011(.011) / 102.649**	.536	.106	10.132**
	진로설계		.029(.029) / 90.144**	-.205	-.051	-3.935**
	여가활용			.833	.199	15.499**
	개척정신			-.067	-.017	-1.463
		자기탐색	.033(.032) / 30.792**	.004	.001	.093
		직업탐색		.032	.011	.802
		진로준비		-.232	-.070	-5.007**
		직업가치관		-.026	-.007	-.506
		여가태도		.131	.034	2.509*
		여가유능감		.176	.063	5.160**
		여가만족		.357	.108	6.690*
		여가몰입		.160	.047	3.010**
		차별화태도		-.041	-.012	-.995
		도전정신		-.025	-.008	-.644

** : $p<0.01$, * : $p<0.05$

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준거 및 예측타당도 분석

(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와 사회적 관계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분석을 통한 준거 타당도 분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이 사회적 관계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대인관계역량과 자기주도학습, 문제해결능력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IV-83>과 같다.

표 IV-83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와 사회적 관계 및 학교적응 기술통계 분석 결과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대인관계역량			3.00	0.45
	관계형성		3.08	0.48
			자기개방성	3.05
	친화성		3.00	0.64
	의사소통		3.12	0.55
	공감 및 배려		3.16	0.53
	리더십		2.87	0.53
		의사결정	2.99	0.55
		집단활동관리	2.75	0.66
		추진력	2.88	0.59
	협동		3.02	0.51
		집단촉진	2.93	0.60
		팔로워십	3.18	0.58
		갈등문제해결	3.01	0.58
사회적 관계			2.99	0.45
학교생활적응			2.99	0.56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평균은 3.00(SD=.45)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은 3.08(SD=.48), 리더십은 2.87(SD=.53), 협동은 3.02(SD=.51)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관계의 평균은 2.99(SD=.45)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은 2.99(SD=.56)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와 사회적 관계,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는 <표 IV-84>에 제시하였다.

표 IV-84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와 사회적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구분			사회적 관계	학교생활적응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422**	.546**
			.427**	.443**
		자기개방성	.377**	.245**
		친화성	.356**	.406**
		의사소통	.312**	.410**
		공감 및 배려	.296**	.361**
	리더십		.328**	.517**
		의사결정	.282**	.439**
		집단활동관리	.280**	.459**
		추진력	.312**	.478**
	협동		.365**	.517**
		집단촉진	.334**	.460**
		팔로워십	.292**	.461**
		갈등문제해결	.325**	.443**

*, $p<0.05$, **, $p<0.01$

대인관계역량과 사회적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422, p<.01$)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 생활적응도 정적 상관관계($r=.546,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모두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인관계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 각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결과는 <표 IV-85>로 제시하였다.

구분			R2(adj. R2) / F	B	β	t
대인관계역량			.178(.178) / 2447.290**	.421	.422	49.470 **
	관계형성		.193(.192) / 899.649**	.314	.332	27.495 **
	리더십			.009	.010	.757
	협동			.114	.130	9.089 **
		자기개방성	.209(.208) / 298.095**	.149	.226	22.465 **
		친화성		.092	.131	11.413 **
		의사소통		-.013	-.016	-1.221
		공감및배려		.041	.048	4.078 **
		의사결정		.000	.000	-.038
		집단활동관리		-.023	-.033	-2.451 *
		추진력		.053	.070	4.917 **
		집단촉진		.061	.081	6.036 **
		팔로워십		.044	.056	4.766 **
		갈등문제해결		.029	.037	2.804 **

*.p<0.05, **.p<0.0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역량의 회귀모형은 $F=2447.290$,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설명력은 17.8%이다. 분석결과, 대인관계역량($B=.421$, $\beta=.422$, $p<.01$)은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역량이 높은 청소년이 부모, 교사, 친구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하위역량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899.649$,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19.2%로 나타났다. 하위역량 중 관계형성($B=.314$, $\beta=.332$, $p<.01$)과 협동($B=.114$, $\beta=.130$, $p<.01$)이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관계형성, 협동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역량에 대한 회귀모형은 $F=298.095$,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20.8%로 설명되어진다. 각 하위역량의 세부역량 중 자기개방성, 친화성, 공감 및 배려, 추진력,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은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집단활동관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관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개방성, 친화성, 집단촉진, 추진력, 팔로워십, 공감 및 배려, 갈등문제해결, 집단활동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앞선 결과에서 리더십 전체 점수는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리더십의 하위역량인 집단활동관리는 대인관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86>과 같다.

표 IV-86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분			R2(adj. R2) / F	B	β	t
대인관계역량			.298(.298) / 4809.284**	.682	.546	69.349 **
	관계형성		.308(.308) / 1677.954**	.124	.105	9.362 **
	리더십			.273	.259	20.341 **
	협동			.271	.247	18.668 **
		자기개방성	.322(.321) / 537.147**	-.029	-.035	-3.800 **
		친화성		.111	.127	11.921 **
		의사소통		.046	.045	3.728 **
		공감 및 배려		.011	.010	.949
		의사결정		.062	.061	5.170 **
		집단활동관리		.083	.098	7.807 **
		추진력		.113	.119	9.083 **
		집단촉진		.062	.065	5.286 **
		팔로워십		.172	.176	16.124 **
		갈등문제해결		.038	.039	3.201 **

*,p(0.05, **,p(0.01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역량의 회귀모형은 $F=4809.284$,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설명력은 29.8%이다. 분석결과, 대인관계역량($B=.682$ $\beta=.546$, $p<.01$)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역량이 높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하위역량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1677.954$,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30.8%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의 모든 하위역량이 학교생활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영향력은 리더십($B=.273$, $\beta=.259$, $p<.01$), 협동($B=.271$, $\beta=.247$, $p<.01$), 관계형성($B=.124$, $\beta=.105$, $p<.01$) 순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역량에 대한 회귀모형은 $F=537.147$,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32.1%로 설명되어

진다. 공감 및 배려를 제외한 모든 세부역량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자기개방성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친화성, 의사소통,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팔로워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 친화성, 추진력으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력이 낮은 요인은 자기개방성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와 친한 친구 수, 친구와의 놀이횟수, 고민상담 가능한 지인 유무의 관계분석을 통한 예측타당도 분석

청소년 대인관계역량과 친한 친구수, 친구와의 놀이횟수,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교사, 주변 어른 유무의 기술통계분석결과는 <표 IV87>와 같다.

표 IV-87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와 친한 친구수, 친구와의 놀이횟수,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교사, 주변 어른 유무의 기술통계분석결과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대인관계역량			3.00	0.45
	관계형성		3.08	0.48
		자기개방성	3.05	0.68
		친화성	3.00	0.64
		의사소통	3.12	0.55
		공감 및 배려	3.16	0.53
	리더십		2.87	0.53
		의사결정	2.99	0.55
		집단활동관리	2.75	0.66
		추진력	2.88	0.59
	협동		3.02	0.51
		집단촉진	2.93	0.60
		팔로워십	3.18	0.58
갈등문제해결		3.01	0.58	
매우 친한 친구(선후배) 수			13.49	16.25
매우 친한 친구(선후배)와 일주일 놀이 횟수			3.33	2.10
고민 상담 가능한 친구(선후배) 유무			0.90	0.31
고민 상담 가능한 교사 유무			0.57	0.49
고민 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유무			0.78	0.4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와 각 하위항목, 세부항목의 평균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매우 친한 친구(선후배) 수의 평균은 13.49명으로 청소년은 주변의 친한 친구가 평균 13명 정도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매우 친한 친구(선후배)와의 놀이 횟수는 주당 3.33회로 나타났다.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유무의 평균은 .90($SD=.31$),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유무의 평균은 .57($SD=.49$),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유무의 평균은 .78($SD=.41$)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주변 어른이 친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여 진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와 친한 친구수, 친구와의 놀이횟수,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교사, 주변 어른 유무의 상관관계는 <표 IV-88>과 같다.

표 IV-88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와 친한 친구수, 친구와의 놀이횟수,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교사, 주변 어른 유무와의 상관관계

구분			매우 친한 친구(선후배) 수	매우 친한 친구(선후배)와 일주일 놀이 횟수	고민 상담 가능한 친구(선후배) 유무	고민 상담 가능한 교사 유무	고민 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유무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135**	.109**	.250**	.169**	.172**
			.129**	.118**	.290**	.169**	.171**
		자기개방성	.075**	.123**	.376**	.163**	.171**
		친화성	.159**	.136**	.191**	.165**	.135**
		의사소통	.092**	.063**	.170**	.101**	.117**
		공감 및 배려	.078**	.034**	.149**	.095**	.109**
	리더십		.108**	.089**	.174**	.133**	.137**
		의사결정	.074**	.051**	.150**	.105**	.117**
		집단활동관리	.105**	.093**	.162**	.117**	.118**
		추진력	.105**	.088**	.152**	.131**	.132**
	협동		.123**	.081**	.190**	.146**	.148**
		집단촉진	.130**	.098**	.168**	.144**	.130**
		팔로워십	.074**	.025**	.120**	.110**	.119**
		갈등문제해결	.108**	.074**	.196**	.124**	.136**

*, $p<0.05$, **, $p<0.01$

상관분석 결과는 대인관계역량과 친한 친구 수($r=.135$), 친구와의 놀이횟수($r=.109$),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유무($r=.250$),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유무($r=.169$),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 어른 유무($r=.172$)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각 세부항목과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인관계역량이 높을수록 친한 친구의 수가 많고, 친구와의 놀이 횟수가 증가하며,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교사, 주변 어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이 친한 친구(선후배)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89>와 같다.

표 IV-89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친한 친구(선후배)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R2(adj. R2) / F	B	β	t
대인관계역량			.018(.018) / 208.667**	4.844	.135	14.445**
	관계형성		.019(.019) / 72.653**	2.791	.082	6.148**
	리더십			.192	.006	.417
	협동			1.975	.062	3.967**
		자기개방성	.030(.030) / 35.551**	-.278	-.012	-1.051
		친화성		3.540	.140	11.016**
		의사소통		-.708	-.024	-1.677
		공감 및 배려		.009	.000	.022
		의사결정		-1.254	-.043	-3.036**
		집단활동관리		.332	.014	.901
		추진력		.401	.015	.932
		집단촉진		2.134	.078	5.301**
		팔로워십		-.742	-.026	-2.015*
		갈등문제해결		.829	.030	2.019*

*.p<0.05, **.p<0.01

청소년의 매우 친한 친구(선후배) 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역량의 회귀모형은 $F=208.667$,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1.8%로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B=4.844$, $\beta=.135$, $p<.01$)은 친한 친구 수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이 매우 친한 친구(선후배)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72.653$,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1.9%로 확인되었다. 하위역량 중 관계형성($B=2.791$, $\beta=.082$, $p<.01$)과 협동($B=1.975$, $\beta=.062$, $p<.01$)이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관계형성, 협동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역량에 대한 회귀모형은 $F=35.551$,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3.0%로 설명되어진다. 각 하위역량의 세부역량 중 친화성, 집단촉진, 갈등문제 해결은 매우 친한 친구수에 긍정적 영향을, 의사결정, 팔로워십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친한 친구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친화성이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 다음으로 집단촉진, 의사결정, 갈등문제해결, 팔로워십 순인 것으로 파악된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이 친한 친구(선후배)와의 놀이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90>과 같다.

표 IV-90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친한 친구(선후배)와의 놀이 횟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R2(adj. R2) / F	B	β	t
대인관계역량			.012(.012) / 136.780**	.508	.109	11.695**
	관계형성		.014(.014) / 54.158**	.484	.110	8.232**
	리더십			.118	.030	1.988*
	협동			-.072	-.018	-1.116
		자기개방성	.031(.030) / 36.030**	.265	.086	7.756**
		친화성		.344	.105	8.296**
		의사소통		-.118	-.031	-2.169*
		공감 및 배려		-.170	-.043	-3.292**
		의사결정		-.147	-.039	-2.752**
		집단활동관리		.090	.028	1.899
		추진력		.130	.037	2.343*
		집단촉진		.244	.070	4.702**
		팔로워십		-.241	-.066	-5.068**
		갈등문제해결		.014	.004	.263

*.p<0.05, **.p<0.01

청소년의 친한 친구(선후배)와의 놀이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역량의 회귀모형은 $F=136.780$,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1.2%로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B=.508$, $\beta=.109$, $p<.01$)은 친한 친구(선후배)와의 놀이 횟수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인관계역량지수의 하위역량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이 친한 친구(선후배)와의 놀이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모형은 $F=54.158$,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1.4%로 확인되었다. 하위역량 중 관계형성($B=.484$, $\beta=.110$, $p<.01$)과 리더십($B=.118$, $\beta=.030$, $p<.01$)은 친한 친구(선후배) 수에 긍정적 영향을, 협동($B=-.072$, $\beta=-.018$, $p<.01$)은 친한 친구(선후배)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한 친구(선후배) 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역량에 대한 회귀모형은 $F=36.030$, $p<.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3.0%로 설명되어진다. 각 하위역량의 세부역량 중 집단활동관리, 갈등문제해결을 제외한 모든 세부역량이 친한 친구(선후배)와의 놀이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기개방성, 친화성, 추진력, 집단축진은 긍정적 영향을,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의사결정, 팔로워십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한 친구(선후배)와의 놀이 횟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화성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기개방성, 집단축진, 팔로워십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이 고민 상담 가능한 친구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0=없음', '1=있음'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IV-91>에 제시하였다.

표 IV-91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유무에 미치는 영향

구분			Chi-square(df) / Nagelkerke R ²	B	Wald	Exp(B)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704.835(1)** / .124	1.852	620.403**	6.372
			976.200(3)** / .169	2.344	473.898**	10.420
				-.223	4.877*	.800
				-.024	.052	.976
	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자기개방성	1585.011(10)** / .268	1.716	856.402**	5.561
		친화성		.052	.575	1.053
		의사소통		-.074	.666	.928
		공감 및 배려		.075	.765	1.078
		의사결정		.014	.023	1.014
		집단활동관리		.097	1.407	1.102
		추진력		-.092	.933	.912
		집단축진		.070	.619	1.073
		팔로워십		-.108	1.925	.897
		갈등문제해결		.345	15.169**	1.412

* $p<0.05$, ** $p<0.01$

<표 IV-91>에 의하면, 대인관계역량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chi^2=704.835$, $df=1$,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는 .124로 약 12.4%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은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유무를 결정짓는 정적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대인관계역량지수가 1점 높아질 때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가 있을 가능성은 6.37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이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chi^2=976.200$, $df=3$,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169로 약 16.9%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역량 모두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관계형성 역량이 1점 증가할 때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가 있을 가능성은 10.42배 증가하며, 리더십, 협동역량이 1점 증가할 때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가 있을 가능성은 20%, 2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chi^2=1585.011$, $df=10$,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268로 약 26.8%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역량 중 자기개방성과 갈등문제 해결만이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 유무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자기개방성 및 갈등문제 해결 역량이 1점 증가할 때 고민상담 가능한 친구가 있을 가능성은 5.56배, 1.41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이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유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92>과 같다.

<표 IV-92>에 의하면, 대인관계역량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chi^2=327.751$, $df=1$,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는 .038로 약 3.8%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은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유무를 결정짓는 정적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대인관계역량지수가 1점 높아질 때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가 있을 가능성은 2.19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이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chi^2=350.422$, $df=3$,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041로 약 4.1%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형성과 협동 역량이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관계형성과 협동 역량이 1점 증가할 때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가 있을 가능성은 각각 1.75배, 1.2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2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유무에 미치는 영향

구분			Chi-square(df) / Nagelkerke R ²	B	Wald	Exp(B)
대인관계역량			327.757(1)** / .038	.782	310.291**	2.186
	관계형성		350.422(3)** / .041	.560	91.614**	1.750
	리더십			.040	.459	1.041
	협동			.210	10.838**	1.233
		자기개방성	478.396(10)** / .056	.330	93.227**	1.391
		친화성		.321	60.076**	1.378
		의사소통		-.219	15.993**	.803
		공감 및 배려		-.033	.406	.967
		의사결정		-.039	.525	.962
		집단활동관리		-.048	1.031	.953
		추진력		.162	8.496**	1.176
		집단촉진		.228	19.241**	1.257
		팔로워십		.072	2.286	1.074
		갈등문제해결		-.002	.001	.998

*.p<0.05, **.p<0.01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chi^2=478.396$, $df=10$,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056로 약 5.6%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역량 중 자기개방성, 친화성, 추진력, 집단촉진은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 유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기개방성, 친화성, 추진력, 집단촉진 역량이 1점 증가할 때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가 있을 가능성은 1.39배, 1.38배, 1.18배, 1.26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의사소통 역량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가 있을 가능성은 19.7%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이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어른 유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와 <표 IV-93>과 같다.

표 IV-93 청소년 대인관계역량지수가 고민상담 가능한 어른 유무에 미치는 영향

구분			Chi-square(df) / Nagelkerke R ²	B	Wald	Exp(B)
대인관계역량			335.147(1)** / .045	.940	318.324 **	2.559
	관계형성		354.694(3)** / .048	.661	89.256 **	1.937
	리더십			.083	1.384	1.087
	협동			.226	8.960 **	1.254
		자기개방성	427.177(10)** / .057	.437	121.048 **	1.547
		친화성		.132	7.402 **	1.141
		의사소통		-.091	2.000	.913
		공감 및 배려		.021	.124	1.022
		의사결정		.023	.133	1.023
		집단활동관리		-.030	.274	.971
		추진력		.171	6.718 *	1.187
		집단촉진		.075	1.473	1.078
		팔로워십		.120	4.708 *	1.128
		갈등문제해결		.103	2.745	1.109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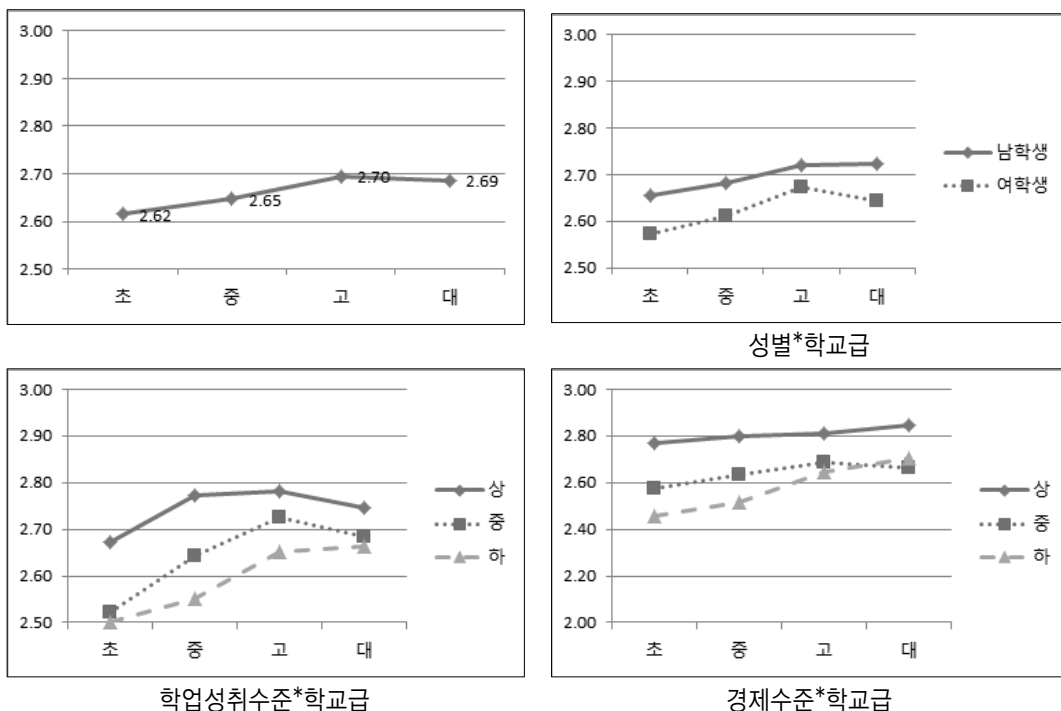
<표 IV-93>에 의하면, 대인관계역량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chi^2=335.147$, $df=1$,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는 .045로 약 4.5%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은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어른 유무를 결정짓는 정적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대인관계역량지수가 1점 높아질 때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어른이 있을 가능성은 2.56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이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어른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chi^2=354.694$, $df=3$,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는 .048로 약 4.8%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형성과 협동 역량이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어른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관계형성과 협동 역량이 1점 증가할 때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어른이 있을 가능성은 각각 1.94배, 1.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의 세부역량이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어른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로지스틱 회귀모델은 $\chi^2=427.177$, $df=10$,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Nagelkerke R^2 은 .057로 약 5.7%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역량 중 자기개방성, 친화성, 추진력, 팔로워십은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어른 유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자기개방성, 친화성, 추진력, 집단속진 역량이 1점 증가할 때 고민상담 가능한 주변어른이 있을 가능성은 1.55배, 1.14배, 1.19배, 1.13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지수 측정문항의 준거 및 예측타당도 분석¹²⁾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지수 측정결과에 따른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및 세계시민성의 하위 구성 요인을 학교급과 성별, 학교급과 학업성취수준 및 학교급과 경제수준을 변인으로 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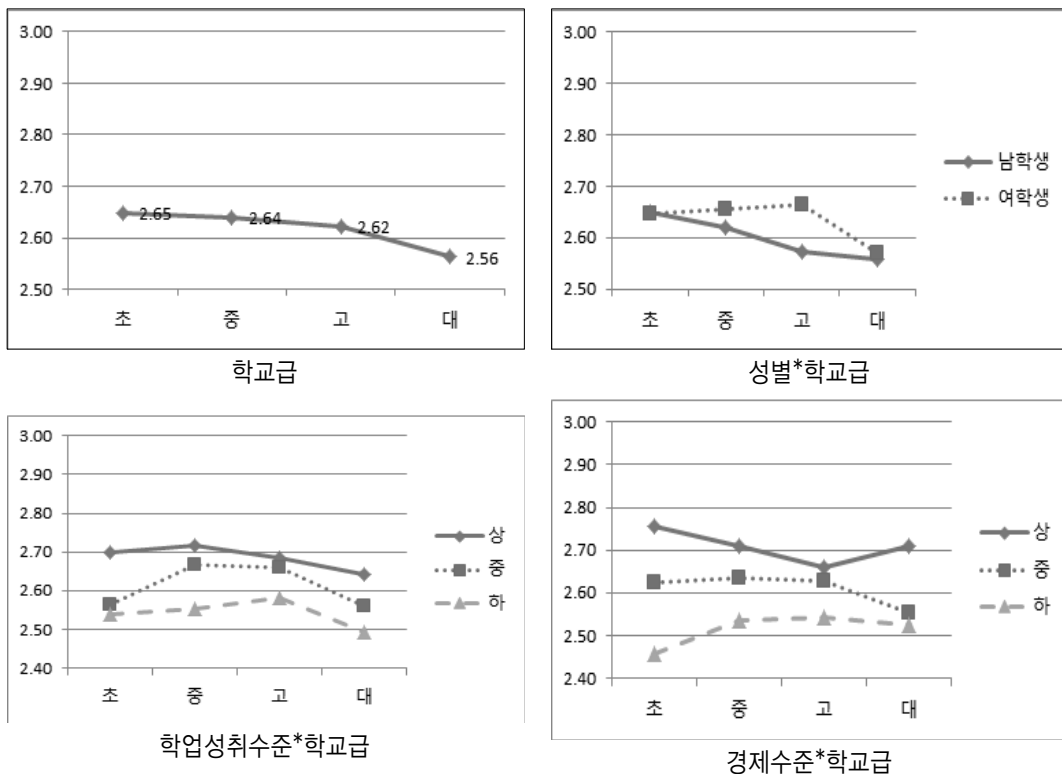


【그림 Ⅲ-27】 학교급 및 인구배경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시민성

12) 본 장의 내용은 김태준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Ⅲ: IEA ICCS 2016-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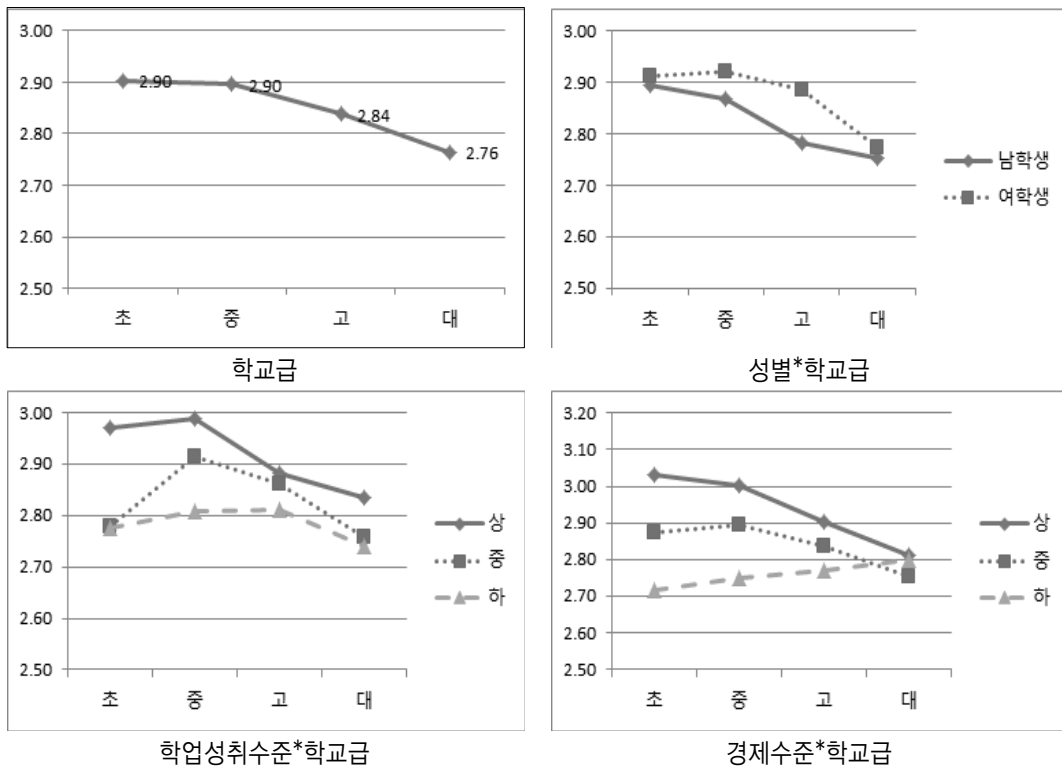
우리나라 청소년 사회참여역량의 학교급에 따른 일원분산분석 결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학교급에 이르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졌다($F(3, 11318)=7.541, p<.001$). 인구특성학적 배경에 따른 변화를 보면, 고등학교급에서 여학생의 사회참여역량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으며 모든 학교급에 걸쳐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역량도 높았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경향의 정도는 약해졌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역량수준이 높았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이 정도 또한 약해졌다.

개인시민성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지다가 대학교급에 이르러 소폭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꾸준히 개인시민성 수준이 높았고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시민성 수준이 높았으나 이 정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상쇄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III-28】 학교급 및 인구배경학적 특성에 따른 공동체시민성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체 시민성은 꾸준히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중등학교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공동체 시민성이 높았고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 시민성이 높았으나 각 차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상쇄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Ⅲ-29】 학교급 및 인구배경학적 특성에 따른 세계시민성

세계시민성은 학교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여학생이 중등학교의 경우 남학생보다 높은 세계시민성 수준을 보였고 학업성취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세계시민성 역시 높았으나 그 차이는 대학교 급에서 사라졌다.

제 V 장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현황

1.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2.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 정책사례

제 V 장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현황¹³⁾

1.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여기에서는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역량관련 양적조사 분석결과 등과 함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적 제언 제시에 참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이다. 여기에서는, 각 중앙부처에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201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관계부처합동, 2012; 여성가족부, 2015a)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들 중 청소년 역량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이 연구의 청소년 역량관련 분류 유형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의 다섯 부분으로 나눠 재분류하여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의 청소년정책 현황에 대해 현재의 분류유형대로 간략히 살펴본 후, 한국의 청소년 정책 중 청소년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으로 재분류하였고, 재분류된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을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의 하위 유형에 맞춰 재배치하여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1) 한국의 청소년정책 현황

우선 현재 한국의 청소년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13) 이 부분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해 수립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바탕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6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청소년기본법, 2016.5.2; 청소년기본법시행령, 2016.5.2).

주지하듯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 핵심인재로 양성,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목표로, 5대 영역, 15개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여성가족부, 2015a).

5대 영역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여성가족부, 2015a).

표 V-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5년 5대영역, 15대 중점과제별 세부과제수 및 사업수

(단위: 개)

영역	중점과제	세부과제수	사업수
①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7	38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5	18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4	13
②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4	6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4	18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5	14
③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7	20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8	17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7	24
④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4	11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8	41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3	15
⑤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3	3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3	5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3	3
총 계		75	246

출처 : 여성가족부, 2015a, pp. 9.의 표를 수정한 것임.

15개 중점과제는 5대 영역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하에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제시되어 있고, 5대 영역인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하에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이 제시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여성가족부, 2015a). 또한 5대 영역인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하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이 제시되어 있고, 5대 영역인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하에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가 제시되어 있으며, 5대 영역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하에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가 제시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여성가족부, 2015a).

75개 세부과제는 15개 중점과제인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하에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이 제시되어 있고, 15개 중점과제인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하에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 증진이 제시되어 있으며, 15개 중점과제인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하에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활성화가 제시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또한 15개 중점과제인 청소년의 참여활성화 하에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이 제시되어 있고, 15개 중점과제인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하에 청소년 체력 강화,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개입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제시되어 있으며, 15개 중점과제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조성 하에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미디어콘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권리보호 강화,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문화 조성이 제시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그리고 15개 중점과제인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하에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정서적·행동적 장애 청소년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후 지원기능 강화가 제시되어 있고, 15개 중점과제인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하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체계 구축,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 확대,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가 제시되어 있으며, 15개 중점과제인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하에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청소년(청년) 창업·취업 지원, 청소년(청년) 주거 지원,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환경 여건 강화가 제시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또한 15개 중점과제인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하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선정, 도시계획 수립시 유해업소 최소화 확대 추진이 제시되어 있고, 15개 중점과제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하에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아동 및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비행청소년 예방적·회복적 사법제도 구축,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및 홍보 강화, 유해환경 접촉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지원 및 선도·보호 강화가 제시되어 있으며, 15개 중점과제인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하에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가 제시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그리고 15개 중점과제인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하에 청소년정책 위상 및 성과평가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전담과 설치 및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추진이 제시되어 있고, 15개 중점과제인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하에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가 제시되어 있으며, 15개 중점과제인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하에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확충, 정책 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제시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시행계획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3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5대 영역·15개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별로 총 246개의 사업을 계획하여 수행하였다(여성가족부, 2015a). 총 246개의 사업 중 전년도부터 지속되어 온 연속사업은 242개이고 신규로 계획이 수립된 신규사업은 4개이다(여성가족부, 2015a).

부처별로는 총 246개의 사업 중 여성가족부가 80개, 미래창조과학부가 3개, 교육부가 37개, 외교부가 11개, 통일부가 2개, 법무부(대검찰청 포함)가 15개, 국방부가 1개, 행정자치부가 2개, 문화체육관광부가 22개, 농림축산식품부가 4개, 산업통상자원부가 4개, 보건복지부가 18개, 환경부가 1개, 고용노동부가 8개, 국토교통부가 4개, 해양수산부가 1개, 국가보훈처가 1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개, 국민안전처가 3개, 인사혁신처가 1개, 법제처가 1개, 경찰청이 8개, 문화재청이 8개, 농촌진흥청이 1개, 산림청이 1개, 중소기업청이 2개, 특허청이 1개, 방송통신위원회가 3개 사업을 계획하여 수행하였다(여성가족부, 2015a).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무부(대검찰청 포함)가 많은 사업을 계획하여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한국 청소년 정책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목표 중의 하나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 핵심인재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정책영역의 하나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배치하고 있고,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영역 하에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세부 범주로 제시하고 있어 청소년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서의 청소년 역량강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그러나 청소년이 갖춰야 할 중요한 청소년 역량으로 이 연구에서 분류하고 있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등의 세부적인 역량을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향후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목표로서의 청소년 역량강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목표로 한 보다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인 2015년에 계획이 수립되어 정책이 시행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들

중 청소년역량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을 목표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영역에 제시된 정책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제시된 정책들 중 청소년 역량 함양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이 연구의 분류 틀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에 맞춰 재분류하여 한국 청소년 역량 관련 정책의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생애학습역량 관련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강화해야 할 역량 범주의 하나로 생애학습역량을 제시하고, 생애학습역량 범주의 하위에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의 세 범주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이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 범주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 중 생애학습역량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생애학습역량 범주의 하위 범주인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의 세 범주에 재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생애학습역량 관련 정책들 중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나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범주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간의 청소년 정책의 목표가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향상 등에는 두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도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나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범주 모두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앞의 사고력 범주와 마찬가지로 그 간의 청소년 정책의 목표가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역량의 향상에는 두어지지 않아왔음을 나타낸다.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 부분에 교육부의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바른말 누리단' 운영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책, 여성가족부의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정책, 미래창조과학부의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범국민 정보윤리교육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우리말 사랑 동아리활동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 중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 부분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은 저소득, 장애, 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_장애청소년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교육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강화(통일부), 온라인, 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여성가족부) 들이다(여성가족부, 2015a).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 중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 부분에서 제시된 각 정책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바른말 누리단' 운영 정책을 실시하였다. 교육부의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바른말 누리단' 운영 정책은 일상화·저연령화 되고 있는 학생들의 불량언어(욕설 등) 사용을 바로잡고,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 및 더 나아가 건전한 청소년 언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현장 중심의 학생 언어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바른말 누리단' 운영, 훈화자료집 개발·보급,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언어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48).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책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소통상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상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담은 영상물을 발굴하고,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자료로 개발, 청소년 언어문화개선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청소년 언어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유학기제 대비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청소년이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소통상의 문제 상황을 담은 3분 정도의 청소년 소통 개선 3분 영화 공모전을 실시하고, 학교, 청소년 유관 기관에서 교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도

자료 및 청소년 언어 인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50).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정책은 청소년의 언어순화를 통한 건전한 언어생활 도모 및 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언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익광고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캠페인 추진, 인성 및 언어순화 저해 매체환경 대응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35).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범국민 정보윤리교육 정책을 실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범국민 정보윤리교육 정책은 인터넷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는 청소년 자율 실천 동아리를 지원하여 학교 현장의 건전한 정보윤리의식 확산 제고를 목적으로, 정보윤리학교(150개교) 내 ‘아름누리지킴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37;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우리말 사랑 동아리활동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우리말 사랑 동아리활동 지원 정책은 일상생활에서 비속어, 외래어, 어려운 전문용어 등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는 언어 현실에 대한 각성, 국어 운동을 하는 동아리 지원으로 쉬운 공공언어, 존경과 배려의 언어문화를 확산하여 언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의 우리말 사랑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42).

이러한 결과는 앞의 사고력 및 학습적응성 범주와는 달리 기존의 청소년정책들 중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들이 다수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온라인, 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정책 정도를 제외하면, 대다수 정책들의 목표가 청소년들의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역량의 향상에 있기 보다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V-2

생애학습역량 관련 정책들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중앙	중앙	중앙	
생애 학습 역량	사고력	-	-	-
	지적 도구 활용	-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_바른말 누리단'운영(교육부)	저소득, 장애, 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_장애청소년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교육부)
		-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_청소년 언어문화 개선(문화체육관광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강화(통일부)
		-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 추진(여성가족부)	온라인, 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여성가족부)
		-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범국민정보윤리교육(미 래창조과학부)	-
		-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우리말 사랑 동아리 활동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학습 적응성	-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a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이 부분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생애학습역량의 경우,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은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범주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들의 정책적 지향과는 크게 관련

되지 않은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2차년도 연구결과인 2015년도 보고서의 정책제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향후의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범주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등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들을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정책적 목적이 비슷한 정책들을 여러 부서에서 작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정책의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비슷한 작은 정책들을 분산해서 시행하기 보다는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의 2015년도부터의 청소년 역량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의 경우에는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난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따라서 생애학습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생애학습역량 하위 범주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의 순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생활관리역량 관련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강화해야 할 역량 범주의 하나로 생활관리역량을 제시한 후,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하위범주로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의 네 가지 하위범주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상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이 이 연구의 생활관리역량 범주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 중 생활관리역량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뽑아서 생활관리역량 범주의 하위 범주인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의 네 가지 하위범주에 재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생활관리역량 관련 정책들 중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나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범주 모두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간의 청소년 정책의 목표가 청소년들의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향상 등에는 두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또한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도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나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범주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그 간의 청소년 정책의 목표가 청소년들의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역량의 향상에는 두어지지 않아왔음을 나타낸다.

반면, 생활관리역량 중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범주에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는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범주에는 많은 정책들이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범주 중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 부분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은 청소년 체력강화_‘청소년 건강 표준모델’개발 및 보급(여성가족부),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_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체계 구축(여성가족부), 청소년 체력강화(교육부), 청소년 체력강화_청소년 체력 증진 기반조성, 스포츠활동 여건 개선(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체력강화_초등,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체력강화_‘토요 스포츠데이’토요 스포츠강사 배치 운영 확대(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_심야학원 교습시간 제한지도감독 등 관리강화(교육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조성(농림축산식품부),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_청소년의 비만예방(보건복지부),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_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내실화(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_아동, 청소년 영양식생활 교육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_영양표시 확대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6(식품의약품안전처), CYS-Net을 통한 건강지원 체계 구축(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 건강지원 체계 구축(여성가족부),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건강지원 강화(교육부),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_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보건복지부),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_국립정신병원 중심 정신건강 병원학교 운영 확대(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_학생 정신건강 관리(교육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_(보건복지부), 정서적, 행동적 장애청소년 치료재활서비스 지원(여성가족부),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여성가족부),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_학교에서의 청소년기 자녀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교육부),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법무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여성가족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교육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보건복지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국민안전처),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국민안전처), 아동,청소년 등하굣길 안전 강화(경찰청)들이다(여성가족부, 2015a).

또한, 생활관리역량 중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범주 역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는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범주에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범주 중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주 부분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여성가족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미래창조과학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부), 청소년 인터넷 게임과 몰입 예방 및 해소_건전 게임문화 조성(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및 해소(보건복지부),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교육 강화(여성가족부),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교육 강화(미래창조과학부),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교육 강화(교육부),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교육 강화_청소년 미디어 교육 강화(문화체육관광부) 들이다(여성가족부, 2015a).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생활관리역량과 관련된 청소년역량 관련 정책들이 생활관리역량 중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나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보다는 건강관리(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나 상황대처(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관련 정책들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표 V-3

생활관리역량 관련 정책들 (해당항목 없는 경우 - 로 표기)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중앙	중앙	중앙	
생활 관리 역량	건강 관리	-	-	-	청소년 체력강화_‘청소년 건강 표준모델’개발 및 보급(여성가족부)
		-	-	-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_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체계 구축(여성가족부)
		-	-	-	청소년 체력강화(교육부)
		-	-	-	청소년 체력강화_청소년 체력 증진 기반조성, 스포츠활동 여건 개선(문화체육관광부)
		-	-	-	청소년 체력강화_초등,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	-	청소년 체력강화_‘토요 스포츠데이’토요 스포츠강사 배치 운영 확대(문화체육관광부)
		-	-	-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_심야학원 교습시간 제한지도감독 등 관리 강화(교육부)
		-	-	-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조성(농림축산식품부)
		-	-	-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_청소년의 비만예방(보건복지부)
		-	-	-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_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내실화(식품의약품안전처)
		-	-	-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_아동, 청소년 영양식생활 교육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
		-	-	-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_영양표시 확대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6(식품의약품안전처)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중앙	중앙	중앙	
생활 관리 역량	건강 관리	-	-	-	CYS-Net을 통한 건강지원 체계 구축(여성가족부)
		-	-	-	학교밖 청소년 건강지원 체계 구축(여성가족부)
		-	-	-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건강지원 강화(교육부)
		-	-	-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_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보건복지부)
		-	-	-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_국립정신병원 중심 정신건강 병원학교 운영 확대(보건복지부)
		-	-	-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_학생 정신건강 관리(교육부)
		-	-	-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 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_(보건복지부)
		-	-	-	정서적, 행동적 장애청소년 치료재활서비스 지원(여성가족부)
		-	-	-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여성가족부)
		-	-	-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_학교에서의 청소년기 자녀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교육부)
		-	-	-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법무부)
		-	-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여성가족부)
		-	-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교육부)
		-	-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보건복지부)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중앙	중앙	중앙	
생활 관리 역량	건강 관리	-	-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국민안전처)
		-	-	-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국민안전처)
		-	-	-	아동,청소년 등하굣길 안전 강화(경찰청)
	과제 관리	-	-	-	
	상황 대처	-	-	-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여성 가족부)
		-	-	-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미래창조 과학부)
		-	-	-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교 육부)
		-	-	-	청소년 인터넷 게임과 몰입 예방 및 해소 _건전 게임문화 조성(문화체육관광부)
		-	-	-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및 해소(보건복 지부)
		-	-	-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여성가족부)
		-	-	-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미래창조과학부)
		-	-	-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교육부)
		-	-	-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_청소년 미디어 교육 강화(문화 체육관광부)
	정서 조절	-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a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이 부분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생애학습역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 정책인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상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은 생활관리역량의 하위범주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중 건강관리, 상황대처에는 일부 관련이 있으나 과제관리, 정서조절 역량과는 관련되지 않은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2015년도 보고서에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향후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과제관리, 정서조절 역량과 관련된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역시 앞에서 살펴본 생애학습역량의 경우처럼, 관련이 있는 건강관리, 상황대처 하위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들도 여러 부서에서 정책적 목적이 비슷한 정책들을 작게 시행하고 있어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작은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 큰 정책으로 만들어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의 2015년도부터의 청소년 역량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의 경우에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기존의 정책이 건강관리, 상황대처와 관련되어 시행되고 있고, 과제관리와 정서조절 관련 정책들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생활관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향후의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과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역량 부분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진로개발역량 관련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강화해야 할 또 다른 역량 범주의 하나로 진로개발역량을 제시한 후,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하위범주로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의 세 가지 하위범주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상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이 이 연구의 진로개발역량 범주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 중 진로개발역량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추출해서 진로개발역량 범주의 하위범주인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의 세 하위범주에 재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진로개발역량 관련 정책들 중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나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범주 모두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간의 청소년 정책의 목표가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향상 등에는 두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은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범주에서 많은 정책들이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개발역량 관련 정책 중 진로설계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으로는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및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고용노동부),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2(법무부),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_진로직업체험 활성화(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고용노동부),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여성가족부),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교육부),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여성가족부),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개인맞춤형 진로설계 지원(교육부),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법무부),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고용노동부), 청소년 창업, 취업 지원(여성가족부), 청소년 창업, 취업 지원(교육부), 청소년 창업, 취업 지원(고용노동부), 청소년 창업, 취업 지원_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중소기업청), 청소년 진로, 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청소년 진로, 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_휴먼네트워크(여성가족부), 청소년 진로, 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고용노동부),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전형 여건 강화_진로교육 콘텐츠 개발(교육부),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전형 여건 강화(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를 통한 직업체험 강화(고용노동부), 청소년 비즈쿨(중소기업청)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는 아니지만 기타 범주에 진로설계관련 청소년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 부분에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진로개발역량 관련 정책 중 여가활용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대 정책,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역량 강화 정책, 교육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정보 제공 정책,

환경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정책, 외교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외교사료관 프로그램 운영 정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농교류협력사업-청소년 농어촌 체험 사업 정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운영 정책,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임베디드SW경진대회(주니어분야) 정책,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 정책,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로봇창의교육사업 정책,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정책, 해양수산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어촌 교류촉진 정책, 국가보훈처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 문화재청의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청소년 무형유산 체험교육 정책,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창의체험학교 운영 정책, 문화재청의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정책, 문화재청의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정책, 문화재청의 어린이 자연유산 체험학습 프로그램 정책, 문화재청의 청소년 대상 왕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 문화재청의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어린이 대상 해양문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 문화재청의 현충사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프로그램 정책, 농촌진흥청의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4H회원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정책, 산림청의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청소년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정책, 특허청의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의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청소년 대상 국악공연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토요문화학교 운영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범주 중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부분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들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대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대 정책은 지역 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권역별로 해양환경, 농업생명, 생태체험 등 특성화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하고, 방과후와 주말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이 좋은 중·소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77; 여성가족부, 2015b).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역량 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역량 강화 정책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안전점검·종합평가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활동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수련시설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용률을 제고하고, 주5일 수업제, 자유학기제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특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79; 여성가족부, 2015b)

교육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교육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정책은 학교-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창의교육(학습체험) 콘텐츠 제공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 체험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창의적 체험자원지도(CRM) 제공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망(창의인성교육넷)을 활성화하고, 창의·인성 한마당을 개최하여 학교-지역사회, 민-관 협력을 통해 꿈·끼를 발산 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기업, 대학, 지자체, 청소년시설 등) 물적자원과 다방면의 전문가를 활용한 인적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84).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정책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 학교가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초·중·고교 학생의 방학기간 등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81; 여성가족부, 2015b).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체험활

동 프로그램 정보 제공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정보 제공 정책은 전국의 청소년활동정보를 한곳에서 취합 제공하여 국민이 활동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직접 실시 정보를 등재할 수 있도록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청소년활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83; 여성가족부, 2015b).

환경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환경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정책은 자연과 생명, 인간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청소년의 친환경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배양하여 미래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사회 환경교육 연계 및 청소년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 환경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친환경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28; 환경부, 2015).

외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외교사료관 프로그램 운영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교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외교사료관 프로그램 운영 정책은 외교부의 외교사료관을 직접 견학 방문함으로써 국민들의 외교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올바른 외교역사관으로 국제화 시대 흐름에 맞추어 진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평일에 외교사료관 견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토요일에 어린이/청소년 외교관학교, 외교관과의 대화, 특별강연, 도슨트에게 배우는 한국외교사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88).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도농교류협력사업-청소년 농어촌 체험 사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농교류협력사업-청소년 농어촌 체험 사업 정책은 도시민·청소년들에게 농어촌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농식품의 미래소비자인 청소년들의 농촌체험을 지원하여 농어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민과 청소년들의 농어촌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체험참가자에게 체험비, 숙식비, 교통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10).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운영 정책을 실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운영 정책은 청소년들의 범죄, 자살, 따돌림 등의 사회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운영을 통해 농어촌에 구축된 현장체험 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함양 및 인성교육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식품부와 교육부가 농어촌인성학교 공동으로 지정하고, 농어촌 체험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설물을 지원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1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임베디드SW경진대회(주니어분야) 정책을 실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임베디드SW경진대회(주니어분야) 정책은 산업계 및 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하드웨어(HW)와 결합된 임베디드SW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의 관심과 이해를 증대시켜 컴퓨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SW로 구현되고 구현된 SW가 하드웨어를 어떻게 동작시키는지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IT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초·중·고등학생의 임베디드SW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미래 SW 강국의 중심이 될 임베디드SW 개발자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베디드SW경진대회 주니어분야 참가 홍보, 예선을 거쳐 초·중·고등학교(총 130개팀)의 본선진출팀 선발, 본선진출팀에 개발장비의 지급 및 기술지원 세미나(1차), 기술지원 교육(2차/3차)을 통한 개발능력 향상, 결선(미션/기록경기)을 통한 수상팀 선정 및 시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16).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 정책은 청소년 대상의 기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청소년들의 산업기술 친화적 마인드 확산 및 청소년 창의기술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권역별 공과대학 중심의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고취 및 발상전환이 가능한 융합적 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기술인재센터를 통한 중·고생 대상의 기술아카데미 개발·운영, 권역별 공과대학 교수 및 연구원과의 멘토링 시스템 운영, 연구 프로젝트 참여 및 연구실 투어 기회 제공, 이공계 진로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학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중·고등학생의 창의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권역 내 대학 연구실과 연계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개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19; 산업통상자원부, 2015).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로봇창의교육사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로봇창의교육사업 정책은 사회적 배려계층 등 다양한 수혜대상에게 로봇을 활용한 창의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용 로봇 시장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 배려계층(복지시설)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1인 1대 방문교육 및 창의대회 실시, 시·군지역(농어촌 중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 로봇을 활용한 체험·창의교육 실시 등 로봇문화 확산 및 복지실현을 위한 로봇을 활용한 창의교육으로 로봇창의인재양성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2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정책을 실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정책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디자인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차세대 디자인 스타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공모전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25; 산업통상자원부, 2015).

해양수산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어촌 교류촉진 정책을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어촌 교류촉진 정책은 청소년에게 해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취적인 해양정신의 함양을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교 1촌 자매결연을 통해 미래의 성장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어촌과 수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중·고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양관련 시설 견학, 카누·요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등학교와 어촌계간 1교 1촌 자매결연 교류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31).

국가보훈처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보훈처의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라사랑 연수교육, 청소년 보훈캠프,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나라사랑 봉사 프로그램(앞섬이)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33).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 신규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청소년 무형유산 체험교육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재청의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청소년

무형유산 체험교육 정책은 무형유산에 대한 창의적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무형유산 현장체험학습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체험학습하는 것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미있게 배우는 무형유산 창의체험교실로 기·예능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는 복합체험교육프로그램인 교과연계 현장학습 무형유산 청소년캠프 ‘3里 3色’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36).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창의체험학교 운영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창의체험학교 운영 정책은 민·관협력체계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대상의 문화유산 방문교육, 창의체험학교 등 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청소년 위주 교육을 확대하여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문교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 문화유산교육(이론, 현장답사 등)을 실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문화유산교육을 접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38).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재청의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정책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문화재지킴이 운동’의 조직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소년 문화재 애호활동’의 저변을 확산하고, 청소년들이 장차 ‘문화재 보호의 주인공’으로 성장하여 ‘문화적으로 성숙된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고 즐기는 활동인 ‘문화재지킴이 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대상 문화재 보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인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단체 및 지도교사를 위촉하여 관리하고,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및 지도교사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40).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재청의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정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애착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후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주체가 될 청소년들에게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궁궐 및 궁궐 문화유산의 전반적 이해를 위한 현장학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42).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어린이 자연유산 체험학습 프로그램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재청의 어린이 자연유산 체험학습 프로그램 정책은 자연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취학 아동(6 ~ 7세) 및 초등학생(1 ~ 6학년)을 대상으로 자연유산(동물 · 식물 · 화석 등)에 대한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식물 식물 표본 및 자연유산 연구관련 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생생한 자연유산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44).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왕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재청의 청소년 대상 왕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은 학교 교육과 박물관과 궁·능 등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론과 현장 학습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즐거움과 함께 학습효과를 동시에 실현하고, 왕실 문화의 가치와 잠재적 · 경쟁력 있는 왕실문화 콘텐츠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왕실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급단체를 대상으로 경복궁 등 궁·능과 연계한 왕실문화 현장체험 확대 및 인문학 특강을 개설하고, 주말·방학기간에 고품질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가족대상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46).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어린이 대상 해양문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재청의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어린이 대상 해양문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은 청소년들에게 전시와 체험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해양문화재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박물관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외지역, 산간·도서벽지 청소년들에 해양문화유산 향유권을 확대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양문화유산과 연관된 다양한 전시 ·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 ·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해양문화유산의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48).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현충사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프로그램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재청의 현충사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프로그램 정책은 관람객의 다수를 차지하는 유 · 초등학생층에 대하여 단순한 사당 참배 및 관람 행태를 벗어나 충무공과 현충사에 대한 활동지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린이 · 청소년 교육-어린이 충무공학교,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현충사 자연캠ป์, 충무공 휘호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51).

농촌진흥청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4H회원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농촌진흥청의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4H회원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정책은 청소년의 창의적인

사고와 농심함양을 위해 4H이념의 생활화 및 활동을 지원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제활동 및 문화체험 등을 통해 4H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각급 단위 4H후원단체 지원 및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53).

산림청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청소년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의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청소년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정책은 숲을 통해 오감을 키우고 숲과 동화되어 정서함양, 자존감, 창의성을 향상하는 등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의 산림휴양공간에 배치하여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등 청소년 대상 부처간 협업 사업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림교육을 위한 산림교육센터 조성·지정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실시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 ‘산림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청소년 단체인 ‘숲사랑소년단’을 육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57).

특허청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발명교육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허청의 학교-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발명교육 활성화 정책은 초·중·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내는 발명·창의 교육을 통해 창조경제시대를 주도해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명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발명영재교육 강화 및 특성화고발명·특허 교육 확산, 우수 발명인재 발굴을 위한 발명·창의력 대회 운영, 발명교육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60).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정책은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여 그 곳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Net Working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상설 청소년 문화·예술·놀이체험의 장을 운영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및 지역문화기반 시설과 연계한 방과 후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정서함양 및 잠재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67).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정책은 청소년이 자신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활성화 추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동아리활동’ 등 자기 주도적 체험활동 참여 기회 및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활성화 추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및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의 청소년 참여 확산, 문화, 예술, 봉사, 과학, 스포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스스로 동아리를 조직·운영토록 지원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84; 여성가족부, 2015b).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정책은 우리 전통문화의 유산이 담긴 고택·종택 등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통한옥 내부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90).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책은 공교육 현장의 정책(자유학기제)과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미술관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중등학생 개인 및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미술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전시이해도 증진을 위한 현장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전시와 작품에 대한 이해와 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미술관 교육의 참여 기회를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 현대미술감상을 통해 학년 단위 단체를 대상으로 미술관 소장품 및 상설·기획전 연계 작품 해설 중심의 감상교육을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관 직업탐방 교육을 통해 학급 혹은 동아리 단위 단체를 대상으로 미술관의 다양한 활동 소개 및 직업 현장 탐방 기회 제공을 통해 진로 개척 능력을 함양하고, 청소년 아트클럽을 통해 개별 신청자 중 선발 인원을 대상으로 현대예술 작가와 전공이 다양한 대학생 멘토를 통해 현대예술의 다양한 해석에 대한 이해와 예술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9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청소년 대상 국악공연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청소년 대상 국악공연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정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국악공연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 체험형 국악공연 및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전통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96).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 정책은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박물관 전시유물을 스스로 관찰·해석하는 방법을 체험함으로써 박물관의 특화된 교육 효과를 증대하고, 소장유물을 기반으로 하는 박물관 가족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세대간의 이해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희망계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00).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토요문화학교 운영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토요문화학교 운영 정책은 주5일제 수업 전면 자율실시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토요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소외·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향유 및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계층·지역간 문화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외·취약지역 소재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 초·중·고교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 사업 실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70; 문화체육관광부, 2015a).

표 V-4

진로개발역량 관련 정책들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진로 개발 역량	진로 설계	-	-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및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고용노동부)
		-	-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2(법무부)
		-	-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여성가족부)
		-	-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_ 진로직업체험 활성화(여성가족부)
		-	-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고용노동부)
		-	-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여성가족부)
		-	-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교육부)
		-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여성가족부)
		-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_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교육부)
		-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법무부)
		-	-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고용노동부)
		-	-	청소년 창업, 취업 지원(여성가족부)
		-	-	청소년 창업, 취업 지원(교육부)
		-	-	청소년 창업, 취업 지원(고용노동부)
		-	-	청소년 창업, 취업 지원_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중소기업청)
		-	-	청소년 진로, 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	-	청소년 진로, 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_휴먼네트워크(여성가족부)
		-	-	청소년 진로, 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고용노동부)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진로 개발 역량	진로 설계	-	-	-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전형 여건 강화_진로교육 콘텐츠 개발(교육부)
		-	-	-	네트워크 기반 직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전형 여건 강화(고용노동부)
		-	-	-	한국잡월드를 통한 직업체험 강화 (고용노동부)
		-	-	-	청소년 비즈쿨(중소기업청)
	여가 활용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 확대 (여성가족부)	-	-	-
		청소년수련시설 역량강화(여성가족부)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교육부)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체험활동 프로그램 정보제공(여성가족부)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여성가족부)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환경부)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외교사료관 프로그램 운영(외교부)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도농교류협력사업- 청소년 농어촌 체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	-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진로 개발 역량	여가 활용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운영(농림축산식품부)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임베디드SW경진 대회-주니어분야 (산업통상자원부)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 창의기술 인재센터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로봇창의 교육사업(산업통상자원부)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한국청소년디자인 전람회(산업통상자원부)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어촌교류촉진(해양수산부)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국가보훈처)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 무형유산 체험교육(문화재청)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문화유산 방문교육 및 창의체험학교 운영(문화재청)	-	-	-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중앙	중앙	중앙	
진로 개발 역량	여가 활용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단(문화재청)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고궁청소년 문화학교(문화재청)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어린이 자연유산 체험학습 프로그램(문화재청)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 대상 왕실 문화 프로그램 운영(문화재청)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어린이 대상 해양 문화 프로그램 운영(문화재청)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현충사 어린이-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문화재청)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4-H회원 농촌 체험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농촌진흥청)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청소년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산림청)	-	-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_발명교육 활성화(특허청)	-	-	-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중앙	중앙	중앙	중앙
진로 개발 역량	여가 활용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_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여성가족부)	-	-	-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여성가족부)	-	-	-
	각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_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	-
	각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_국립 현대미술관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문화체육관광부)	-	-	-
	각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_청소년 대상 국악공연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문화체육관광부)	-	-	-
	각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_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	-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_ 토요문화학교 운영(문화체육관광부)	-	-	-
	저소득, 장애, 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_문화이용권 사업(문화체육관광부)	-	-	-
	저소득, 장애, 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_스포츠강좌 이용권(문화체육관광부)	-	-	-
개척 정신		-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a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이 부분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은 이 연구의 진로개발역량의 하위범주인 진로설계, 여가활용 범주 부분에 관련된 정책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개척정신 범주의 경우에는 관계가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과 마찬가지로 진로개발역량도 성격이 비슷한 정책들을 여러 부서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다. 역시 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모아서 큰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이 연구의 2015년도부터의 청소년 역량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진로개발역량의 경우에는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난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근희, 2015). 따라서 진로개발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범주) 역량 부분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대인관계역량 관련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강화해야 할 또 다른 역량 범주의 하나로 대인관계역량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하위범주로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집단추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의 세 가지 하위범주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상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이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인관계역량 범주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 중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뽑아서 대인관계역량 범주의 하위범주인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집단추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의 세 하위범주에 재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인관계역량 관련 정책들 중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과 협동(집단추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나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범주 모두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간의 청소년 정책의 목표가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과 협동(집단추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등에는 크게 두어지지 않았음

을 나타낸다.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관련 정책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역량강화 범주에 몇 가지 정책이 제시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인관계역량 중 청소년의 역량강화 범주에 제시되어 있는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관련 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의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함양-청소년 다문화감수성 함양 정책, 여성가족부의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함양-다문화 수용성 조사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함양-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무지개 다리 사업 정책, 여성가족부의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교원 성인지인권 통합교육 정책, 교육부의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학부모교육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방송언어 청소년 보호관련 활동 강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정책, 교육부의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의 역량강화 범주에 제시되어 있는 각 정책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함양-청소년 다문화감수성 함양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함양-청소년 다문화감수성 함양 정책은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주배경청소년 및 일반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88).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함양-다문화 수용성 조사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함양-다문화 수용성 조사 정책은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에 비추어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등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회 구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다문화 정책수립 및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통해 일반국민(청소년 포함)의 다문화수용성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과의 접촉경험, 다문화교육경험, 다문화수용성 변화추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90).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함양-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무지개 다리 사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함양-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무지개 다리 사업 정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92).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교원 성인지인권 통합교육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교원 성인지인권 통합교육 정책은 성평등 관점에서 남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들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초·중·고 교원 대상 양성평등 교수 능력 함양 교육 실시, 교원의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원격연수 운영 및 관련 콘텐츠 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32).

교육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학부모교육 정책을 실시하였다. 교육부의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학부모교육 정책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감, 소통, 감성 등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자녀의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등 기본 인성 함양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직장, 농산어촌 등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일과 후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직장인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39; 교육부, 2016a; 교육부, 2016b).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방송언어 청소년 보호관련 활동 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방송언어 청소년 보호관련 활동 강화 정책은 저품격 방송언어에 대한 사후심의, 제재와 함께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품격 언어 등 청소년 정서함양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심의, 제재, 청소년 언어 개선 특집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 환경 조성, 방송사 자체심의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유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45).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정책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또래상담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또래상담 운영학교에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60).

교육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교육부의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정책은 영향력이 큰 또래집단의 상호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자율과 책임 중심의 또래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래조정, 또래상담 등의 또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62).

표 V-5 대인관계역량 관련 정책들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 -기타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중앙	중앙	중앙	
대인 관계 역량	관계 형성	-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_청소년 다문화감수성 함양(여성가족부)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양성평등 인식 제고(여성가족부)	-
		-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_다문화수용성 조사(여성가족부)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학부모교육(교육부)	-
		-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_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무지개 다리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_방송언어,청소년 보호 관련 활동 강화(방송통신위원회)	-
		-	-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_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사업(여성가족부)	-
		-	-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교육부)	-
	리더십	-	-	-	-
	협동	-	-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a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이 부분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은 대인관계 역량의 하위범주인 리더십, 협동, 관계형성과 관련된 정책들을 이 연구의 다른 범주의 역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이 연구의 2015년도부터의 청소년 역량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관계역량의 경우에는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나타난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따라서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하위범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협동(집단추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역량의 순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6) 사회참여역량 관련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강화해야 할 또 다른 역량 범주의 하나로 사회참여역량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범주의 하위범주로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이해)의 세 가지 하위범주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상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이 이 연구의 사회참여역량 범주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 중 사회참여역량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추출해서 사회참여역량 범주의 하위범주인 개인시민성(권리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세계시민성(성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의식, 국제관계이해)의 세 하위범주에 재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회참여관련 정책 중 개인시민성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희망카드(Youth Opportunity Card) 도입 정책, 교육부의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정책, 법제처의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여성가족부, 2015a).

사회참여관련 정책 중 개인시민성은 또한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범주에서도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다. 청소년의 정책결정과 정 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여성가족부),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_청소년희망센터 운영(여성가족부),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여성가족부),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교육부),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_아동인권 증진 지원(보건복지부),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_아동인권 증진 지원(보건복지부), 미디어콘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권리보호 강화(여성가족부) 등이 그것이다(여성가족부, 2015a).

개인시민성 중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서 시행 중인 각 정책의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희망카드(Youth Opportunity Card) 도입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희망카드(Youth Opportunity Card) 도입 정책은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혜택을 제공함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종 할인제 및 청소년증을 통합한 '청소년희망카드(가칭)'를 도입하여 봉사활동, 지역사회참여, 사회기부 등 긍정적인 사회기여 활동 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65).

교육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교육부의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정책은 입시 위주의 교육, 가정 내 과잉보호 등에 따른 청소년의 개인주의 경향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회 등 또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교육정책을 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정책개선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56).

법제처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정책을 실시하였다. 법제처의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정책은 중학생 스스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준법정신 및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서로 배려·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본적인 법 상식 및 입법기본교육,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를 통해 학교규칙 제·개정 작업에 참여, 법 관련

기관 탐방, 법령해석 논술대회, 준법 우수사례 발표회 등 입법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58).

사회참여관련 정책 중 공동체시민성은 개인시민성만큼은 아니지만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교육부의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행정자치부의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사회참여관련 정책 중 공동체시민성은 또한 기타(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범주에서도 몇 가지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다.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법무부),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국방부) 등이 그것이다(여성가족부, 2015a).

공동체시민성 중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서 시행 중인 각 정책의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청소년 개인의 자기개발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성취감과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의 학생봉사활동 등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또래멘토와 취약청소년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 가족단위 자원봉사 등 특화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확대 운영, 정기·장기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검색기능 강화, 온라인 교육 등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73; 여성가족부, 2015b).

교육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교육부의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은 학생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위주의 인성 교육 강화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의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기부 활성화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주도 봉사활동 길잡이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봉사활동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수업지도안 개발 및 모델 적용, 교육기부자와 수요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76).

행정자치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행정자치부의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은 각 지역 단위 자원봉사활동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센터 업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나눔포털(1365

자원봉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센터별로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나눔포털 운영,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 수요처 파악, 활동실적 증빙 제출 등 청소년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자원봉사활동 실적을 VMS(복지부), Dovol(여가부)과 연계하고 NEIS(교육부)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79; 행정자치부, 2015).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은 민간주도의 나눔문화 활성화 및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눔환경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나눔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민사회 단체·사회복지단체 관련기관 종사자, 초·중·고 교사, 기업사회공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나눔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나눔교육 강사와 나눔교육 강사풀을 가지고 있는 각 기관(초, 중, 고 등)과의 포괄적 협조체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나눔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기부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나눔인재 양성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81; 보건복지부, 2015a; 보건복지부 2015b).

사회참여관련 정책 중 세계시민성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정책, 여성가족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정책, 외교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대학생을 위한 외교부 워크숍 정책, 외교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정책, 외교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재외동포청소년교류사업 정책, 외교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주요 국제문제 특강 정책, 외교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학교 방문 강연 정책, 외교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한중 청년교류사업 정책, 외교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한일 대학생 교류사업 정책,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정책, 외교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국제개발협력 특강 및 동아리 교육 정책, 외교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글짓기 및 논문 공모전 정책, 외교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지구촌 체험관 정책, 통일부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 증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세계시민성 중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범주에서 시행 중인 각 정책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정책은 이주배경 우수 청소년의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국제적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이주배경 청소년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친선대사, 통역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94).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정책은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지원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와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재외동포 청소년의 모국방문과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체험 프로그램 강화, 국제기구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한인단체 네트워크 구축, 아동·청소년 업무지원 협약, 해외 한인 아동·청소년과 한국 아동·청소년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96).

외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대학생을 위한 외교부 워크숍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교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대학생을 위한 외교부 워크숍 정책은 우리 대학생들의 국제적 감각 배양을 통한 국가의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국 4년제 대학교 2~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1주일간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실습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한국의 외교정책, 주요 지역 및 국제이슈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해 대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198).

외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교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정책은 대국민 직접 접촉을 통한 소통 강화 및 외교부 업무와 외교관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외교업무 체험담 청취 등을 통해 간접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교 일반 및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소개 강연, 전체 참가자를 몇 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 담당 외교관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외교관과의 대화(다과회), 외교부 브리핑 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기념패 등 청사 시찰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00).

외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재외동포청소년교류사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교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재외동포청소년교류사업 정책은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이 모국의 사회, 문화,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한민족 정체성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내외 청소년·대학생 간 유대감 증진을 통해 글로벌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유도하고, 국내 청소년들의 재외동포사회 체험 및 봉사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초청연수, 국내 청소년 해외연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02).

외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주요 국제문제 특강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교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주요 국제문제 특강 정책은 대학생들의 주요 외교현안 및 외교부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국제관계 전공학생의 외교 전문지식 강화, 대내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지향을 목적으로, 주요 외교현안, 지역정세, 세계화, 외국문화 및 국제예절, 국제기구 진출, 경제통상 이슈 등을 주제로, 국립외교원 명예교수(퇴직공관장 12명)가 신청 대학을 방문하여 강의를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05).

외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학교 방문 강연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교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학교 방문 강연 정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교정책, 외교부 소개, 외교관과의 대화 시간 제공 등을 통해 외교 업무 및 외교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외교부 견학 및 외교관과의 만남이 어려운 지방학생에게도 퍼블릭 아웃리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중 수시로 전 대사 또는 지자체 자문대사, 본부 직원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07).

외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한중 청년교류 사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교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한중 청년교류 사업 정책은 한중 양국 청년들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상호 우의 증진, 한중 청년교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중국 청년대표단 방한초청사업, 한국 청년대표단 중국파견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09).

외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한일 대학생 교류사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교부의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한일 대학생 교류사업 정책은 한일 양국 대학생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상호 우의 증진, 한일 대학생 교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일본 대학생 대표단 방한초청사업, 한국 대학생 대표단 방일파견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09).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정책은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지원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 교류국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청소년참가자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다수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보편적 국제교류사업 추진, 연령별, 수준별,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교류센터’ 조직 및 기능 확대로 국제교류의 종합적 기능 수행, 청소년 국제교류 사후관리 강화 및 성과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소년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15; 여성가족부, 2015b).

외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국제개발협력 특강 및 동아리 교육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교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국제개발협력 특강 및 동아리 교육 정책은 청소년들의 개발 문제에 대한 인지를 강화시키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미래에 국제사회 진출 및 ODA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소양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초중고 요청에 따른 일회성 특강 지원 및 초중고 개발 관련 동아리 20개 대상 6차시로 구성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시, KOICA 임직원, WFK 귀국봉사단원을 대상으로 적격강사 선발, 특강 강사 대상 강사양성교육 실시, 개발 NGO와의 공동교육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17).

외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글짓기 및 논문 공모전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교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글짓기 및 논문 공모전 정책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에세이 및 논문 공모를 통해 한국 무상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시민의 역할 및 대외원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코이카 글짓기 및 논문 공모전 실시, 수상자 해외무상협력사업 현장 견학 실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20).

외교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지구촌 체험관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교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지구촌 체험관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는 경험 바탕의 전시관으로서 일반국민들(어린이, 청소년 포함)의 ODA 이해증진 및 글로벌 시민 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 전시를 통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개발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국가(또는 인접한 다수의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다양한 모습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전시 연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식문화 체험교육,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글로벌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구촌체험관 청소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네트워크(청소년 블로그단, 청소년 도슨트)를 통한 SNS·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22).

통일부에서는 2015년 연속사업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 증진 정책을 실시하였다. 통일부의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 증진 정책은 미래 통일주역인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제도화·활성화하여 상호간 이해증진 및 동질성회복에 기여하고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목적으로, 통일부 및 남북청소년교류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한 남북 청소년교류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역사·체육·문화예술·학술·방송 등 청소년의 관심사를 고려한 계기별 청소년교류를 추진하고, 청소년 통일 캠프 시범 추진(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 남북 청소년교류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227; 통일부, 2015).

표 V-6 사회참여역량 관련 정책들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중앙	중앙	중앙	
사회 참여 역량	개인 시민성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여성가족부)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_또래활동 (교육부)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여성가족부)
		-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_어린이 청소년법제관(법제처)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여성가족부)
		-	-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여성가족부)
		-	-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_청소년희망센터 운영(여성가족부)
		-	-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여성가족부)
		-	-	-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교육부)
		-	-	-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_아동인권 증진 지원(보건복지부)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중앙	중앙	중앙	
사회 참여 역량	개인 시민성	-	-	-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_아동인권 증진 지원(보건복지부)
		-	-	-	미디어컨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권리보호 강화(여성가족부)
	공동체 시민성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 운영(여성가족부)	-	-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법무부)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연구회 운영 및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교육부)	-	-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국방부)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_ 자원봉사 활성화 (행정자치부)	-	-	-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보건복지부)	-	-	-
	세계 시민성	-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여성가족부)	-	-
		-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여성가족부)	-	-
		-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_ 대학생을 위한 외교부 워크숍 (외교부)	-	-
		-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_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외교부)	-	-

구분	제5차 기본계획-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제 5 차 기본계획-기타 (참여 및 권리증진, 복지 및 자립지원,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중양	중양	중양	중양
사회 참여 역량	세계 시민성	-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_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외교부)	-
		-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_ 주요 국제문제 특강(외교부)	-
		-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_ 학교 방문 강연 (외교부)	-
		-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_ 한·중 청년교류 사업(외교부)	-
		-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_한 일 대학생 교류사업 (외교부)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여성가족부)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양화_ 국제개발협력 특강 및 동아리 교육(외교부)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양화_ 글짓기 및 논문 공모전(외교부)	-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양화_ 지구촌 체험관 (외교부)	-
		-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 이해증진(통일부)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a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이 부분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은 이 연구의 다른 역량들에 비해 사회참여 역량의 하위범주인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정책들을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물론, 공동체시민성은 개인시민성과 세계시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다. 둘째, 이 연구의 2015년도부터의 청소년 역량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참여역량의 경우에는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난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세계시민성과 개인시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시민성 역량이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참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역량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 핵심인재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나(관계부처합동, 2012),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의 역량 범주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의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주와 같은 보다 세부적인 청소년 역량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정책적 목적이 비슷한 작은 정책들을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 정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작게 진행하고 있는 비슷한 정책들을 한 데 모아 보다 큰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을 지정해서 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집중해서 청소년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아울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생애학습역량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에서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범주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들과 관련 있는 정책

들을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또한 이 연구에서 2015년부터 실시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측정결과는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따라서 생애학습역량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생애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하위범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 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역량 범주의 순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생활관리역량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에서 생활관리역량의 하위범주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중 건강관리, 상황대처 관련 정책들은 시행하고 있으나, 과제관리, 정서조절 역량관련 정책들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또한 이 연구에서 2015년부터 실시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는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기존의 정책들이 건강관리, 상황대처 관련 정책들만 시행되고 있고 과제관리, 정서조절 관련 정책들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조사결과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생활관리역량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생활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과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역량 부분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진로개발역량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에서 진로개발역량의 하위범주인 진로설계, 여가활용 관련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개척정신 관련 정책들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여성가족부, 2015a). 또한 이 연구에서 2015년부터 실시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는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따라서 진로개발역량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향후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역량 부분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대인관계역량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에서 대인관계역량의 하위범주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관련된 정책들과 관련 있는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또한 이 연구에서 2015년부터 실시한

대인관계역량 측정결과는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따라서 대인관계역량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하위범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하위 범주 중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역량의 순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곱째, 사회참여역량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에서 사회참여역량의 하위범주인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정책들은 많이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공동체시민성은 개인시민성과 세계시민성에 상대적으로 정책이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2015년부터 실시한 사회참여역량 측정결과는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따라서 사회참여역량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역량 부분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들은 이 연구의 정책적 제언에 참고가 될 것이다.

2.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 정책사례

여기에서는 앞의 청소년 역량관련 양적조사 분석결과,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분석에 이어 정책적 제언에 직간접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을 살펴보는 데에는 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들 중 청소년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나라별로 나열해놓고 전체적인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는 방법과 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들 중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청소년 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 사례들을 뽑아서 부분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들 중 청소년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나라별로 나열해놓고 전체적인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는 첫 번째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일단 대부분의 나라에서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을 명시적으로 범주화해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라별 청소년 정책들 중에서 어느 범주까지가 청소년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책들인지를 객관적으로 특정짓고 열거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나라별 청소년 정책들 중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청소년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뽑고 분류해서 제시한다고 해도, 앞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청소년 정책들의 특성과 비슷하게, 대부분의 정책들이 청소년들의 세부적인 역량증진을 목표로 해서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정책들이기보다는, 다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정책들인데 결과적으로 청소년역량과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가지게 된 정책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연구의 정책적 제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들을 나라별로 나열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첫 번째 방법대신, 양이 많지는 않지만 이 연구의 정책적 제언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소년 역량증진을 목표로 해서 제시되고 청소년 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사례들을 뽑아서 부분적으로 살펴보는 두 번째 방법으로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호주,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등의 청소년정책관련 정부 인터넷 사이트, 청소년정책관련 국내외 연구보고서, 청소년정책관련 국내외 연구논문 등 청소년 정책관련 국내외 자료들을 검토하였고, 그 중에서 이 연구의 세부역량에 맞춰 정책적 시사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 역량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사례 몇 가지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1) 영국의 STEM 교육

우선 첫 번째 주요 외국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영국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이다(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 이근남,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

영국의 STEM 교육은 말 그대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과 수학을 두루 잘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합창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학적 해석을 수학능력을 바탕으로 기술로 발전시켜낼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이에 해당된다. 현대 기술사회에서는 어느 한 분야만 잘하는 인재보다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영역을 두루 잘하는 융합창의적

인재를 점점 더 필요로 하고 있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STEM 교육인 것이다(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 이근님,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

영국에서는 2008년부터 STEM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STEM 교육을 중등교육과정에 편입시켜 교육을 실시해왔다. STEM교육과정은 학습 프로그램 비교하기, 학습경험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과학과 지리의 범위에 걸쳐 탐구한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 활동 탐구와 교육과정의 범위 탐구과정을 거치는 등의 과정으로 수행된다(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 이근님,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의 교육과정평가원인 QCA(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STEM과목의 교육과정이 최신의 국제적 수준의 내용인지, 모든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영감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STEM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 이근님,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

영국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은 중등단계 청소년들에게 융합 교육을 통해 창조력을 향상시켜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이 분야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장래 영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 이근님,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

이러한 영국의 STEM교육 사례는 이 연구의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 역량 하위 분야의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과 같은 생애학습역량 부분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왔다. 그리고 이 연구의 2015년부터의 청소년 역량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가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중에서도 지적도구활용 역량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영국의 STEM교육 사례는 생애학습역량 부분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중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과 같은 부분의 역량발전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2) 영국의 ICT 교육

다음 주요 외국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영국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교육, 즉, 정보통신기술 교육이다(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이근님,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

영국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교육은 중등학교 청소년들에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가르쳐 청소년들이 학습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창의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문제해결과정과는 달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학습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문제해결과정보다는 훨씬 창의적이고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이근님,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

영국에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인 QCA(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에서 관련 자료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기(Developing ideas and making things happen),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기(Exchanging and sharing information), 검토, 수정 그리고 평가하기 (Reviewing, modifying and evaluating work as it progresses)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교육이 진행된다(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이근님,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

영국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교육은 책, DB, CD-ROM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며, 저장된 정보를 검색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분류하며, 찾은 정보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 등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이근님,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 이를 통해 현대 정보사회에 적합한 보다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교육 사례는 이 연구의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 분야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생애학습역량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 왔고, 생애학습역량 중에서도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청소년들의 역량이 나타난 만큼

영국의 ICT 교육사례는 생애학습역량 부분의 지적도구활용능력 중 정보통신활용능력과 같은 부분의 역량발전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3) 미국의 ASELA 정책

다음 주요 외국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미국의 ASELA(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ct) 즉,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법 정책이다(염철현, 2012;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 2016.08.15.).

미국에서는 초중등단계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가 저하되고, 비행, 일탈 등의 증가와 학교부적응 등의 행위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우울, 폭력, 자살, 충기사고 등이 증가하게 되자 청소년들의 인성을 학교 차원에서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2011년 미국 연방차원에서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능력함양을 위한 학습법인 ASELA(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ct) 정책을 시행하였다(염철현, 2012;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 2016.08.15.). 미국의 ASELA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감성적 기술을 가르쳐 청소년들의 낮은 학업성취도, 중도탈락, 비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염철현, 2012;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 2016.08.15.).

미국의 사회적, 감성적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은 미국의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학습을 위한 협력을 지칭하는 CASEL(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에서 만들었는데, 교장, 교사, 부모와 같은 주요 교육주체별로 SEL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역할을 담고 있다(염철현, 2012;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 2016.08.15.). 교장은 지역 학교 차원에서 SEL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책임자로서 청소년의 사회적, 감성적 발달을 위한 비전을 개발하고, SEL 계획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며, 교사와 실무자가 SEL 시행을 위한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교사는 SEL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며, 청소년이 교실에서 SEL 기술을 연습,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참여적 수업방식을 채택하며, 가정의 학부모와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 가정에서 SEL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정에서 부모는 학교의 SEL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하고, 자녀인 청소년의 SEL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SEL 관련 과제를 수행하고, 정서적 코치의 입장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염철현,

2012;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 2016.08.15.).

이러한 미국의 ASELA(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ct) 즉,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법 정책사례는 이 연구의 생활관리역량 중 정서조절 분야의 역량을 배양하는 데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정책에서 생활관리역량 중 주로 많은 관심을 쏟아 온 분야는 건강관리, 상황대처 분야이고, 과제관리 분야와 정서조절 분야에는 그리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2015년도부터의 청소년 역량 측정결과에도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생활관리역량 중 정서조절 역량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의 ASELA(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ct) 즉,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법 정책 사례는 생활관리역량 부분의 정서조절 부분의 역량발전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4) 뉴질랜드의 역량중심 교육정책

다음 주요 외국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사례로는 뉴질랜드의 역량중심 교육정책을 들 수 있다(소경희, 이상은, 이정희, 허효인, 2010; 임유나, 2016; NZ Ministry of Education, 2016.09.10.).

뉴질랜드는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학교가 기존의 전통적 교육체제에서 벗어나서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역량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키워야 되는 핵심역량으로, 사고하기(thinking), 언어·상징·텍스트 사용하기(using language·symbols·texts), 자기 관리하기(managing self), 대인관계(relating to others), 참여와 공헌(participation and contributing)의 다섯 가지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소경희, 이상은, 이정희, 허효인, 2010; 임유나, 2016; NZ Ministry of Education, 2016.09.10.).

사고하기(thinking)는 정보, 경험 등을 조직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하고, 언어·상징·텍스트 사용하기(using language·symbols·texts)는 언어, 상징, 텍스트를 통해 정보, 경험 등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 관리하기(managing self)는 자기 동기화를 통해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하며, 대인관계(relating to others)는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며, 참여와 공헌(participation and contributing)은 개인이 공동체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소경희, 이상은, 이정희, 허효인, 2010; 임유나, 2016; NZ Ministry of Education, 2016.09.10.).

사고하기(thinking)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고 창조하는 등의 기대를 갖고 있고, 언어·상징·텍스트 사용하기(using language·symbols·texts)는 정보를 전달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데 ICT기술을 활용하는 등의 기대를 갖고 있으며, 자기 관리하기(managing self)는 진취적이며, 개인적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관리해나가는 등의 기대를 갖고 있고, 대인관계(relating to others)는 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언제 경쟁과 협동이 적절한 지를 아는 등의 기대를 갖고 있으며, 참여와 공헌(participation and contributing)은 개인이 공동체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통해 소속감을 갖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중요함을 알게 되는 등의 기대를 갖고 있다(소경희, 이상은, 이정희, 허효인, 2010; 임유나, 2016; NZ Ministry of Education, 2016.09.10.).

이러한 뉴질랜드의 역량중심 교육정책은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의 여러 가지 하위범주의 역량발전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표 V-7 뉴질랜드 핵심역량의 의미 및 기대되는 특징

핵심역량	의미	기대되는 특징
사고하기 (thinking)	정보, 경험, 생각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며 메타인지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	- 지식을 적극적으로 찾고, 활용하고, 창조해 냄 - 자신의 학습을 반성하고, 개인적인 직관을 끌어오며, 질문을 하고, 기본적인 가정과 인식에 도전함
언어·상징·텍스트 사용하기 (using language·symbols·texts)	- 지식이 표현된 양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 - 언어와 상징은 정보, 경험,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한 체계이며, 이는 여러 종류의 텍스트(쓰여진 것, 말하는 것, 시각적인 것 등)를 만드는 데 사용됨	- 단어, 숫자, 이미지, 운동, 은유, 문맥에 맞는 테크놀로지를 해석해내고 사용함 - 자신감 있게 정보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ICT 기술을 사용함
자기 관리하기 (managing self)	자기 동기화(self-motivation)와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갖는 것	- 진취적이며, 지략이 풍부하고, 믿을 수 있음 - 개인적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관리해 나감
대인관계 (relating to others)	다양한 맥락에서 만나는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	- 새로운 학습과 다른 상황에서 다른 역할을 받아들이는데 열려 있음 - 언제 경쟁과 협동이 적절한지를 알고 있음
참여와 공헌 (participation and contributing)	- 개인이 공동체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 공동체는 가족, 학교, 지역, 그리고 공동의 관심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 모두를 포함함	- 소속감과 새로운 맥락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을 동시에 가짐 - 권리와 역할 그리고 책임감 간의 균형이 중요함을 알고 있음

출처 : 소경희, 이상은, 이정희, 허효인, 2010. pp. 34의 표를 인용한 것임.

5)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사례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영국의 STEM교육 사례(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 이근남,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는 이 연구의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분야인 지적도구활용 분야의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을 신장시키는 부분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한국의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애학습역량 부분, 그 중에서도 지적도구 활용분야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 왔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융합창조능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STEM교육의 사례는 언어, 수학, 과학 능력 등의 융합창조 역량 배양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둘째, 앞에서 살펴본 영국의 ICT교육 사례(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 이근남,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는 이 연구의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분야인 지적도구활용 분야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을 배양하는 부분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생애학습역량 중의 지적도구 활용분야에는 정책적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아 왔는데, 현대사회에서는 ICT활용능력에 대한 사회적 강조가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ICT 교육사례는 정보통신활용 역량 배양에 많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셋째,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ASELA 정책 사례(염철현, 2012;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 2016.08.15.)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활관리역량의 하위분야인 정서조절 역량을 배양하는 부분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생활관리역량 중 정서조절 역량 분야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 왔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역량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의 ASELA 정책 사례는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역량 배양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앞에서 살펴본 뉴질랜드의 역량중심 교육정책 사례(소경희, 이상은, 이정희, 허효인, 2010; 임유나, 2016; NZ Ministry of Education, 2016.09.10.)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의 여러 하위범주의 역량발전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뉴질랜드의 역량중심 교육정책은 사고하기(thinking), 언어·상징·텍스트 사용하기(using language·symbols·texts), 자기 관리하기(managing self), 대인관계(relating to others), 참여와 공헌(participation and contributing)의 다섯 가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소경희, 이상은, 이정희, 허효인, 2010; 임유나, 2016; NZ Ministry of Education, 2016.09.10.), 향후 한국 청소년의 역량증진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역량관련 주요 외국 정책사례들의 정책적 시사점들은 이 연구의 정책적 제언에 참고가 될 것이다.

제 VI 장

요약, 논의 및 정책제언

1. 연구요약
2. 정책적 제언

제 VI 장

요약, 논의 및 정책제언¹⁴⁾

1. 연구요약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CCS 2016’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의거하여 시작되었다(장근영 외, 2015). 2014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개발과 2016 ICCS 조사를 위한 문항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2015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개발된 측정문항으로 기반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2016년 ICCS 본 조사를 위한 문항개발 완료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3차년도 연구에서는 기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축소함으로써 측정에 대한 효율성과 측정결과에 대한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ICCS 2016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ICCS 2016 본 조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CCS 국제비교연구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팀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였다. ICCS 2016 본조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총괄운영하며 아울러 국내 청소년 역량지수를 측정하는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ICCS 2016 본조사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역량지수에서 사회참여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국내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역량지수 단축문항에 따른 문항들의 신뢰도와 구성체제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군 즉,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

14) 이 장의 요약은 성은모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효선 박사(서울대학교), 진성희 교수(인하대학교), 김균희 연구원(인하대학교)이 공동 집필하였고, 정책제언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의 측정결과에 따른 자료의 신뢰성과 자료의 정규성이 확보되었으며,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 및 세부역량들의 구성체제에 대한 적합도 지표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한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차, 2차년도 연구를 거쳐 3차 년도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에 대한 결과들을 종합하여보면, 청소년 역량지수의 전체 문항이든 단축문항이든 청소년 역량을 측정하기에 매우 적합한 문항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전체 평균은 2.92($SD=.31$)이며, 이를 4점 만점 기준으로 100%으로 환산해 보면,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애학습역량 평균은 2.89($SD=.37$), 72.25%, 생활관리역량 평균은 3.08($SD=.38$), 77.00%, 진로개발역량 평균은 2.92($SD=.40$), 73%, 대인관계역량 평균은 3.00($SD=.45$), 75.00% 그리고 사회참여역량 평균은 2.70($SD=.35$), 67.50%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은 생활관리역량 지수가 가장 높고, 대인관계역량, 진로개발역량, 생애학습역량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를 청소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초등(초기 청소년) 평균은 2.96($SD=.36$), 74%, 중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91($SD=.28$), 72.75% 고등(중기 청소년) 평균은 2.90($SD=.28$), 72.50%, 대학(후기 청소년) 평균은 2.88($SD=.24$), 72%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별로 청소년 역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청소년 역량은 청소년 시기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를 청소년 시기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는 성별에 따라 초등(초기 청소년)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중등과 고등(중기 청소년)을 지나고 대학(후기 청소년)으로 갈수록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남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면서도 현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2016년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는 부산지역 청소년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대전, 인천, 그리고 울산이 2.95, 서울과 전남이 2.94 순으로 나타났고, 전북이 2.87, 세종, 경북과 경남이 2.86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의 준거타당도와 예측타당도를 살펴보면, 청소년 역량지수의 각 역량군에 따른 변인들은 해당 역량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분석에 있어

정적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통한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이 각 역량이 지향하는 개념적 특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역량군에 따른 수행변인과의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에 있어서도 정적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가 해당 변인들의 수행변인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가 높다는 것이 관련 역량에서 나타나는 행동지표의 양적 횟수가 높고 질적 수준도 높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있어 역량군의 영역별 특성에 따른 주요결과와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문항을 축소하여 개발한 결과, 사고력 6문항, 지적도구활용능력 12문항, 학습적응성 6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단축문항으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과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기존 개발된 37문항에서 13문항이 축소되어짐으로서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답자들의 부담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측정문항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또한 측정된 자료 결과를 2015년도 비교하여보면, 2015년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평균이 2.92(SD=.37)이고 2016년 평균이 2.89(.37)로 나타나 효과크기 $d=.08$ 로써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2015년도 문항으로 측정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결과 값과 2016년도 단축문항으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를 측정한 결과 값이 유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단축문항으로 측정한 결과 값이 일관적이고 신뢰로운 결과값을 보임으로써 측정문항 사용에 대한 효과성을 함께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2016년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시기에는 생애학습역량이 높았다가 중고등학생 시기를 지나 대학생이 되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낮아지는 비율에 대한 차이는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청소년들의 수행행동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가 높은 청소년이 실제 학습을 수행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학업성취도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측정결과가 다른 수행변인 즉, 학습시간의 양이나 학습효과의 질적인 측면을 예측할 수 있는 측정도구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학생이, 초등학생이, 학업성

취도가 높을수록, 대도시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의 하위역량 중 정서조절이 가장 낮은 역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역량에 비해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의 정서조절, 특히 조절실패와 감정인식이 다른 역량에 비해 낮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역량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기 이후 청소년의 정서조절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지수에 대한 예측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생활관리 행동, 생활통제 행동, 매체중독(스마트폰 중독), 체험활동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생활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생활관리 행동인 일주일 간 평균 아침식사 섭취 횟수와 운동(신체활동) 빈도가 높고, 수면시간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태도, 주변 사람이나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규범,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려는 인지된 생활통제 행동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이 높을수록 매체중독(스마트폰 중독)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 생활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체험활동 참여 여부, 참여 종류, 참여 횟수가 모두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분석 결과에서 생활관리역량이 청소년의 생활관리 행동, 생활통제 행동, 매체중독(스마트폰 중독), 체험활동 참여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관리역량 지수를 통해 생활관리 및 생활통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 측정을 위한 문항도 진로설계 96문항, 여가활용 11문항, 개척정신 5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기존 40문항에서 15문항이 축소되었지만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과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구성된 문항체계의 적합도가 기존 문항보다 높게 나오고, 진로개발역량과 관련있는 수행변인들과의 관련성도 높게 나와 이에 대한 효과성이 체계적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은 청소년 성장시기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진로자기결정능력이나 청소년 체험활동 등의 수행행동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측정결과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청소년의 여가활용역량이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써 확인되었으며,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여가활용이 청소년 체험활동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측정문항이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는 측정도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넷째,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문항은 총 29문항으로, 2014년 1차 개발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문항에 비해 17문항이 축소되어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구성체계의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계형성(자기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으로 구성된 단축형 대인관계역량의 구성체계와 측정문항이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한편, 대인관계역량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대인관계역량과 사회적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역량과 사회적 관계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단축형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문항이 초기 청소년부터 후기 청소년까지의 대인관계역량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역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역량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청소년 시기별로는 대인관계역량이 차이가 다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예컨대, 관계형성 역량은 고등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리더십 역량에서는 대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특성 별로 증진시켜야 할 대인관계역량이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이나 청소년관련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프로그램 실시할 때 청소년의 성별, 학업성취수준별, 청소년시기별로 집중개발해야 할 역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인관계역량은 사회적 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자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주로 생활하는 학교 집단 내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인과 친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집단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구성원들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인 대인관계역량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주변인들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역량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역량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본 조사 결과 사회참여역량 수준은 대학교급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2015년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본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하락의 정도는 작았지만 대학교급에서 다른 학교급에 비

하여 낮아짐은 명확했다. 또한 고등학교급에서 여학생의 사회참여역량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학업성취도수준과 경제수준의 사회참여역량에 대한 영향력은 대학교급에서 역시 사라졌다. 즉 초·중등학교급에서는 학업성취도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역량 수준도 높았으나 대학교급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상쇄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동일하였다.

사회참여역량의 하위 구성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시민성은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급까지 개인시민성 수준이 상승하였으나 대학교급에서 낮아졌다. 상승 및 하락의 정도는 2015년 본 조사 결과에 비하여 작았으나 발달단계에 따라 전체적으로 역U자 형을 동일하게 나타냈다. 또한 학업성취도와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시민성도 높아지던 경향은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학교급에서 사라졌다. 공동체 시민성은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낮아졌다. 성별 효과는 중등학교에서만 나타나 여학생이 중등학교급에서 보다 높은 공동체 시민성을 나타냈다. 학업성취도와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체시민성이 높아졌으나 대학교급에서 그러한 경향성은 사라졌다. 이러한 인구특성학적 배경변인의 효과는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동일하였다. 세계시민성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중등학교급에서 여학생의 세계시민성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학업성취도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세계시민성도 높았으나 대학교급에서 상쇄되었다. 세계시민성의 이러한 추이는 2015년 본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역량지수에 따른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3차년도 연구를 통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다 더 확고하게 검증할 수 있었다. 2014년도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청소년 역량지수 5개 역량군에 대해 234 문항이 개발되어, 이에 대한 자료의 정규성과 측정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215년 2차년도 연구를 통해 1차년도에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전국단위로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표본샘플을 추출하여 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 수준을 파악함과 동시에 측정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1, 2차 년도 연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중의 중요한 논란거리 중의 하나는 측정문항의 수가 많다는 것과 측정한 결과가 유사한 다른 측정문항들과 유사한 결과를

산출하는가라는 것과 해당 결과가 청소년의 어떠한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역량지수의 측정문항 수를 축소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측정문항을 개발하였다. 생애학습역량은 37문항에서 24문항으로, 생활관리역량은 48문항에서 35문항으로, 진로개발역량은 41문항에서 25문항으로, 대인관계역량은 46문항에서 29문항으로, 사회참여역량은 63문항에서 47문항으로 축소되어 234문항에서 총 160문항으로 축소되어 수정·보완되었다. 축소된 청소년 역량지수 문항을 통해 청소년 역량을 측정한 결과,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적합도가 1, 2차 년도에 개발된 문항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보다 더 정교화 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측정결과 또한 1-2차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보다 더 확보되었다. 아울러 청소년 역량지수의 단축문항들은 해당 역량군의 관련 변인들과 유사한 측정결과를 나타냈고, 해당 역량군을 대표하는 행동지표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예언 타당도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과 결과활용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다시 한 번 통계적으로 검증되고 재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2015년도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여성 청소년의 역량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남자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중·고등학교시기를 지나 대학생이 되면, 여자 청소년들의 역량이 현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이 개인적 특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역량개발에 장애요소들이 보다 더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자 청소년 역량의 감소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인재가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감안할 때 여자 청소년에 대한 역량관리 및 개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에 따른 지역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 필요하다. 2016년도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지수는 지역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2차년도 연구결과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부산지역 청소년이 역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 대전, 울산, 서울 등이 그 다음으로 높으며, 전북과 경북이 역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역량지수의 차이에 있어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다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산지역 청소년이 수도권 중심의 대도시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부산지역 청소년의 역량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전북이나 경북의 경우도 2년 연속 낮은 역량지수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정책목표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 핵심인재를 선정하고,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같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정책범주로 제시(관계부처합동, 2012)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정책 범주인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다 세밀한 역량정책 범주를 정책범주로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현재 수행 중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비슷한 정책들을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작게 진행하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비슷한 작은 정책들을 한 부처에서 모아 규모를 크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매년 청소년 정책들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할 정책을 지정해서 청소년 정책수행의 파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생애학습역량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중인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 관련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범주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들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고(여성가족부, 2015a), 2015년부터 실시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측정결과가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지적도구활용(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적응성(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사고력(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생활관리역량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중인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 관련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생활관리역량의 하위범주인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중에서 건강관리, 상황대처 관련 정책들은 시행하고 있으나 과제관리, 정서조절 관련 정책들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여성가족부, 2015a), 2015년부터 실시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측정결과가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정서조절(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과 과제관리(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진로개발역량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중인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진로개발역량의 하위범주인 진로설계, 여가활용 관련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개척정신 관련 정책들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여성가족부, 2015a), 2015년부터 실시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결과가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역량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하다.

여섯째, 대인관계역량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중인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역량의 하위범주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고(여성가족부, 2015a), 2015년부터 실시한 대인관계역량 측정결과와는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하위 범주 중 리더십(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관계형성(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협동(집단추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역량의 순으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일곱째, 사회참여역량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중인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사회참여역량의 하위범주인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개인시민성과 세계시민성에 비해 공동체시민성의 정책이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여성가족부, 2015a), 2015년부터 실시한 사회참여역량 측정결과가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공동체시민성(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개방성) 역량 부분의 정책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사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STEM교육 사례(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 이근님,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는 현대사회에서 융합창조 능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분야인 지적도구활용 분야의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을 신장시키는 부분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둘째, 영국의 ICT교육 사례(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 이근남,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는 현재 사회에서 ICT활용능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분야인 지적 도구활용 분야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을 배양하는 부분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셋째, 미국의 ASELA 정책 사례(염철현, 2012;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 2016.08.15.)는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역량부분에 정책적 관심을 두지 않아왔던 한국적 현실에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활관리역량의 하위분야인 정서조절 역량을 배양하는 부분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넷째, 뉴질랜드의 역량중심 교육정책 사례(소경희, 이상은, 이정희, 허효인, 2010; 임유나, 2016; NZ Ministry of Education, 2016.09.10.)는 사고하기(thinking), 언어·상징·텍스트 사용하기(using language·symbols·texts), 자기 관리하기(managing self), 대인관계(relating to others), 참여와 공헌(participation and contributing)과 같은 여러 핵심역량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소경희, 이상은, 이정희, 허효인, 2010; 임유나, 2016; NZ Ministry of Education, 2016.09.10.),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과 같은 여러 하위범주의 청소년 역량발전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정책적 제언¹⁵⁾

이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 연구로 이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진행계획 및 과정은 아래 그림에 제시한 바와 같다. 아래 그림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인 2015년과 올해인 2016년은 이 연구의 2단계에 해당되는데, 정책적 제언과 관련해서는 2015년에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게 되어 있고, 2016년인 올해에는 역량중심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게 되어 있다.

15) 이 부분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단계 (2014년)	목적	· 청소년 역량 표준 설정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내용	· 국내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청소년 역량 개념화 및 지표체계 구축 · 청소년 역량지표 구성체계의 타당화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1차 프로토타입 개발 · IEA ICCS 2016 조사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청소년 역량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조사, 통계분석
▼		
2단계 (2015~2016년)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 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방안을 위한 실천적 전략 제시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용	· 측정지표체계에 대한 평가와 수정 · 전국규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역량 진단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역량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청소년 역량 진단조사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분석(PISA, PIAAC, ICCS)
▼		
3단계 (2017~2018년)	목적	· 청소년 역량의 국제수준 비교 분석 ·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 및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효과성 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내용	· 청소년 역량의 국제비교(PISA, PIAAC, ICCS)를 통한 청소년 역량의 현황 분석 ·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역량성과 분석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FGI조사, 전문가협의회 · 집단검사, 출장면담조사 · 전국 규모 생애핵심역량 진단조사, 통계분석

【그림 VI-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5개년(2014-2018) 연구추진계획

출처 :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pp 9(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10에서 재인용)의 표를 인용한 것임.

이에 따라 전년도인 2015년에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청소년 역량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 기반 조성, 청소년 맞춤형 역량 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역량 관련 기관 및 전문 인력 전문성 강화, 청소년 역량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속적 활용방안 조성과 같은 6가지 정책과제를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한 바 있다.

표 VI-1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1. 청소년 역량정책 추진체계 강화	1. 청소년역량의 개념과 청소년 활동과의 관계 정립 2. 청소년 역량 관련 법·제도의 개정 추진 3. 청소년 역량기반 중심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2) 역량기반 중심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향성 제언
2.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강화 기반 조성	1. 청소년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2. 청소년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 3. 청소년역량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여가부 주관 역량기반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공모제 실시 5.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 및 사업평가를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 6. 청소년 역량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3. 청소년 맞춤형 역량 지원체계 강화	1. 청소년 역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2. 여성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소년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마련 3. 후기 청소년(대학교 진학 및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역량 지원 체계 마련
4. 청소년 역량 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1. 청소년 역량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예산 확대 2. 청소년역량 관련 기관 전문성 강화 3. 청소년 역량 중심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전환 4. 청소년 지도사 전문성 강화 5. 현장 실무자 경험 및 정보공유의 장 마련
5. 청소년 역량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1. 국립 청소년 역량 통합관리센터 설립 제언 2. 권역별 학교/기관/행정기관의 공동실무협의회 운영 3.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한 청소년 시설과 학교와 긴밀한 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4. 초기청소년에서 후기청소년까지 청소년역량의 지속적인 관리
6. 청소년 역량지수의 지속적 활용 방안 조성	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자료에 대한 패널 data화 2. 청소년 역량지수의 주기적 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문항의 간소화와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출처 :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pp 315의 표를 인용한 것임.

이처럼 거시적인 측면에서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전년도인 2015년에 이미 제시하였으므로, 올해 2016년에는 전체적인 연구추진계획에 맞춰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청소년들의 역량에 대한 양적 분석결과,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및 특성 분석,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 사례 분석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청소년기관(시설, 단체 등)이나 학교에서 청소년 역량증진을 위해 실시해야 되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제시된 정책적 제언은, 전년도인 2015년에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역량중심 청소년 정책체계 수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추상적인 청소년의 역량 함양을 목표로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 활동 중심의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향후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적인 역량 함양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해서 진행하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들로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전제하에 제시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정책적 제언들은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17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18년 이후부터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1)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 연구의 수행결과 첫 번째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생애학습역량 부분의 지적도구활용 범주 중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과 관련된, 청소년 기관에서의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에서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과 같은 생애학습역량 관련 정책들이 많지 않고(여성가족부, 2015a),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부분에 대한 양적 분석결과,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향후 생애학습역량의 지적도구활용 범주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적도구활용 역량 범주 중에서 언어능력, 수학능력, 과학능력과 관련해 최근 융합창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앞의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 사례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현대사회의 수요증가에 맞춰 이미 2008년부터 학교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융합한 융합창의교육을 지칭하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 이근님,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 한국에서도 최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학교 교육과정에 융합창의교육인 STEAM교육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STEAM교육은 영국 등 주요 선진 외국에서 실시 중인 STEM교육내용에 A(Art)를 추가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예술 교육까지 더해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합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최근 학교를 통해 실시해오고 있는 교육이다(대구광역시 교육청, 2016.10.15.). 대구광역시의 정화중학교에서 올해 실시한 STEAM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이컵으로 스피커를 만드는 종이컵 스피커 만들기, 팀별로 투석기를 제작하여 대회를 실시하는 투석기 제작 및 대회, 공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가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느낌보 구슬 경기장을 설계하는 느낌보 구슬 시험하기, 스파게티면으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스파게티 챌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대구광역시 교육청, 2016.10.15.)

따라서 융합창의적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STEAM교육에 연계협력해 청소년시설, 단체 등 청소년 기관에서도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업목적은 청소년기관에서 학교 STEAM교육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융합창의역량관련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 관련 융합창의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업내용은 첫째, 청소년 융합창의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청소년 기관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하고, 둘째, 여성가족부 혹은 청소년기관에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셋째, 개발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하며, 넷째,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업주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이 될 것이고, 기본적인 사업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청소년이 될 것이다.

사업추진방법은 첫째,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거나, 둘째,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방법들로 수행하면

될 것이다.

사업추진일정은 첫째, 2017~2018년에는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2019년 이후 연중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될 것이다.

기타 첫째, 법제개정관련 사항은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예산관련 사항은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큰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2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학교 STEAM교육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융합창의역량관련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 활용 관련 융합창의역량을 개발
2. 사업내용	○ 청소년 융합창의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청소년기관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 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융합창의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2)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이 연구의 수행결과 두 번째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생애학습역량 부분의 지적도구활용 범주 중 정보통신활용능력과 관련된, 청소년 기관에서의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앞의 첫 번째 정책제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 중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범주인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 관련 정책들은 많지 않고(여성가족부, 2015a), 전년도부터 실시한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의 하위부분에 대한 분석결과, 사고력 > 학습적응성 >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생애학습역량 부분 중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강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도구활용 역량의 강화와 관련해서 앞에서 제시한 융합창의역량의 강화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기술 활용역량을 지칭하는 ICT활용능력이다. 앞의 청소년 역량관련 주요 외국의 정책 사례 분석에서 살펴 본 것처럼, 영국에서는 책, DB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여 검색할 줄 알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분류하며 합리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현대 정보사회에 적합한 보다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중등학교 청소년들에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가르쳐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배양케 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준, 민병수, 이근님, 이해원, 2009;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2016.08.05.). 한국에서도 교육과정 개정으로 2018년부터 초·중·고 소프트웨어(SW)교육이 필수 교과목이 됨에 따라,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오고 있다(경기일보, 2016.08.04.; 뉴시스, 2016.10.26.). 분당구청에서는 2019년 학교의 본격적인 코딩교육 전에 청소년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쉽고 재미있는 놀이 중심의 프로그래밍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경기일보, 2016.08.04.).

따라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정보통신활용 교육에 연계협력하여 청소년시설, 단체 등 청소년 기관에서도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업목적은 청소년기관에서 학교 정보통신활용역량 교육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정보통신활용역량관련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 관련 정보통신활용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표 VI-3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학교 정보통신활용 교육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정보통신활용역량관련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애학습역량 중 지적도구활용 관련 정보통신활용능력을 개발
2. 사업내용	○ 청소년 정보통신활용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청소년기관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사업내용은 첫째, 청소년 정보통신활용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청소년 기관간의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여성가족부 혹은 청소년기관에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셋째, 개발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하며, 넷째,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업주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이 될 것이고, 기본적인 사업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청소년이 될 것이다.

사업추진방법은 첫째,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거나, 둘째,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방법들로 수행하면 될 것이다.

사업추진일정은 첫째, 2017~2018년에는 정보통신활용역량 강화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2019년 이후 연중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될 것이다.

기타 첫째, 법제개정관련 사항은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예산관련 사항은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큰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정서조절 강화프로그램의 실시

이 연구의 수행결과 세 번째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관리역량 부분의 정서조절 범주와 관련된 학교 내 정서조절 강화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부터 실시한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분석결과, 건강관리 > 상황대처 > 과제관리 > 정서조절 역량의 순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시행중인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에서 생활관리역량 중 과제관리와 함께 정서조절 역량관련 정책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5a), 생활관리역량 부분 중 정서조절 범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 대상의 FGI에서도 향후 충족되어야 할 역량으로 정서조절 범주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다.

고○○ : 생활관리역량에서 정서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학교에서는 회의하는 형식의 수업이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형식...그냥 수업만 듣는 식이다보니까...네.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요...

황○○ : 수학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쪽에서 1등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자부심을 가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1등을 한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1등한 과정이 저는 진짜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다른 거나 다른 정서적으로 1등을 하면 정말 부럽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정서조절이랑...

김□□ : 진로에 관한 그런 건 별로 없는데...감정절제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 : 생활관리역량에서 정서조절 쪽에서 저희 학교에 친구 중에 좀 또래들을 보면 가끔씩 정서조절을 화가 난다거나 그런 걸 다른데다 푸는데, 방식을 그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런 애들한테 좀 다른 식으로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정서조절을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나,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이랑 뭔가 소통이 안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서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같이 받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김△△ : 감정절제. 이거요.

이와 관련해서 앞의 외국 정책사례에서 살펴본 미국의 ASELA 정책 사례(염철현, 2012;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 2016.08.15.)는 정서조절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학교내 정서조절 프로그램인 미국의 AESLA 정책사례를 참조하여 한국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정서조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서조절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업목적은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정서조절 범주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도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사업내용은 첫째, 학교내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둘째,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교장,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전체 프로그램 내에서 교장이 해야 할 역할, 교사가 해야 할 역할, 학부모가 해야 할 역할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주요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 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셋째, 개발된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사업주체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될 것이며, 사업추진체계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업추진방법은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면 될 것이다.

사업추진일정은 첫째, 2017~2018년에는 학교 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과성을 평가하고, 둘째, 2019년 이후 연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기타 법제개정관련 문제는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관련 문제는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4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학교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자신과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생활관리역량 중 정서조절 범주의 역량을 배양
2. 사업내용	○ 학교내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학교내 구성원들에게 적용
3. 사업주체	○ 교육부, 교육청, 학교
4. 사업추진체계	○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정서조절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관련 :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4)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이 연구의 수행결과 네 번째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진로개발역량 부분의 개척정신 범주 역량과 관련된, 청소년 기관에서의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부터 실시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분석결과, 하위역량 부분 분석에서 여가활용 > 진로설계 > 개척정신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타난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 중에서 진로개발역량의 하위범주인 진로설계, 여가활용 관련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개척정신 관련 정책들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5a), 진로개발역량 부분 중 개척정신 범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청소년들이 사회적 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새로운 과제에 도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회피하고 안정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개척도전정신 강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개척도전정신 역량을 강화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관에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업목적은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개척정신 범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정도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사업내용은 첫째,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 개발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하며, 셋째,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하면 될 것이다.

사업주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이 될 것이며, 사업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청소년의 체계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사업추진방법은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거나,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사업추진일정은 우선 2017~2018년에는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평가하고, 다음으로 2019년 이후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기타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예산관련 문제는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5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중 개척정신 범주의 역량을 강화
2. 사업내용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청소년기관(시설, 단체)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학교, 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개척도전정신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5) 리더십 강화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이 연구의 수행결과 다섯 번째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대인관계역량 부분의 리더십 범주 역량과 관련된, 청소년 기관에서의 청소년 리더십관련 활동프로그램의 강화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부터 실시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분석결과, 하위역량 부분 분석에서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에서 대인관계 역량의 하위범주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관련된 정책들과 관련 있는 정책들은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5a), 대인관계역량 부분 중 리더십 범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해 미래 사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관에서 리더십 강화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업목적은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 역량 중 리더십 범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사업내용은 첫째,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둘째, 개발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셋째,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등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사업주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이 될 것이고, 사업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 ↔ 청소년기관(시설, 단체)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학교, 청소년으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사업추진방법은 첫째,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거나, 둘째,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업추진일정은 2017~2018년에는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 이후에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기타 법제개정관련 문제는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예산관련 문제는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6 리더십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리더십 강화 활동프로그램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 역량 중 리더십 범주의 역량을 강화
2. 사업내용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리더십 강화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6)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이 연구의 수행결과 여섯 번째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강화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앞의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실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년도부터 실시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분석결과,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에서 대인관계역량의 하위범주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관련된 정책들은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5a), 대인관계역량 부분 중 앞에서 살펴본 리더십 범주의 역량에 이어 관계형성 범주의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시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의견인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의견인지, 의사소통하고 있는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가장 좋고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소통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은 청소년 사회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소통합리성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사소통이 대개 폭력, 위협 등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소에 청소년들이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소통합리성에 대한 훈련을 체험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특히,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는 장점을 지닌 인터넷, 모바일 등을 매개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사업목적은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 부분의 관계형성 범주 중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적절할 것이다.

사업내용은 첫째,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둘째, 개발된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셋째,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등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업주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이 될 것이고, 사업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청소년 정도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사업추진방법은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추진일정은 2017~2018년 동안에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후, 2019년 이후 효과성이 입증 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타 법제개정관련 문제는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예산관련 문제는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7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 부분의 관계형성 범주 중 의 사소통 역량을 강화
2. 사업내용	○ 여성가족부, 청소년기관에서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인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을 통하여 제공 ○ 초중등학교의 방학 등 여가시간, 창체활동 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이용해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실시
3. 사업주체	○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단체 등 청소년기관
4. 사업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청소년기관(시설,단체)←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청소년 기관을 통해 시행 중인 체험활동 강화 사업 중 일부 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실시 ○ 필요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인터넷, 모바일 매개 소통합리성 체험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됨. ○ 예산관련 : 기존 활동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예산관련 문제는 없을 것임.

7)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실시

이 연구의 수행결과 일곱 번째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내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부터 실시한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분석결과, 협동 > 관계형성 > 리더십 역량의 순으로 나타났고(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대인관계역량의 하위범주인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과 관련된 정책들은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5a), 대인관계역량 부분 중 앞에서 살펴본 리더십 범주의 역량에 이어 관계형성 범주의 공감 및 배려 역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 대상의 FGI에서도 향후 충족되어야 할 역량으로 관계형성 범주의 공감 및 배려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배○○ : 대인관계역량이요. 저희 학교는 좀 실패한 애들이 많아요.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할까...그런 애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러 형태의 사회적 혐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최근 한국사회의 특성을 특징짓는 용어의 하나가 다문화사회인만큼 공감능력 배양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을 강화해 미래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업목적은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중 관계형성 범주의 공감 및 배려 역량을 배양하고자 함으로 설정하면 좋을 것이다.

사업내용은 첫째,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둘째,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개발된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적용 등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주체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이 될 것이며, 사업추진체계는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으로 설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사업추진방법은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 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업추진일정은 일단 2017~2018년에는 학교 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 이후 개발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기타 법제개정관련 문제는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관련 문제는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공감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8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학교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대인관계역량 중 관계형성 범주의 공감 및 배려 역량을 배양
2. 사업내용	○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 프로그램을 학교내 구성원들에게 적용
3. 사업주체	○ 교육부, 교육청, 학교
4. 사업추진체계	○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을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학교내 공감능력 배양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관련 :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공감능력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8)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이 연구의 수행결과 여덟 번째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부터 실시한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결과, 세계시민성 > 개인시민성 > 공동체시민성 역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청소년 역량관련 국내 정책현황 및 특성 분석 결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 역량관련 정책들에서 개인시민성과 세계시민성에 비해 공동체시민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 대상의 FGI에서도 향후 충족되어야 할 역량으로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황○○ : 그런데 저희가 성적이 좋다고 해서 인성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혼자서 열심히 발버둥치는 거였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 스펙 쌓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서로를 잘 알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학교 안에서 서로 경쟁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동하는 모습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공동체시민성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의 공동체시민성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정책으로는 현재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현재 제5차 기본계획에 계획으로는 들어가 있으나 실제 정책으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물질기부가 있다. 그런데 최근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반 정도가 실제로 물질기부를 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물질기부가 자원봉사에 비해 사회공동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상, 조용하, 2015). 즉, 물질기부가 자원봉사활동보다 청소년들의 공동체시민성 역량을 강화하는데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들은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연령대가 아니므로, 물질기부를 경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절약한 용돈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 엄격하게 만들어진 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물질기부에 참여하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참여역량 중 공동체시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업목적은 학교 내에서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물질기부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중 공동체시민성 범주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함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업내용은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개발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적용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사업주체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될 것이며, 사업추진체계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업추진방법은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업추진일정은 2017~2018년 동안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 이후 개발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타 법제개정관련 문제는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관련 문제는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9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정책제안 개요	
1. 사업목적	○ 학교 내에서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물질기부 체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사회참여역량 중 공동체시민성 범주의 역량을 배양
2. 사업내용	○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 개발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학교 내 구성원들에게 적용
3. 사업주체	○ 교육부, 교육청, 학교
4. 사업추진체계	○ 교육부↔교육청↔학교↔청소년
5. 사업추진방법	○ 교육부에서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일부 학교에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한 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
6. 사업추진일정	○ 2017~2018년 :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평가 ○ 2019년 이후 : 연중 프로그램 실시
7. 기타	○ 법제개정관련 : 학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예산관련 :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로 실시해야 하므로 물질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경기일보 (2016.08.04.). 분당구, 초등생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실시.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18265> 에서 2016.10.16.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서울: 여성가족부.
- 교육부 (2016a). **2016년 인성교육 시행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6b).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세종: 교육부.
- 김경미, 백사인 (2011).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Holland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식
 및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 **취업진로연구**, 1(2), 19-39.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일, 오현석, 송영숙, 고은영, 박상민, 정은혜 (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0(2), 195-214.
- 김민정, 김봉환 (2014). 대학생 진로자기조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5(6),
 2311-2325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안나, 김남희, 김태준, 이석재, 정희욱 (2003).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I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인(2010). 청소년 시민 역량 개념과 강화 방안 탐색. **시민청소년학연구**, 1(2), 29-60.
- 김창환, 엄문영, 김기현,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이광현, 이상돈(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 II: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철, 김은정, 민경석(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
 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나일주, 성은모, 박소영 (2010). 초등학생의 시각화 경향성이 문제해결력 및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연구**, 23(4), 509-534.
- 뉴시스 (2016.10.26.). 울산교육청, 일선학교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http://news1.kr/articles/?2813206> 에서 2016.10.26. 인출.
- 대구광역시 교육청 (2016.10.10.). 정화중학교 체험형 융합교육 'STEAM' 과학수업 소개.
<http://blog.naver.com/dgeduon/220754400738> 에서 2016.10.10. 인출.
- 문주희, 백지숙(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학업효능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 비교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0(3), -50.
- 문화체육관광부 (2015a).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정보**.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2015 한국인터넷백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박성준, 김주일(2015).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 궤적과 예측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7(3), 263-288.
- 보건복지부 (2015a). **2014 보건복지백서**.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b).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2015). **2013-2014 산업통상자원백서**.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허선영, 정민주, 김균희(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임정훈 (2012). **학습과학 원리와 실천적 적용**.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성은모, 진성희, 김혜경 (2016). 미래사회를 대비한 청소년의 생애학습역량지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445-458.
- 성은모, 진성희, 김균희 (2016). 청소년 생애학습역량지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7(3), 219-256.
- 성은모, 최창욱(201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2), 117-144.
- 성은모, 최효선 (2016). 대학교육에서 성적 우수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요인 탐색. **교육공학 연구**.
- 소경희, 이상은, 이정희, 허효인 (2010). 뉴질랜드 교육과정 개혁 동향: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실천 사례. **비교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pp.27-50.

- 여성가족부 (2015a).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b). **2015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염철현 (2012). 미국 초중등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감성적 능력함양을 위한 학습법」 소개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세계교육정책 제4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원상숙, 최용민(2015).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5, 21-50.
- 유명진, 손강숙(2015).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또래지지의 조절효과. **발달지원연구**, 4(2), 131-159.
- 유현숙, 김태준, 이석재, 송선영(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방안 연구 I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명희, 장아름(2008).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생활역량 비교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4), 49-66.
-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2007).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233-260.
- 윤현진, 김영준, 이광우 전제철(2007).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 I: 핵심 역량 준거와 영역 설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경상, 조용하 (2015).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아, 신혜린, 유나현, 이기학(2008). 간편 대학생활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9(2), 739-754.
- 이광우, 민용성, 전제철, 김미영, 김혜진(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 II: 핵심 역량 영역별 하위 요소 설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규미, 김명식(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원, 김준홍(201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연구총괄·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유나 (2016). 역량기반 수업구현을 위한 지원 사례 탐색: 뉴질랜드 국가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제32권 제3호**, pp.59-88.
- 임효진, 이지은(2015).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에 의해 조절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교육학연구**, 53(4), 1-33.
- 장근영, 박수익 (2011). 아동·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 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IEA ICCS 2016-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선영 (2005). **웹 기반 문제해결학습 환경에서 스캐폴딩 유형이 문제해결단계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근, 임찬빈, 김영준, 김영춘, 민병수, 이근님, 이해원 (2009). **2009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독일·러시아·영국·프랑스·핀란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병삼(2011). 초기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신뢰와 친밀감의 발달궤적. **한국청소년연구**, 22(4), 63~89.
- 정수정, 오익수(2010).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부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초등상담연구**, 9(2), 163-173.
- 정애경. (2007).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성취기준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청소년기본법[법제처시행2016.3.2.] (2016.5.2.). <http://www.law.go.kr> 에서 2016.5.2. 인출.
- 청소년기본법시행령[법제처시행2015.5.4.] (2016.5.2.). <http://www.law.go.kr> 에서 2016.5.2. 인출.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2016.10.15.).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newportal/index.do> 에서 2016.10.15. 인출.
-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청소년 진로 직업 지표**. 연구보고 09-R12.
- 통계청, 여성가족부(2016.5.3 보도자료). **2016 청소년 통계**.
- 통일부 (2015). **2015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한국청소년데이터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qZc474Ak&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I4&srch_ctgry_idx=CTIDX00043 에서 2016.5.25.에 인출함.

- 한승희 (2010). **평생학습사회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한종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행정자치부 (2015). **2014 행정자치백서**. 서울: 행정자치부.
- 환경부 (2015). **2015 환경백서**. 세종: 환경부.
- Acarli, D. S., & Kasap, M. Y. (2015). Explan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behavior: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pproach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Baltic Science Education*, 14(2), 172-182.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 Ajzen, I., & Fishbein, F. (2008). Scaling and testing multiplicative combinations in the expectancy-value model of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8, 2222-2247.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ur*. Prentice-Hall, New Jersey.
- Albarracin, D., Blair, T. J., Fishbein, M., & Muellerleile, P. A. (2001).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as models of condom use: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7, 142-161.
- Amireault, S., Godin, G., Vohl, M-C., & Perusse, L. (2008). Moderators of the intention-behaviour and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behaviour relationships for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5(7), 5868-5879.
- Armitage C. J., & Conner, M. T. (1999). Distinguishing perceptions of control from self-efficacy: Predicting consumption of a low fat diet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72-90.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betsosi, E., & Antoniou, P. (2009). Gender differences on attitudes, computer use and physical activity among Greek University students.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8, 63 - 68.
- Bellanca, J., & Brandt, R. (2010). *21st century skills*. Bloomington, IN: Solution Tree Press.
- Boer, H., & Mashamba, M. T. (2007). Gender power imbalance and differential psychosocial

- correlates of intended condom use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rom Venda, South Africa.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 51 - 63.
- Brace, Kemp, Snelgar (2013). *SPSS for Psychologists*. New York by Psychology Press.
- Branscum, P., & Sharma, M. (2011).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predict two types of snack food consumption among midwestern upper elementary children: implications for practice. *International Quarterly of Community Health Education*, 32(1), 41 - 55.
- Branscum, P., & Sharma, M. (2013). *Comparing the utilit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between boys and girls for predicting snack food consumption: implications for practice*. Health Promotion Practice, 2013.
- Brunsting, S., & Postmes, T. (2002). Social movement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age: Predicting offline and online collective action. *Small Group Research*, 33, 525 - 554.
- Bryan, A., Kagee, A., & Broaddus, M. R. (2006). Condom use among South African adolescents: Developing and testing theoretical models of intentions and behavior. *AIDS and Behavior*, 10, 387 - 397.
- Cha, E. S., Kim, K. H., & Patrick, T. E. (2008). Predictors of intention to practice safer sex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7, 641 - 651.
- Chemers, M. M., Hu, L., & Garcia, B. F. (2001).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55-64.
- Conner, M., Norman, P., & Bell, R. (2002).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healthy eating. *Health Psychology*, 21, 194-201.
- Downs D. S., & Hausenblas, H. A. (2005).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applied to exercise: a meta-analytic update. *J Phys Act Health*, 2, 76-97.
- Dunn, K. I., Mohr, P. B., Wilson, C. J., & Wittert, G. A. (2008). Beliefs about fast food in Australia: a qualitative analysis. *Appetite*, 51(2), 331 - 334.
- Dunn, K. I., Mohr, P. B., Wilson, C. J., & Wittert, G. A. (2011). Determinants of fast-food consumption.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ppetite*, 57(2), 349 - 357.
- Eurydice European Unit(2002). *Key Competencies*.
- Fisher, R. (1990). *Teaching children to think*. Oxford. Basic Blackwell Ltd.
- Gagne, R. M. (1985). *The condition of learning and theory of instruction*(4th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Godin, G., & Kok, G. (1996).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review of its applications to health-related behaviors. *Am J Health Promot*, 11(2), 87-98.
- Godin, G., Shephard, R. J., & Colantonio, A. (1986). The cognitive profile of those who intend to exercise but do not. *Public Health Rep*, 101(5), 521-526.
- Gregory, C. E. (1962). *The management of intelligence*. NU: McGraw-Hill.
- Guglielmino, L. M.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USA.
- Guo, R., McAleese, W. J., Appleby, K. M., Guo, J., Zhang, W., Huang, Y., & Peterson, T. (2014). Predictors of intention to use condoms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mmunity Health*, 39, 712-718.
- Hagger, M. S., Chatzisarantis, N. L. D., Biddle, S. J. H. (2002).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in physical activity: predictive validity and the contribution of additional variables. *J Sport Exerc Psychol*, 24, 3-32.
- Higgins, J. M. (1994). *101 creative problem solving techniques*. NY: The NEW Management Publishing Company.
- Hu, L.,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 424-453.
- Kepner, C., & Tregoe, B. (1967). *The rational manager*. NY: McGraw-Hill.
- Knowles, M.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Cambridge Books.
- McClelland, D. C.(1973).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 Moore, D. R., Cheng, M. I., & Dainty, A. R. (2002). Competence, competency and competencies: Performance assessment in organisations. *Work study*, 51(6), 314-319.
- Newell, A. & Simon, H. A. (1972). *Human Problem Solving*. NJ: Englewood Cliff.
- Norman, P., Conner, M., & Bell, R. (1999).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moking cessation. *Health Psychology*, 18, 89- 94.
- NZ Ministry of Education(2016.09.10.). Key Competencies 홈페이지.
<http://nzcurriculum.tki.org.nz/Key-competencies/About> 에서 2016년 9월 10일 인출.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33-243.
- Peace, A. G., Galletta, D. & Thong, J., (2003). Software piracy in the workplace: A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1), 153 - 177.
- Piaget, J. (1963). *Origin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Y: Norton.
- Rychen, D. S., & Salganik, L. H.(2001a).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Rychen, D. S., & Salganik, L. H.(2002b).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 Rychen, D. S. & Slganik, L. H. (2003a).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Rychen, D. S. and Salganik, L. H. (2003b). *Highlights from the OECD Project Definition and Selection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DeSeCo)*.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Chicago.
- Schifter, D. B., & Ajzen, I. (1985). Intention, perceived control, and weight loss: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843-851.
- Schwarzer, R., & Luszczynska, A. (2008). Self-Efficacy. Available from http://cancercontrol.cancer.gov/brp/research/constructs/self_efficacy.html
- Seo, H. S., Lee, S. K., & Nam, S. (2011). Factors influencing fast food consumption behaviors of middle-school students in Seoul: an application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s.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5(2), 169 - 178.
- Sheeran P: Intention-behavior relations: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2(1), 1-36.
- Sung, E., & Mayer, R. E. (2012). Five facets of social presence in online distance educ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5), 1738-1747.
-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2016.08.15.).
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Emotional Learning 홈페이지.
<http://www.casel.org/>에서 2016년 8월 15일 인출.
-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2016.08.05.). The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홈페이지. <http://www.qca.org.uk/> 에서 2016년 8월 5일 인출.

-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3). *Toward Universal Learning: Recommendations from the Learning Metrics Task Force*.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
- Wu, T., Snider, J. B., Floyd, M. R., Florence, J. E., Stoots, J. M., Makamey, M. I. (2009). Intention for healthy eating among southern appalachian teens. *Am J Health Behav.* 33(2), 115-124.
- Zimmerman, B. J., & Shunk, D. H. (1989).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Verlag.

부 록

1. 2016 청소년 역량 관련 선행문헌 분석
2. 초·중·고등학생 모집단 분석 및
표본설계
3. 2016 대학생 모집단 분석에 따른
표본샘플
4.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
- 초등학생용
5.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
- 중고등학생용
6.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
- 대학생용

부 록

[부록 1] 2016 청소년 역량 관련 선행문헌 분석

1. 청소년의 역량 개념 및 구성체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청소년 역량지수를 개발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계의 초안은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성은모 외 2013)’에서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의 1차 년도에 기본개념을 제시하고 2차 년도의 통합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확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는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그리고 사회참여역량의 5 영역으로 나뉜다.

생애학습역량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하위구성요소로는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학습적응성이 포함되었다. 사고력(9문항)은 비판적 사고력(6문항)과 감성적 사고력(3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지적도구활용(21문항)은 언어능력(5문항), 수학능력(5문항), 과학능력(7문항), 정보통신활용능력(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학습적응성(7문항)은 변화수용력(2문항), 지적호기심(2문항), 학습주도성(3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생활관리역량은 은 자신이 삶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하위구성요소로는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이 포함되었다. 건강관리(11문항)는 위생관리(3문항), 신체관리(2문항), 안전 및 스트레스관리(6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과제관리(12문항)는 목표 및 계획수립(9문항)과 수행 및 평가(4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상황대처(16문항)는 중독인식(3문항), 중독행동(7문항), 폭력행동(3문항), 폭력회피(3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마지막으로 정서조절(9문항)은 분노행동(2문항), 감정절제(2문항), 조절실패(3문항), 감정인식(2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개발역량은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진성희, 성은모, 최창욱, 2015)을 의미하고, 하위구성요소로는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이 포함되었다. 진로설계(15문항)는 자기탐색(4문항), 직업탐색(4문항), 직업가치관(3문항), 진로준비(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여가활용(17문항)은 여가태도(6문항), 여가유능감(4문항), 여가만족(3문항), 여가몰입(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개척정신(8문항)은 차별화태도(5문항)와 도전정신(3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인관계역량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하위구성요소로는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이 포함되었다. 관계형성(18문항)은 자기개방성(4문항), 친화성(4문항), 의사소통(6문항), 공감 및 배려(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리더십(14문항)은 의사결정(4문항), 집단활동관리(4문항), 추진력(6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협동(14문항)은 집단축진(6문항), 팔로워십(3문항), 갈등문제해결(5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참여역량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선을 위하여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역량을 의미하며(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pp.55-61, pp.101;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p.135), 하위구성요소로는 개인 시민성, 공동체 시민성, 세계 시민성이 포함되었다. 개인 시민성(14문항)은 권리·책임의식(4문항), 민주적 절차 및 의식(2문항), 정치적 관심 및 정치적 자아효능감(8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공동체 시민성(33문항)은 공적실천(14문항), 사회적 신뢰(9문항), 적극적 의견개진(5문항), 교실 개방성(5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세계 시민성(16문항)은 성 인지(3문항), 이민자에 대한 태도(5문항), 국가 및 역사의식(4문항), 국제 관계 이해(4문항)의 네 가지 요인으로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통계 특성에 다른 배경정보 내용은 생년, 지역, 가족구성, 부모(보호자) 학력, 취업여부,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수준, 경제적 수준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부록-1).

부록표 1-1 청소년 역량지수의 구성체제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생애학습역량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감성적 사고력
	지적도구활용	언어능력
		수학 능력
		과학능력
		정보통신활용능력
	학습 적응성	변화수용력
		지적호기심
		학습주도성
생활관리역량	건강관리	안전 및 스트레스 관리
		신체관리
		위생관리
	과제관리	목표 및 계획수립
		수행 및 평가
	상황대처	중독행동
		폭력행동
		중독인식
		폭력회피
	정서조절	감정인식
		분노행동
		감정절제
		조절실패
진로개발역량	진로설계	자기탐색
		직업탐색
		직로준비
		진업가치관
	여가활용	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몰입
		여가만족
		(경험)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도전정신

대분류	중분류	하분류
대인관계역량	관계형성	자기 개방성
		친화성
		의사소통
		공감 및 배려
	리더십	의사결정
		집단활동관리
		추진력
	협동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사회참여역량	개인 시민성	권리 ·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및 의식
		정치 관심 및 정치적 자아 효능감
	공동체 시민성	공적실천
		사회적 신뢰
		적극적 의견개진
		교실 개방성
	세계 시민성	성 인지
		이민자에 대한 태도
		국가 및 역사인식
		국제관계이해

※ 출처: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pp.198-199 재인용)

2. 2015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

본 연구의 2차 년도인 2015년 연구에서는 1차 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수준에서 전국 규모 청소년 모집단으로 선정 한후 표본집단을 추출하여 청소년 역량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2016년도 ICCS 본 조사를 대비하여 본 조사의 절차를 그대로 시행해 봄으로써 그 절차를 숙지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상황을 사전에 점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자료조사 절차에 따르면, 2014년 1차년도 과제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설문문항을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설문지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국가수준에서 전국 규모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기관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기관과 함께 전국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표본설계 및 설문조사 기획을 수립한 후,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타당도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문항을 확정하여, 청소년 10,516명(초등학생=2,700, 중학생=3,123명, 고등학생=3,684명, 대학생=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의 구성체계는 생애학습역량(37문항), 생활관리역량(48문항), 진로개발역량(40문항), 대인관계역량(46문항), 사회참여역량(63문항) 등과 같이 5개의 역량군을 중심으로 242문항이 구성되었다.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는 협동연구과제이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하여 조사와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사회참여역량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김태준(2015)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2015년 연구에서는 2014년에 개발한 청소년 역량측정도구를 기초로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초·중·고등학생 9,500여명 대학생 1,000여명 이었으며,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는 청소년역량지수의 5대 역량 역량군(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을 중심으로 16개의 하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2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 역량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2.92점으로, 이를 100% 기준으로 본다면 약 73% 수준이었다. 청소년 역량군별로 살펴보면,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 평균이 각각 3.01점(75%)으로 높았고, 진로개발역량은 2.93점(73.25%), 생애학습역량이 2.92점(73%)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역량은 2.75점(68.75%)으로 가장 낮았다. 즉, 생활관리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참여 역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의 청소년 역량지수가 3.02점(76%)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2.93점(73%), 고등학생 2.89점(72%)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이 2.84점(71%)으로 가장 낮았다. 즉, 역량수준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해서 초등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높고, 대학생의 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청소년 역량발달의 역전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초등학생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역량이 높았지만, 중학교 시기에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고등학교 시기에는 여자 청소년의 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오히려 남자 청소년보다 더 낮아졌다. 더욱 특이한 것은 여자 청소년들은 대학교

시기에도 역량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시기에 남자 청소년은 역량이 증가하여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역량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다.

부록표 1-2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결과

시기별	전체	생애학습역량	생활관리역량	진로개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사회참여역량
전체	2.92	2.92	3.01	2.93	3.01	2.75
초등(초기 청소년)	3.02	2.99	3.17	3.01	3.06	2.86
중등(중기 청소년)	2.93	2.91	3.04	2.93	3.02	2.77
고등(중기 청소년)	2.89	2.87	2.97	2.90	2.97	2.72
대학(후기 청소년)	2.84	2.91	2.84	2.83	2.96	2.66

3. 청소년 역량지수관련 청소년 발달적 특성변인에 대한 선행문헌분석

1) 생애학습역량지수와 관련 청소년 발달적 특성변인 분석

생애학습역량(lif-long learning competency)이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전체적인 생애발달과정을 포함(성은모 외, 2015)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learning)’이라는 단어를 청소년 또는 인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학습은 언제나 인류와 함께 해왔으며, 인간의 생존과 사회유지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한승희, 2010). 교육학적 관점에서 학습이란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야기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로(성은모, 임정훈, 2012) 이해될 수 있지만, 사회학적 관점에서 학습이란 하나의 삶의 양식이며, 삶의 양식을 관리하며 재생산하는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한승희, 2010). 교육적 관점에서 학습은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의 학습은 수단적 가치를 포함하지만 이 수단적 가치가 생애에 걸쳐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기제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은 생애에 걸쳐 무엇인가를 배우는 삶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학습은 경험의 과정이자 경험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생애학습능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사회변화의 가속성에 기인한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적응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역량(learning competency)’이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성은모, 진성희, 김혜경, 2016). 특히, 청소년시기의 학습역량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발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기나 특정한 내용을 학습하는 횡단적(lifespan) 특성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종단적(lifelong) 특성을 가지고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더불어 사회에도 기여할 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김안나, 김남희, 김태준, 이석재, 정희욱,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생애학습역량(life-long learning competency)’은 평생학습 또는 생애학습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생애학습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온 하위능력 중의 하나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다. 자기주도학습은 성인교육학에서 다루어온 오래된 주제이기는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이 성인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발달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고(Piaget, 1963; 김안나 외, 2003에서 재인용) 이 능력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쇠퇴하거나 소멸된다고 보고 있다(김안나 외, 2003). 또한 최근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 (Bellanca & Brandt, 2010)에서 21세기 학습자가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써 생애와 혁신기술(life and career skills), 학습과 혁신 기술(learning and innovation skills), 정보·매체·테크놀로지(information, media, and technology skills) 등을 제안하면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해결능력은 생애학습 또는 21세기 학습자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능력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사회의 주요특성은 지식과 기술 변화의 가속성이고,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거나 변화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과거 복잡하지 않았던 사회에서는 주어진 보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지식과 기술이 덩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성은모, 2015; 성은모, 진성희, 김혜경, 2016; Bellanca & Brandt, 2010). 따라서 문제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문제발생을 억제하거나 발생한 문제를 신속히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생애학습역량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은 1960년대 이후 성인학습의 관점에서 학습의 현상과 본질을 탐구하기 시작했으며, Knowles에 의해 그 개념이 정립되었다. Knowles (1975)에 의하면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 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그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며, 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이는 학습이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습이라기보다는 학습자 자신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기술과 학습자원을 활용하며 성찰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Guglielmino (1977)는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욕구와 필요를 확인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 학습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선택한 후 실질적인 학습을 실행하며, 그 결과와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라 정의하면서, 자기주도학습의 특성을 8가지¹⁶⁾로 제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학습준비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한편 Zimmerman과 Schunk (2009) 자기주도학습을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조직화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와 학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으로 설명하면서,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전경-수행-반성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전경의 과정에서는 작업분석(목표설정, 전략적 계획)과 자기동기 신념(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내재적 흥미, 목표지향)이 중요하며, 수행단계에서는 자기통제(자기교수, 시간관리, 작업전략, 도움구하기, 환경구조화하기)와 자기관찰(인지적 모니터링, 자기기록)이 중요하다 설명하고 있으며, 반성단계에서는 자기판단(자기평가, 귀인)과 자기반응(자기만족, 적응과 방어)이 중요한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성은모와 최효선 (2016)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이란 학습을 수행하게 하는 동기적 특성으로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과 학습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성과를 창출하게 하는 학습과정 및 단계별 학습기술과 학습전략이 상호작용적으로 작동하여 직간접적으로 학습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전략적 학습기술, 학습에 대한 가치 신념, 학습몰입, 탐구적 학습전략 등의 네 가지 요인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주요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문항을 제시하면 <표 부록-3>와 같다.

16) 학습하려는 태도와 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써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과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 욕구를 수용하여 학습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학습에 주도성과 독립성, 자기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 배움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써의 학습 사랑, 위험을 감수하고 다양하게 학습하려는 창의성, 다가를 미래가 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지향, 그리고 기본 학습기능과 문제해결기능을 사용하는 능력(Guglielmino, 1977)

부록표 1-3 자기주도학습능력 측정 문항(성은모, 최효선, 2016에서 재인용)

문항	구분
(1) 현재의 공부는 단순히 좋은 학점만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학습가치시스템
(2) 대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절대적인 범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한 만큼 가진다고 생각한다	학습가치시스템
(3) 학점을 위해 공부한다기 보다는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공부하는 과정이 즐겁다	학습가치시스템
(4) 대학에서의 좋은 학점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학습가치시스템
(5) 대학에서는 좋은 학점보다 인생에 있어 가치로운 것이 더 많다	학습가치시스템
(6) 즐겁게 공부하면 학점은 자동적으로 따라 온다고 생각한다	학습가치시스템
(7) 대학에서의 학점은 내 삶의 성실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학습가치시스템
(8) 수강과목신청 전에 철저한 강의정보를 수집한다	학습기술
(9) 수강과목신청에 있어 어렵더라도 진정 배우고 싶어 했던 과목위주로 수강신청을 한다	학습기술
(10) 수업에 반드시 '100% 출석'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학습가치시스템
(11)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학습가치시스템
(12) 수업시간에 항상 앞쪽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학습기술
(13) 수업시간 노트정리 시 요약정리보다는 수업의 모든 내용(강의 내용, 질의응답 내용, 교수자의 농담 등)을 기록한다	학습기술
(14) 간단한 예습을 통해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문제의식)을 갖고 수업에 임한다	학습기술
(15) 수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즉각적인 질문을 통한 해결하기 보다는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학습전략
(16) 수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참고자료를 우선적으로 찾아본다	학습전략
(17) 수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해결안을 찾는다	학습전략
(18) 수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무조건 교수에게 묻기보다는 충분한 고민, 참고문헌 탐색, 친구들과 의견 공유 등과 같은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에 물어본다	학습전략
(19)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친구들과 의도적으로 토론하고 협력적으로 논의의 과정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습방법이다	학습전략
(20) 그날 배운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 그날 복습한다	학습기술
(21) 한 주간 배운 내용이나 노트 필기한 내용에 대해서 1~2주안에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정리한다	학습기술

문항	구분
(22) 주중에 하루정도는 나만의 여유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학습기술
(23) 시험시간에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평소에 공부한다	학습기술
(24) 나는 노는 시간까지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학습수행관리
(25) 짜투리 시간(등하교 시간, 공강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학습수행관리
(26) 리포트(과제)는 주어진 날부터, 혹은 마감 한참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한다	학습기술
(27) 리포트(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 2~3회 이상의 수정과정을 거친다	학습기술
(28) 나는 대학에서 배우는 수업내용이 재미있다	학습가치시스템
(29) 나는 전공지식 이외에 내가 배우고자하는 학습주제나 또는 문제를 찾아내어 실천한다	학습전략
(30) 나는 새로운 내용을 공부를 할 때 아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학습전략
(31) 나는 공부를 하면서도 다음 진행해야할 단계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학습전략
(32) 나는 공부나 어떤 일을 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한다	학습가치시스템
(33) 나는 공부나 어떤 일을 할 때 지루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몇 시간씩 앉아서 한다	학습수행관리

다음으로 문제해결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문제란 목표달성을 원하지만 달성의 방법 혹은 달성을 위한 일련의 행동 전략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나일주, 성은모, 박소영, 2010; Gagne, 1985; Newell & Simon, 1972)을 말하며, 문제해결이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인식하고 이를 저해하는 장애요소들과 주어진 상황요소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풀어나감으로써 바람직한 목표상태에 도달하는 것(장선영, 2005; Fisher, 1990)을 말하며, 문제해결능력이란 이러한 차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지적이며, 창의적인 능력(김안나 외, 2003; 이석재 외, 2003; 유현숙 외, 2004)이라 정의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학습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별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한다(나일주, 성은모, 박소영, 2010). 학습자가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에서는 특정한 문제해결과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고 기능, 문제해결의 원리나 절차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된다(Gagne, 1985). 특히, 문제해결에 있어 학습자의 인지/기억력, 추리력, 계획 평가능력,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분석 및 종합능력 등의 인지적 요인(이석재 외, 2003; 과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기조절능력 등의 정의적 요인(이석재 외, 2003; Bandura, 1986; Zimmerman & Schunk, 1989)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한다.

문제해결과정은 두 가지 접근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창의성, 직관, 상상력 등의 작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그것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문제를 여러 구성요소별로 세분화하고, 각 요소별로 문제점을 규명하고, 특정 기준과 이들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문제발생의 원인을 찾는 접근을 의미한다(Gregory, 1962; Kepner & Tregoe, 1967). 창의성, 직관, 상상력 등의 작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은 문제해결과정에서 창의성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면서,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을 통한 해결안의 차별성을 중요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의미한다(Higgins, 1994). 이러한 문제해결의 일반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이석재와 동료들(2003)은 문제 확인 및 명료화, 원인분석, 해결안 탐색, 계획 및 실행, 그리고 수행성찰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록표 1-4 문제해결능력 측정 문항(이석재 외, 2003에서 재인용)

문제해결과정	문항
문제 확인 및 명료화	1. 내가 원하는 모습과 현재 모습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한다.
	2.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3.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안다.
원인분석	4. 나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어느 자료가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비교한다.
	5. 나는 어떤 문제든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는다.
	6. 나는 나의 입장에서만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고려한다.
해결안 탐색	7.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를 문제를 살펴본다.
	8.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중요하게 다룬다.
	9. 나는 그동안 사용했던 문제해결방법이 노력한 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비교한다.
계획 및 실행	10.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한다.
	11. 나는 어려움이 닥쳐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한다.
	12. 나는 결과가 어떠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로 해본다.
수행성찰	13. 나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본다.
	14. 나는 처음 해결하려고 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본다.
	15. 나는 문제를 더욱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

2) 생활관리역량지수와 관련 청소년 발달적 특성변인 분석

역량을 측정하고, 이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역량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McClelland(1973, pp.7-13)는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는 특정한 자극에 반응할 뿐 아니라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능력까지 측정해야 하며, 삶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예측할 수 있고, 학습자가 배움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성취와 관련된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의 성장과 변화, 성취와 관련된 것을 평가하는 것이 역량인 것이다. 또한, Moore 등(2002)이 정의한 역량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역량(competency)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역량은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행동이나 수행으로 나타낼 때 사용된다(윤정일 외, 2007). OECD에서 역량을 정의한 것(Rychen & Salganik, 2003b)을 살펴보면, 특정 맥락에서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의 사회적, 행동적 요소 뿐 아니라 인지적, 실천적 기술을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이라 표현하고 있다. 즉,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능력을 역량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하면, 생활관리역량이 인간의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명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많다. 특히, 수많은 변인 중에 무엇이 영향을 미쳐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제안된 모형이 ‘계획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다. 계획 행동 이론을 제안한 Ajzen(1991)은 다양한 태도 이론들이 상황에 따른 특정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정확도와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하면서 상황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영향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하나의 행동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동적 기질이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의 행동 아래에 잠재되어 있는 행동적 기질로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인지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행동에 대한 의지(intention)를 함께 판단해야 특정 상황에서 그 행동을 취할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Ajzen, 1991, 2012). Ajzen(1991, 2002, 2006, 2012)의 이론에 의하면 네 가지 행동적 기질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는 대상(subject)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판단에 관련한 요인이다(Chiang & Lee, 2011).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Ajzen & Fishbein, 1980; Bebetosi

& Antoniou, 2009).

둘째,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인지된 사회적 압력을 의미한다(Ajzen, 1991). 이러한 정의에 의해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Chiang & Lee, 2011). 즉, 주관적 규범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대상 행동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의사결정하는 데에 있어 부모나 친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가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Synder, 2005)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규범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인지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대상 행동이 수행하기 쉽거나 어려운지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Ajzen, 1991). 인지된 행동적 통제라는 개념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련된 것인데, 대상 행동에 대해 완벽하게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이다. 이는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며, 이는 역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Bandura, 1997; Schwarzer & Luszczynska, 2008).

마지막으로, 행동에 대한 의지(Intention)는 개인이 행동을 통제하여 수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변인이다. 개인이 하려고 동기화되는 ‘의지’의 정도에 따라 행동 통제 수행은 증가된다. 행동에 대한 의지(intention)은 신체 활동에 20%~40%를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예측 변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시 된다(Downs & Hausenblas, 2005; Godin & Kok, 1996; Hagger & Chatzisarantis, & Biddle, 2002). 그러나 강력한 예측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지와 행동 사이에 격차가 있는 것은 의지는 있으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와 의지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Godin, Shephard, & Colantonio, 1986; Sheeran, 2002).

계획 행동 이론이 제안된 이후로 여러 연구에서 실제 행동과 계획 행동 이론에서의 행동적 기질 요소들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실제 행동의 변화나 실천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HIV/AIDS 같은 질병의 감염을 피하기 위한 피임기구의 사용(Albarracin et al., 2001; Guo, McAleese, Appleby, Guo, Zhang, Huang, & Peterson, 2014)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고등학생이나 청소년에 대한 피임기구 사용 행동에 대한 연구도 국내 뿐 아니라(Cha, Kim, & Patrick, 2008)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었다(Boer & Mashamba, 2007; Bryan, Kagee, & Broaddus, 2006; Kalolo & Kibusi, 2015). 여러 연구에서 피임기구의 활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가 피임기구의 사용에 대한 의지에 영향을 주며, 이는 결국

피임기구 활용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와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Chiang과 Lee(2011)은 컴퓨터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형평성, 지적재산권 등의 윤리적 주제에 대해 의지와 컴퓨터 상의 표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대만의 정치과학 학생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가 윤리적 정보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Peace, Galletta, Thong(2003)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가 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식생활과 관련된 연구들도 있다. 비만인 사람들의 체중감량을 위한 식이조절에 대한 연구(Schifter & Ajzen, 1985)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건강식 섭취에 대한 연구(Armitage & Conner, 1999; Conner et al., 2002; Wu, Snider, Floyd, Florence, Stoots, & Makamey, 2009) 등이 그것이다. 특히, 패스트푸드 섭취를 통제하는 행동에 대해 계획 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섭취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뿐 아니라 (Seo, Lee, & Nam, 2011),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다(Branscum & Sharma, 2011, 2013; Dunn, Mohr, Wilson, & Wittert, 2011; Sharifirad, Yarmohammadi, Azadbakht, Morowatisharifabad & Hassanzadeh, 2013). 예컨대, 이란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소비에 대한 연구(Sharifirad, Yarmohammadi, Azadbakht, Morowatisharifabad & Hassanzadeh, 2013)에서도 고등학생의 주관적 규범과 인지된 행동 통제가 행동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가 의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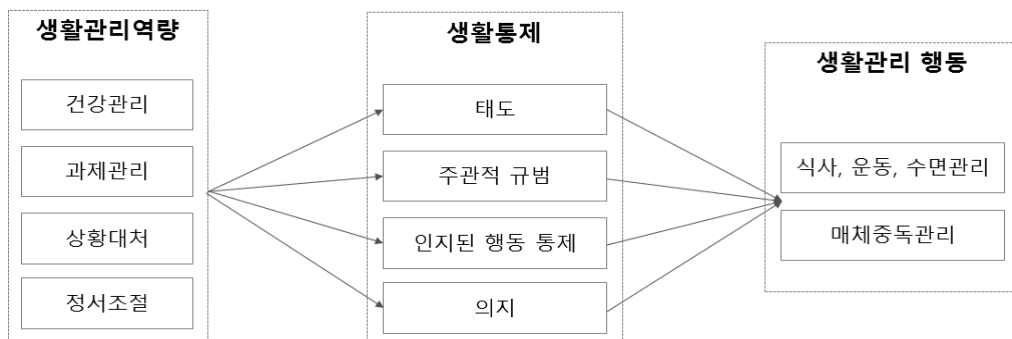
또한, Amireault, Godin, Vohl, Perusse(2008)는 여가 시간의 신체 활동에 의지와 인지된 행동 통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300명의 연구참여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신체활동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은 의지가 낮은 연구참여자의 의지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인지된 행동 통제와 행동을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 청소년의 흡연(Acarli & Kasap, 2015; Norman et al., 1999)에 대한 연구 등이 청소년의 부정적인 행동을 예측하고, 행동의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개인의 역량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적 기질이라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 행동에 대한 의지에 영향을 준다(Brunsting & Postmes, 2002). Ajzen과 Fishbein(1980)은 개인의 특성이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밀접하게 연관된 몇몇 요인에 영향을 주어 행동을 변화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역량 또한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인이므로 행동의 변화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배경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생활관리역량이 계획 행동 이론에서 제안하는 생활 통제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 생활 통제 행동에 대한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행동적 기질은 실제 생활관리 행동인 식사, 운동, 수면관리나 매체중독관리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부록-1]과 같다.



【부록그림 1-1】 생활관리역량과 수행변인(생활통제, 생활관리 행동)의 관계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생활관리역량에 대한 측정도구와 함께 계획 행동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한 생활 통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 생활 통제 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실제 생활관리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식사, 운동, 수면관리와 매체중독관리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3) 진로개발역량지수와 관련 청소년 발달적 특성변인 분석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y)은 생애에 걸쳐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으로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을 그 하위 역량으로 구성하고 있다(장근영 외, 2015). 진로개발역량의 의미와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진로 관련 선행문헌을 고찰해 본 결과, 진로개발역

량은 진로자기조절, 진로결정, 진로명확성, 진로활동경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진로자기조절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진로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목표를 유지하도록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민정, 김봉환, 2014).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계획 및 점검, 긍정적 진로사고, 진로피드백, 진로환경조성, 진로몰입의지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 및 점검’은 자신이 희망하는 일의 세계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탐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긍정적 진로사고’는 자신이 수립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다. ‘진로피드백’은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주변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진로환경조성’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진로몰입의지’는 진로관련 활동들에 집중하여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검사 도구는 대학생 맞춤형으로 개발된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1) 기존 진로개발역량의 문항과 중복되지 않는 문항, 2)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전 연령에 해당될 수 있는 문항, 3) 예비조사의 문항신뢰도 검사를 통해 신뢰도가 높은 문항의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문항을 선별하여 추출하였다. 그 결과, 계획 및 점검과 진로몰입의지 두 가지 요인에서 각 세 가지 문항이 추출되었다. 변인별 구체적인 문항구성은 다음 <표 부록-5> 과 같다.

부록표 1-5 진로자기조절변인 문항 구성

변인	문항
계획 및 점검	1.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생각하여 계획한다. 2. 나는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평가한다.
진로몰입의지	1. 나는 학교에서의 공부와 여러 활동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지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한 활동은 꾸준히 실천한다. 2. 나는 나의 진로를 알아가는 활동이 지루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3. 나는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편이다.

진로개발역량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일생에 걸쳐 자신의 꿈을 펼칠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하기 위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 흥미, 가치관,

경제적 여건, 직업적 열망, 부모의 기대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선택을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청소년들의 진로관련 의사결정은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정한 준거에 의거 상호 비교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경미, 백사인, 2011).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은 고향자(1993)가 제안한 진로미결정검사와 최인재 외 (2009)가 활용한 진로 명확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로결정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동안 진로미결정의 원인을 밝혀 진로지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왔다(Wanberg & Muchinsky, 1992). 정애경(2007)은 진로결정 관련 100여편을 대상으로 메타연구를 수행한 결과,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는 진로를 결정한 학생과 결정하지 않은 학생간의 차이를 밝히고, 미결정의 종류를 구분하며,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의 현재 결정수준을 측정하는 도구가 진로미결정검사 도구이다(고향자, 2007). 진로미결정검사는 Osipow 등(1976)의 진로미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를 고향자(1993)이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 18문항 중 청소년 전체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 3개만 추출하였고 이는 예비검사를 통해 문항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진로미결정수준 검사도구와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얼마나 명확한 결정을 내렸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인재 외(2009)의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 명확성 문항을 추가하였다. 선정된 진로미결정검사 문항과 진로 명확성 검사 문항은 다음 <표 부록-6> 과 같다.

부록표 1-6 진로결정 및 진로 명확성 문항 구성

변인	문항
진로결정	1. 나는 지금까지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 지 고민해 보지 않았다 2. 나는 장래희망을 결정하기에 생각이 복잡하여 당분간 생각하고 싶지 않다 3.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 할 수 없다.
진로 명확성	1. 본인은 장래에 반드시 하고 싶은 직업(전공)이 있습니까? ① 반드시 하고 싶은 직업(전공)이 있다 ② 하고 싶은 직업(전공)이 여러 개가 있어 고민 중이다 ③ 하고 싶은 직업(전공)을 찾는 중이다 ④ 아직까지는 없다

역량의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진로개발역량이란 청소년 스스로의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 행동이나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진로개발역량을 소유한 청소년들은 진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으로 정의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자기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방향을 탐색하는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설정한 구체적인 진로(직업)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행동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인재 외 (2009)의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준비행동 척도 중 청소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려는 행동에 대한 문항 2개와 구체적인 진로(직업)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 3개로 다음 <표 부록-7>과 같이 구성하였다.

부록표 1-7 진로관련 활동 여부 및 참여도

문항	활동경험여부		지난 1년간 참여 총 횟수
1. 진로 적성 검사	① 있다	② 없다	☞ ()회
2. 진로 상담	① 있다	② 없다	☞ ()회
3. 직업 체험 교육	② 없다	② 없다	☞ ()회
4. 직업(전공) 관련 견학	① 있다	② 없다	☞ ()회
5.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① 있다	② 없다	☞ ()회

4) 대인관계역량지수와 관련 청소년 발달적 특성변인 분석

대인관계역량은 “개인 또는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타인들과 개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성은모 외, 2014)”으로 청소년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로 꼽힌다.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Ⅲ」에서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적 관계망,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은 청소년이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역량으로, 청소년이 일차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또래, 교사 등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다는 연구들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즉, 기존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과 역량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최은희와 공인숙(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부모, 형제, 또래, 교사와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과 청소년의 역량지각이 정적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보고하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교사, 또래 등 가정 외의 관계망이 청소년 역량발달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최경옥(201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축적된 사회적 관계,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부모, 학교,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과 관련이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주요 요인임이 확인된 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주요 변인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청소년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박성준, 김주일, 2015)”로 청소년 시기의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성 및 학교적응, 청소년기 이후에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박성준, 김주일,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 판단된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특히, 부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우선 부모는 특히 생애초기 몇 년 동안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및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동의 사회화에 일차적인 역할을 한다. 이후 아동이 성장하면서 부모 외의 또래와의 관계가 더욱 강조된다. 극단적으로 또래가 부모보다 사회화 대리인으로써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관점과 부모의 영향력이 여전히 청소년기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있어 또래와 부모는 모두 다른 측면에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청소년기의 또래와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또래동조가 늘어나는 시기로, 또래와의 관계가 학업성취, 성취동기, 진로발달, 사회적 위축 및 유능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문주희, 백지숙, 2012; 유명진, 손강숙, 2015;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으로 나타나 청소년 전반적 발달영역과 관련되었다. 특히, 또래지지는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유능감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유명진, 손강숙, 2015),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또래관계가 이들의 대인관계역량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가족 외에 관계 맺는 성인 중 교사는 특히 주요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교사는 가족, 또래 등과는 달리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변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애착 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업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Burchinal et al., 2002; Howes et al., 1994; 1998; Pianta et al., 1997; 2002, 정병삼, 2012에서 재인용).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에서의 신뢰와 친밀성은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정병삼, 2012), 교사는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인지적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haffer,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부모, 또래, 교사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강조한 연구(최경옥, 2015)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체계에 한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망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Furman과 Buhrmester(1985)가 제작한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NRI)를 한중혜(1996)가 번안한 도구 사용하였다. 한중혜(1996)는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척도를 원척도와 다소 다르게, 사회적지지, 대립·처벌, 동료애, 주도권, 친밀감 등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사회적 지지에는 도움, 만족감, 보살피기, 애정, 인정, 결속력 6가지 요인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역량과 사회적 관계망 중 긍정적 요인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최은희, 공인숙, 2001)를 근거로 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요인과 대인관계 역량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 척도 중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만을 선별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요인으로 학교생활적응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과 2014년 기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하루의 25% 이상의 시간을 보낸다는 점(통계청, 2016)을 감안한다면 학교라는 조직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대인관계기술이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들(원상숙, 최용민, 2015; 임효진, 이지은, 2015; 천경민, 2010)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원상숙, 최용민, 2015)에서는 학교부적응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인관계역량을 향상시키는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역량과 관련된 변인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고자 한다.

부록표 1-8 대인관계 역량 관련 변인과 문항구성

사회적 관계망 (부모, 친구, 교사)		1. 나는 ()와 자주 놀러가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많다.
		2. 나는 ()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3. 나는 ()와 비밀이나 나의 감정에 대해 얘기한다.
		4. ()는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 준다.
학교 생활 적응	학교공부 (학업유능감)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	2. 나는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다.
		3. 나는 학교에서의 특별한 행사(축제 등) 및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나는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친한 친구의 수, 놀이 횟수, 고민상담 가능 친구 및 성인의 수		1. 매우 친한 친구(학교친구, 동네친구, 선후배 등 포함)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2. 그 친구(매우 친한 친구)와 함께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놀이를 합니까?
		3. 나의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이성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4. 나의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이성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5. 나의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이성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국내에서 개발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살펴보면, 정수정과 오익수(2010)의 「초등 학생을 위한 학교부적응 척도」, 이규미와 김명식(2008)의 「중학생의 학교적응 척도」, 이경아, 신혜린, 유나현과 이기학(2008)의 「간편 대학생 생활 적응 척도」 등으로 청소년 시기별로 학교적응 척도가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후기 청소년(대학생)까지 모두 측정해야 하므로, 청소년기 전 연령에 걸쳐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위에서 개발된 척도 외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참조하여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대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인과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규미와 김명식(2008)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척도의 하위 요인을 학교공부(학업유능감, 학업가치), 학교친구(긍정적 친구관계, 친구와의 상호협조성), 학교교사(교사에 대한 호감, 교사에 대한 친밀감), 학교생활(질서와 규칙준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 4가지로 구성하였다. 유나현과 이기학(2008)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을 전공만족, 대인관계(교수 및 친구와의 관계 관련 문항), 학업적응, 정서안정, 사회적 유능성, 학습전략으로 구성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한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적응 척도를 살펴보면,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데이터아카이브 홈페이지).

학교생활적응 구인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교사 및 친구관계를 측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과 공통적으로 측정하는 학교생활적응 요인을 제외하고 학교공부(학업유능감)과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만을 측정하고자 한다. 문항 구성은 앞서 밝힌 척도들을 살펴보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전 연령에 걸쳐 두루 측정이 가능한 문항을 추출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척도와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심리적 변인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을 추가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청소년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 친한 친구와의 놀이 횟수, 고민 상담할 수 있는 친구 및 주변 성인의 수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대인관계역량 관련 변인으로 측정한 변인과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다.

5) 사회참여역량지수와 관련 청소년 발달적 특성변인 분석¹⁷⁾

청소년기의 사회참여역량은 전반적으로 나이의 성숙도에 따라 역량도 함께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외부의 변화 및 영향에 따라 이러한 발달적 방향이 항상 일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하여 나타낼 수 있다. (김태준 외, 2015b, 재구성)

부록표 1-9 사회참여역량 관련 선행 연구 요약

구성요인	연구주제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
개인 시민성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조사	-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강원 지역의 중 1학년 및 3학년, 고 2학년까지 총 1,54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참여의식: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임원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준법의식: 임원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내적 정치효능감: 여성보다 남성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임원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모경환 외, 2010).

17) 본 절의 내용은 김태준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I: IEA ICCS 2016-청소년 사회참여역량 분석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김태준 (2016)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구성요인	연구주제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
개인 시민성	한국의 민주시민 교육	- 민주시민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61개교의 학생 4,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성적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민주주의 지식, 민주주의 가치 및 태도, 민주주의 참여, 실천 등의 수준 상승.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민주시민의식 수준 감소(손경애 외, 2010).
	정치·사회적 이슈 및 토론 관련 인식 조사	-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그러한 인식을 다루는 토론 및 수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 지역의 18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529명 대상으로 설문 실시 - 성적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상위에 해당할 때,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러한 이슈에 대한 대화 및 토론에 대한 관심, 그러한 이슈에 대한 대화 및 토론 기회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박윤경 외 2015).
	Education and civic engagement (노르웨이 청소년 대상)	- 노르웨이의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분석 - 사회과목의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관심 표명 - 임원으로 봉사한 경험과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한 경험 등과 같이 교내외에서의 사회참여활동 경험이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정적인 영향 미침(Lauglo 외, 2007)
공동체 시민성	정치 성향 유형에 따른 성인기 정치 참여 의사	- 한국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의 조합에 따른 성인기의 정치적 활동 참여 의사 확인을 위해 고등학생 3,614명의 자료 분석 - 투표, 공식 정치활동, 합법적 항의, 비합법적 항의 등에 대하여 정치효능감이 높고 정치신뢰도가 높은 경우, 정치효능감이 높고 정치신뢰도가 낮은 경우, 정치효능감이 낮고 정치신뢰도가 높은 경우, 정치효능감이 낮고 정치신뢰도가 낮은 경우 순으로 참여 의사 감소(이봉민, 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법적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법적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파악코자 부산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10개교의 학생 416명의 응답 결과 분석.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가정의 수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법적 신뢰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남(이형진, 2010)
	다문화 사이에서의 시민교육과 사회적 자본	‘학교 내 시민 참여’와 관련하여 국제비교 결과 보고. 한국 학생들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6%는 ‘반장 및 학생회 임원 투표’에 참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토론에 적극적 참여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 학생회 토론 등은 각각 40%대에 그침. 즉 한국 학생들은 ‘학교 내 시민 참여’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함(김태준 외 2010).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이 신뢰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미디어의 유형별 이용정도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탐구. - 공공기관 신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년이 낮을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신뢰 점수가 높음. - 대인 신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유대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신뢰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임정재 외, 2011).

구성요인	연구주제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
공동체 시민성	청소년의 지역사회 경찰 인식분석	경찰신뢰 수준 분석을 위해 청소년 162명의 응답 분석. 중학생보다 초등학교 이, 성적이 높을수록, 동네에서 폭력 피해 입은 경험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동네에서 금품 피해 입은 경험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학교(또는 학교 주변)에서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경찰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이채식 외, 2009)
세계 시민성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	울산 지역의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양성평등의식 조사. 남녀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응답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양성평등의식의 경우,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의 측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로 응답함(김영숙 외, 2007).
	부모의 성역할 태도 및 소통이 양성평등 의식에 미치는 영향	경기 지역의 중학교 2개교의 1, 2, 3학년생 408명에 대하여 양성평등의식에 대하여 조사. 가정생활영역, 학교생활영역, 직업생활영역, 사회문화생활영역 전반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장영애 외, 2010)
	한국,대만,홍 콩 학생들의 다문화 의식 비교 연구	한국, 대만, 홍콩 학생들의 다문화 의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ICCS 2009 자료 분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정에 비치된 도서 수가 많을수록, 향후 교육받을 기대 연한이 길수록, 부모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수록 이민자 권리 존중 의식과 타 인종 권리 존중 의식 정도가 높게 나타남(이광현 외, 2013).
	청소년의 나라사랑의식 국가 간 비교	만 15~20세의 한, 미, 일, 중 청소년 2,477명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의식'을 비교하는 연구 수행. 성별에 따른 나라사랑 의식 수준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학령이 올라갈수록(중·고·대학생 순) 나라사랑 의식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짐(서운석, 2014).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세계시민의식 형성 효과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에 따른 세계시민의식 형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80명과 일반 청소년 120명에게 5가지 세계시민의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영역에서 발견되었는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다양성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학교급 차이는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영역에서 발견되었는데, 중학생보다 초등학생들의 관심 정도가 높게 나타남(신인순 외, 2010).

[부록 2] 초·중·고등학생 모집단 분석 및 표본설계

1.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모집단 분석

먼저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 1>과 <표 2>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4,683,052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1,333,402명(28.5%), 중학교 1,573,960명(33.6%), 고등학교 1,775,690명(37.9%)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유형 1(일반고):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수산, 실업,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수목적고 중 예술, 체육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및 학생수 분포는 <표 1>~<표 8>에 정리되어 있다.

부록표 2-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8,960	75,688	78,537	76,575	85,997	99,237	598	598	598	384	384	384
경기	111,646	120,900	124,124	120,138	134,725	151,815	1,215	1,212	1,218	613	613	612
인천	23,926	25,500	26,968	25,942	29,551	33,123	241	241	242	134	132	132
강원	12,347	13,249	13,691	14,124	15,872	17,700	330	328	343	162	162	162
충북	13,101	14,254	14,545	14,656	16,869	18,661	262	262	258	128	128	128
충남	19,628	20,968	21,176	20,826	23,641	25,991	427	432	434	205	205	205
대전	13,665	14,963	15,474	15,234	17,093	19,402	147	148	148	88	88	88
경북	19,911	21,103	22,160	22,129	25,596	29,227	399	410	415	287	286	287
경남	28,368	30,670	31,592	31,267	35,964	40,632	477	484	488	272	272	272
부산	23,588	25,808	27,453	27,130	31,546	35,662	306	306	306	171	171	170
대구	20,184	21,817	23,663	23,023	26,886	30,605	220	220	220	124	124	123
울산	10,037	10,730	11,305	10,903	13,021	14,837	120	120	119	62	62	61
전북	15,687	16,852	17,628	18,179	20,654	23,204	384	389	390	209	209	208
전남	14,369	15,742	16,432	16,818	19,368	22,017	411	411	416	246	250	252
광주	13,988	15,458	16,688	16,122	18,697	21,370	153	153	153	89	88	88
제주	5,990	6,229	6,640	6,470	7,333	8,128	112	112	114	45	44	44
합계	415,395	449,931	468,076	459,536	522,813	591,611	5,802	5,826	5,862	3,219	3,218	3,216

부록표 2-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4,164	67,478	72,003	14,211	13,148	13,712	18,885	18,310	18,139	2,157	2,191	2,181
경기	118,967	118,930	120,442	3,839	4,111	4,137	20,378	20,562	21,821	2,597	2,543	2,636
인천	21,725	22,175	23,461	1,989	1,747	1,828	7,646	7,565	7,680	761	782	638
강원	14,012	14,405	14,596	157	157	141	3,393	3,516	3,535	214	190	155
충북	11,025	11,300	11,770	1,550	1,589	1,543	5,332	5,469	5,466	247	232	166
충남	17,632	17,236	17,382	2,221	2,221	1,873	6,114	6,203	6,189	447	341	289
대전	11,972	12,468	12,714	2,891	2,857	2,776	3,611	3,727	3,787	434	437	488
경북	19,905	19,307	20,493	2,576	2,627	2,645	7,115	7,051	7,214	233	219	139
경남	30,131	30,512	31,140	2,770	2,747	2,839	5,720	5,859	6,079	562	535	363
부산	21,346	22,383	23,956	3,510	3,596	3,739	9,151	8,893	8,891	1,210	1,239	1,080
대구	18,278	18,533	19,829	5,586	5,723	5,956	6,689	6,446	6,747	328	311	246
울산	10,437	10,688	11,480	1,049	937	979	3,064	3,293	3,242	262	248	182
전북	16,677	17,121	17,346	997	959	908	5,443	5,534	5,554	219	216	174
전남	13,496	13,600	13,723	2,224	2,251	2,318	6,433	6,445	6,791	213	203	131
광주	15,157	15,503	15,995	1,138	1,105	1,050	4,262	4,379	4,771	94	94	12
제주	5,022	4,949	5,091	229	226	222	2,247	2,187	2,281	143	134	106
합계	409,946	416,588	431,421	46,937	46,001	46,666	115,483	115,439	118,187	10,121	9,915	8,986

부록표 2-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4	184	184	43	43	43	81	81	81	10	10	10
경기	352	344	338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79	79	79	8	7	7	31	31	31	5	5	5
강원	86	86	86	1	1	1	28	27	27	2	2	2
충북	46	46	45	6	6	6	29	29	29	2	2	2
충남	76	72	70	10	10	9	39	39	39	4	3	3
대전	37	37	37	8	8	8	14	14	14	3	3	3
경북	119	117	117	11	11	11	60	60	60	3	3	3
경남	137	136	136	10	10	10	40	40	40	4	4	4
부산	81	80	80	14	14	14	42	42	43	7	7	7
대구	50	50	50	17	17	17	22	22	22	3	3	3
울산	36	35	35	4	4	4	13	13	12	2	2	2
전북	92	91	91	3	3	3	36	36	36	2	2	2
전남	80	80	82	8	8	8	53	53	53	2	2	2
광주	46	46	46	4	4	4	16	16	16	1	1	1
제주	17	17	17	1	1	1	10	10	10	2	2	2
합계	1,518	1,500	1,493	161	160	159	596	595	595	65	64	64

부록표 2-4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5,603	38,929	40,529	33,357	36,759	38,008	39,846	44,740	51,877	36,729	41,257	47,360
경기	57,437	62,188	64,120	54,209	58,712	60,004	62,406	69,903	78,975	57,732	64,822	72,840
인천	12,278	13,093	13,826	11,648	12,407	13,142	13,416	15,231	17,112	12,526	14,320	16,011
강원	6,389	6,901	7,070	5,958	6,348	6,621	7,383	8,313	9,364	6,741	7,559	8,336
충북	6,779	7,465	7,575	6,322	6,789	6,970	7,694	8,757	9,748	6,962	8,112	8,913
충남	10,084	10,806	10,951	9,544	10,162	10,225	10,883	12,127	13,486	9,943	11,514	12,505
대전	7,097	7,714	7,971	6,568	7,249	7,503	7,954	8,950	10,079	7,280	8,143	9,323
경북	10,307	11,140	11,629	9,604	9,963	10,531	11,750	13,489	15,559	10,379	12,107	13,668
경남	14,751	16,140	16,730	13,617	14,530	14,862	16,488	19,016	21,606	14,779	16,948	19,026
부산	12,177	13,268	14,344	11,411	12,540	13,109	14,147	16,459	18,773	12,983	15,087	16,889
대구	10,611	11,433	12,431	9,573	10,384	11,232	12,362	14,163	16,243	10,661	12,723	14,362
울산	5,295	5,676	6,023	4,742	5,054	5,282	5,729	6,927	7,853	5,174	6,094	6,984
전북	8,244	8,672	9,058	7,443	8,180	8,570	9,594	10,567	12,029	8,585	10,087	11,175
전남	7,340	8,213	8,504	7,029	7,529	7,928	8,744	10,125	11,574	8,074	9,243	10,443
광주	7,232	8,024	8,776	6,756	7,434	7,912	8,395	9,669	11,143	7,727	9,028	10,227
제주	3,187	3,305	3,471	2,803	2,924	3,169	3,495	3,874	4,176	2,975	3,459	3,952
합계	214,811	232,967	243,008	200,584	216,964	225,068	240,286	272,310	309,597	219,250	250,503	282,014

부록표 2-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1,789	33,895	36,071	9,850	9,009	9,440	8,766	8,345	8,057	821	808	752
경기	61,451	61,496	62,214	1,800	2,011	2,077	11,146	10,981	11,257	843	922	927
인천	11,324	11,524	11,981	1,218	1,045	1,101	3,995	3,911	3,904	335	347	267
강원	6,919	7,159	7,117	86	88	83	2,224	2,305	2,287	104	95	65
충북	5,498	5,622	5,853	896	931	906	3,018	3,077	2,903	91	100	57
충남	8,966	8,703	8,741	1,296	1,250	1,080	3,593	3,578	3,508	187	123	75
대전	5,775	5,970	6,076	1,908	1,861	1,824	2,025	2,154	2,148	188	204	187
경북	9,902	9,488	10,147	1,667	1,717	1,721	4,377	4,239	4,213	121	122	39
경남	14,582	14,686	15,100	2,223	2,231	2,281	3,542	3,645	3,667	223	221	111
부산	10,580	11,366	12,131	1,931	2,033	2,119	5,658	5,420	5,097	524	551	407
대구	8,758	9,293	9,740	3,041	3,204	3,322	4,254	3,978	4,110	170	184	120
울산	5,242	5,556	5,847	567	480	521	1,925	1,989	1,913	106	109	49
전북	8,056	8,343	8,607	863	830	785	3,161	3,204	3,130	84	74	60
전남	6,286	6,220	6,268	1,656	1,663	1,707	3,735	3,710	3,820	91	92	48
광주	7,512	7,802	7,964	689	663	663	2,314	2,312	2,560	81	73	10
제주	2,643	2,631	2,779	0	0	0	1,271	1,193	1,224	59	62	34
합계	205,283	209,754	216,636	29,691	29,016	29,630	65,004	64,041	63,798	4,028	4,087	3,208

부록표 2-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2,375	33,583	35,932	4,361	4,139	4,272	10,119	9,965	10,082	1,336	1,383	1,429
경기	57,516	57,434	58,228	2,039	2,100	2,060	9,232	9,581	10,564	1,754	1,621	1,709
인천	10,401	10,651	11,480	771	702	727	3,651	3,654	3,776	426	435	371
강원	7,093	7,246	7,479	71	69	58	1,169	1,211	1,248	110	95	90
충북	5,527	5,678	5,917	654	658	637	2,314	2,392	2,563	156	132	109
충남	8,666	8,533	8,641	925	971	793	2,521	2,625	2,681	260	218	214
대전	6,197	6,498	6,638	983	996	952	1,586	1,573	1,639	246	233	301
경북	10,003	9,819	10,346	909	910	924	2,738	2,812	3,001	112	97	100
경남	15,549	15,826	16,040	547	516	558	2,178	2,214	2,412	339	314	252
부산	10,766	11,017	11,825	1,579	1,563	1,620	3,493	3,473	3,794	686	688	673
대구	9,520	9,240	10,089	2,545	2,519	2,634	2,435	2,468	2,637	158	127	126
울산	5,195	5,132	5,633	482	457	458	1,139	1,304	1,329	156	139	133
전북	8,621	8,778	8,739	134	129	123	2,282	2,330	2,424	135	142	114
전남	7,210	7,380	7,455	568	588	611	2,698	2,735	2,971	122	111	83
광주	7,645	7,701	8,031	449	442	387	1,948	2,067	2,211	13	21	2
제주	2,379	2,318	2,312	229	226	222	976	994	1,057	84	72	72
합계	204,663	206,834	214,785	17,246	16,985	17,036	50,479	51,398	54,389	6,093	5,828	5,778

부록표 2-7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3.9	23.9	23.8	27.0	28.6	30.6
경기	23.3	23.7	23.6	29.2	30.9	31.3
인천	22.4	22.6	22.6	26.3	29.5	31.9
강원	14.1	14.2	13.8	19.5	20.8	23.4
충북	15.4	15.9	16.2	22.4	24.1	26.0
충남	15.9	15.9	16.3	23.4	24.3	25.0
대전	21.4	21.3	21.6	28.7	29.6	31.9
경북	17.2	17.1	17.0	18.9	19.7	20.8
경남	17.4	17.6	17.7	24.1	25.5	27.0
부산	20.9	21.1	21.4	25.6	28.3	30.4
대구	21.8	22.1	22.3	25.2	28.6	31.4
울산	21.2	21.5	21.8	26.7	27.8	30.8
전북	14.8	14.9	14.8	21.0	22.3	23.1
전남	14.7	15.0	15.0	20.5	21.9	22.1
광주	21.8	21.9	22.2	27.1	30.6	32.8
제주	18.0	17.8	17.6	25.9	27.7	28.9
합계	19.4	19.6	19.6	24.6	26.3	27.7

부록표 2-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1.0	32.0	33.4	31.4	29.9	30.3	26.8	25.7	25.4	25.1	24.7	23.1
경기	31.7	31.9	33.2	29.7	30.4	30.4	28.2	28.4	29.3	25.0	24.4	24.7
인천	28.1	28.3	30.1	29.3	29.7	30.5	28.6	27.7	28.1	23.2	23.4	16.3
강원	26.9	27.8	27.8	14.3	14.3	12.8	21.4	22.4	22.7	25.5	23.1	17.2
충북	31.1	32.1	33.1	29.0	30.1	29.1	27.2	27.9	27.8	21.1	20.0	12.1
충남	29.8	30.7	31.5	29.6	29.5	28.5	25.5	25.5	25.7	20.0	20.8	17.1
대전	32.1	33.5	34.5	33.7	33.5	32.4	29.0	28.7	28.6	19.3	19.6	18.6
경북	26.5	26.5	28.0	29.9	30.4	30.8	24.1	24.0	24.7	22.4	21.2	10.3
경남	29.5	30.0	30.4	31.0	30.2	31.1	23.3	23.3	23.6	24.4	23.4	15.8
부산	29.1	29.8	31.3	28.7	29.5	30.3	25.9	24.6	23.9	21.4	21.8	19.1
대구	31.9	32.2	34.4	32.2	32.7	33.4	28.7	27.0	27.7	20.5	19.4	14.3
울산	32.2	32.2	34.6	32.6	29.2	30.5	27.6	28.7	28.8	23.2	22.1	16.0
전북	25.4	27.2	27.4	33.2	31.7	29.8	24.2	24.9	24.7	20.0	19.5	13.0
전남	27.2	27.3	27.6	31.6	31.8	32.8	22.2	21.6	22.0	23.3	22.3	13.3
광주	35.8	35.4	36.5	35.6	34.5	33.8	30.1	30.2	30.8	15.7	15.7	6.0
제주	34.2	34.0	35.0	32.7	32.3	31.7	29.8	29.0	30.1	22.9	21.6	15.9
합계	29.9	30.4	31.5	30.9	30.6	30.8	25.9	25.7	25.9	23.0	22.5	18.6

II.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9,000(초등학교: 3,000, 중학교: 3,000, 고등학교: 3,000)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0\%$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5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6개),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6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와 유형 3(특성화고)은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유형 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부록표 2-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15,395	1,333,402 (28.5%)		3,000 (33.3%)		3,000 (33.2%)	
		5	449,931						
		6	468,076						
중학교	중학교	1	459,536	1,573,960 (33.6%)		3,000 (33.3%)		3,042 (33.6%)	
		2	522,813						
		3	591,611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409,946	1,257,955 (26.9%)	1,775,690 (37.9%)	2,125 (23.6%)	3,000 (33.3%)	1,860 (20.6%)	3,003 (33.2%)
		2	416,588						
		3	431,421						
	유형 2 (자율고)	1	46,937	139,604 (3.0%)		236 (2.6%)		465 (5.1%)	
		2	46,001						
		3	46,666						
	유형 3 (특성화고)	1	115,483	349,109 (7.5%)		590 (6.6%)		546 (6.0%)	
		2	115,439						
		3	118,187						
	유형 4 (특수 목적고)	1	10,121	29,022 (0.6%)		49 (0.5%)		132 (1.5%)	
		2	9,915						
		3	8,986						
합계				4,683,052 (100.0%)		9,000 (100.0%)		9,045 (100.0%)	

부록표 2-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502	499	344	37	174	49
경기	802	775	605	58	75	
인천	172	169	114			
강원	88	91	73	38	84	
충북	94	96	58			
충남	139	134	88			
대전	99	99	63			
경북	142	147	101	65	200	
경남	204	206	155			
부산	173	180	114			
대구	148	153	96			
울산	72	74	55	38	58	
전북	113	118	86			
전남	105	111	69			
광주	104	107	79			
제주	42	42	25			
합계	3,000	3,000	2,125	236	590	49

* 총계: 9,000명

부록표 2-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5.1	19.2	11.1	1.2	6.7	2.2
경기	40.1	29.8	19.5	1.9	2.9	
인천	8.6	6.5	3.7			
강원	4.4	3.5	2.3	1.2	3.2	
충북	4.7	3.7	1.9			
충남	6.9	5.2	2.8			
대전	5.0	3.8	2.0			
경북	7.1	5.6	3.3	2.1	7.7	
경남	10.2	7.9	5.0			
부산	8.6	6.9	3.7			
대구	7.4	5.9	3.1			
울산	3.6	2.8	1.8	1.2	2.2	
전북	5.6	4.5	2.8			
전남	5.2	4.3	2.2			
광주	5.2	4.1	2.5			
제주	2.1	1.6	0.8			
합계	150.0	115.4	68.5	7.6	22.7	2.2

* 총계: 366.5개

부록표 2-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4(8)	21(7)	6(2)	3(1)	6(2)	6(2)
경기	39(13)	30(10)	12(4)	3(1)	3(1)	
인천	9(3)	6(2)	3(1)			
강원	6(2)	3(1)	3(1)	3(1)	3(1)	
충북	6(2)	3(1)	3(1)			
충남	6(2)	6(2)	3(1)			
대전	6(2)	3(1)	3(1)			
경북	6(2)	6(2)	3(1)	3(1)	6(2)	
경남	9(3)	9(3)	3(1)			
부산	9(3)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3(1)	3(1)	
전북	6(2)	6(2)	3(1)			
전남	6(2)	3(1)	3(1)			
광주	6(2)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50(50)	117(39)	60(20)	15(5)	21(7)	6(2)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69(123)개

부록표 2-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80	546	186	93	156	132
경기	780	780	372	93	78	
인천	180	156	93			
강원	120	78	93	93	78	
충북	120	78	93			
충남	120	156	93			
대전	120	78	93			
경북	120	156	93	93	156	
경남	180	234	93			
부산	180	156	93			
대구	120	156	93			
울산	60	78	93	93	78	
전북	120	156	93			
전남	120	78	93			
광주	120	78	93			
제주	60	78	93			
합계	3,000	3,042	1,860	465	546	132

* 총계: 9,045명

(3) 표본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59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10>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11>과 같이 조사될 학교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367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38명(학년당 약 13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3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하에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수가 초등학교 3,000명, 중학교 3,000명, 고등학교 3,000명을 넘도록 한다.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략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일반고(유형 1) 31명, 자율고(유형 2) 31명, 특성화고(유형 3) 26명, 특수목적고(유형 4) 22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수를 계산하면 <표 12>, <표 13>과 같다.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12>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59개 층내에서 조사 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Ⅲ.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생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2)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J$)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i..}$$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 $n_h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부록 3] 2016 대학생 모집단 분석에 따른 표본샘플

1. 모집단 정의

대학생조사 모집단은 2016학년1학기에 등록한 학생을 모집단으로 정의한다.

2. 모집단 분석

2015년 4월 기준 대학의 시도별 계열별 학생수와 학교수를 <표 1>에 정리하였다.

부록표 3-1 대학의 시도별 계열별 학생수와 학교수

시도	재적학생수								학제별 학생수		학제별학교수	
	전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대학	전문대	대학	전문대
서울	567,207	89,956	166,653	21,738	144,199	62,924	17,258	64,479	507,708	59,499	39	9
부산	265,792	29,041	75,264	9,541	80,286	25,507	17,691	28,462	210,445	55,347	13	9
대구	126,257	9,250	28,970	6,367	37,115	15,165	15,911	13,479	68,789	57,468	4	7
인천	71,500	4,619	17,473	4,573	29,913	6,805	1,911	6,206	47,679	23,821	4	3
광주	116,106	11,006	27,663	8,301	28,978	12,954	15,647	11,557	88,861	27,245	11	6
대전	150,477	15,122	39,031	5,913	43,300	18,103	15,140	13,868	120,355	30,122	11	4
울산	35,423	2,443	6,804	389	14,477	3,912	4,108	3,290	23,852	11,571	2	2
세종	24,902	2,098	7,462	294	6,444	1,543	139	6,922	19,707	5,195	1	1
경기	471,130	38,643	126,605	16,620	140,169	40,129	26,987	81,977	250,195	220,935	29	31
강원	135,726	10,617	39,468	6,562	30,396	19,848	17,644	11,191	110,785	24,941	9	9
충북	133,173	9,649	35,702	10,351	34,702	15,779	12,883	14,107	107,629	25,544	11	5
충남	209,487	21,012	60,200	9,225	52,480	20,023	16,987	29,560	182,784	26,703	15	6
전북	129,924	10,545	30,570	8,162	31,185	16,578	16,419	16,465	103,636	26,288	11	9
전남	81,302	4,097	19,220	4,900	21,679	7,308	16,655	7,443	51,836	29,466	10	9
경북	218,978	16,899	60,579	10,972	58,455	23,178	27,064	21,831	171,371	47,607	18	16
경남	126,509	8,435	30,435	8,303	41,496	16,189	14,644	7,007	90,384	36,125	11	10
제주	30,512	2,957	9,458	1,965	4,307	4,972	3,610	3,243	17,923	12,589	2	2
합계	2,894,405	286,389	781,557	134,176	799,581	310,917	240,698	341,087	2,173,939	720,466	201	138

3. 표본크기 및 표본배분

2016년 아동·청소년의 통합조사에서 대학교의 표본크기는 1종의 조사에서 1,000명으로 하였다.

1차 추출단위인 학교 기준으로 각 학교별로 20명(계열별 2~4명)을 조사한다고 전체 표본학교수는 50개교(=1,000/20)이고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계열별 학생구성비를 기준으로 20명의 할당표를 산출하여 해당인원을 조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50개 표본학교의 배분은 8개 권역별로 1개교를 우선할당한 후에 학교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한 후에 4년 대학과 전문대학의 배분은 학교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으로 할당을 계산하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에 요약하였다.

부록표 3-2 권역별 학생수, 학교수와 할당 표본학교수

권역	학생수			학교수		할당표본학교		
	대학	전문대	합계	대학	전문대	대학	전문대	합계
서울	507,708	59,499	567,207	39	9	7	2	9
경인	297,874	244,756	542,630	33	34	5	4	9
충청	430,475	87,564	518,039	38	16	6	2	8
전라	244,333	82,999	327,332	32	24	4	2	6
경북	240,160	105,075	345,235	22	23	4	2	6
경남	324,681	103,043	427,724	26	21	5	2	7
강원	110,785	24,941	135,726	9	9	2	1	3
제주	17,923	12,589	30,512	2	2	1	1	2
합계	2,173,939	720,466	2,894,405	201	138	34	16	50

<표 2>에 주어진 권역별 할당표본학교수를 학생수(=학교수*20명)로 계산한 후에 권역별로 계열별로 조사해야할 표본학생수를 비례배분한 결과를 아래 <표 3>에 정리하였다.

부록표 3-3 권역별 계열별 할당된 표본학생수

권역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합계
서울	29	53	7	46	20	5	20	180
경인	14	48	7	56	16	10	29	180
충청	15	44	8	42	17	14	20	160
전라	9	28	8	30	14	18	13	120
경북	9	31	6	33	13	15	13	120
경남	13	37	6	45	15	12	12	140
강원	5	17	3	13	9	8	5	60
제주	4	12	3	6	7	5	3	40
합계	98	270	48	271	111	87	115	1000

4. 표본추출

대학교의 모집단과 할당된 표본학교는 <표 2>에 주어졌고 계열별 모집단과 표본구성은 <표 3>에 주어졌다. 표본조사 대상 대학교의 선정은 <표 2>에 권역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별의 층에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설립유형과 소재지(시도)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에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부록 4]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초등학생용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71

Gallup 2016-163-006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초등학생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역량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I'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학 교 코 드					
학 교 명					
학 교 소재지	① 서울 ⑦ 울산 ⑬ 전북	② 부산 ⑧ 세종 ⑭ 전남	③ 대구 ⑨ 경기 ⑮ 경북	④ 인천 ⑩ 강원 ⑯ 경남	⑤ 광주 ⑪ 충북 ⑰ 제주
설 립 유 형	① 공립 ② 사립				
학 년 / 반	()학년 ()반				
반 내 학 생 수	전 체	전체 ()명 남 ()명 여 ()명			
	조 사 원 료	전체 ()명 남 ()명 여 ()명			

발 주 기 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 사 기 관

 **Gallup KOREA**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맹진우 선임 연구원 || ☎ 02-3702-2156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그렇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①	②	③	④

☞ 나는 매우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기 때문에 ‘④’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①~~	②	③	④

문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목표와 자세한 내용이 잘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정확한 근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주장을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4. 같은 물건(품질)이라면, 나는 상표(브랜드)와 상관 없이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을 구입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보람 있다고 믿는 일을 할 때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문2. 각 문항마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양한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를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수학 공부에 대해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흥미와 호기심으로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과학 공부에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컴퓨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3.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를 스스로 잘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 새로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에도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떤 일을 성공하지 못 하였을 때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문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의 공부가 단순히 좋은 성적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성적을 위해 공부하기보다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즐겁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수업에 반드시 '100% 출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간단한 예습을 통해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수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관련 도서나 인터넷을 탐색한 후 마지막에 선생님께 여쭙어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그날 배운 내용은 반드시 그날 복습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공부를 하면서도 다음에 공부할 내용을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공부나 어떤 일을 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문5.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떤 문제든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중요하게 다룬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결과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없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로 해본다.	①	②	③	④

문6. 본인이 교과 또는 취미 및 특기 공부에 소요되는 하루 평균 시간(24시간 기준)을 작성해 주십시오.

문항	하루 평균 시간
1. 평일 학교 수업 후 교과(개인공부, 방과 후 활동(교과), 학원 및 과외, 시험준비, 예체능 포함) 공부 시간	_____시간
2. 평일 학교 수업 후 교과 이외 개인의 취미 또는 특기(체육, 음악, 미술 활동, 방과 후 활동(교과 이외) 등, 단 시험준비 예체능 제외)를 위한 공부 시간	_____시간
3. 주말 교과(개인공부, 학원 및 과외, 시험준비 예체능 포함) 공부 시간	_____시간
4. 주말 교과 이외 개인의 취미 또는 특기(체육, 음악, 미술 활동 등, 단 시험준비 예체능 제외)를 위한 공부 시간	_____시간

문7. 다음은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체험활동에 참여한 영역에 대한 경험여부와 활동 횟수를 작성해 주시고, 체험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체험활동 영역	활동경험 여부		지난 1년간 참여 활동 총 횟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건강해지기 위한 활동 (비만 및 질병관리 활동, 스포츠 활동, 게임스마트폰·음원·자살·스트레스 등 예방 및 치료활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활동 등)	① 있다	② 없다	☞ ()회	①	②	③	④
2. 과학정보를 탐구하는 활동 (로봇, 우주, 해양, 생물, 화학, 물리,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활동 등)	① 있다	② 없다	☞ ()회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한 활동 (국제교류, 남북청소년 교류, 국내 지역간 교류 활동 등)	① 있다	② 없다	☞ ()회	①	②	③	④
4. 도전과 모험을 위한 활동 (야영, 생태탐사, 산악, 래프팅 및 스카이라이프, 국토순례 등)	① 있다	② 없다	☞ ()회	①	②	③	④
5. 문화예술활동 (연극, 영화, 전통문화, 음악,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람, 다양한 축제참여 등)	① 있다	② 없다	☞ ()회	①	②	③	④
6. 자원봉사활동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도움활동, 재능나눔활동, 환경보호 및 캠페인 활동 등)	① 있다	② 없다	☞ ()회	①	②	③	④
7. 진로활동 (진로직업탐색, 진로적성검사, 직업체험 활동 등)	① 있다	② 없다	☞ ()회	①	②	③	④
8. 참여활동 (학생회, 동아리,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인권개선 활동 등)	① 있다	② 없다	☞ ()회	①	②	③	④

문8.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공한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생각하여 계획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학교에서의 공부와 여러 활동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지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한 활동은 꾸준히 실천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나의 진로를 알아가는 활동이 지루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지금까지 내가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 지 고민해 보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장래희망을 결정하기에 생각이 복잡하여 당분간 생각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문9. 지난 1년간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을 갖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진로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여부와 총 참여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작성해 주세요.

문항	활동경험여부		지난 1년간 참여 총 횟수
1. 진로 적성 검사	① 있다	② 없다	☞ ()회
2. 진로 상담	① 있다	② 없다	☞ ()회
3. 직업 체험 교육	① 있다	② 없다	☞ ()회
4. 직업(전공) 관련 견학	① 있다	② 없다	☞ ()회
5.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① 있다	② 없다	☞ ()회

문10. 본인은 장래에 반드시 하고 싶은 직업(전공)이 있습니까?

- ① 반드시 하고 싶은 직업(전공)이 있다
 ② 하고 싶은 직업(전공)이 여러 개가 있어 고민 중이다
 ③ 하고 싶은 직업(전공)을 찾는 중이다
 ④ 아직까지는 없다

문1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2.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4. 여가시간에 친구들과끼리 모여 스포츠활동을 할 때, 나는 내가 그 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특별히 여가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기술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들과끼리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8. 여가활동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집중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문12. 본인은 취미활동(여가활동)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활동합니까?

☞ 취미활동이란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으로 구분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문항	취미(여가)활동 여부		일주일 취미(여가)활동 횟수
취미활동(여가활동)	① 하고 있음	② 하지 않음	☞ _____회

문13.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독특하거나 창의적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 하는 것을 찾아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쉽게 찬성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새롭게 시작하거나 도중에 계속 바뀌는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별로 변화는 없지만 안정적인 환경은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1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문15.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모둠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 기준을 정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우리 모둠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먼저해야 할 것을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 모둠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여러 친구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간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모둠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잘 들어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활동을 하는 까닭을 이해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가 속한 모둠 활동을 끝내는 데 필요한 단계를 생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우리 모둠의 계획을 실천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생각하고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문16.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모둠 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모둠 활동을 할 때 쓰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모둠 활동을 할 때, 친구가 여러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모둠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 모둠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모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친구들과 내용을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모둠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모둠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문17. 다음 문항에서 ()의 대상(부모님, 선생님, 친구)에 따라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와 자주 놀러가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많다.	부모님	①	②	③	④
	선생님	①	②	③	④
	친구	①	②	③	④
2. 나는 ()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부모님	①	②	③	④
	선생님	①	②	③	④
	친구	①	②	③	④
3. 나는 ()와 비밀이나 나의 감정에 대해 얘기한다.	부모님	①	②	③	④
	선생님	①	②	③	④
	친구	①	②	③	④
4. ()는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 준다.	부모님	①	②	③	④
	선생님	①	②	③	④
	친구	①	②	③	④

문18.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에서의 특별한 행사(축제 등) 및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9. 다음은 본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명/횟수
1. 매우 친한 친구(학교친구, 동네친구, 선후배 등 포함)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_명
2. 그 친구(매우 친한 친구)와 함께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놀이를 합니까?	_____회
3. 나의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이성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를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_명
4. 나의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이성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를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_명
5. 나의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이성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를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_명

문20. 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식사 전,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옷을 1~2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①	②	③	④

문21. 어떤 일을 할 때에 본인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변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해 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일의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할 일에 넣는다	①	②	③	④

문22. 술, 담배, 금지된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에 있어 한 가지 이상 대해 본인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빠져 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3.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4.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6.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한다	①	②	③	④

문23. 인터넷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문2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참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갑자기 슬퍼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잘 이겨내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상해도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많은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문25. 최근 일주일 동안 본인은 아침식사를 얼마나 하는지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 ☐ 우유나 쥬스 등만 먹은 것은 식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빵, 전식, 미숫가루, 시리얼, 죽 등을 먹은 것은 식사에 포함됩니다.

- ①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다
 ② 아침을 가끔 먹는다(1~2일)
 ③ 아침을 먹으려고 노력한다(3~4일)
 ④ 아침을 최대한 먹으려고 노력한다(5~6일)
 ⑤ 아침을 매일 먹는다

문26. 최근 일주일 동안 본인은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하는지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 ① 하지 않음 ② 주 1일 ③ 주 2일 ④ 주 3일
 ⑤ 주 4일 ⑥ 주 5일 ⑦ 6일 ⑧ 매일(주7일)

문27. 최근 일주일 동안 본인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잠을 자는지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 ① 5시간 미만 ② 5~6시간 미만 ③ 6~7시간 미만 ④ 7~8시간 미만
 ⑤ 8~9시간 미만 ⑥ 9~10시간 미만 ⑦ 10시간 이상

문28.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내 주변 사람들은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나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목표를 세우고, 할일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5. 내 주변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목표를 세우고, 할 일을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내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나의 기분과 감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휴대전화(스마트폰)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휴대전화(스마트폰)가 없으면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스마트폰)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문29.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6.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①	②	③	④

문30. 본인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음	관심 있음	매우 관심 있음
1.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이슈	①	②	③	④
2.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이슈	①	②	③	④
3. 환경 관련 이슈	①	②	③	④

문3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남들이 귀기울일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32. 본인은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항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투표참여	①	②	③	④
2.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①	②	③	④

문33. 본인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다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①	②	③	④
2.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①	②	③	④
3. 인권증진운동	①	②	③	④
4. 환경보호운동	①	②	③	④

문34.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본인은 참여하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항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이나 뱃지 달기	①	②	③	④
2. 비폭력 집회 참여	①	②	③	④
3. 진정서에 서명하기	①	②	③	④
4. 상품 불매 운동하기	①	②	③	④
5. 벽에 항의 표어/스프레이/페인팅 하기	①	②	③	④

문35. 본인은 다음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문항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신뢰함	매우 신뢰함
1. 정부	①	②	③	④
2.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①	②	③	④
3. 국회	①	②	③	④
4.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	①	②	③	④

문36.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문항	전혀 일어나지 않음	거의 일어나지 않음	가끔 일어남	자주 일어남
1.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①	②	③	④

문37.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다	①	②	③	④

문38. 본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절대로 안된다	아주 약간만	어느 정도	가능한 많이
1.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	①	②	③	④
2.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	①	②	③	④
3. 빈곤국가(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①	②	③	④

문39.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는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한다	①	②	③	④
2. 안전 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예: 간첩 등)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국가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①	②	③	④

문40. 본인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음	관심 있음	매우 관심 있음
1.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회적 문제	①	②	③	④
2.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	①	②	③	④

문4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외국인과 잘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에 적합한 매너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배경문항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배경문항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① (외) 할아버지

② (외)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⑩ 없음

배경문항 4. 본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들(부모님, 형제자매)과 책을 읽고 대화한 경험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2. 아버지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어머니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5.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학원선정이나 학습 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7. 아버지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신다	①	②	③	④
8. 어머니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신다	①	②	③	④

배경문항 5. 본인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업성적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배경문항 6. 본인의 2016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 점수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2016년 1학기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2015년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응답해 주십시오.

60점 이하	61~65점	66~70점	71~75점	76~80점	81~85점	86~90점	91~95점	96~10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배경문항 7. 본인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은 수준			보통 수준			높은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경문항 8. 부모님(보호자)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보호자)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보호자는 부모님 이외 현재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보호자) 안 계심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보호자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부록 5]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중고등학생용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72

Gallup 2016-163-006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중·고등학생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개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역량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I'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학 교 코 드					
학 교 명					
학 교 소재지	① 서울 ⑦ 울산 ⑬ 전북	② 부산 ⑧ 세종 ⑭ 전남	③ 대구 ⑨ 경기 ⑮ 경북	④ 인천 ⑩ 강원 ⑯ 경남	⑤ 광주 ⑪ 충북 ⑰ 제주
설 립 유 형	① 국립 ② 공립 ③ 사립				
고등학교 구분 * 고등학교만 기입	① 일반 ② 자율 ③ 특성화 ④ 특수목적				
학 교 유 형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 공학				
학 년 / 반	()학년 ()반				
반 유 형	① 남학생 반 ② 여학생 반 ③ 남녀 합반				
반 내 학생 수	전 체	전체 ()명 남 ()명 여 ()명			
	조사 완료	전체 ()명 남 ()명 여 ()명			

발 주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 사 기 관

 Gallup KOREA

■ 조사 관련 문의처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맹진우 선임 연구원 || ☎ 02-3702-2156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그렇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①	②	③	④

☞ 나는 매우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기 때문에 '④'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①~~	②	③	④

문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세부사항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주장을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4. 같은 물건(품질)이라면, 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지적장애인이 만든 상품을 사겠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논리적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문2. 각 문항마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양한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를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수학 공부에 대해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흥미와 호기심으로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과학 공부에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컴퓨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3.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 새로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에도 그 성공요인을 찾아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실패했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문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의 공부가 단순히 좋은 성적만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미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성적을 위해 공부하기보다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즐겁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수업에 반드시 '100% 출석'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간단한 예습으로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수업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관련 도서나 인터넷을 탐색한 후 마지막에 선생님께 여쭙어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그날 배운 내용은 반드시 그날 복습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공부를 하면서도 다음으로 진행해야 할 단계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공부나 어떤 일을 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문5.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모습과 현재 모습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떤 문제든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를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편편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중요하게 다룬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결과가 어떠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로 해본다.	①	②	③	④

문6. 본인이 교과 또는 취미 및 특기 공부에 소요되는 하루 평균 시간(24시간 기준)을 작성해 주십시오.

문항	하루 평균 시간
1. 평일 학교 수업 후 교과(개인공부, 방과 후 활동(교과), 학원 및 과외, 입시준비 예체능 포함) 공부 시간	_____시간
2. 평일 학교 수업 후 교과 이외 개인의 취미 또는 특기(체육, 음악, 미술 활동, 방과 후 활동(교과 이외) 등, 단 입시준비 예체능 제외)를 위한 공부 시간	_____시간
3. 주말 교과(개인공부, 학원 및 과외, 입시준비 예체능 포함) 공부 시간	_____시간
4. 주말 교과 이외 개인의 취미 또는 특기(체육, 음악, 미술 활동 등, 단 입시준비 예체능 제외)를 위한 공부 시간	_____시간

문7. 다음은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체험활동에 참여한 영역에 대한 경험여부와 활동 횟수를 작성해 주시고, 체험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체험활동 영역	활동경험 여부		지난 1년간 참여 활동 총 횟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건강증진활동 (비만 및 질병관리 활동, 스포츠 활동, 게임·스마트폰·휴먼자살· 스트레스 등 예방 및 치료활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활동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2. 과학정보활동 (로봇, 우주, 해양, 생물, 화학, 물리,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활동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3. 교류활동 (국제교류, 남북청소년 교류, 국내 지역간 교류 활동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4. 모험탐사활동 (야영, 생태탐사, 산악, 래프팅 및 스카우터, 국토순례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5. 문화예술활동 (연극, 영화, 전통문화, 음악,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람, 다양한 축제참여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6. 자원봉사활동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도움활동, 재능나눔활동, 환경보호 및 캠페인 활동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7. 진로활동 (진로직업탐색, 진로적성검사, 직업체험 활동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8. 참여활동 (학생회, 동아리,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인권개선 활동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문8.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공한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0.나는 진로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11.나는 나의 목표실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본다.	①	②	③	④
12.나는 학교 공부를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3.나는 나의 진로를 알아가는 활동이 지루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14.나는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들을 할 때에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5.나는 지금까지 진로선택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6.나는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불확실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당분간 미루고 싶다.	①	②	③	④
17.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문9. 지난 1년간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을 갖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진로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여부와 총 참여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작성해 주세요.

문항	활동경험여부		지난 1년간 참여 총 횟수
1. 진로 적성 검사	① 있다	② 없다	☞ ()회
2. 진로 상담	① 있다	② 없다	☞ ()회
3. 직업 체험 교육	② 없다	② 없다	☞ ()회
4. 직업(전공) 관련 견학	① 있다	② 없다	☞ ()회
5.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① 있다	② 없다	☞ ()회

문10. 본인은 장래에 반드시 하고 싶은 직업(전공)이 있습니까?

- ① 반드시 하고 싶은 직업(전공)이 있다
- ② 하고 싶은 직업(전공)이 여러 개가 있어 고민 중이다
- ③ 하고 싶은 직업(전공)을 찾는 중이다
- ④ 아직까지는 없다

문1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2.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4. 여가시간에 친구들끼리 모여 스포츠활동을 할 때, 나는 내가 그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특별히 여가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기술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들끼리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8. 여가활동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몰입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문12. 본인은 취미활동(여가활동)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활동합니까?

 취미활동이란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으로 구분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문항	취미(여가)활동 여부		일주일 취미(여가)활동 횟수
취미활동(여가활동)	① 하고 있음	② 하지 않음	 _____ 회

문13.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독특하다는 소릴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2. 같은 사물, 현상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바라볼 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계속해서 변화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인 환경은 지루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1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직접 소개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문15.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간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추진한다	①	②	③	④

문16.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문17. 다음 문항에서 ()의 대상(부모님, 선생님, 친구)에 따라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와 자주 놀러가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많다.	부모님	①	②	③	④
	선생님	①	②	③	④
	친구	①	②	③	④
2. 나는 ()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부모님	①	②	③	④
	선생님	①	②	③	④
	친구	①	②	③	④
3. 나는 ()와 비밀이나 나의 감정에 대해 얘기한다.	부모님	①	②	③	④
	선생님	①	②	③	④
	친구	①	②	③	④
4. ()는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 준다.	부모님	①	②	③	④
	선생님	①	②	③	④
	친구	①	②	③	④

문18.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에서의 특별한 행사(축제 등) 및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9. 다음은 본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명/횟수
1. 매우 친한 친구(학교친구, 동네친구, 선후배 등 포함)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_명
2. 그 친구(매우 친한 친구)와 함께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놀이를 합니까?	_____회
3. 나의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이성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를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_명
4. 나의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이성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를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_명
5. 나의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이성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를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주변 어른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_명

문20. 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식사 전,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옷을 1~2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①	②	③	④

문21. 어떤 일을 할 때에 본인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참고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필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는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해 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일의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문22. 술, 담배, 금지된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에 있어 한 가지 이상 대해 본인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중독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3.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4.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6.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한다	①	②	③	④

문23. 인터넷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문2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잘 이겨내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상해도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문25. 최근 일주일 동안 본인은 아침식사를 얼마나 하는지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 ☐ 우유나 쥬스 등만 먹은 것은 식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빵, 전식, 미숫가루, 시리얼, 죽 등을 먹은 것은 식사에 포함됩니다.

- ①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다
 ② 아침을 가끔 먹는다(1~2일)
 ③ 아침을 먹으려고 노력한다(3~4일)
 ④ 아침을 최대한 먹으려고 노력한다(5~6일)
 ⑤ 아침을 매일 먹는다

문26. 최근 일주일 동안 본인은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하는지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 ① 하지 않음 ② 주 1일 ③ 주 2일 ④ 주 3일
 ⑤ 주 4일 ⑥ 주 5일 ⑦ 6일 ⑧ 매일(주7일)

문27. 최근 일주일 동안 본인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잠을 자는지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 ① 5시간 미만 ② 5~6시간 미만 ③ 6~7시간 미만 ④ 7~8시간 미만
 ⑤ 8~9시간 미만 ⑥ 9~10시간 미만 ⑦ 10시간 이상

문28.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내 주변 사람들은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나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목표를 세우고, 할일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5. 내 주변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목표를 세우고, 할일을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내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나의 기분과 감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휴대전화(스마트폰)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휴대전화(스마트폰)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스마트폰)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문29.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6.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①	②	③	④

문30. 본인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음	관심 있음	매우 관심 있음
1.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이슈	①	②	③	④
2.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이슈	①	②	③	④
3. 환경 관련 이슈	①	②	③	④

문3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남들이 귀기울일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32. 본인은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항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투표참여	①	②	③	④
2.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①	②	③	④

문33. 본인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다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불공정한 법에 대한 평화적 항의	①	②	③	④
2.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①	②	③	④
3. 인권증진운동	①	②	③	④
4. 환경보호운동	①	②	③	④

문34.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본인은 참여하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항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이나 뱃지 달기	①	②	③	④
2. 비폭력 집회 참여	①	②	③	④
3. 진정서에 서명하기	①	②	③	④
4. 상품 불매 운동하기	①	②	③	④
5. 벽에 항의 표어/스프레이/페인팅하기	①	②	③	④

문35. 본인은 다음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문항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신뢰함	매우 신뢰함
1. 정부	①	②	③	④
2.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①	②	③	④
3. 국회	①	②	③	④
4.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	①	②	③	④

문36.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문항	전혀 일어나지 않음	거의 일어나지 않음	가끔 일어남	자주 일어남
1.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급차원에서 토론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급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들이 학급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①	②	③	④

문37.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다	①	②	③	④

문38. 본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절대로 안된다	아주 약간만	어느 정도	가능한 많이
1.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	①	②	③	④
2.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	①	②	③	④
3. 빈곤국가(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①	②	③	④

문39.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는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한다	①	②	③	④
2. 안전 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예: 간첩 등)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국가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①	②	③	④

문40. 본인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음	관심 있음	매우 관심 있음
1.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회적 문제	①	②	③	④
2.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	①	②	③	④

문4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외국인과 잘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에 적합한 매너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배경문항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배경문항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① (외) 할아버지

② (외)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⑩ 없음

배경문항 4. 본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들(부모님, 형제자매)과 책을 읽고 대화한 경험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2. 아버지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어머니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5.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학원선정이나 학습 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7. 아버지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신다	①	②	③	④
8. 어머니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신다	①	②	③	④

배경문항 5. 본인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업성적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배경문항 6. 본인의 2016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 점수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2016년 1학기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2015년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응답해 주십시오.

60점 이하	61~65점	66~70점	71~75점	76~80점	81~85점	86~90점	91~95점	96~10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배경문항 7. 본인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은 수준			보통 수준			높은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경문항 8. 부모님(보호자)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보호자)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보호자는 부모님 이외 현재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보호자) 안 계심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보호자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부록 6]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설문문항-대학생용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73

Gallup 2016-163-006

청소년 역량 측정 조사(대학생용)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역량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I’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조사내용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학 교 코 드						
학 교 명						
학 교 소재지	① 서울 ⑦ 울산 ⑬ 전북	② 부산 ⑧ 세종 ⑭ 전남	③ 대구 ⑨ 경기 ⑮ 경북	④ 인천 ⑩ 강원 ⑯ 경남	⑤ 광주 ⑪ 충북 ⑰ 제주	⑥ 대전 ⑫ 충남
설 립 유 형	① 국립 ② 공립 ③ 사립					
학 제 구 분	① 2년제 ② 3년제 ③ 4년제					
학 년 구 분	()학년					
계 열 구 분	① 인문 ⑤ 자연	② 사회 ⑥ 의학	③ 교육 ⑦ 예체능	④ 공학		

발 주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

조 사 기 관

 **Gallup KOREA**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맹진우 선임 연구원 || ☎ 02-3702-2156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에게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그렇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①	②	③	④

☞ 나는 매우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기 때문에 ‘④’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①~~	②	③	④

문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세부사항과 최종 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주장을 판단할 때 다양한 방향(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4. 같은 물건(품질)이라면, 나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지적장애인인 만든 상품을 사겠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논리적 판단보다는 감정과 느낌에 따라 판단한다	①	②	③	④

문2. 각 문항마다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글의 중심내용을 찾아 글쓴이의 의도나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양한 언어(한국어 및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를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신문, 잡지, 또는 인터넷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수학 공부에 대해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흥미와 호기심으로 자연이나 과학적 현상에 대한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과학 공부에 흥미가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컴퓨터나 인터넷상의 다양한 학습자료(인터넷 강의, 유튜브·TED 동영상, 웹문서 등)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포토샵, 그림판 등을 이용해 문서, 그림, 동영상 등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SNS(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3.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습할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2. 새로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이후에도 그 성공요인을 찾아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실패했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문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의 공부보다 단순히 좋은 성적만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미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성적을 위해 공부하기보다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즐겁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강의에 반드시 '100% 출석'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간단한 예습으로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강의 내용 중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관련 도서나 인터넷을 탐색한 후 마지막에 교수님께 여쭙어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그날 배운 내용은 반드시 그날 복습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공부를 하면서도 다음으로 진행해야 할 단계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공부나 어떤 일을 할 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문5.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모습과 현재 모습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떤 문제든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를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중요하게 다룬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결과가 어떠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로 해본다.	①	②	③	④

문6. 본인이 교과 또는 취미 및 특기 공부에 소요되는 하루 평균 시간(24시간 기준)을 작성해 주십시오.

문항	하루 평균 시간
1. 평일 대학 및 학과 전공 교과 관련 공부 시간	_____시간
2. 평일 대학 및 학과 전공 교과 관련 이외 개인의 취미(스포츠, 음악, 미술, 봉사 활동 등)를 위한 공부 시간	_____시간
3. 평일 대학 및 학과 전공 교과/개인취미 관련 이외 개인의 특기(영어 및 언어공부, 각종 자격증 공부, 인턴활동 등)를 위한 공부 시간	_____시간
4. 주말 대학 및 학과 전공 교과 관련 공부 시간	_____시간

문7. 다음은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체험활동에 참여한 영역에 대한 경험여부와 활동 횟수를 작성해 주시고, 체험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체험활동 영역	활동경험 여부		지난 1년간 참여 활동 총 횟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건강증진활동 (비만 및 질병관리 활동, 스포츠 활동, 게임·스마트폰·음연·자살·스트레스 등 예방 및 치료활동,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활동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2. 과학정보활동 (로봇, 우주, 해양, 생물, 화학, 물리,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활동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3. 교류활동 (국제교류, 남북청소년 교류, 국내 지역간 교류 활동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4. 모험탐사활동 (야영, 생태탐사, 산악, 래프팅 및 스카이라이프, 국토순례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5. 문화예술활동 (연극, 영화, 전통문화, 음악,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람, 다양한 축제참여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6. 자원봉사활동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도움활동, 개농나눔활동, 환경보호 및 캠페인 활동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7. 진로활동 (진로직업탐색, 진로적성검사, 직업체험 활동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8. 참여활동 (학생회, 동아리,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인권개선 활동 등)	☐ ① 있다	☐ ② 없다	☞ ()회	☐ ①	☐ ②	☐ ③	☐ ④

문8.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성공한 삶을 소개한 책을 읽어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벗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진로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나의 목표실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본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학교 공부를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나의 진로를 알아가는 활동이 지루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들을 할 때에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지금까지 진로선택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 불확실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당분간 미루고 싶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문9. 지난 1년간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을 갖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진로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여부와 총 참여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작성해 주세요.

문항	활동경험여부		지난 1년간 참여 총 횟수
1. 진로 적성 검사	① 있다	② 없다	☞ ()회
2. 진로 상담	① 있다	② 없다	☞ ()회
3. 직업 체험 교육	① 있다	② 없다	☞ ()회
4. 직업(전공) 관련 견학	① 있다	② 없다	☞ ()회
5.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① 있다	② 없다	☞ ()회

문10. 본인은 장래에 반드시 하고 싶은 직업(전공)이 있습니까?

- ① 반드시 하고 싶은 직업(전공)이 있다
- ② 하고 싶은 직업(전공)이 여러 개가 있어 고민 중이다
- ③ 하고 싶은 직업(전공)을 찾는 중이다
- ④ 아직까지는 없다

문1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여가(취미)활동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2. 여가(취미)활동은 내게 즐거운 경험들을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가(취미)활동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4. 여가시간에 친구들과끼리 모여 스포츠활동을 할 때, 나는 내가 그 무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특별히 여가시간에 즐겨 할 만한 운동기술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들과끼리 스포츠경기를 하게 되면 나는 보통 이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8. 여가활동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상당히 몰입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문12. 본인은 취미활동(여가활동)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활동합니까?

 취미활동이란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으로 구분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문항	취미(여가)활동 여부		일주일 취미(여가)활동 횟수
취미활동(여가활동)	① 하고 있음	② 하지 않음	 _____ 회

문13.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독특하다는 소릴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2. 같은 사물, 현상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바라볼 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계속적으로 변하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인 환경은 지루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1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고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친한 친구에게 내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직접 소개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살피며 듣는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문15.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기준을 정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지 비교해 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모임 또는 활동을 할 때, 주로 이끌어 나간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동목표를 제시하고 친구들을 이끌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목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계획을 실행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간다	①	②	③	④
9.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의 능력과 의지를 생각하며 일을 추진한다	①	②	③	④

문16.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문17. 다음 문항에서 ()의 대상(부모님, 선생님, 친구)에 따라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와 자주 놀러가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많다.	부모님	①	②	③	④
	교수/전문가	①	②	③	④
	친구/선후배	①	②	③	④
2. 나는 ()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부모님	①	②	③	④
	교수/전문가	①	②	③	④
	친구/선후배	①	②	③	④
3. 나는 ()와 비밀이나 나의 감정에 대해 얘기한다.	부모님	①	②	③	④
	교수/전문가	①	②	③	④
	친구/선후배	①	②	③	④
4. ()는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 준다.	부모님	①	②	③	④
	교수/전문가	①	②	③	④
	친구/선후배	①	②	③	④

문18.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노력하는 만큼 학점이 나온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에서의 특별한 행사(축제 등) 및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9. 다음은 본인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명/횟수
1. 매우 친한 친구/선후배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_명
2. 그 친구들(매우 친한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평균 몇 회 놀이 모임을 합니까?	_____회
3. 나의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이성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를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선후배들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_명
4. 나의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이성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를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교수님들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_명
5. 나의 심각한 고민이나 문제(이성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를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주변 어른들(부모님 포함)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_____명

문20. 본인의 건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태도와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식사 전, 외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비누로 손을 씻는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옷을 1~2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갈아입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건강을 위해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을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규칙적으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거나 걷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이나 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이나 공부를 하는 중간 중간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①	②	③	④

문21. 어떤 일을 할 때에 본인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변의 다양한 정보를 참고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필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나의 일을 하는 중간 중간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점검해 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내가 세운 계획에 맞게 일을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후 그 일의 결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할 일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문22. 술, 담배, 금지된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에 있어 한 가지 이상 대해 본인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중독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3.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4.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 내 생활(일, 공부, 수면 등)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6. 술, 담배, 약물, 미디어(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한다	①	②	③	④

문23. 인터넷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단지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인터넷에 악플을 달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에게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피해를 볼까봐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모른 척 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누군가 나(또는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참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문24.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지나친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갑자기 슬프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잘 이겨내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기분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상해도 내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문25. 최근 일주일 동안 본인은 아침식사를 얼마나 하는지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 우유나 주스 등만 먹은 것은 식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빵, 전식, 미숫가루, 시리얼, 죽 등을 먹은 것은 식사에 포함됩니다.

①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다	④ 아침을 최대한 먹으려고 노력한다(5~6일)
② 아침을 가끔 먹는다(1~2일)	⑤ 아침을 매일 먹는다
③ 아침을 먹으려고 노력한다(3~4일)	

문26. 최근 일주일 동안 본인은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신체활동)을 30분 이상 하는지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① 하지 않음	② 주 1일	③ 주 2일	④ 주 3일
⑤ 주 4일	⑥ 주 5일	⑦ 6일	⑧ 매일(주7일)

문27. 최근 일주일 동안 본인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잠을 자는지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① 5시간 미만	② 5~6시간 미만	③ 6~7시간 미만	④ 7~8시간 미만
⑤ 8~9시간 미만	⑥ 9~10시간 미만	⑦ 10시간 이상	

문28.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내 주변 사람들은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나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목표를 세우고, 할일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5. 내 주변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목표를 세우고, 할일을 계획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내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나의 기분과 감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휴대전화(스마트폰)로 한참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휴대전화(스마트폰)가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스마트폰)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문29.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법이 불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 두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6.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었지 민주주의를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①	②	③	④

문30. 본인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음	관심 있음	매우 관심 있음
1. 우리나라에서의 정치적 이슈	①	②	③	④
2.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이슈	①	②	③	④
3. 환경 관련 이슈	①	②	③	④

문3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오래 친구들에 비해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정치적 이슈 및 문제를 토론할 때, 나는 항상 토론에 참여 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남들이 귀기울일만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32. 본인은 아래에 제시된 정치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항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투표참여	①	②	③	④
2. 투표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정보 수집	①	②	③	④

문33. 본인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다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불공정한 법에 대항한 평화적 항의	①	②	③	④
2. 지역공동체에 유익한 활동	①	②	③	④
3. 인권증진운동	①	②	③	④
4. 환경보호운동	①	②	③	④

문34.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정치적 반대 의견 항목에 대해 본인은 참여하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항	확실히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이나 배지 달기	①	②	③	④
2. 비폭력 집회 참여	①	②	③	④
3. 진정서에 서명하기	①	②	③	④
4. 상품 불매 운동하기	①	②	③	④
5. 벽에 항의 표어/스프레이/페인팅하기	①	②	③	④

문35. 본인은 다음의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문항	전혀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신뢰함	매우 신뢰함
1. 정부	①	②	③	④
2.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①	②	③	④
3. 국회	①	②	③	④
4. 미디어(TV, 언론사, 라디오)	①	②	③	④

문36. 수업시간에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토론할 때, 다음에 제시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문항	전혀 일어나지 않음	거의 일어나지 않음	가끔 일어남	자주 일어남
1.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 학생들은 현재의 정치적 사건을 학과 차원에서 토론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학생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학과에서 자기의견을 표명한다	①	②	③	④
4.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이슈를 토론하도록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5. 교수님들이 학과에서 이슈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준다	①	②	③	④

문37.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의 생계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여성의 우선적 책무는 아이를 보육하는데 있다	①	②	③	④

문38. 본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것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절대로 안된다	아주 약간만	어느 정도	가능한 많이
1.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 후손들(예: 고려인, 조선족 등)	①	②	③	④
2.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이나 소수민족	①	②	③	④
3. 빈곤국가(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①	②	③	④

문39.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는 되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야한다	①	②	③	④
2. 안전 요원은 국가 안전을 위협할 용의자(예: 간첩 등)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체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국가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정부는 언론 출판을 통제할 권력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만하다	①	②	③	④

문40. 본인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음	관심 있음	매우 관심 있음
1. 다른 나라들의 정치·사회적 문제	①	②	③	④
2.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	①	②	③	④

문41.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외국인과 잘 지내는 데 큰 문제가 없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외국을 방문할 때 그 나라에 적합한 매너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배경문항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배경문항 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를 해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예)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⑩ 없음

배경문항 4. 본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일치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들(부모님, 형제자매)과 책을 읽고 대화한 경험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2. 아버지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어머니는 내게 지적자극을 많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5.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학원선정이나 학습 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7. 아버지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신다	①	②	③	④
8. 어머니는 나의 공부 및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신다	①	②	③	④

배경문항 5. 본인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업성적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배경문항 6. 1학년에서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취득 평균학점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니까?

① 3.0미만 ② 3.0이상 - 3.5미만 ③ 3.5이상-4.0미만 ④ 4.0이상

배경문항 7. 본인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은 수준			보통 수준			높은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경문항 8. 부모님(보호자)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보호자)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보호자는 부모님 이외 현재 여러분을 보살피 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보호자)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보호자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Abstract

A Study on Measurement of Korean Youth Competency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II: ICCS 2016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revalidate measurement tools and to assess for Korean Youth Competency(KYC). To address those goal,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has established a five year policy research project from 2014 to 2017 that was titled 'Measuring Youth Competency Index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 IEA ICCS 2016.' This is 3th research project, 11,319 Korean youth who were elementary school (4-6 grade), middle school (1-3 grade), high school (1-3 grade), and university students in nationwide 17 cities and provinces participated in the 2016 national wide research survey. A measuring tools, which were simply reconstructed of 160 items based on Korean youth competency index(24 life learning competency questions, 35 life management competency questions, 25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questions, 29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questions, 47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questions and 8 demographic questions,) were applied this survey. As a result, the simple measurement tools for KCY were found out exhibit a good model fit as considering fit index like χ^2 , CFI(comparative fit index, >.90), NFI(normed fit index, >.90), IFI(incremental fit index, >.90),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0). Also, total score of Korean youth competency was 2.96 points (74%) in 4 points(100%); Life Long Management Competency(2.89, 72%), Life Management Competency (3.08, 77%)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y (3.00, 75%), and Social Participation Competency (2.70, 67.50%). In the changes of youth competency score as youth growth period, The Korean youth competency was decreasing form a stage of elementary school to a stage of university. competenc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highest

score, but competency on university students were lowest score. Especially, There was interactive significant effect between youth growth period and gender. In the stage of elementary school, female youth competency was more higher than male youth. However in the stage of university, male youth competency was more higher than female youth significantly. Based on the results, some Korean youth policies were suggested to increase their competencies.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Ⅶ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Ⅶ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Ⅶ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신현옥 · 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Ⅲ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재중 · 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Ⅶ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 16-R17-2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 · 이장주 · 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 · 중 · 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 · 박인영 · 이호경 · 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Ⅰ / 김현철 · 백혜정 · 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 · 최정원 · 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 · 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종 · 정은진 · 정건희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 · 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 · 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 · 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 · 정은진 · 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 정은진 · 김기현

수 탁 과 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 · 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 · 유한구 · 채창균 · 오승근 · 김윤나 · 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II / 성윤숙 · 김경준 · 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 · 황여정 · 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모상현 · 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 ·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 · 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 · 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 · 오해섭 · 윤철경 · 김경준 · 최용환 · 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윤주 · 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 · 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 · 모상현 · 유성렬 · 김진석 · 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 · 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 · 김지경 · 이윤주 · 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 · 박선영 · 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 · 성은모 · 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장근영 · 김지경 · 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 · 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연구보고 16-R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참기획 전화 042)861-638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13-3 94330

979-11-5654-105-9 (세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4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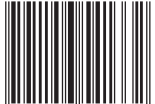
연구보고 16-R18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4330
9 791156 541332
ISBN 979-11-5654-133-2
ISBN 979-11-5654-105-9 (세트)